현대불교 안전하고 편리한 구독신청
전화 한통화로 해결하십시오
● 구독료 전화요금합산 납부 · 자동이체 신청 ●
직통 (02)737-0090 대표 737-8881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구독신청 02)737-0090 · 대표 02) 737-8881 The Hyundae Bulkyo 불기 2548년 (서기 2004년) 8월 25일(음력7월 10일) 수요일 (주간) 제488호

고객의 행복한 여행을 추구하는 여행사

제주도 · 중국전문 성지순례 여행사
(주)행복만선
Tel. 02)720-8489

서울 · 충청 지역

국보급 석조문화재

이끼 끼고 금 가고 기우뚱

문화재보존과학회, 23점 '위험 판정'
당국, 예산부족으로 정밀진단조차 못해

서울과 충남 · 북 석조문화재의 상당수가 자연적 요인으로 훼손돼 포괄적인 보존대책 마련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한국문화재보존과학회(회장 김은영)가 국립문화재연구소(소장 김봉건)의 용역을 받아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시행한 서울과 충 · 남북 석조문화재 111건의 보존 실태 조사에 대한 보고서 '석조문화재 보존관리 연구'를 통해 밝혀졌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서산 마애삼존불, 관촉사 석등, 정림사지 5층 석탑 등 23건이 풍화상태, 생물(이끼류 등)분포, 또는 구조안정성에서 위험수준의 판정을 받아 보존을 위한 조치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보 제84호 서산 마애삼존불은 암벽 균열에 의한 붕괴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서는 밝히고 있다.

8월 16일에 찾은 서산 마애삼존불은 본존불 머리상과 광배 사이에 ∩자형의 균열이 나 있었고, 본존불과 오른쪽(보는 이 기준) 반가사유상의 광배 오른편에서도 가로방향의 균열을 육안으로 쉽게 발견할 수 있었다. 우측 하단부에는 크고 작은 균열이 보였다. 목격자에 의하면 비가 많이 올 때는 이 틈으로 물이 콸콸 흘러나오기도 했다고 한다.

또한 본존불과 왼쪽 보살입상의 광배 위쪽으로부터 아래 방향으로 보이는 백화현상으로 보살입상의 얼굴 부분이 거의 허옇게 변했을 정도였다. 백화현상은 마애삼존불을 보호할 목적으로 1962년 보호각을 건립하면서 사용한 콘크리트 또는 석재가 함유한 칼슘 등의 성분이 빗물과 화학반응을 일으켜 나타난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더욱 위험한 것은 보호각 위편 암석들의 균열이었다. 조사에 참여했던 이찬희 공주대 교수는 "상단부 균열에 움직임의 흔적이 있다"며 "센서를 부착해 상시 모니터링을 해서 데이터를 축적해 이상 징후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못지않게 구조상 문제가 심각한 석조문화재는 보물 제232호 관촉사 석등이다. 기울어짐이 확연해, 균형을 잡고 서 있는 것이 신기할 정도였다. 이 석등은 화사대와 옥개석을 연결하는 네 개의 돌기둥(화사석) 중 일부가 기울어져, 화사대와 옥개석이 평행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고, 아래쪽의 원주형 간석도 기울어져 전체적으로 석등이 S자 모양을 띠고 있었다. 다행히도 문화재청과 논산시는 이 석등의 보수공사를 위한 예산을 편성하고, 현재 안전진단 중이다. 논산시 관계자는 "안전진단을 통해 변형의 원인을 파악한 후, 해체 범위와 방식을 결정하고 연말 이후에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 석등의 뒤편에 있는, 은진 미륵으로 잘 알려진 보물 제218호 미륵보살입상의 앞뒷면에는 수직방향으로 균열이 길게 나 있었으며, 측면의 시멘트로 때운 아래쪽에 백화현상도 나타나고 있었다. 특히 균열부로는 물이 스며 나온 흔적이 있어서 미륵보살입상 내부에도 균열이 있어 물이 지나는 통로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논산시는 이 미륵보살입상 정밀실측을 위해 문화재청에 사업비를 신청해놓은 상태다.

이와 같이 훼손 상태가 심각한 석조 문화재에 대해 문화재청 관계자는 "전문가들이 필요한 보존조치가 무엇인지 확정하면, 시 · 군에 통보해 예산신청 하게 해서 2005년 예산에 우선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하지만 오래된 석조문화재들이 기상 · 지질 · 생물학적 요인에 노출돼 있는 한 더욱 훼손되고 악화될 것이 뻔한 상황이고 보면, 장기적이고 포괄적인 대책 마련을 통해 철저한 과학 · 기술적 조치와 행정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충분한 예산확보가 관건임은 말할 것도 없다. 김수진 전 서울대 교수는 "4년째 진행된 석조지정문화재 조사를 통해 훼손상태가 많이 밝혀졌지만, 정작 그에 대한 정밀진단은 뒤따르지 못하는 실정이다"며 "관련 예산 확보가 선행되지 않고는 제대로 된 문화재 보존 · 관리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글=박익순 기자 · 사진=고영배 기자







백화현상으로 얼룩진 서산 마애삼존불의 왼쪽 보살 입상은 얼굴 부분이 허옇게 변했다.

옥개부가 이끼류의 서식처가 되고 검게 변해버린 국보 정림사지5층석탑(위)과 관촉사 은진미륵 손부분에 나타난 균열과 백화현상.



S자형으로 기울어진 관촉사 석등(보물 232호)은 곧 쓰러질 것 같이 위태로워 보인다.

정부 · 고속철공단 자성촉구

지율 스님 단식 중단 당부

조계종은 8월 20일 대변인 여연스님(총무원 기획실장) 명의의 성명서를 통해 "정부 당국과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이 수행자가 생사의 갈림길을 오가는 위급한 상황을 방치하고 있다"며 "경제적 이익에만 눈먼 공단의 자성"을 요구했다. 또 지율스님에 대해서는 "단식과 같은 극단적인 방법을 지양해 줄 것"을 당부했다. 관련기사 3면 조용수 기자

100년 안목으로 '영축도량' 가꾼다

통도사, '불사 마스터플랜' 전문가에 의뢰

100년 후 영축총림 통도사와 산내 암자들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

이 궁금증은 현재 통도사(주지 현문)가 각 분야 전문가 10명에게 의뢰 작성중인 '통도사 불사 마스터플랜'이 완성되면 어느 정도 풀리게 된다.

통도사는 향후 100년을 내다보는 통도사 장기 불사의 큰 틀을 짜기 위해 2년 계획으로 불사 마스터플랜 작성에 들어갔다. 지난 3월 임회에 상정, 대중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통과된 마스터플랜 작성을 위해 연구팀은 연구용역을 위한 기초 조사를 마치고 8월부터 본격적인 연구 작업에 들어갔다.

이 같은 통도사의 불사 계획 수립은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된 불사로 야기되는 환경파괴나 조화롭지 못한 가람배치 등의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사찰 불사의 일관성과 지속성을 유지하는 획기적인 방안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주지의 성향에 따른 불사, 암자별로 무분별하게 진행되는 불사, 기능에 맞지 않게 진행되는 불사 등 비계획적인 불사의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본사와 암자의 기능을 전체적으로 고려한 불사를 가능하게 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학동 강원대 부동산학과 교수를 책임자로 구성된 장기 불사 마스터플랜 연구팀은 통도사의 입지형국, 지리적 특성 등을 고려한 친환경적 불사 진행, 미래 사찰 공간의 개념 변화에 따른 공간 통합을 위한 네트워크 마련 등을 포함한 장기 불사 청사진 만들기에 착수했다.

'통도사 불사 마스터플랜'에는 그동안 진행된 통도사 불사의 문제점과 개선점, 통도사 장기발전계획은 물론 불사 계획 지역 분석, 통도사 이용인구 및 이용 행태 분석, 본사와 암자의 기능성 고려 등 자연환경과 사회문화적 측면을 총망라한 불사 계획이 포함된다.

또한 영축산 전역을 대상으로 한 물리적 환경 분석과 각 암자별 불사까지 꼼꼼하게 살피게 되며, 향후 통도사가 새롭게 도입해야 할 도량 기능으로 불교영재학교를 제안하고, 새로운 포교시스템 구축을 위한 본사 말사, 암자간의 조화로운 협조 방안도 수립하게 된다. 불사계획은 수행, 포교, 도제 양성 기능까지도 적절히 고려해 수립하게 되며, 단계별 집행계획도 포함된다.

통도사는 마스터플랜이 완성되면 임회에 상정, 의견 수렴 후 최종 마스터플랜을 확정, 향후 통도사 불사는 이 기본 틀에 입각해 진행하도록 할 방침이다. 양산=천미희 기자

관련기사 5면

수요일은 1080 누르고 福 짓는날!
우리이웃
전국어디서나 일반전화 · 휴대폰으로
1080 누르면 '관음손'이 됩니다
나눔의 손잡기 기금모금
ARS:060-700-1080

'할'



그림 · 조태호

원산 스님 법문에서(법문은 24, 25면에서 만나세요)

현 · 성 · 스 · 님 · 의 · 진 · 솔 · 한 · 토 · 굴 · 일 · 기
왜 산에 사느냐고 묻거든
현성 스님은
1996년 충북 괴산 공림사(空林寺)로 출가했다.
그곳에서 탄성(呑星) 스님을 노스님으로 모시고 행자 생활을 했다. 그 해 계를 받고 이듬해 중앙승가대학교 불교학과에 입학해서 2001년 졸업했다.
유한근 교수의 추천을 받아 1998년 계간 <포스트모던>에 소설 『미인암(美人巖)』으로 등단했다.
선객(禪客)으로 송광사, 운문암 등에서 참선 정진했다.
현재 강과 호수가 내려다보이는 산 위의 절에서 수행정진하고 있다.
소박하고 정겨운 山생활의 충만함
자연 속에서 '참 나'를 깨달아가는 포근한 에세이!
"나무들은 사람들처럼 삶이 복잡하지 않다.
그들은 맑은 영혼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을 주위의 사물들에게 전파시킨다.
그들은 명상하는 수행자이며, 폭풍이 불 때는
온몸으로 맞서는 자유주의자이고 시인이며 수필가다.
나는 숲이 주는 힘에 고무되어 상쾌한 마음으로 산을 내려오곤 한다.
참나무같이 반듯하고 크고 강인한 삶을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하지만,
숲은 나에게 그런 생각마저도 버리라고 한다.
무엇을 하려고 하고 이루려고 하는 것들이 다 나의 욕심일 것이다."
- <왜 산에 사느냐고 묻거든> 본문中에서 -
신간
현성 지음 | 신국판 | 280쪽 | 9,000원 | 여시아문
www.yosiamun.com 종로구 견지동 110-33
Tel : 02)737-0695 Fax : 02)737-0696
여시아문



자녀와 함께 하는 불교

올해 한국갤럽의 종교 실태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불교인구 비율이 전체의 24.4%로 가장 높으며, 두드러진 성장을 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청소년들의 종교 비율은 개신교에 비해 불교인의 비율이 월등히 떨어짐을 볼 때 걱정이 앞서지 않을 수 없다. 불교의 미래를 생각해 볼 때 위기의식마저 들게 한다.

청소년 불자가 줄어드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그 중 하나가 가정 내에 불교 교육이 없다는 것이다. 예전에는 부모가 불교를 믿으면 자녀가 불교를 믿던 믿지 않던 암묵적인 불교인이었다.



하지만 요즘은 부모의 종교에서 이탈해 다른 종교를 갖는 청소년들이 많아지고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부처님께서는 "사람들 중에는 마음에 더러움이 적은 자도 있거니와 법을 듣지 못한다면 그들도 악에 떨어지고 말리라. 들으면 법을 깨달을 것이 아닌가"<잡아함경>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는가. 자녀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해 불교적 가치관을 갖고 살도록 이끌어주지 않는다면 우리의 청소년들은 불교에서 이탈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사찰·의식 등에 부담 안 갖도록
부모들이 생활불교 실천해야

자녀들에게 불교를 제대로 알려주어야 한다. 적어도 불교와의 인연을 이어갈 수 있도록 어릴때부터 불교적 분위기를 조성해 주어야 한다.

어떤 학생은 법당에서 피우는 향냄새가 싫고 알록달록한 단청이 무섭게 느껴진다고 한다. 부모는 절에 다니지만 자신은 가본 적이 별로 없어서 절에 가면 두려움이나 이질감이 느껴진다는 것이다.

그들이 심리적 거리감이나 이질감을 느끼지 않도록 자주 절에 데리고 다니거나 법회에 참석하도록 하며, 불교적인 요소들을 많이 보여주고 들려주는 인연 만들기의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부모가 불교를 잘 모르더라도 아는 만큼, 배우는 만큼 가르쳐 주도록 하자. 그들은 순수하고 모험심이 강하며 진리에 대한 열정이 어른들보다 더 뜨겁기에 빨리 배우고 이해할 것이다. 불교를 알고 이해하는 만큼 그들의 눈은 열릴 것이고 불교적 가치관을 정립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자녀들을 교육의 대상이나 부모의 부속물로만 생각하지 말고 함께 수행하는 도반으로 삼아야 한다. 공부에 몰두해야 한다거나, 어리다는 이유로 그들을 배제시킬 것이 아니라 함께 독경하고 염불하고 참회하고 발원하고 기도하도록 하자.

가정이 도량이 되고, 가족 모두가 상가의 구성원이 되어 생활이 곧 수행이 될 때 물러남이 없는 신심을 성취하고 한 줄기 깨달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불자들 모두가 관념적으로만 '중생을 다 건지오리다' 할 것이 아니라 자녀부터 불교적 분위기 속에서, 불교를 배우고 이해하며, 불교적 가치관에 따라 생활할 수 있도록 자녀와 함께 하는 불교를 만들어 나가야 하겠다.

■ 양동효(광동여고 교법사)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 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김광삼
인 쇄 인 : 채수삼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인터넷 日刊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정보센터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불교쇼핑 '마하몰' www.mahamall.co.kr
온라인서점 '여시아문' www.yosiamun.com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대표전화 02-737-8881

편집국 (02)722-4162 FAX (02)737-0698
광고국 (02)732-1522 FAX (02)737-0697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737-009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110-170

구독료:1개월 5천원 영구 62만5천원

"세상 변해도 계율인식 분명해야"

9월3일 '수행과 계율' 주제 선우논강
논주 혜능 스님 '수계체계' 등 비판

출가자의 '수행과 계율' 문제는 언제나 민감하다. 승가에서 이보다 더 현실적인 문제가 없기 때문일 것이다. 갈수록 문명화되고 복잡해지는 세상을 살아가는 수행자에겐 자동차, 육식, 의복, 처소 같은 문제들로 인해 겪는 갈등도 적지 않다.

9월 3일 남원 실상사에서는 이런 문제들에 대한 스님들의 공개적인 논강이 열린다. 선우도량(대표 철오 · 현각)은 매년 봄 · 가을에 열리는 선우논강의 10번째 주제로 '수행과 계율'을 정했다. 이번 논강은 기존과는 달리 논주의 발제문 발표와 3시간의 집중 강의 후 종합토론을 진행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이번 논강의 논주로 나선 해인율원장 혜능 스님은 발제문을 통해 승가의 특징, 교단에서 승가의 위치, 출가의 의미, 승가의 존재 근거로써 '계와 율'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제시했다. 혜능 스님은 수행과 계율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계율은 모든 수행의 근본으로 수행의 환경을 만들고 도와주는데 필요한 것"이라고 정의했다. 그러면서 최근 계율에 대한 수행자들의 인식이 낮아지고 있는 원인이 종단의 수계 체계에서부터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미(니)계나 구족계를 받는 수계가 지계생활의 시작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특강 몇 시간이면 때울 수 있는 요식행위로 인식되고 있어, 스님들의 기본 생활 질서인 계율을 충분히 습득해 출가수행자로서의 가치관을 확립할 기회가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혜능 스님은 그 결과 "출가자로서 삶의 방식에 대한 철저한 교육 없이 교리를 배우거나 선을 참구하다보니 개인적인 앎이나 지견은 있을지라도 청정화합승단 구성원의 의무나 질서 의식은 흐려질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따라서 승단의 청정성과 기강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기본교육 교과과정 계율에 대한 내용이 지금보다 더 보강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혜능 스님

그러나 전통적인 승가의 생활 방식과는 판이하게 달라진 오늘날의 승가에서도 이런 계율의 문제가 현시대 출가자들의 수행에 있어서도 절대적인가에 대한 의견은 분분할 것으로 보인다. 이제는 승가가 한곳에서만 정착하던 시대가 아니기 때문이다. 문명의 발달로 자동차, 비행기의 이용이 일상화되고, 잦은 이동은 재식위주의 생활을 어렵게 하는 등의 현실적 문제로 수행자가 계율을 지키는 것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혜능 스님은 최근 출가수행자가 모인 승단의 질서인 계율을 세간적 논리나 관점에서 해석하려 하는 풍토를 경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부처님은 열반을 앞두고 세존이 계시지 않는 승단이 어떻게 운영되어야 할지를 묻는 제자들에게 담마(dhamma)와 비나야(vinaya) 즉, 오직 법과 율에 의지하라고 하셨기 때문이다. 혜능 스님은 발제문 마지막까지 법과 율에 대한 철저한 이해와 실천을 거듭 강조했다.

한편, 선우논강 대표 철오 스님은 "그동안 계율에 대한 인식이 갈수록 엷어지고 있는데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많았지만 정작 현실적 대안이 무엇인지를 살피는 공개적 토론의 자리는 드물었다"고 밝히고 "승단내부의 계율에 대한 인식을 점검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며 논강의 취지를 설명했다. (02)3676-4060 조용수 기자

근현대 조계종 사상사 세미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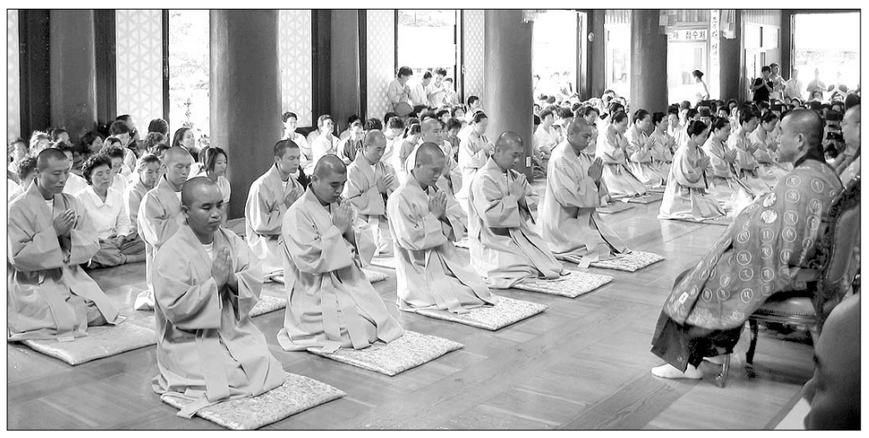
9월17일, 경허·만공 등 근 현대 인물 재조명

조계종 불학연구소(소장 화랑)는 종단의 정체성과 수행풍토를 재조명하기 위해 '근 · 현대 조계종 사상사 세미나'를 9월 17일 역사문화기념관 1층 로비에서 개최한다. 불학연구소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구한말에서 해방전까지의 대표적 고승 경허 · 만공 · 용성 · 한암 · 학명 · 효봉 스님 등의 사상과 업적을 정리하게 된다.

이날 세미나에는 동국대 고영섭 교수가 '경허-근대선의 개척자, 한국선 특성정비', 동국대 강사 효탄 스님이 '만공-경허선의 계승자, 선학원 창건과 재건', 동국대 교수 보광 스님이 '용성-선교계율의 종합성, 항일불교, 선농불교' 금강선원장 혜거 스님이 '한암-계 · 정 · 혜 삼학의 구현자, 지눌불교의 계승', 부천대 김광식 교수가 '학명-선농불 개척자, 선원의 개혁' 불학연구소 김방룡 연구원이 '효봉-근대선을 현대선으로 연계, 가야총림' 등을 각각 발표한다.

한편, 불학연구소는 이후 인물을 통한 근 · 현대 불교사 조명작업의 일환으로 1차에 '선사', 2차에 '강백', 3차로 '포교'를 중심으로 한 분야별, 주제별 연구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조용수 기자



천태종 새 스님 23명 수계

천태종에 새 스님 23명이 탄생했다. 천태종(총무원장 운덕)은 8월 17일 총본산 구인사에서 수계산림을 열고, 3년여의 행자교육과 수계대상자 교육을 이수한 남행자 10명과 여행자 13명 등 모두 23명에게 십선계를 주었다. 천태종 종정 도용 스님, 총무원장 운덕 스님, 감사원장 정산 스님을 삼사로 열린 이날 법회에서 도용 스님은 "출가 수행자로서의 위의를 갖추고 흐트러짐 없이 수행정진에 임하라"고 당부했다. 박봉영 기자

장삼·일상복 회색으로 통일

조계종 의제실무연구회, 설문 통해 확정

조계종 법계위원회(위원장 종진) 의제실무연구회는 최근 스님들의 장삼과 일상복의 색상을 검정, 고동, 진회색을 제외한 회색으로 통일하고 앞으로 행자교육 입교자나 구족계 수지자부터 점진적으로 적용해 나가기로 했다.

의제실무연구회는 8월 11일 열린 제11차 회의에서 지난해 전국 교구본사, 선원, 강원 스님 4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내용을 바탕으로 장삼과 일상복의 색상 통일 규정에 대해 논의했다.

설문 조사 결과 장삼의 경우 회색계열인 제일모직의 가마솥 1번, 일상복 가마솥 4번이 각각 선호됐었다. 이날 회의에서 참가자들은 장삼은 원칙적으로 회색만을 허용하기로 했으며, 다만 일상복은 소재나, 계절적 요인이 고려되어야 하는 관계로 일부 금지색 검정, 고동, 빨강, 노랑, 진회색 등을 제외한 회색범위의 무난한 색상을 자율적으로 착용하도록 했다.

연구회는 이를 위해 승복제작업체에 장삼과 가사의 색상 샘플을 제공하고 조계종 스님들의 가사 · 장삼 · 일상복 제작의 원칙을 통보하기로 했다.

걸망, 수대, 가방 착용에 대한 원칙도 정하기로 했다. 기본적으로 이들 장신구의 색상은 회색으로 통일하고 피혁제 가방과 등산형 가방은 착용을 금지하기로 했다.

다만, 강원 학인들의 경우 책을 많이 가지고 다니는 특성을 고려해 실용성에 중점을 맞춘 걸망 시제품을 제작, 다음 회의 때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이밖에 율장에 근거해 수행자의 복색을 하나로 통일한다는 원칙에 따라 속옷의 색상도 회색으로만 통일하기로 했다. 다음 실무위회의는 오는 10월 6일 열린다.

조용수 기자

조계종 사서국장 본해
감사국장 효웅 스님

조계종 총무원 사서국장에 본해 스님(전 감사국장)이, 감사국장에 효웅 스님(전 사서국장)이 각각 8월 17일자로 임명됐다.

본해 스님은 1986년 사미계, 1989년 구족계를 수지했으며, 현재 심원사 주지를 역임하고 있다. 효웅 스님은 1982년 사미계, 1986년 구족계를 수지했으며, 천곡사 주지 등을 역임했다.

남동우 기자

직장에서, 가정에서 불교 교리 학습

한국불교통신대학.대학원 - 기초과. 중등과. 고등과. 대학과. 연구과정(대학원)

발심을 하고도 기회가 주어지지 않거나 시간상 제약으로 부처님 가르침을 체계적으로 공부할 기회를 갖지 못하는 불자를 위해 **한국불교 통신대학**에서는 수시로 다음과 같이 학인을 모집합니다.

통신교육은 각자의 근기와 환경에 맞추어 학습 진도를 조절하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교과 과정이 수립되어 있어 시간상 제약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본 통신대학에서는 통신교육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이에 알맞은 교재가 준비되어 있고, 각종 **통신지도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불교 지도자 양성을 위한 과정으로 경학. 율학. 논학. 선학. 밀교 등 대학원 연구과정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통신교육비는 별도로 부과하지 않으며, 교재비만 각자가 부담합니다.

구 분	불교통신대학	불교통신대학원
모집기간	수 시	수 시
수업년한	2년(4학기/각 6개월)	경.율.논.선.밀교 각1년
수업방법	가정과 직장에서 통신으로 교육 (년 2회 합숙 수련)	가정과 직장에서 통신으로 교육 (년 2회 합숙 수련)
전현방법	서류전형	서류전형
제출서류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 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 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 통신대학 졸업자에게는 전법사 자격증을 수여
□ 통신대학원 졸업자에게는 법사. 포교사자격증 수여
□ 특전 : 사찰 개원 및 운영에 관한 행정 지원

한국 불교 통신대학. 대학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량리1동 51-14 02)969-2410, 4981 / 팩스 02)964-2433
출가 수행을 희망하는 자는 나란다 삼장불학원(집체교육) 참조

나란다 삼장불학원 학인모집

사미과 · 사집과 · 사교과 · 대교과

나란다 삼장불학원은 강원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스님과 출가를 원하는 불자 및 초발심자를 위하여 의식을 포함한 기초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불교지도자 양성을 위하여 불교대학. 불교 교양 대학. 대학원 연구과정을 거친 법사 및 포교사를 위한 특별과정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 특히 출가수행을 원하거나 사찰 또는 포교당을 개설하고자 하는 불자를 환영합니다.

□ 모집학과

학 과	수업방법	교육기간	자 격
사미과	주 2일	6개월	초발심자. 출가를 원하는 불자 강원을 이수하지 못한 스님
사집과	주 1일	6개월	사미과 이수자. 동등자격이 인정된 자
사교과	주 1일	6개월	사집과 이수자. 동등자격이 인정된 자
대교과	주 1일	6개월	사교과 이수자. 동등자격이 인정된 자 불교대학. 교양대학. 대학원 연구과정 이수자. 법사. 포교사

□ 원서교부 : 2004년 8월 31일 까지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 특 전 : 1. 출가수행, 사암. 포교원운영 행정지원
2. 출가수행자를 위한 기숙사 완비
□ 교 수 진 : 활안(한정섭)스님. 호암스님. 서무선교수. 김진궐교수. 이지행교수. 김익순교수

한국불교금강선원
나란다 삼장 불학원
전화 02)969-2410 / 969-4981
통신교육을 희망하는 자는 통신대학. 대학원 참조

동국대 '산 넘어 산'

"중대병원 매입과정에 비리있다" 검찰 고발
2학기 교수임용 싸고 학교 – 교수 마찰
교비 341억 환수 결정…자금 마련 고심

2006년 건학 100주년을 앞둔 동국대가 총체적 위기에 직면했다. 중앙대 필동병원 건물 매입 의혹, 2학기 교수임용 잡음, 교비 341억 환수 방안 마련, 일산불교병원 개원 등 해결해야 할 사안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우선, 지난 7월 6일 제200차 동국대 이사회의 매입승인으로 일단락 된 듯 했던 중앙대 필동부속병원 매입 문제가 다시 수면위로 떠올랐다. 최근 동국대 재단 박도근 前 감사는 중앙대 필동병원 매입과정 비리의혹과 관련해 홍기삼 총장을 업무상 배임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자칫 이번 고발사건으로 동국대는 종립대학의 도덕성에 심각한 타격을 받는 등 적지 않은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박 前감사는 서울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남기춘)의 고발인 조사를 통해 "지난해 12월 중앙대와 매매가 260억원에 매입을 합의 했으나 2월 10일 이사회 동의 절차도 없이 총장이 직접 274억원(계약금 130억원)에 계약을 체결하는 등 학교측에 손실을 입혔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동국대 관계자는 "탁상감정을 통해 적정가를 확인했고, 승인절차만 없었을 뿐 이사들 모두 동의 했던 사안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동국대는 박 前감사에 대해 법적 대응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前감사는 이번 검찰 고발과 관련해 "100년 역사의 학교가 이렇게 쇠락한 것은 책임 있는 자리의 사람들이 양심을 지키지 못한 탓이며, 감사 결과는 분명히 문제가 있는 사항을 지적한 것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2학기 교수임용 과정의 파행도 계속되고 있다. 역사교육학과 교수 4명이 8월 18~20일까지 전임강사 윤 모 씨의 임용을 반대하는 단식에 들어가는 등 학교 측과 갈등을 빚기도 했다. 대학 당국은 그동안 일부 교수들이 학과 내 담합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수임용 과정의 잡음은 비단 역사교육학과 뿐만 아니다. 이처럼 교수임용 때마다 잡음이 끊이지 않는 것은 동국대의 교수임용 과정에 문제가 있음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 교수회의 관계자는 이와 관련 "문제의 고리를 차단할 수 있는 투명한 인사 시스템을 시급히 마련하지 않는 한 문제의 해결은 요원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동국대가 안고 있는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일산 불교병원으로 들어간 교비 341억원의 환수 문제도 심각하다. 당초보다 약 77억 원 정도 감액된 액수지만 현재 동국대 재단이 감당하기에는 누가 봐도 벅찬 금액이다. 8월 13일 교육부에 보고한대로 당장 오는 12월까지 100억원을 학교 세입회계로 환수시킬 경우 재단 자산운영에 적잖은 곤란을 겪을 수밖에 없다.

또, 일산 병원개원 문제도 여전히 안개속이다. 이달 초 교육부의 직제 관련 정관 승인이 이뤄졌지만 병원장 인선과 의료진 확보, 개원자금 마련 등의 난제가 수두룩하다.

참여불교재가연대 한 관계자는 "화합을 가장 큰 덕목으로 가르치는 불교계 종립대학의 분열된 모습을 불자들이 언제까지 두고 봐야 하는 것인지 안타깝다"며 "건학 100주년을 앞둔 동국대의 총체적 난관을 타개할 불교계의 전체의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말했다. 조용수 기자

"지율 스님 · 천성산 살리자"

시민단체연합 '도롱뇽소송시민행동' 발족

서울·부산서 참회법회·시민대회 개최
환경부 "환경영향평가 재실시 못한다"


시민단체대표들이 8월 20일 청와대 앞에서 '도롱뇽 소송 시민행동'을 출범식을 끝내고 선언문을 낭독하고 있다.

지율 스님의 단식이 8월 20일 현재 52일째로 접어들고 있는 가운데, 천성산과 지율 스님을 살리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도롱뇽 소송인단 100만인 모집을 위해 시민사회단체들도 나선 것이다.

78개 시민사회단체 연합체인 '도롱뇽소송시민행동'은 8월 20일 청와대 분수대 앞 지율스님 단식정진장 앞에서 발족식을 개최했다.

발족식에서 한상렬 통일연대 상임대표는 "환경영향평가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고 대선공약으로 백지화를 약속했던 것이 50일이 넘는 단식의 뿌리"라며 "지율 스님이 쓰러질 경우 정권의 운명이 뿌리부터 흔들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지금 상황은 매우 긴박하다"며 "청와대의 결단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도롱뇽 소송 100만인 서명 범불교운동본부는 8월 18일 서울 우정국로에서 '경부고속철도 천성산·금정산 구간의 바른 국책사업 실현을 위한 범불교운동본부 참회정진법회'를 봉행했다.

50여 사부대중이 참석한 법회에서 백창기 조계종 중앙신도회 회장은 '조계종단에 드리는 촉구문'을 통해 총무원과 중앙종회가 이 문제에 적극 나서기를 촉구했다. 손안식 중앙신도회 부회장도 대정부 촉구문을 통해 "정부는 경부고속철도 천성산 구간 환경영향 및 안정성 조사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인 6개월간의 공사중단을 즉각 약속하라"며 "이마저도 수용하지 못하겠다면 이후에 일어날 모든 불미스러운 사태의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에 있음을 명백히 밝혀둔다"고 주장했다.

같은 날 부산에서도 '엉터리 환경영향평가서 폐기와 천성산 문제 올바른 해결을 촉구하는 시민대회'가 열렸다. 생명파괴에 대한 참회로 시작된 이날 시민대회는 94년 실시된 환경영향평가서와 고속철도 천성산 구간 관통의 문제점, 성명서 낭독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특히 이날 행사에서는 환경퍼포먼스로 엉터리 환경영향평가서 폐기식을 개최했으며 환경사진전, 100만 도롱뇽 소송인단 모집 서명운동도 함께 벌였다.

김지하 시인, 문정현 신부, 김혜경 민주노동당 대표, 풀꽃세상을 위한 모임 박병상 대표 등 시민사회단체 대표들도 문제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사회 각계 대표 20여명은 16일 지율 스님 단식정진장에서 모임을 열고 의견을 나눴다. 이들은 '지율 스님 살리기'가 우선인가 '천성산 살기기'가 더 중요한가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지만 뚜렷한 결론은 내리지 못했다. 그러나 대표단을 구성해 문재인 청와대 시민사회수석과 만나 해결점을 모색했다.

문 수석과 만난 박광서 참여불교재가연대 상임대표는 "환경영향평가 재실시는 사법부에서 관할하는 문제라는 원론적인 대답만 들었다"고 말해 문제 해결에 청와대 측의 의지가 없음을 확인시켰다.

환경부도 16일 "고속철도공단이 환경피해를 줄이기 위한 용역을 통해 대책을 마련했다"며 사실상 6개월 공사중단 및 환경영향평가 재실시 거부 의사를 밝혔다.

14일부터 묵언정진에 들어간 지율 스님은 17일 노무현 대통령에게 쓴 편지에서 "천성의 아픔을 기억해주세요. 지난날 당신이 '공약'했던 원칙과 약속이 아니라면 고향의 냇가에 발목을 적시고 미래를 꿈꾸었던 소년의 이름으로…. 천성산의 아픔이 제게 빛으로 왔듯이 상처입은 천성은 당신에게도 빛으로 다가갈 것입니다"라고 적어, 읽는 이의 가슴을 아프게 했다.

천미희 · 남동우 기자

불교환경종책 5개년 사업 착수

조계종 환경위원회

조계종 환경위원회가 불교환경의 제 21 초안을 바탕으로 불교환경종책 5개년 계획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조계종 2기 환경위원회(위원장 지원)는 8월 18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회의실에서 1차 회의를 개최하고, 하반기 중점 사업계획안을 확정했다.

사업계획안에 따르면 올 8월부터 10월까지 전문가 2명이 포함된 팀을 구성, 불교환경의제 21 초안을 바탕으로 연구 · 조사를 거쳐 불교환경정책 5개년 계획 기초안을 마련한다. 또 사찰환경 기초시설 타당성 연구용역과 불교 환경종책 5개년 계획 세부계획 타당성 연구도 실시된다.

회의에서는 또 올 9월에서 10월경 불교환경의제 21을 확정 및 발표하고, 9월 교구환경환경위원과 환경위원이 참석하는 교구환경위원회 연석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한편 회의에서는 2기 환경위 상임운영위원장에 명섭 스님(구례 화엄사 주지)을 선출했다. 남동우 기자

조계종, 13대 포교 핵심과제 선정

조계종 포교활동의 나침반이 될 13대 핵심과제가 선정됐다.

조계종 포교원은 8월 17일 포교원 회의실에서 제6차 포교종책연찬회를 개최하고, 불교 내 · 외부 포교환경 분석결과 검토 및 1~5차 포교종책연찬회시 제기된 쟁점사항 검토를 주제로 토론을 펼쳤다.

토론 결과 △조계종의 사상문화 정립 △조계종 신도 교육체계 정립 △신도 수행 종책의 수립과 추진 △신도 교육 · 수행 · 포교프로그램 개발 지원 △종단 의례의식의 한글 통일화 추진 △조계종 핵심 신도 육성 방안 마련과 추진 △중앙-교구-말사 포교행정시스템 구축 및 포교단체 · 신도단체 네트워크화 △포교인력 육성 시스템 구축 운영 △인터넷 포교 활성화 및 다양한 포교 · 교육 콘텐츠 개발 지원 △도시포교의 강화 △어린이 · 청소년 · 청년 · 학생층 포교 강화 △국제포교 인프라 구축 및 자료 · 프로그램 개발 지원 △사회적 역할 강화 등 13개 핵심과제를 선정했다.

남동우 기자

북한산을 사랑한 죄로…

북한산 관통도로 저지 운동 일선에 나섰던 환경운동가들이 업무방해죄로 총 1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

의정부지원은 지난 7월 1일 김혜정(당시 환경운동연합 활동처장), 안창희(당시 경기북부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윤주옥(당시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사무국장)에게 각각 300만원, 박선경(당시 우이령보존회 사무국장), 김은숙(당시 환경운동연합 녹지보전담당 간사)에게 각각 200만원 등 총 1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북한산을 사랑한 죄로 북한산관통도로 사업자인 서울고속도로주식회사로부터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됐고, 이제 범법자가 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주옥 사무국장은 "목숨보다 소중한 생명사랑 정신을 민들레 홀씨처럼 온 세상에 널리널리 올곧게 퍼뜨리고 싶다"며 북한산 사랑을 그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8월 26일 낮 3시부터 밤 12시까지 서울 종로 시민호프에서 벌금 마련(후원계좌 : 국민은행 024801-04-070220 예금주 : 윤주옥(북한산))을 위해 일일호프를 여는 등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여전히 '북한산'을 화두로 삼고 있는 이들에게 불교계에선 어떤 모습을 보여야 할지 함께 고민해야 할 문제다. 남동우 기자

승가교육제도 현황·과제 점검
승개추 실무위 19~20일 워크숍

조계종 승가교육제도개선추진위원회(위원장 종범) 실무위원회는 승가교육제도의 현황과 이후 추진과제 설정을 위한 제1차 워크숍을 8월 19~20일 유성 스파피아 호텔에서 개최했다.

워크숍 참가자들은 이날 교육원이 준비한 승과교육의 현황과 문제점들을 우선 점검했다. 조계종은 교육원 출범 10년차를 맞아 승가교육 전반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기초교육, 기본교육 강화를 최우선 목표로 설정했었다.

실무위원회 관계자는 이날 회의를 통해 "제도 개선 방향을 설정하기 이전에 종단의 승가교육의 이념과 정체성을 먼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으며 차후 단계별 과정별 목표를 설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워커숍에는 실무위원 지안 스님, 무관, 종묵, 설우, 계성, 현관, 일진 스님, 영산대 김종명 교수 등 선원, 율원, 강원, 재가 전문가가 참가했다. 조용수 기자

설기문 박사의

최면-빙의치유 세미나

지난 1997년 국내에서 최초로 "최면-전생 상담" 공개 세미나를 개최하여 많은 전문 제자를 양성하고 화제를 불러일으켰던 이 분야의 국내 최고 권위자인 설기문 박사가 풍부한 학술 연구 및 임상경험을 기초로 한 보다 업그레이된 프로그램 내용을 마련하여 아래와 같이 여러분을 모시고자 하오니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세미나명	빙의치유 과정	참 고 사 항
교육일정	9월 9 ~ 10 일, 9월 16 ~ 17일 (매주 목 ~ 금요일) 교육시간 : 매일 10:00 ~ 18:00	① 세미나 준비와 진행 관계로 사전 예약제를 원칙으로 합니다. 참여하실 분은 반드시 9월 4일까지 예약 등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 육 비	200만원 (마감일 이전 기준) ※ 마감일 이후는 210만원임	② 3명 이상 참여자에게는 소정의 할인혜택을 드립니다.
교육내용	①최면치료와 전생치료에 있어서의 빙의의 문제와 빙의치유 ②빙의현상의 특징 ④치유적 대화의 원리와 기법 ⑤볼드윈 6단계 빙의치유 과정 ⑤빙의 진단법 ⑥영가와의 대화법 ⑦빙의령 퇴치를 위한 명상법 ⑧빙의치유에 있어서의 주의점	③ 구체적인 세미나 장소와 찾아오시는 요령은 등록자에게 개별적으로 알려드립니다. ④ 수료자에게는 소정의 수료증을 드립니다. ⑤ 개인사정에 의해 특정 시간에 결석할 시에는 다음 차수 때 보충하실 수 있습니다. (단, 수료증은 완전 출석을 하셨을 때 드립니다)
장 소	경기도 안양시 안양 9동 수리산 기슭 (창박골) ☞ 지하철 1호선 안양역에서 2km 거리에 위치함. ☞ 안양역은 영등포와 수원에서 각각 지하철로 20분 거리에 위치함.	⑥ 인근에 숙박시설이 많이 있으니 활용 가능합니다. ⑦ 각종 단체나 개인의 강의, 강연, 개인 상담 요청을 환영합니다.
등록방법	참여희망자는 9월 4일까지 아래의 은행계좌로 입금하시고 반드시 별항에 제시된 연락처의 전화나 e-메일로 확인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계좌번호 – 국민은행 : 128-05-0000-897 (예금주 : 설기문)**	⑧ 기타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전화나 e-메일로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빙의의 특징:** 빙의란 다른 영가가 침입하여 심신의 문제를 일으키는 현상을 말하는데 그 결과 의학적으로 진단이나 치료되지 않은 심신의 고통을 받게 되며 심하면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해진다. 이러한 빙의의 문제는 민간에서는 주로 굿의 형태로, 불교에서는 천도제와 같은 형식으로 처리되었다.

구체적으로 빙의환자가 보이는 특징으로는 우울증, 불안증세와 같은 심리적 증세, 원인 불명의 질병, 죽은 사람의 생전 병을 앓는 경우, 죽은 사람 꿈을 반복하여 꾸는 경우, 환각현상이나 급성 또는 만성 병을 들 수 있으며 임신이 안 되거나 두통, 관절염이나 요통을 앓는 경우에도 낙태된 영가의 빙의를 의심해볼 수 있다. 아울러 천도제 중이나 후에 빙의증세를 보이며 몸부림치거나 반항하는 행동을 보일 수도 있으며 기도 중에도 이상행동을 보일 수 있는데 이런 경우는 반드시 영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 **볼드윈 박사의 6단계 빙의치유법:** 빙의치료는 구미 선진국에서 주로 최면치료, 전생치료 전문가들에 의해 임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대표적인 빙의진단법과 치유법은 미국의 볼드윈(William Baldwin) 박사에 의해 개발되었다. 그는 처음에 최면-전생퇴행 작업을 하는 동안에 반수이상의 환자들이 영적 간섭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내고 몇 년간의 임상경험 결과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영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결론을 얻고 빙의치유라는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게 되었다.

■ **강사소개:** 설기문 박사는 경북대학교와 계명대학교 대학원(석사) 졸업, 미국 United States International University 대학원에서 박사학위(상담심리학 전공)를 취득하였음. 1986년부터 동아대학교 교수를 역임하였으며 1996년과 2001년 두 차례에 걸쳐서 미국과 캐나다에서 각각 객원 교수를 역임함.
한국심리학회 및 한국상담학회 공인 상담전문가. 미국과 캐나다에서 최면과 전생치료, NLP, 시간선치료, 빙의치료 분야를 공부하고 국제공인 NLP 트레이너, 최면치료 트레이너, 전생치료전문가 자격증을 각각 취득함. 미국최면치료협회와 국제전생치료협회의 전문회원임. 특히 빙의치료의 최고 권위자인 미국의 볼드윈 박사에게서 전생치료 및 빙의치료법을 직접 배웠음.
1997년에 국내 최초로 일반인을 대상으로 "최면-전생 상담" 공개 세미나를 개최한 이후로 2000년까지 전국적으로 최면-전생상담을 보급하였음. 그 과정에서 KBS, MBC를 비롯한 여러 언론 매체에서 다수 보도된 바 있음. 특히 1998년에 KBS-TV에서 전생에 "독립군"이었던 여인에 관한 내용이 방영되어 크게 화제가 된 적이 있음. 특히 2001년 이후에는 미국에서 더 심화된 최면-전생-빙의치료, NLP (신경-언어프로그래밍) 분야를 공부하였고 재미 교포들을 대상으로 강의 및 임상 활동을 하였음.
저서로는 "최면과 전생퇴행, "최면과 최면치료", "설교수가 안내하면 혼자서도 전생 가기 참 쉽다", "전생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내가 이렇게 아픈걸까?"와 같은 최면-전생치료 관련 저서와 NLP파워, NLP와 건강, NLP의 원리, 인간관계와 정신건강 등이 다수 있음. 현재는 마인드피트니스 코리아 원장으로서 개인상담과 치료, 초청 강의 및 강연, 세미나 개최, 집필 등의 활동을 하고 있음.

마인드피트니스 코리아 부설 한국 최면-전생 상담 센터 ● 전화 : 011-1762-4598 / 홈페이지: www.mindcoach.co.kr / e-메일: mindcoach@naver.com

불서읽는 문화 함께 만들어요

최근 심각한 불황으로 고사위기에 놓인 불교출판, 그 해결책은 없을까?

불교계 출판 불황의 근본원인으로 지목돼왔던 '책 안 읽는 분위기'를 개선하기 위한 움직임이 일고 있다. 불교계 출판사들은 지난 7월 2일 '불교출판의 현실과 미래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데 이어 오는 10월 불교출판문화협회를 발족하는 등 출판문화 활성화를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 또한 지현 스님과 동국역경원 최철환 편찬부장, 동국대 김호성 교수, 민족사 윤창화 대표 등이 주축이 된 불서읽기 모임 '붓다와 떠나는 책 여행'도 오는 10월 본격적인 운영을 앞두고 있어 불교계의 '책 읽는 분위기 형성'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불서를 읽고 토론함으로써 부처님의 가르침에 한 발 더 다가서려는 니련선하원(주지 정운)의 불서읽기 모임과 '붓다와 떠나는 책 여행'의 모니터링 현장을 소개한다.



정운 스님의 지도로 매월 한번씩 열리는 '니련선하원 불서읽기 모임'.



초보불자를 위한 책읽기모임 '붓다와 떠나는 책 여행'. 10월 정식 운영에 앞서 8월 15일 모임을 가졌다.

니련선하원 '불서읽기 모임'

가을의 문턱에 들어선다는 입추(立秋)인 8월 7일. 이날 서울 개봉동 니련선하원(주지 정운)에는 불서를 읽으며 찜통더위를 이기려는 '불서읽기 모임' 회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불서읽기 모임'은 지난해 12월 정운 스님의 지도로 시작된 것으로, 12명의 참가자들은 그동안 한 달에 한 번 토론회를 열어 <티벳불교> <붓다 그 삶과 사상> <인도사원순례> 등 8권의 불서를 읽었다.

이 모임의 특징은 장년층 이상의 불자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 40여 년 간 공무원으로 재직한 장성호(60) 거사와 개인 사업을 하며 불교공부에 매진하고 있는 박덕환(63) 거사, 모임의 '최고참' 안병덕(73) 보살 등 지긋한 나이의 불자들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토론과 대화 나누며 나를 돌아봅니다"

참가자들은 <금강경> 독송에 이어 한 달 간 있었던 소소한 이야기들을 나누며 서로의 안부를 묻는 것으로 모임을 시작한다. 이날 토론할 책은 <밀라레빠>. 박 거사가 준비해온 발제문을 읽고난 후 회원들이 각자의 소감을 발표하자 본격적인 주제토론이 이어진다. 이날 쟁점이 된 문제는 '복수와 악업' 그리고 '스님의 부와 수행'에 관한 문제다. 짧지 않은 삶을 살아온 이들답게 자신의 경험이 녹아있는 이야기들이 쏟아진다.

"복수는 또 다른 업을 쌓는다는 것을 알지만 생활 속에서 이를 실천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럴수록 더 수행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 시간 가량 이어진 토론이 끝나자 정운 스님은 다음 달에 읽을 책을 선정하고 모임을 정리했다.

안병덕 보살은 "늙어서 그런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기 일쑤지만 그래도 이렇게 모여 앉아 다른 사람들 얘기 듣는 것이 좋아 계속 참석하고 있다"고 말한다. 장성호 거사는 "나이가 들수록 책을 읽고 편안하게 대화를 나누는 기회가 적어지는 것 같다"며 "한 달에 한 권씩 책을 읽는 것이 쉽지 않지만 다른 이들의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서 좋다"고 소감을 밝혔다.

선정된 책 한 권씩을 품에 안고 사찰 문을 나서는 회원들의 눈에 새로운 책에 대한 호기심이 스쳐 지나간다. (02)2685-2396

'붓다와 떠나는 책 여행' 모니터 모임

"부처님의 생애와 가르침이 궁금하신 분, 불교가 어떤 종교인지 알고 싶은 분은 누구든 환영합니다. 함께 불서를 읽으며 공부해 봅시다."

8 월 15일. 나이도, 성별도, 직업도 제각각인 불자 18명이 조계사불교대학에 모였다. 바로 오는 10월부터 운영될 초보불자들을 위한 책읽기 모임인 '붓다와 떠나는 책 여행'의 모니터 요원들이다. 이들은 자신의 독서 취향과 독서 수준, 모임의 운영방법 등에 대한 의견을 개진함으로써 모임의 구체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해 나가게 된다.

첫 대면의 어색함을 깨고 민족사 윤창화 대표가 모임의 취지를 간단히 설명하고 난 후, 참가자들의 각자 자기소개가 이어졌다. 정년퇴직 후 비영리재단 '아름다운 가게'와 참여연대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맹행일(62) 거사는 "앞으로 책도 열심히 읽고 모임에도 꾸준히 참석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올바르게 배우도록 노력하겠다"며 모임에 대한 남다른 열정을 내비쳐 다른 회원들의 큰 박수를 받았다.

"불교가 궁금한 분 누구나 환영합니다"

회원들이 한 달 동안 읽을 책은 <선방일기> <무소유> <붓다 그 삶과 사상> <번뇌 업 고통> <달라이 라마의 행복론>. 회원들은 선정된 책의 성격에 따라 한 명씩 소리 내 읽고 의견을 나누거나 책을 읽고 온 후 토론을 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모임을 진행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어 한 시간 정도 회원들은 <선방일기>를 번갈아 읽으며 책에 대한 느낌을 나누었다. 방부를 들인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버려진 배춧잎을 뒤적이며 먹을 만한 것을 골라내는 조실 스님의 행동이 무엇을 뜻하는지…. 의문 나는 점은 서로 묻고 답하며 궁금증을 푸느라 약속된 2시간을 훌쩍 넘기고서야 이날 모임이 끝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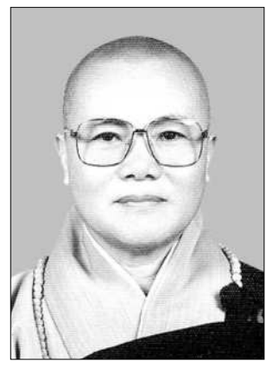
조계사 청년회원인 박정선(28) 씨는 "불서를 읽어야겠다고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마침 좋은 기회를 만나게 됐다"며 "회원들의 참여열기도 높고 허심탄회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다"고 소감을 밝혔다.

회원들의 열정적인 독서 토론회를 지켜보면서 이들이 침체된 불교계의 '책읽기 붐'을 활성화하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02)722-7679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한국의 비구니 스님 <21> 성법 스님

케임브리지大 박사… 영·중·일어 능통



"남한산성은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당시 승병의 본거지로 많은 스님이 나라를 위해 몸을 바쳤던 곳입니다. 그러나 이같은 역사적 사실이 잘 알려지지 않아 안타까울 뿐입니다."

경기도 광주 남한산성 내 위치한 망월사 주지 성법 스님은 잃어버린 남한산성 불교역사 찾기를 이생에서의 마지막 할일이라고 생각한다. 역사서에 이름만 전해지고 있던 망월사를 80년대 초반부터 20여년 동안 복원했고 불자들에게 남한산성이 호국불교의 산실임을 알리는데 앞장서고 있다.

1929년 경북 안동에서 태어난 성법 스님은 퇴계 이황 선생의 15대 손녀로 할아버지가 이조 말 병조판서를 지낸 유학자의 집안에서 자랐지만 일제강점기, 한국전쟁을 차례로 겪으며 불교와 인연을 맺었다. 1953년 강원도 오대산 월정사 지장암에서 본견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월정사에서 자운스님을 계사로 사미니계를, 55년 부산 범어사에서 동산 스님으로부터 비구니계를 수지했다.

'불보살의 본적' 등 20여권 집필·편역

남한산성 불교역사 찾기로 여생 회향

1958년 직지사 강원 대교과를 졸업한 스님은 부처님의 말씀이 수행자의 근본이라고 생각에 유학을 결심, 중국 문화대학 동양철학과를 졸업했다. 이후 일본, 대만 등지에서 공부에 매진한 스님은 1997년 영국 명문대 케임브리지대학 종교사회복지학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케임브리지대학 명사록에 이름이 등재될 정도로 학문적 업적을 평가받고 있는 스님은 <불보살의 본적>, <한국불교약사> 등 20여권의 책을 직접 집필 또는 편역했다.

오랜 유학 생활로 영어, 중국어, 일어에 능통한 스님은 한국 불교를 세계에 알리는 전법가로 유명하다. 경제적 빈곤으로 해외 포교를 생각하지도 못했던 1972년 스님은 국제 포교사로 한국불교를 세계에 알리기 시작했고, 현재 상임 이사로 있는 세계불교도우의회(WFB)에도 20년 이상 힘을 보태고 있다. 또한 일본, 대만, 중국, 인도 등의 국가와 불교문화교류행사를 직접 개최하는 등 문화 포교사 역할도 톡톡히 하고 있다.

스님은 세계불교도우의회 활동으로 인연을 맺은 인도 수상 인디라 간디로부터 부처님 정골 사리 3과를 기증받아 망월사에 봉안한 일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말한다. 최근 스님은 그동안 집필한 저서들이 한문이 많아 한글세대가 읽을 수 없다는 점이 안타까워 일일이 한문을 한글로 풀어쓰고 주석을 다는 일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젊은 불자들에게 불교를 가르치는 일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앞으로 여력이 생긴다면 청년불자 수련연구원을 만들어 어떻게 하면 젊은 불자들에게 불교를 효율적으로 홍포할 수 있을까를 집중적으로 연구해 볼 계획입니다."

수행자가 게으름을 알게 되면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 스님. 80에 가까운 세수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아침예불, 참선 등 수행자의 본분을 올곧게 지키고 있고 손에 항상 책을 끼고 다니신다. 스님의 모습은 마치 게으른 수행자와 불자들에게 경책을 하는 듯 하다.

김두식 기자 doobi@buddhapia.com

한국불교 태고종 제17세 종정 혜초 대종사 추대법회

귀의 삼보하옵고,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항상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한국불교태고종 제17세 종정 혜초(慧草) 대종사의 종정 추대법회를 다음과 같이 봉행하오니 부디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 주시기 바랍니다.

❁ 일 시 : 2004년 9월 6일(월) (음 7월 22일) 오전 11시
※오전 10시 30분부터 종조 및 역대종정·선조사 스님의 다례를 봉행합니다.

❁ 장 소 : 신촌 봉원사

❁ 연락처 : 총무원(02-382-7361), 봉원사 (02-392-3008)

한국불교태고종 제 17세 종정 추대법회 봉행위원장
한 국 불 교 태 고 종 총 무 원 장 이 운 산

범어사 10월 개산 기념 문예대제전 개최

지역민 참여 열린 축제로

선찰대본산 부산 범어사(주지 대성)가 '범어사 개산 문예대제전'을 10월 14일부터 17일까지 연다.

개산 1천 3백년을 돌아보고 개산조의상 대사의 가르침을 되살리기 위한 이번 문예대제전은 특히 부산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 문화축제로 만들기 위한 기획과 전시 공연, 문화체험 마당 등이 다양하게 준비중이다.

'문 없는 문을 열다'는 라는 주제로 범어사 경내, 범어사 순환도로, 금정산 등에서 펼쳐지는 이번 문예대제전를 위해 범어사는 이례적으로 범어사개산대재 추진위원회를 꾸리고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범어사는 이 행사를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향후 시민축제로 발전시키기 위해 준비추진위에 스님뿐만 아니라 부산시 공무원, 문화예술계 인사 등을 영입하는 방안도 고려중이다.

추진위 구성 일회성 탈피
다비식 시연 성찰 기회 제공
발우공양 등 체험 행사 다채

전시, 공연, 시민참여 등의 프로그램으로 나눠 진행될 범어사 개산 문예대제전에서 가장 눈길을 끌 것으로 기대를 모으는 행사는 다비식 시연. 철저한 고증을 거쳐 불교의 독특한 화장장례 의식인 다비의식을 재현하고 그에 따른 법회의식을 자연스럽게 일반인들에게 선보이며 죽음과 삶의 의미를 성찰하는 시간으로 꾸며진다.

개산조인 의상대사의 사상과 가르침을 기리는 개막식, 영산재와 함께 범어사 순환도로를 따라 밝혀질 5만여 연등이 장관을 이룰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영화제, 음악제, 마당놀이 한마당, 백일장, 사생대회 등 다채로운 부대행사와 발우공양, 다도, 템플스테이, 달마그리기, 전통등 만들기, 사찰음식 시연 등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폭넓은 체험행사도 마련된다.

이철수 판화전, 야생화 전시 및 환경 생태전, 동래와 범어사 옛 사진 엽서전 등의 전시 행사도 마련되며 의상 스님 관련 학술세미나, 이야기한마당 도 기획중이다. '이야기한마당'은 보다 시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의상스님에 얽힌 이야기, 불교설화 등 구수한 이야기로 범어사의 역사를 풀어내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범어사 주지 대성 스님은 "개산의 의미를 살리면서 시민들과 함께 하는 다양한 수행, 문화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이번 개산대재 문예대제전은 향후 범어사가 부산문화를 선도하는 중심에 설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051)508-3122

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양산 통도사는 사부대중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자료실과 야외 쉼터 등을 갖춘 도서관을 현 주차장 자리에 짓는다. 사진은 8월 25일 기공식을 갖는 도서관의 조감도.

시민위한 도서관 만든다

통도사, 180평 규모 25일기공
개원 맞춰 주변 공원화 추진
특수조명 1㎞ 숲길도 조성

양산 통도사(주지 현문)가 시민들을 위한 도서관 건립, 보행로 재 단장 등으로 통도사를 찾는 불자들의 문화욕구 충족, 휴식공간 제공 등을 고려한 불사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8월 25일 오후 2시 기공식을 갖는 통도사 도서관은 성보박물관 맞은편에 건립되며 여느 사찰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제대로 된 열람실과 자료실을 갖출 예정이다. 117평의 열람실과 60평의 자료실을 갖춘 통도사 도서관은 목조양식으로 건립되며 내년 하반기 문을 열게 된다.

통도사 도서관은 스님과 불자, 일반인들을 위한 인터넷 검색실, 불교교양도서실, 열람실 등을 갖추고 단순히 책을 '읽는' 도서관에서 벗어나 직접 '찾고' 눈으로 '보는' 도서관이 되도록 다양한 자료를 갖춰 사찰도서관 문화를 선도해 나갈 예정이다. 이에따라 통도사 도서관은 불서 읽기와 보급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통도사는 도서관이 시민들을 위한 문화공간, 휴식공간으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도서관 주변 공원화를 함께 추진한다.

도서관이 현재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솔숲에 건립되는 점을 감안, 주차장을 없애고 도서관 앞 공간을 시민들을 위한 공원으로 꾸민다.

아름드리 소나무를 그대로 활용해 야외에서도 책을 읽을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갖추는 한편, 도서관 바로 맞은편에 위치한 통도사 성보박물관과 도서관이 유기적, 통합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연구중이다.

도서관, 솔숲, 성보박물관을 한데 묶어 공원화한 이 공간은 수행, 기도를 위한 공간과 구별되는 곳으로 법당 참배 후 머물 곳이 없었던 참배객들을 위한 열린 공간이 되는 셈이다.

도서관 공원화와 맥락을 같이해 추진중인 것이 보행로 재단장. 일주문에서 도량으로 들어가는 총 1km 구간의 숲길에 포켓휴식공간, 지압 기능을 갖춘 건강산책길, 체육공원, 포토존, 포켓 휴식공간, 조망공간, 약수터, 찻집 등을 자연경관과 어우러지게 설치한다.

이 보행로는, 한번쯤 가보지 않으면 대화가 안 된다고 할 정도로 유명한 일본 '철학의 거리'처럼 걷고 싶은 보행로로 만들겠다는 것이 통도사의 계획이다.

'저절로 가는 길(가칭)'로 명명될 이 길은 밤에는 솔숲의 경관을 살리는 특수 조명을 설치해 걸으며 사색하는 사찰 보행로의 새로운 모델이 될 것으로 보인다.

통도사 주지 현문 스님은 "사찰 도서관이 불자들만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통도사를 찾은 모든 사람들에게 맑은 심성을 일깨워주고 사색하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도서관 개원과 보행로 단장, 공원화가 완성되면 불보종찰 통도사는 대중속으로 한 발 더 가까이 다가가는 사찰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055)382-7182

양산=천미희 기자

덕원중 김휘령 팀 대상

'대구 역사문화재 모니터링' 시상

지난 5~6월 전개했던 대구역사 순례를 통한 문화재 모니터링 활동에는 총 144개 팀 586명의 대구시내 중·고등부 학생들이 참여했다.

이 문화재 모니터링 활동을 평가하는 시상식이 (사)파라미타 청소년협회 대구지부(이하 파라미타 대구지부)총재인 동화사 주지 지성 스님과 활동에 참가했던 선생님과 학생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8월15일 동화사에서 열렸다. 대상엔 덕원중학교 김휘령, 강소정, 김중진, 손진영 팀과, 대곡고등학교 신명호, 김진옥, 김상은, 김선애 팀이 대구광역시 시장상을 수상했다.

또한 청구중학교 팀과 경상여고 팀이 금상인 대구광역시 교육감상을 수상했고, 은상인 파라미타 대구지부 총재상에는 동부중학교, 상원중학교 신명여자중학교, 대곡고등학교, 경상여자고등학교에서 출전한 5개 팀이 수상했다. 대구지역 청소년들의 문화재 모니터링 활동을 잘 지도한 청구중학교 오영규, 대곡고등학교 마효철 선생님이 교육감 표창을 받았다. 배지선 기자

관음사, 출가학교 입교식

대구 영남불교대학 관음사(회주 우학)는 8월 16일 4층 법당에서 제1기 출가학교 입교식을 갖고 이어 행자 수행관에서 삭발식도 가졌다. 여덟 명의 단기출가자들은 '바른 깨달음의 성취와 온 세상의 정토구현'이라는 기치아래 8월 31일까지 출가수행자와 같은 생활을 하게 된다.

우학 스님은 입교식에서 "머리를 깎고 출가생활을 해 본다는 것은 인생에 큰 획을 긋는 일이 될 것"이라며 "이곳에 온 이상 규칙과 통제를 잘 따라 스님생활 그대로를 경험하고 자기 자신에게 큰 덕이 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설했다. 배지선 기자

대불청 부산지구 템플스테이

대한불교청년회 부산지구(회장 류상영)는 8월 14~15일 통도사 반야암에서 '템플스테이 새벽향기를 찾아서'를 진행하고 회원간의 화합을 다졌다.

'더불어 하나되기'라는 주제로 6개 지회 청년회원들과 일반불자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템플스테이는 선무도, 부처님손 조각하기, 발우공양, 다도, 레크리에이션, 마음나누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스스로의 장점을 발견하고 타인을 칭찬하는 '마음 힘 내기' 도량에서 자신과 법우들의 진솔한 경험을 허심탄회하게 듣고 말하는 '마음 어루만지기' 서로의 서원이 이루어지길 기원하며 '서원의 촛불 쌓기' 등이 마련됐다.

둘째 날 진행된 '마음나누기'는 명상을 통해 스스로의 마음을 내려놓고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하나되기' 과정으로 회원간 화합과 이해를 도우며 호응을 얻었다. 천미희 기자

"인재 양성의 문 활짝"

무시험 전형 '참여불교캠퍼스' 부산 동명대학에 개설

2005년 3월 첫 입학

산업현장과 대학이 만나는 산학캠퍼스 개념이 불교와 대학의 만남으로 이어져 불교계 최초로 불자들에게 무시험전형으로 입학 자격이 주어지는 불교캠퍼스가 개설된다.

참여불교운동본부(상임대표 혜총)와 부산 동명대학(2년제)은 8월25일 조인식을 갖고 2005년 3월부터 20명 정원의 참여불교캠퍼스(가칭)를 개설하기로 했다. 산학캠퍼스 개념의 참여불교캠퍼스는 불교계 종사자나 사찰 주지 스님들의 추천을 받은 불자들에 한해 지원 자격을 주는 무시험 전형의 2년 과정으로 동명대 사회복지학과 내에 개설된다.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불자들을 대상으로 9월부터 수시 입학 전형을 실시하는 참여불교캠퍼스는 사회복지학과에서 다루는 모든 교과과정을 총망라하고 복지현장 실습 교육을 아울러 사회복지분야에서 활동할 불교 인재 양성의 문을 활짝 열게 됐다.

특히 그동안 신심을 바탕으로 부처님의 자비사상을 펴는 복지활동을 장기간 펼쳐왔지만 자격증이 없었던 불자들과 앞으로 복지 현장에서 전문성을 발휘하고픈 불자나 스님들에게 희소식.

참여불교캠퍼스 입학생들은 정규과정 학생들과 동등한 교육과정을 거치게 되며 2년 수료 후 전문학사학위취득은 물론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케어 복지사 3급, 보육교사 1급 자격증이 수여된다.

불교캠퍼스는 불교적 특성을 살리기 위해 불국토 산하 복지관이나 보육시설 등에서 각종 현장 실습과 교육을 받게 되며 복지현장에서 활동해 온 스님들이나 전문가들을 객원교수로 위촉, 현장 경험이 담긴 특강이나 세미나를 열어 불교적 지혜가 살아있는 복지를 펼치는데 도움을 줄 방침이다. (051)302-7902 천미희 기자

조직화로 도약을

2004 대불련 총동문대회

"선배님!"

"아니 이게 누구야? 아이구 아들, 딸 언제 이렇게 키웠어?"

8월 14일 황악산 직지사에는 여기저기 반가운 상봉의 목소리가 드높다.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이하 대불련) 동문들이 고향을 찾는 심정으로 온 가족을 데리고 황악산 직지사로 몰려온 것이다. '대불련 총동문대회 2004'는 500여 대불련 동문가족들이 참석한 가운데 황악산 직지사에서 15일까지 1박 2일 일정으로 성황리에 개최됐다.



직지사에서 열린 '대불련 총동문대회 2004'에서 대불련 동문들과 그 가족들이 문화행사 등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모습.

이번 행사의 주제는 '함께 느끼고 더불어 사는 세상'. 41년전 참다운 구도자가 되어 부처님 법을 이 세상에 구현하고자 대불련을 창립하고 이끌어온 역대 대불련 주역들이 부처님의 혜명대로 함께 느끼고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다시 모인 것.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개최된 대불련 총동문대회 입재식은 명호근 명예회장(쌍용양행 대표이사)이 대회선언을 시작으로 직지사 주지 자광 스님의 격려사, 조계종 포교원장 도영 스님 법어의 순으로 진행됐다.

대불련 중흥의 기틀을 마련하고, 불교신행 의식을 고취한다는 목적아래 펼쳐진 이번 대회는 지난해보다 문화 행사가 대폭 강화되었다. 가족동반 동문들을 위해 어린이 여름 캠프가 설법전에서 열렸고 만덕전에는 여기저기 다도회가 벌어졌으며 직지문화공원에서는 숲속 음악회, 강강수월래 풍물놀이가 펼쳐져 대불련 동문들을 하나로 묶었다.

이번 대회에서는 대불련 총동문회 발전방안에 대해 분과별 토론 발표가 이어져 △내년부터 신행활동 성공사례 발표 △선배들의 역량을 결집해 대불련 활성화에 역점 둔 활동 △대불련 재학생들을 초청해 함께하는 동문대회 개최 등 의견이 나왔다.

김천=배지선 기자

천하제일의 운명의 등대 천신의 안내서



육경신을 통한 저자 74세

八卦 秘傳 팔괘비전

閱易神書 열역신서

增補版 증보판

도서출판 새로운문화사

天醫仙道 太宗仙師 楠宮 金永生 編著

제 1편 운명의 예언

人生은 배우
운명은 각본
생활은 연출

당신의 출생에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시시각각의 변화 양상이 수록되어 있다. 어떠한 난관에 처해도 대처할 수 있는 행동 처신 방향을 정확히 설파해 놓았다. 그래서 神書이다.

제 2편 四象醫學 八象分類秘法

太陽人 Ⅰ, Ⅱ型
太陰人 Ⅰ, Ⅱ型
少陽人 Ⅰ, Ⅱ型
少陰人 Ⅰ, Ⅱ型

사상의학의 숙원인 팔상분류법을 완성공개. 체질에 맞는 이로운 식품과 해로운 식품을 분류했다. 같은 체질이라도 열 체질과 한 체질이 있고 장부가 다르기에 보사법을 수록해 놓았다.

제 3편 生老病死와 사후영혼의 실상을 밝혔다

업장을 풀고
숙명을 뛰어 넘어라

건강을 원하거든 행복을 원하거든 천문을 열어라. 평생회비 50만원을 20만원에 천문을 열어드립니다. 천문이 열리면 생명의 에너지가 정수리를 통하여 몸속으로 유입되면서 손과 손사이에 자석의 밀고 당기는 것 같은 자장을 느끼며 자연의 신비에 감탄하는 순간 빙의된 조상신은 생명의 에너지를 보급받고 천상 신명계로 떠가게 됩니다. 그 순간부터 몸과 마음이 거뜬해지고 집안이 편안해지며 하시는 일이 서서히 잘 풀려갑니다. 건강과 행복을 찾는 천상비결이 여기에 있습니다.

책값 30,000원
직접 오셔서 책을 구입하는 분에게는 운명상담은 물론 8상체질 분류도 무료로 해 드립니다.

저자는 이 지구상에 인구가 70억이 될 때 원인 모를 질병이 인명을 휩쓸고 갈 터인데, 천의선도를 전수시켜 인명을 구하고 구천에 방황하다 후손의 몸에 빙의되어 사욕편정을 조성하는 영혼에게 사면령을 내려 연화장세계로 보내라는 천명을 받고 전 인류에게 알리기 위해 팔괘비젼 열역신서 증보판을 낸다. 미구에 닥칠 대 예언서다.

주문 ☎ : 02)2216-6278 HP : 011-9803-4600
계좌번호 : 하나은행 382-810082-33207 김영생

연극전용 극장으로 문화포교



천안불교문화원은 개관에 앞서 8월17일 지역어르신을 초청해 한암아트홀에서 경로잔치를 개최했다.

천안 한암사 불교문화원내에 연극전용 공연장이 문을 열어 화제다.

천안 쌍용동 한암사 천안불교문화원(원장 원철)은 2년 6개월여의 불사 끝에 한암아트홀(대표 김영렬) 개관식을 9월 3일 오전 10시 개최한다. 천안사암연합회 회장 대원 스님, 호법부장 묵암 스님, 성무용 천안시장 등 5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는 법회에서 김영렬 한암아트홀 대표에게 공연장을 상징하는 열쇠가 전달된다.

이날 개관 기념 음악회도 개최된다. 음악회는 서울예술단의 사물놀이를 비롯해 팝송 가수 배에스텔 씨와 박정희 음악가의 공연, 불교학춤, 중요무형문화재 신영희 씨의 판소리 한마당 등 동서양의 음악이 어우러진다.

지하 1층 지상 3층, 연건평 4백여평 규모의 불교문화원 지하 1층에 자리한 한암아트홀은 130평 규모로 객석 176석과 음향영상 장치를 갖춘 연극전용극장. 김영렬 前 KBS 제작국장이 대표를 맡아 매월 2~3차례의 연극 공연과 뮤지컬, 아동극, 음악회, 명사특강 및 세미나 등을 유치해 나갈 계획이다.

9월 개관 직후에는 천안불교어린이뮤지컬단을 결성해 불교문화 보급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예정이다.

천안불교문화원장 원철 스님은 "한암아트홀을 불교문화와 대중문화를 아우른 복합적인 문화예술공간으로 키워나가고, 불교문화원 인근 5~6개의 소극장 건립을 추진해 이 지역을 천안 문화 중심지로 집중 육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나아가 장기적으로 서울에서 천안 · 아산 · 예산 · 당진 · 평택을 거쳐 목포로 이어지는 서해안 문화그린벨트 네트워크를 구성해 천안을 거점도시로 키워나가겠다는 원력도 내비쳤다.

한암사, 아트홀 9월3일 개관
어린이 뮤지컬단 결성 예정
"서해 문화그린벨트 거점 할것"

'붓다를 훔친 도둑'의 극작가이기도 한 원철 스님은 "언제 끝날지 모르는 평생불사"라며 "천안불교문화원을 중심으로 불교문화를 널리 보급함으로써 한국을 대표하는 예비문화성지로서 역할을 다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041)592-4747

박봉영 기자 bypark@buddhapia.com

혜향 스님 광주사암련 회장 선출

천성산 살리기 참여 결의

제 16대 광주불교사암연합회를 이끌어 나갈 회장단이 구성됐다.

광주사암련은 8월 19일 무각사 불교회관에서 회장단 구성을 위한 정기총회를 열고 신임회장에 향림사 주지 혜향 스님(사진)을 선출했다.

30여 회원 사찰 스님이 참석한 이날 총회에서 상임 부회장에 석장 스님(문빈정사)과 감사에 도산(대각사), 설래장(금광사) 스님을 각각 선출했다.



이날 혜향 스님은 당선 인사말을 통해 "원로 대덕스님들의 뜻을 받들어 불교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사암련은 이날 총회에서 '지율스님과 천성산살리기 100만인 서명'에 사암연합회 차원으로 참여하기로 결의하고 성금모금에 들어갔다.

인터뷰 혜향 스님

"환경부서 구성 투명운영 할것"

"먼저 광주 불교계 화합에 혼신을 다하겠습니다. 승속을 떠나 하심(下心)하며 직접 뛰어다니겠습니다. 만나서 대화하고 설득하면 풀리지 않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16대 광주불교사암연합회 회장 혜향 스님(향림사 주지)은 "광주 불교계 화합"이 우선적으로 풀어야할 숙제라고 지적하고 "차근차근 풀어가겠다"고 말했다.

스님은 "광주 사암련의 숙원사업인 불교회관이 빠른 시일 내에 개관하도록 노력하겠다"며 "불교회관은 공인된 신행단체가 모여 함께 일할 수 있도록 개방하겠다"고 밝혔다.

스님은 또한 "불자라면 누구나 쉽게 찾도록 사암련의 문턱을 낮추고 모든 운영을 공개해 투명하게 운영하겠다"고 강조했다.

포교, 신행은 물론 환경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스님은 "시민연대, 환경문제를 전담하는 부서를 두어 대사회문제에 불교계가 적극 나서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혜향 스님은 1972년 대흥사에서 천운 스님을 은사로 출가, 범어사 강원 대교과를 졸업했다. 현재 향림사 주지, 광주불교대학장을 맡고 있다.

이준엽 기자

목포·신안·무안 통합 사암련 결성

초대회장에 경훈 스님

목포, 신안, 무안 불교를 통합하는 서남통합불교사암연합회(회장 경훈 · 사진)가 창립됐다.

전남 서남지역 각 사암연합회는 8월 13일 3개 지역을 통합하는 사암연합회를 결성키로 하고 초대회장에 경훈 스님(무안 약사사 회주)을 추대했다.

이날 창립된 서남통합불교사암련은 목포 법주사 주지 혜원, 신안 일심사 주지 현암, 무안 마곡사 주지 정평 스님을 지역 지회장으로 선임하고 첫 행사로 8월 20일 무안 백련축제장에서 '국태민안백련축제 대법회'를 개최했다.



이날 초대 회장으로 추대된 경훈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전남 서남지역은 같은 생활권으로 3개 시군 불교연합회가 힘을 모아 지역 불교발전을 위해 노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이준엽 기자

태고종 보우승가대학 개원
의식·경전연구반 2년 과정

태고종 보우승가회(회장 호명 · 서울 염불사 주지)는 서울 창신동 원각사에 보우승가대학을 9월 1일 개원한다. 보우승가대학은 1년 과정으로 의식반과 경전연구반으로 나누어 첫 학인을 모집, 9월 9일 입학식을 개최한다.

의식반은 기본반과 전문반으로 구분, 영산재와 불교의식 등을 이론과 실수를 겸해 운영된다. 강의는 영산재보존회 이수자인 설운스님과 경허 스님, 법성 스님 등이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오후 4~7시 진행한다.

스님과 불자들이 모두 입학할 수 있는 경전연구반에서는 신규탁 연세대 철학과 교수의 원각경 강의를 비롯해 금강경, 능엄경, 화엄경, 선가귀감, 육조단경 등 경전 중심의 수업이 이뤄진다. 수업은 매주 금요일 열린다.

보우승가대학은 현재 30여평의 강의실과 60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기숙사, 주차장 등을 완비했으며, 내년 3월까지 2년 전문과정으로 개편, 운영될 예정이다. (02)763-5213

박봉영 기자

선암사, 27일 전통차 심포지엄

지허 스님 등 논문발표

한국 전통차를 바로알기위한 '한국전통차 문화심포지엄'이 8월 27일 순천 선암사 만세루에서 열린다.

태고총림 선암사가 주관하고 순천대 남도문화연구소가 주최하는 이번 심포지엄은 선암사 주지 지허 스님과 조충훈 순천시장, 김재기 순천대 총장이 참석한 가운데 주제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된다.

이날 첫 발제자로 나서는 지허 스님은 '한국 전통차의 법제와 선 · 다맥'에 대해 발표하고, '호남지역의 차문화'(김상현 동국대 교수), '호남의 구산선문과 그 문화'(최인선 순천대 교수), '한국전통차의 효능'(심연옥 국민대 교수), '국내산 야생차 및 발효차의 특성'(최옥자 순천대 교수) 등 전통차에 관한 논문이 발표된다.

이에 대해 김봉렬(한국예술종합학교), 이해주(서울대), 한희준(서울대), 안상수 교수(홍익대)와 유창종 변호사가 토론자로 나서 종합토론을 펼친다. (061)754-5247

이준엽 기자

전남경불회 회장 이 · 취임
신임회장에 이병욱 서장

전남지방경찰청불자회는 8월 11일 광주 향림사에서 회장단 이 · 취임식을 봉행했다.

전남 경찰청, 경찰서, 도청 불자회 등 100여명이 참석한 이날 행사에서 전임 천승범 회장(고흥 경찰서장)이 이임하고 신임회장에 이병욱 장흥경찰서장이 취임했다.

신임 이병욱 회장은 인사말에서 "부처님의 진리를 바르게 배워 선을 행하고 어두운 곳을 비추는 사회의 참된 등불이자 경찰불자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준엽 기자

지금, 우리 절에서는…

음성 용천사

총림 불사 위해 진력



불사관리 총감독을 맡고있는 아미타종 사회부장 만경 스님이 용천사 조감도를 펼쳐 불사 진행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충북 음성군 생극면 신양리에 위치한 용천사. 3만 3천여평의 부지에 자리 잡은 이곳은 한여름임에도 불구하고 터파기와 골조 슬라브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미 입구인 일주문과 요사, 사무실, 법당이 자리할 2층 규모의 보타전이 골격을 드러냈다.

또 관세음보살입상이 세워질 터와 납골당으로 사용되는 극락전의 자리는 터파기와 기본 토목공사가 거의 마무리된 상태다.

용천사는 올 11월 관세음보살입상 점안을 시작으로 내년 부처님오신날을 즈음해 사찰의 형태를 갖추는 1차 불사가 완료된다. 2009년이면 통합불교 아미타종(총무원장 법안) 종도와 신도들의 정신적 귀의처가 될 총림으로 거듭날 전망이다.

지금까지 용천사 불사에 투입된 비용은 약 15억여원. 총림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앞으로 이보다 몇 배가 넘는 불사비가 들어가야 가능하다. 총 20여동에 달하는 대형불사이기 때문이다. 총림으로서 갖춰야 할 선원과 강원, 율원을 비롯해 대웅보전, 대적광전, 무량수전, 금강문, 천왕문, 불이문 등이 2차 불사기간에 세워질 전각이다.

이 불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납골시설과 종교시설의 허가를 얻은 지난해 2월. 평소 불자들이 어려움 없이 수행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싶었던 아미타종 총무원장 법안 스님이 종단의 총본산의 성격을 함께 갖춘 도량으로 일구겠다는 서원을 세우면서 시작됐다. 스님은 막대한 불사비와 신도들의 보시금에 의존하는 사찰운영 형태를 벗어나기 위해 납골당을 선택했다. 이 과정에서 납골시설 건립을 반대하는 주민들에게 사찰 건립계획을 알리고 마을회관을 세워주는 등의 활동을 통해 설득하는 지혜를 발휘했다.

선원 · 강원 등 갖춰 2009년 완공
납골시설 건립 통해 사찰 재정자립

용천사는 불사현장 한켠에 임시 법당을 마련해 두었지만 아직 신도가 없다. 하지만 법안 스님은 국내 최초로 660cm 통돌로 조성된 관세음보살입상을 점안하는 11월 이후 불자들의 발길이 이어질 것이라고 자신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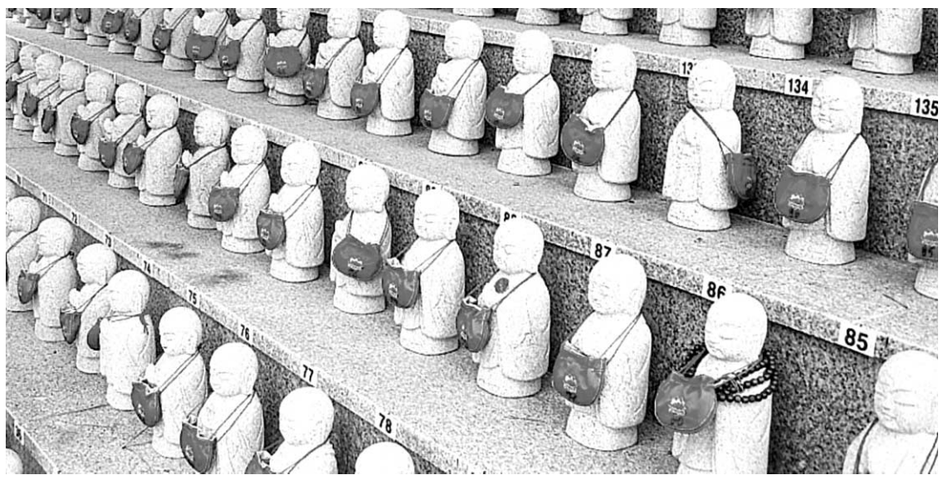
올바른 스님과 불자들을 길러내는 도량을 만들겠다는 스님의 서원에 공감해주는 불자들이 있을 것이라는 희망 때문이다.

법안 스님은 "불자는 물론 일반인들까지 귀의할 수 있는, 큰 불교를 할 수 있는 도량으로 가꾼다는 각오로 불사를 성공적으로 이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043)881-3108

글 · 사진/음성=박봉영 기자

2004년 엄마 · 아빠 태아영가 49일 천도 참회기도 발원

귀의 삼보하옵고
저희 구담사는 매년 양력 3월 , 6월, 9월(첫째주 일요일) 태아영가 49일 천도재를 올리어 기도 입재 하오니 많은 동참하여 엄마, 아빠의 참회로 어두운 태 속에서 쓸쓸히 사라져간 태아영가를 위해 참회 기도합시다.



◉ 기도 입재일 : 양력 9월 5일 (첫째주 일요일)
◉ 기도 회향일 : 양력 10월 24일 (일요일)
◉ 시간 : 오전 10시 30분
◉ 기도 동참금 : 49일 1회 - 49재를 한 번 할 경우 - 10만원
49일 7회 - 49재를 7번 할 경우 - 40만원
◉ 위 패 비 : 한 위패당 5천원
※참고 : 동참금을 완불하셔도 위패비 접수 안 한 분은 축원 위패가 없습니다.
※알림 : 기도금 위패비 완불하신 분은 위패봉안 하여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준 비 물 : 분유(우유), 과일, 사탕, 초코파이 등
(5재때는 관욕을 하오니 수건, 양말, 신발, 비누, 아기 옷 등)
◉ 구담사 버스안내 : ※ 입재, 3재, 5재, 7재때만 운행
• 시간 - 오전 8시까지(강변역 2호선 테크노마트 주차장 입구), (강북 방향 도봉산역 1호선, 7호선 연결)
(의정부 시외버스터미널→ 포천방향쪽)
※ 입재, 3재, 5재, 7재때만 운행
◉ 대중 교통 안내 : • 강변역 동서울 터미널 - 이동하차 (법회 때만 운행)
• 수유리 전철역 터미널 - 이동하차 (법회 때만 운행)
• 상봉동 상봉 터미널 - 일동행 → 연곡 4리(제비울 하차) - 이동

※법보시용 : 전화주시면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새생명 살리기 만등불사 안내
저의 구담사에서는 한 생명 참회기도와 또 한 생명 살리기 위해 만등불사를 하오니 많은 동참 바랍니다.
이 광명의 등불은 태어나지 못한 태아는 참회하고, 한 생명 살생을 줄이기 위해 광명을 비추어 낙태 없는 깨끗한 세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 태아영가등 : 1인 영가 1만원
☏ 태아 · 영가 만등불사금 : 국민은행 217-01-0339-914 (이동순) 농 협 225050-56-033370 (이동순)

대 한 불 교 조 계 종
엄마아빠참회기도도량 구 담 사

◆ 주소 : 경기도 포천군 이동면 연곡 4리 595번지 대표 (031)533-2855, 2854, (02)487-3254 / 팩스 (031)532-2441 / 홈페이지 한글 구담사. http://gudamsa.org

전통문화·수행 체험으로 전법 불 지핀다

충북 진천·괴산·증평 보탑사 열린음악회 · 용화사 미륵영산재 · 성림사 범패음악회 '주목'

가능성. 그건 잠재력이자 미래형이다. 하지만 누가 찾아주는 것이 아니다. 스스로 발견하고 스스로 키워나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언제나 '현재'에 머물 뿐이다.

충북 지역 가운데에서도 유난히 불교세가 약한 진천 · 괴산 · 증평. 이 지역의 스님들은 그런 사실을 부인하지 않는다. 아니 자신(?)있게 "그렇다"고 말한다. 도대체 그런 엉뚱한 배짱을 부릴 수 있는 이유가 뭘까.

드러내지는 않지만 이 지역의 스님들은 자신들의 '잠재력'을 믿고 있다. '한 번 하면 잘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침체에서 벗어나야 하지 않겠느냐"는 물음에 "이제 해봐야죠"라는 느긋한 대답. 그런 대답이 전혀 근거없는 얘기는 아니다. 몇몇 사찰들이 나름대로 사찰과 지역불교 발전을 위한 프로그램을 구상 중이거나 마련단계에 들어가면서 활로를 열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영웅'은 난세에 나는 법. 세 지역의 스님들은 이제 지역불교의 '영웅시대'를 열기 위한 용트림을 하고 있다.


8월18일 오전, 보탑사 주지 능현 스님과 서울서 온 불자들이 보탑사 경내에 앉아 이야기꽃을 피우고 있다.

8월 18일 오전 진천 보탑사. 평일 오전인데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사람들이 경내를 둘러보고 있다. 보탑사 주지 능현 스님은 서울서 찾아 온 불자들의 요청으로 함께 예불을 올린다. 예불이 끝나자 사찰 마당에 둘러앉아서 함께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눈다. 두 번째 보탑사에 왔다는 불자들. 주지 스님과 마주 앉는 것은 처음이지만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처럼 허물이 없다.

대화가 오가는 사이 마을의 한 어린이가 아이스크림을 들고 와 스님에게 건네기도 하고, 마을 주민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사람은 경내에 잡초가 많이 자랐다며,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마치 자기 집 앞마당처럼 다니며 잡초를 뽑는다.

불자들과 지역민에게 내 집처럼 편안한 절 보탑사. 그런 보탑사가 대중 속으로 더 파고들어가겠다는 계획 아래 최근 들어 일반인들을 위한 일요법회와 주말 수련 프로그램 운영 계획을 구상하고 있다. 능현 스님은 "보탑사를 열린 공간으로 만들어 중부권 최고의 전법도량이 되도록 하고 싶다"고 말한다.

보탑사는 지난해까지 네 차례 열었던 산사음악회도 올해부터는 변화를 줄 계획이다. 클래식과 가요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 일반적인 산사음악회와 달리 전통음악공연 형태에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프로그램도 병행한다는 것이다.

같은 날 오후 용화사. 주지 무위 스님은 올해 음력 9월에 열 미륵영산재 기획안을 짜느라 여념이 없다. 올해로 4회째를 맞는 미륵영산재는 지역민들에게 불교의 전통문화를 알리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사찰과 지역민과의 거리를 좁히는데 크게 기여했다. 성림사 주지 혜묵 스님은 범패 음악회를 계획 중인데, 불교전통음악인 범패를 통해 불교를 대중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들 세 사찰의 공통점은 불교전통을 포교의 방편으로 삼겠다는 것. 물론 전통만 고집하는 것은 아니다. 시대 흐름에 필요한 포교방안 도입 필요성도 공감하고 있다.

문제는 몇몇 사찰들의 이런 노력이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느냐는 점이다. 진천불교의 명물로 떠오른 보탑사를 중심으로 뜻을 모은다면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선 사암연합회 결성이 필요하다. 사암연합회를 중심으로 지역불교 현안을 논의하고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진천불교는 지금 '내 사찰'보다는 '지역 불교'를 우선시하는 사찰들의 인식전환이 절실한 상황이다.

괴산은 대표 사찰인 공림사가 지난 몇 년간 활동을 소홀히 한데다, 나머지 사찰들 역시 마찬가지여서 그야말로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을 정도. 하지만 최근 주지가 바뀐 공림사가 템플스테이와 주말 철야정진, 주말농장, 경로잔치 등 대중과 함께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마련에 들어가고, 조만간 선방과 시민선원도 개원할 예정에 있어 전체적으로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여기에 다보사를 비롯한 몇몇 사찰들도 침체를 벗어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 도심 포교당인 개심사가 합세할 경우 괴산불교의 발전 가능성은 어느 곳보다도 크다.

증평불교는 증평불교연합회가 27년간 활동해 온 연륜을 바탕으로 지역 활동을 벌이고 있고, 증평불교사암연합회는 지난해 교통안전기원제와 지역안녕기원제를 지내는 등 지역민과의 거리를 좁혀왔다. 여기에다 호국충용사, 보광사, 보타사, 삼보사 등 주요 사찰들이 포교에 나서면서 나름대로의 입지를 구축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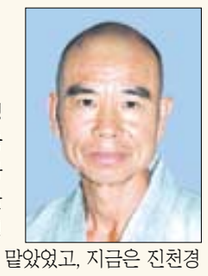
하지만 불교연합회와 불교사암연합회의 양분은 지역불교발전의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증평군의 관계자들이나 지역민들도 이를 안타까워한다. 양측의 스님들도 통합 필요성을 인정하는 상태. 증평불교는 지금 '공생'이냐 '공멸'이냐를 선택해야 하는 시험대에 서 있다.

진천 · 괴산 · 증평=한명우 기자

지역불교 이끄는 스님들

생활불교 저변 확대

혜묵 스님
진천 성림사 주지



불교의 대중화와 생활화를 강조하며 적극적으로 포교활동에 나서고 있다. 대전생활불교회 지도법사와 청주교도소 종교위원을 맡았었고, 지금은 진천경찰서 경승실장과 인근 군부대 지도법사로서 경찰과 군 포교에 주력하고 있다.

8년 전부터 오갈 데 없는 아이들을 키워왔을 정도로 불우어린이에 대한 관심이 각별하며,지금도 5명의 아이들을 돌보고 있다. 평소 매장문화의 문제점을 강조해오다 납골문화 정착을 위해 10년 전부터는 납골당을 운영해오고 있기도. 그동안 성림사를 사격을 갖춘 사찰로 일궜으며, 요사채를 지어 주말에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지역불교 발전의 '큰 손'

상명 스님
진천 보현사 주지



바쁘다. 태고종 충북종무원 교무국장직을 수행하기가 벅차 소임을 내놓았을 정도로.

하지만 아직도 맡은 일이 많다. 태고종 진천분원장 총무, 태고종 충북 원로스님들의 모임인 보문회 총무, 증평사암연합회 총무, 진천 태고종 스님들의 모임인 정각회 총무. 원래 회장보다는 총무가 바쁜 법.

그러다보니 사찰 일이 뒷전일 때가 많다. 원만한 성격에 꼼꼼한 일처리로 종단과 지역에서 신임이 두텁다.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보현사를 기도도량으로 가꾸었으며, 납골탑도 운영하고 있다. 대웅전을 짓는 등 그동안 주력해왔던 도량정비사업을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 짓겠다는 계획.

문화 마인드·시대감각 겸비

능현 스님
진천 보탑사 주지



지역주민에게 화장품을 선물받을 수 있는 스님. 그것은 서로의 '느낌'이 없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보탑사가 진천불교의 얼굴인 이유는 바로 그런 능현 스님이 있기 때문이다. 솔직담백하고 따뜻한 성격에 온화한 미소, 게다가 뛰어난 시대감각과 문화마인드까지 겸비했다.

보탑사를 중부권 제일의 전법도량으로 자리매김 시키겠다는 포부아래 어린이와 군 포교에 나서면서 매년 산사음악회도 개최하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서울 삼선포교원 청년법회도 지도하고 있으며, 지역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형편이 어려운 이웃주민들에게는 경제적 후원을 하고 있다.

이웃과 호흡 맞추기 '프로급'

무위 스님
진천 용화사 주지



'사찰운영도 경영이고 행정이다.' 용화사를 잘 꾸려가기 위해 연세대 행정대학원에 진학했을 정도. 내친 김에 박사과정까지 가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공부 욕심이 많다. 5년 전 용화사 주지로 부임한 이후 침체돼 있던 용화사를 진천군의 중심 포교도량으로 탈바꿈시켰다. 사찰에서 군인법회를 열고, 또 인근 부대를 다니며 훈련병 수계법회를 하는 등 군 포교에도 열심이다. 4년 전부터는 미륵영산재를 열고 노인잔치를 개최하는 등 지역민들과 함께 호흡하면서 지역불교 발전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유치원과 복지관을 갖춘 진천의 종합문화공간을 만들고 싶다는 포부를 가지고 있다.

"수행 없이는 포교도 없다"

종성 스님
괴산 각연사 주지



법주사 강원과 동국대를 졸업한 이후 20년이 넘게 선방에서 수행에만 몰두해 온 수좌출신으로 무엇보다도 수행을 강조한다. 5년 전 각연사 주지 소임을 맡은 이후에도 일체의 다른 활동을 접은 채 수행에만 전력하고 있다.

최근에는 더 많은 스님들이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춰 각연사를 명실상부한 수행도량으로 가꾸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각연사가 사람들이 찾아오기 쉽지 않은 곳에 위치해 있어 포교도량으로 발전시키기에는 무리가 있는데다, 괴산에서 번듯한 수행도량 하나쯤은 있어야 한다는 판단 때문이다.

친근감 넘치는 사찰 가꿔

혜우 스님
괴산 공림사 총무



침체돼 있는 괴산불교를 변화시킬 능력과 마인드를 갖추고 있는 괴산불교의 '희망'. 오는 9월 주지 임명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혜우 스님은 공림사에 온 지 불과 두 달밖에 되지 않았지만 이미 공림사와 괴산불교 발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마련에 들어갔다. 불교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소신이 뚜렷하고, 시대와 불교의 흐름을 읽는 눈이 정확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대중 속으로 파고들어감으로써 불자들로부터 "공림사에 간다"는 표현이 아닌 "우리 절에 간다"는 말이 나올 수 있도록 공림사를 친근감 있는 사찰로 만들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최근까지 조계종 총무원 호법부 상임감찰을 지냈다.

증평 불교계 터줏대감

인호 스님
증평 삼보사 주지



1972년 삼보사를 창건하고 30년이 넘도록 증평에서 활동한 증평불교의 터줏대감. 1977년 증평군 불교연합회를 창립해 이끌어 오면서 불교회관을 마련하고 지역 행사에 참여하는가 하면 불우이웃돕기에도 나서는 등의 활동을 펼쳐왔다. 개인적으로는 지역 학생과 장애인들에게 장학금과 후원금을 지원해왔으며, 지난해에는 사암련에서 운영한 불교교양대학 학장을 맡아 불자들을 지도하는 등 지역과 불교발전에 기여했다.

도량을 정비하고 수행공간을 마련해 누구나 와서 편하게 수행하고 기도할 수 있는 도량을 만드는 것이 꿈이다.

사찰부지 공원으로 활용

대호 스님
증평 보타사 주지



"지역민과 함께 호흡해야 한다. 그래야 불교가 산다." 친근감 있는 불교를 강조하는 증평불교의 '젊은 피'. 5천여 평의 사찰 부지를 공원화해서 사찰을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휴식공간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특히 장애인에 대한 관심이 많아 장애인 시설 건립도 염두에 두고 있다.

증평군 불교연합회와는 다른 증평사암연합회 회장을 맡아 지역행사에 적극 참여하는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불교의식에 관심이 많고, 이를 통해 지역포교를 활성화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판단 아래 지난해 보타사 차원에서 영산재를 열었으며, 격년제로 영산재를 정례화 할 생각이다.

돋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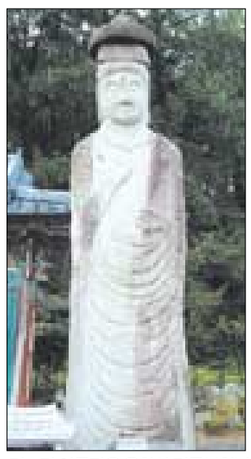

통일을 염원하는 보탑이 눈길을 끄는 보탑사.

보탑사

진천불교를 대표하는 사찰. 경내에 들어서면 감탄사가 저절로 나온다.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면서 아름답고 편안한 분위기가 압권이다.

통일을 염원하며 3층까지 오를 수 있도록 지어진 150평 규모의 보탑은 보는 이의 눈길을 사로잡기에 충분하다. 보탑 3층에서 내려다 보이는 주변 경치가 일품. (043)533-0206

용화사


미소가 아름다운 용화사 미륵부처님.

미소를 머금은 미륵부처님. 이 미륵부처님 앞에 서면 번뇌가 저절로 사라지니, 그래서 소원이 이뤄진다고 하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전통사찰로, 진천읍내에 가까이 위치해 있어 찾아가기 편리하다. (043)533-3204

영수사

고려시대 창건된 고찰. 진천의 명산인 두타산 자락에 위치해 있으며, 매년 부처님 오신날에만 공개되는 부처님이 영산에서 설법하는 장면을 묘사한 9m 가량 크기의 괘불(충북도 유형문화재)이 보존되고 있다. (043)532-6288


공림사는 장중하면서도 편안한 절이다.

공림사

충북에서는 법주사 다음으로 큰 사찰. 스님들과 일반인들을 위한 선방과 요사채만도 5개 동이 있다.

수려한 주변 산세와 깔끔하면서도 장중한 도량이 잘 어우러져 가람의 면모를 그대로 보여준다. 낙영산 등산로가 걸쳐 있어 등산도 하고 사찰 참배도 하기에 좋은 여건. 괴산군 청천면 사담리에 위치. (043)833-1029

각연사


보물 433호인 각연사 비로자나불.

나뭇잎 속삭이는 소리와 풀벌레 울음소리만 들리는 기도하고 수행하기에는 더없이 좋은 절이다.

비로전의 비로자나불(보물 433호)과 통일대사비(보물 1296호) 통일대사 부도(보물 1370호) 등의 유물이 있다. (043)832-6148

보광사

한적하고 고풍스런 분위기가 느껴지는 곳이다. 고려 28대 충혜왕 때 창건됐으나 조선 헌종 때 폐사된 옛 봉학사 터의 아래쪽에 건립된 전통사찰. 괴산에서 34번 국도를 타고 증평 쪽으로 가다보면 만날 수 있다. (043)833-4538

파라미타청소년협회 · 우리는선우, '한 · 몽 청소년 국제친선 캠프' 현장



한 · 몽골 청소년들이 8월 14일 몽골 나이람달 수련원에서 열린 입소식에서 손을 맞잡으며 환한 미소를 짓고 있다.

초원에 펼쳐진 한·몽 불심

문화체험 · 교류 통한 한마음 불교 확인

입재식 1시간 전. 기다란 현수막이 몽골 울란바토르 간단사 불교대학 강당에 내걸렸다. '넓은 대륙, 높은 기상, 끝없는 초원' 이란 글귀도 플랜카드를 장식했다. 파라미타청소년협회(회장 원택)와 우리는선우(이사장 성태용)가 8월 11일부터 16일까지 개최한 '한 · 몽골 국제 청소년 친선 교류 캠프.' 부산은 기본, 중국 유학생, 소년소녀가장들까지 한국의 초 · 중 · 고등학생 58명이 이곳 몽골로 날아 들어왔다.

찬란했던 몽골불교 현장에 서다

8월 11일 캠프 입재식. 간단사 주지 푸레밧 스님(몽골전통불교대학장)은 몽골 대륙 한 복판에 선 한국 청소년들에게 이 말부터 던졌다.



테를지 국립공원에서의 몽골 가옥 '게르' 짓기.



간단사 주지 푸레밧 스님에게 법문을 듣고 있는 한국 청소년들.



한국 청소년들이 14일 환영식에서 '사물놀이' 공연을 벌이는 모습.



16일 회향식. 한 · 몽 청소년이 석별의 정을 나누며 포옹을 하고 있다.

"여러분들은 찬란했던 몽골 불교문화 전통이 지나간 그 역사현장 한 자리에 와 있습니다. 몽골 민족에게 불교가 최고의 가르침이듯이 한국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러한 불교문화전통을 바탕으로 우리 한 · 몽골 청소년들이 미래불교를 힘차게 이끌어 나갑시다."

이어 우리는선우 윤세원 운영위원장도 "몽골 체험은 자기 변화의 새로운 시도"라며 "무엇을 보고 어떻게 느낄지 캠프 기간 내내 고민해보자"고 주문했다.

때문에 이번 캠프는 철저히 양국 문화 체험, 탐방, 교류 등에 초점이 맞춰졌다. 12일 몽골 전통 가옥인 게르 짓기, 승마 등의 체험 프로그램이 그렇고, 13~15일 노래 배우기와 전통문화 공연, 체육대회 등이 이러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몽골문화 모든 것을 느낀다

본격적인 몽골 문화체험은 12일 테를지 국립공원에서부터 시작됐다. 6개조 나눈 청소년들은 13일 오전까지 승마, 게르 짓기 등으로 몽골을 차근차근 배워나갔다.

이 중 단연 인기는 게르 짓기. 게르의 뼈대인 '한'을 둥글게 드리우고, 원형 지붕인 '토오노'를 곧추 세운다. 그리고 양털을 누벼 만든 '에스기'를 덮어씌운다.

"한 나라의 문화를 알려면, 의 · 식 · 주가 어떤 지부터 배워야 한다고 하잖아요. 게르를 직접 지어보니 유목민인 몽골인들의 삶을 조금이라도 알 것 같아요." 유나(17 · 용인 서원고1년)의 소감 한마디가 똑 부러졌다.

캠프 사흘째. 청소년들의 몽골 말이 부쩍 늘었다. 꿀 먹은 벙어리였던 아이들의 말문이 트였다. 한국어 발음과 비슷한 몽골말만 나와도 금세 앵무새가 돼 버린다. 캠프에 오기 전에 인터넷에서 몽골어 몇 마디를 배웠다는 다정이(14 · 명성여중 1년), 몽골 사람만 만나도 연신 '센 베노?(안녕하세요)'를 외치는 상민이(12 · 서울 대곡초 5년)도 몽골리언이 다 됐다.

비찬떼 하르떼(얘들아 사랑해!)

13일 오후 7시. 울란바토르 시 나이람달 수련원으로 돌아온 아이들의 목소리가 커졌다. 곧 있을 몽골 아이들과 첫 만남. 잔뜩 긴장하는 눈치였다.

잠시 후, 드디어 만났다. 단단히 벼렸다. 기다리는 동안 몽골말도 짬짬이 익혔다. 하지만 어색한 눈빛만 날린다. 준비한 인사말은 못하고, 연신 옆 사람과 수군소곤이다. 그래도 슬슬 본색(?)을 드러낸다. 일은(16 · 대전 보문중 3년)이가 여지없이 침묵을 깬다. '비찬떼 하르떼(얘들아 사랑해!)'

양국의 문화 알기는 14일 수련원 극장에서 열린 '몽골 노래 배우기'로 이어졌다. '봄 봐야(기쁨을 즐겨요)'란 노래가 메뉴엘 올랐다. 몽골 강사가 가락을 가르쳐주지만, 아이들의 반응이 신통치 않다. 러시아 글을 차용한 키릴 문자와 몽골어는 아무래도 배우기 버거운 모양이다.

"가사 뜻은 몰라도 노랫가락은 낯설지 않아요. 한국노랫가락 정서와 맞아서 그런 것 같아요. 많이 들어본 듯한 느낌은 아마도 우리나라와 몽골이 한 민족이지 않았을까하는 생각을 들게 해요." 희진(16 · 서울 양동중 3년) 이의 말이 인상적이다.

불교는 어머니같은 존재

양국 청소년들의 동질감. '몽골 반점'에서도 확인됐다. 같은 인종이라는 생각은 몽골어 '후후털버(푸른 반점)' 이야기로 서로가 통했다. 언어는 중요하지 않았다. 전혀 다를 것이 없었다.

아이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화제 거리도 비슷했다. 공부 부담, '한류열풍'의 주인공 영화배우 이야기에 이르기까지 영락없는 어느 청소년들의 모습이었다. 불교에 대한 생각도 마찬가지였다. 양국이 불교의 나라라는 점을 잊지 않고 있었다.

"불교는 엄마와 같은 존재예요. 언제나 넉넉하고 따뜻하게 제 마음을 끌어안아 주거든요. 일주일에 한번씩 울란바토르 간단사에 가는 것도 이 때문이지요." 오유까(15 · 울란바토르 15학교 8년)는 불교가 '엄마'라고 말했다.

입학하자마자 불교학생회에 들어갔다는 지선(14 · 명성여중 1년) 이도, 몽골 친구들에게 사물놀이의 진수를 보여주기 위해 한 달 넘게 꽹과리를 연습했다는 새하(18 · 이리 남성여고 2년)도 장래 꿈인 디자이너라는 엘카(17 · 베이징 55중학교 4년 유학중)도 마찬가지였다.

아이들의 양국 문화 체험은 15일 '미니문화축제'로 정점에 달했다. 양국 언어로 이름쓰기, 몽골 닭싸움, 한국음식 맛보기와 한복 소개, 사물놀이 공연 등 서로를 아는 데 부족함이 없었다.

"입는 옷만큼 그 나라의 문화를 알려주는 데 확실한 방법은 없을 거예요. 몽골 친구들이 몽골 전통의상 '델'과 비교하며 신기해하는 모습이 너무 좋았어요." 운영(18 · 분당 이우고 2년), 소연(16 · 분당 청솔중 3년) 자매가 한복 맵시를 뽐내며 이렇게 말했다.

짧기만 한 5박6일. 16일 캠프 회향식에서 청소년파라미타 사무총장 선웅 스님이 '헤어지기가 아쉽습니까?'란 말에 장내가 숙연해졌다. 그리고 이어진 윤회의 악수. 서로를 안아주고, 맞잡은 손을 놓지 못했다. 흘리는 눈물도 닦아줬다. 그간 쌓인 정으로 회향식은 이내 눈물바다가 됐다. 양국 청소년들의 만남, 서로의 마음속에 한국과 몽골을 깊게 심어주었다.

글 · 사진/ 몽골 울란바토르=김철우 기자

제1회 중국 '오대산 불교문화절' 행사 현장



3만여 불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8월 16일 오대현 대회진에서 제1회 '오대산 불교문화절' 개막식 행사가 거행됐다.

인류 화합위해 지혜 모으자

韓 · 中 오대산 지속적인 교류에 합의



월정사 주지 정념 스님(오른쪽)과 송베이샨 산서성 부성장은 '오대산 불교문화절' 개막 전날인 8월 15일 만나 한 · 중 불교 교류 방안을 의논했다.

한국 월정사 1백여명 참석

8월 16일 오전 중국 산서성(山西省) 오대현. 고대 중국 불교의 탄생지 중 하나인 오대산에는 흥분된 목소리가 가득했다. 귀주시가 올해 처음 '오대산 불교문화절' 행사를 개최했기 때문이다.

기둥 모양, 사자를 탄 문수보살 모양, 용 모양 등 화려한 애드벌룬이 축제장을 채웠다. 황색 가사를 입는 중국 스님(황교)과 홍색 가사를 입는 티베트 스님(홍교) 2천여 명 등 3만여 명이 이 행사에 참여했다. 축포가 울려 퍼지고 오색 꽃가루가 하늘로 치솟는다.



인묵 스님 등의 한국 영산작법 시연 모습.

종합 불교축제인 '오대산 불교문화제'는 그렇게 시작됐다. 19세기 이후 오랜 '침체의 늪'에 빠졌던 중국불교가 '사자후'를 토하며 살아나는 순간이다.

9월 16일까지 계속되는 이번 축제에는 오대산 불교의 진면목을 보여주는 뜻 깊은 행사들이 열린다. 서화비첩대전(문수사), 불교문물대전(현통사), 불교예술품대전(원조사), 국제불학세미나(보수사) 등 일일이 다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다.

영산작법 · 학춤 등 선보여

특히 이번 개막식에는 지난 6월 중국 오대산불교협회와 자매결연은 맺은 한국 오대산 월정사의 대표단 1백여 명도 참석했다.

월정사 주지 정념 스님은 이날 "부처님의 자비정신으로 인류화합과 평화를 위해 불교가 지혜를 모으자"고 말했다. 한국 불교계는 인묵 스님의 영산작법, 법성 스님의 학춤 등을 선보여 중국 불자들의 뜨거운 박수를 받았다.



춤과 노래를 선보이는 중국 가무단.

오대산은 중국 동서남북에 위치한 화산 숭산과 함께, 예로부터 대표적인 중국 불교 유적지로 꼽히는 곳이다. 오대산 불교는 당나라 시절 360여 사찰들이 세워지며 전성기를 구가했다.

신라 자장 율사도 이때 오대산에서 공부하며 문수보살을 친견하는 경험을 했다. 스님은 이후 부처님의 정골사리와 가사, 발우 등을 모시고 신라로 돌아와, 오대산 월정사 등 사찰을 창건했다. 그래서 한국 불자들은 오대산을 문수신앙 최고의 성지로 받들고 있다.

한편 한국 오대산 월정사 주지 정념 스님과 송베이샨(宋北杉) 산서성 부성장은 8월 15일 만나 한 · 중 불교 발전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송 부성장은 "한 · 중 오대산이 역사적 인연으로 이렇게 만나게 됐고, 더 많은 한국 불자들이 오대산 불교문화절 행사에 참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양국 불교발전 방안 의견 나눠

정념 스님은 이에 대해 "1400여 년 전 자장율사가 위법망구의 정신으로 구법을 한 인연이 이렇게 꽃 피는 것 같다" 며 "10월 8일부터 한국 오대산에서 문화축제가 3일간 개최되는데, 이 행사에서 중국의 중요 불교 문화제와 유물을 전시하고 한 · 중 불교 교류 활동을 펼치고 싶다"고 말했다.

이번 행사에 참석한 한국 불자들은 8월 16~19일 대동 운강석굴, 항산 현공사, 태원 현통사와 수상사, 평요 쌍림사와 고성, 북경 계대사 등 중국 주요 불교 유적을 둘러보았다.

글 · 사진/ 중국 오대산=강유신 기자

오대산 불교계를 이끄는 스님들



오대산 주요 사찰 중 하나인 수상사에는 문화대혁명 이후부터 성쫑(聖忠 · 사진) 스님이 주석을 하고 있다.

성쫑 스님은 "문화 대혁명을 겪으며 절에서 쫓겨나 오랫동안 속인처럼 농사를 지었다"고 말했다. 그 후 스님은 수상사로 돌아와 폐허가 된 사찰을 여법한 도량으로 가꾸었다.

"요새도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마음을 가다듬는다"는 성쫑 스님은 "출가자답게 모든 것을 아끼고 부지런할 때 불자들의 존경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 수상사 주지 성쫑 스님
폐허된 사찰 복원에 헌신

다"고 말했다. 그 후 스님은 수상사로 돌아와 폐허가 된 사찰을 여법한 도량으로 가꾸었다.

"요새도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마음을 가다듬는다"는 성쫑 스님은 "출가자답게 모든 것을 아끼고 부지런할 때 불자들의 존경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 벽산사 주지 미아오꽝 스님
문수신앙 알리는 계기 되길

"중국 불교는 조금씩 잠을 깨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 불교계의 상황에 대한 오대산 불교계의 대표 '오대산 불교협회장' 미아오꽝(妙光) 스님(사진)의 말이다.

묘광 스님은 이번 행사에 대해 "많은 스님과 불자들이



참석해 문수신앙을 폭넓게 알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중국 오대산에는 복원 중인 사찰을 포함, 105개의 사찰에 2500여명의 스님들이 수행 정진 중이다.

대구불교방송
인터넷 홈페이지 무료제작
문의) 053-427-5114
대구 FM 94.5MHz
안동 FM 97.7MHz
포항 FM 105.5MHz
www.dgbbs.co.kr

BBS 춘천불교방송 FM100.1MHz
음악이 있는 오후 오후 3:05 ~ 4:00
감자바우 황금바우 오후 4:10 ~ 4:45



부다피아 캠프에 참가한 어린이 청소년들이 하와이 매직아일랜드 해변에서 환영파티에 참석한 뒤 한자리에 모여 환한 모습을 짓고 있다.

보고 듣는 그대로가 '배울거리'

부다피아 하와이 영어·문화체험 캠프 현장

■ '윤회인사' 나누며 일정 시작

누구나 한번 가보기를 꿈꾸는 '지상 낙원' 하와이.

현대불교신문 어린이 청소년 문화체험단 40여명이 7월 29일 호놀룰루 공항에 도착하자 무량사에서 나온 불자들이 손수 레이(꽃목걸이)를 목에 걸어준다. 이국의 진한 꽃향기와 파란하늘이 강하게 다가오며, 늘씬하게 뻗은 야자수 밑에서 서로 '윤회인사'를 한 것으로 캠프의 21박 22일 일정이 시작됐다.

호놀룰루시 팔롤로 거리에 위치한 무량사(주지 도현)에 여장을 풀고, 곧바로 입재식을 했다. 무량사 주지 도현 스님은 환영사를 통해 "다양한 인종이 어울려 사는 다문화 사회인 하와이에서 문화체험을 하며 함께 공유하는 공생의 길을 익혔으면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영어학교 디렉터(책임자)인 하와이주립대 김민선 교수(스피치커뮤니케이션과)와 강사진인 미셸(하와이주립대 석사과정), 브라리언(하와이주립대 석사과정), 김소현 (하와이주립대 4년) 선생님은 "한국의 학생들과 함께 생활하게 돼 기쁘다"며 "즐거운 영어공부가 되도록 하자"고 말했다.

■ 현장학습 곁들인 영어교육 머리에 '쏙쏙'

입재식후 곧바로 영어학교 레벨 테스트가 시작됐다. 참가학생들은 회화능력에 따라 A(고급반), B(중급반), C(초급반)으로 배치됐다.

영어교육 A반과 B반 강사진인 미셸과 브라이언 선생님은 자연스럽게 회화를 유도했고, 매일 교육교재를 들고와 즐거운 수업을 만들어줬다. C반 김소현 선생님은 한국어와 영어를 적절히 혼용하며,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의 수업을 알차게 진행했다. 수업중간에는 현장학습도 곁들어져 영어만 사용하는 생일파티, 미국가정 방문하기, 하와이립대 방문 등의 프로그램도 진행됐다. 또 매일 밤 7시부터는 문화원에서 고성능 프로젝트로 영화도 상영했다. 원어로 보는 신작 영화는 참가학생들이 영어와 가까워지는 계기가 됐다.

하와이 주립대 김민선 교수는 매일 한시간씩 한국어와 영어를 반씩 섞어가며 미국문화를 들려주었다.

■ 무명용사 아저씨들 극락왕생하세요

체험단은 101년전 사탕수수 노동자로 미국에 건너간 한인 이민자들의 고단한 삶의 족적을 밟아보는 역사체험도 했다. 한인 이민자들의 숙소가 있었던 하와이플랜테이션을 방문해, 한인들의 생활상을 엿보았다. 멀리 떨어져온 고국을 잊지 못해 안방에 걸어 놓은 무궁화로 된 대한민국지도와 집앞의 봉숭아, 부엌옆의 장독대는 정겨운 풍경이었다.

또 한국전쟁에 참가해 목숨을 잃은 무명용사들이 묻혀있는 미국의 국립묘지인 펀치볼도 참배했다. 무량사 주지 도현 스님의 집전으로 합장을 한 채 무명용사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며 반야심경을 봉독했다.

문화체험은 그야말로 새로운 세계에 대한 충격 그 자체였다. 정렬적인 훌라춤과 불춤, 하와이 기타의 선율, 평화롭고 신비로운 폴리네시안 원주민 문화는 체험단을 서서히 빠져들게 했다. 미국의 유일한 궁전인 이올라니 궁전의 모습과 함께 박물관과 미술관을 관람하고, 폴리네시아 민속촌에서 카누를 타고, 피지 타히티 사모아 통가 뉴질랜드등 7개국의 문화를 접했으며, 훌라춤을 배우는 시간도 마련됐다. 특히 150명의 댄서들이 출연한 '마나 우리들의 영혼'은 폴리네시아 원주민들의 삶을 이해하는데 큰 보탬이 됐다. 저녁놀이 붉게 물들 무렵 배를 타고 세계인들과 어울려 춤과 노래가 어우러진 파티에 참가했다. 파티중간 참가국 장기자랑 시간에는 캠프단이 대한민국의 응원 박수를 적절히 가미한 댄스도 선보이는 등 위풍당당한 한국인의 기상을 보여주었다.

■ 자연은 아이들에게 꿈을 심어줍니다

옥색의 하늘, 비온뒤 선명하게 나온는 무지개, 투명한 바다등 오염되지 않는 아름다운 자연과 함께한 일정은 참가단에게 가장 큰 즐거움이었다.

가장 많이 찾은 와이키키해변. 체험단은 에메랄드빛 바다의 품으로 들어가 형형색색의 물고기들과 어울려 수영을 한 뒤, 새하얀 모래밭에서 선탠도 즐기고, 야자수 그늘에서 휴식도 취했다. 하와이 앞바다에서 거친 파도를 헤치며 보트를 타고 돌고래를 찾아보기도 했으며, 다이아몬드 헤드에 올라 호놀룰루시와 드넓은 태평양을 바라보며 꿈을 키우기도 했다. 아틀란티스 잠수함을 타고 바다속 35m까지 내려가 열대 물고기떼를 감상하고, 바다거북이와 상어의 모습도 인상적이었다.

캠프의 일정은 순식간에 지나갔다. 영어학교 수료식에 이어 환송파티가 열린 8월 17일. 매직아일랜드 야외 파티장에는 이별을 아쉬워하는 눈물의 인사가 이어졌다. 파티장에 직접 파이를 구워오느라 조금 늦은 미셸선생님과 아이들은 서로 얼싸안고 울음바다를 이루었다. 김민선 교수님, 브라이언, 김소현 선생님도 헤어짐을 아쉬워하며 학생들의 버스가 떠난 뒤에도 발걸음을 옮기지 못했다.

8월 18일 호놀룰루 공항에 마중 나온 도현 스님은 "다시 꼭 찾아오겠다" 말하며 인사하는 아이들의 손을 가만히 잡아주었다.

하와이=김원우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브라이언 선생님의 영어수업 장면.


일요법회에서 어린이 · 청소년들이 참선을 하고 있다.


해변에서 그림을 그리는 모습.


8월 17일 열린 영어학교 수료식.


하와이 친구들과 함께.

부다피아 하와이 캠프 의미

해외 사찰과 연계한 문화체험의 새 모델

현대불교 창간 10주년 기념 하와이 부다피아 캠프에는 40여명의 어린이 청소년들이 참가해 21박 22일동안 하와이 무량사에서 영어를 배우며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세계를 직접보고 느낄 수 있었다. 일요법회와 매일 법당에서 올리는 저녁예불은 또 하나의 즐거운 교육과정이었다. 처음에는 예불에 참여한 경험조차 없어 어색했던 학생들도 서서히 변해갔고, 부처님의 법안에 마음의 평안함이 있음을 실감한다고 고백했다.

해외사찰과 연계한 문화체험 캠프의 새 전형이 개발되기도 했다. 해외의 한국사찰과 연계해 프로그램을 진행함으로써 경비절감은 물론 해외사찰과의 유대를 강화시킨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캠프가 진행되면서 해외사찰의 반응도 잇따랐다. 미국 보스턴과 호주 뉴질랜드 및 중국의 사찰에서 본 행사에 관심을 보이며, 함께 연대해 사업을 추진했으면 하는 뜻을 전해왔다.

이와함께 한국의 학부모들에게 인터넷을 통한 실시간 온라인 서비스가 제공된 첫 국내 캠프라는 새 장도 열었다.

캠프를 다녀와서

부처님 기도 이루어진 기분…더욱더 믿을래요

저는 3주동안 하와이 무량사에서 정말 잊을수 없을 정도로 즐겁고 보람되게 지냈다고 생각합니다. 가게에 가서 영어로 말하면서 물건도 사고 돈도 내고, 거스럼 돈도 받고 하니 이것도 하나의 경험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와이에 와서 영어의 재미도 느끼고, 여러가지 문화도 알게 되니, 현지인들이 오히려 친근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와이에 와서 영어도 배웠지만, 예불도 정말 열심히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와서는 억지로 가곤 했지만 며칠이 지나니 예불이 하고 싶고, 부처님께 하는 기도가 정말 다 이루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가인)

하와이 및 여러 섬들의 문화와 전통을 체험할 수 있었던 폴리네시안 민속촌은 우리에게 새로운 문화를 알 수 있도록 해주었으며, 하와이 주립대학교는 고등학교 2학년이라는 나에게 꿈을 펼치는 기회를 만들어 주기에 충분한 곳이었습니다. 잠수함을 타고 하와이의 맑은 바닷속을 구경한 뒤 저녁에 탔던 디너 크루즈 호는 맛있는 뷔페와 모든 손님들이 함께하는 댄스파티 덕분에 너무나 즐겁고 잊을 수 없는 경험이었습니다. 여기에 와서 새로운 경험과 새로운 친구들을 사귄 것, 정말 무엇보다도 재미있고 값진 경험인 것 같다. 하와이에서 있었던 모든 일들은 내 가슴속에 오래오래 남을 것입니다. (양수임)

학부모 편지

다변화 시대 아이들에 희망을 갖게해 감사

현대불교에서 정말 우리 불교계에서 일찍이 행하지 않은 기획을 해서, 저는 참 반가웠습니다. 사실, 한편에서는 해외연수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가 가능하다는 생각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외국가는 비행기를 딱 마흔에 탔는데, 그때 무조건 아들 현욱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것도 인도로 말입니다. 다 죽어가는 아이를 기차에 싣고 21시간 30분을 달려서 바라나시로 간일도 있습니다. 그때 제 생각은, 이제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이미 우리가 사는 세상도 마찬가지지만 그 흐름을 따라잡지 못하는 우리 세대이므로, 어느 정도 포기하도록 하고)은 이제 한편으로는 세계가 정말 한 무대라는 점입니다.

축구만 다른 나라하고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우리 아이들은 세계의 도래와 경쟁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아이들을 외국에 보내는 데 드는 비용은 사치내지는 낭비가 아니라 투자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런 점에서 불교의 미래를 생각하는 현대불교신문사에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힘드시더라도, 계속 이어지기를 빕니다. 김호성(현욱 아버지)

무량사 주지 도현 스님

"불교적 가치관 · 세계적 안목 심어준 행사"



"캠프가 원만히 회향돼 기쁩니다."

주민들과의 소송을 마무리하고 마침내 한인문화원을 건립한지 15년만에 처음으로 행사를 연 하와이 무량사 주지 도현 스님.

"어린이 청소년기에 불교적 가치관과 세계적인 안목을 심어주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행사가 성공할 수 있도록 어려운 가운데 시간을 내어 공양간 자원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준 신도들에게 감사함을 표한다"고 말했다.

스님은 "고국의 어린이 어린이 청소년들에게 무량사를 개방하겠다"고 말했다.

오빠·누나, 내년에도 함께 캠프해요



동국대 경주캠퍼스 불교문화대의 초청을 받은 연꽃 · 극락마을 어린이들은 마냥 즐거운 표정이다.



"무서워 하지마. 누나가 시원하게 해줄께" 그래도 성장이 늦은 형준이는 물이 무섭기만 하다.

동국대 경주캠퍼스 불교문화대 학생회 연꽃·극락마을 어린이 초청 경주 나들이

"이야, 공격, 덤벼라!!" "으앙! 승윤이가 밀었어요."

8월 17일 경주월드 수영장에는 30명의 어린이들이 30명의 대학생 형, 누나를 만나 신이 났다. 예천 연꽃마을(원장 정안) 어린이 15명과 극락마을(원장 서경석) 정신지체 장애어린이 15명이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불교문화대 학생회 형 · 누나들의 초대를 받고 2박 3일간의 '우리 경주가자' 캠프에 온 것이다.

연꽃마을 어린이들에겐 이런 기회가 매우 드물다. 더군다나 극락마을 정신지체장애 아이들은 더욱 쉽지 않다. 그렇기에 이번에 불교문화대 형 · 누나들과의 나들이는 특별한 시간이었다.

16일부터 시작된 캠프. 첫날은 불국사를 참배한 데 이어, 17일 드디어 고대하던 경주월드 수영장에 도착했다.

승윤이는 머리에 쓰고 있는 수영모자와 수영복을 가리키며 자랑하고 나섰고, 덩치만 컷지 여전히 어린아이의 지능을 가진 '천진불' 성균이는 카메라를 들이대자 자연스러운 웃음과 승리의 'V' 자를 표시하며 멋진 포즈를 취했다. 연꽃마을 막둥이 상훈(4)이는 누나들이 많아 마냥 좋기만 하다. 물에 풀쩍 뛰어들어 잠수도 해 보고 이리저리 물속에서 몸을 굴리던 아이들이 형과 누나들을 못살게(?) 군다. 한꺼번에 몰려들어 물을 뿌리거나 밀어뜨려 물에 빠뜨리고는 해맑은 웃음을 내보인다.

이번 행사기간 동생들과 함께하기 위해 나선 동국대 불교문화대 학생 30명은 아이들과 함께 놀면서도 긴장을 늦추지 못한다. 극락마을 지체장애자 아이들이 15명이나 되다보니 아이들의 행동 하나하나 그냥 지나쳐서는 안되는 것.

유달리 성장이 늦고 몸이 약한 형준(18)이는 표현력도 부족해 말을 하지 못하기에 행동을 보고 마음을 읽어야 하며, 언제나 부산한 혜인(16)이는 통제력이 없어 유심히 살펴야 한다.

"형! 쉬~"

아이들 한마디에 형은 얼른 화장실로 데려가고, 넘어진 아이 일으켜 세우고, 물 먹고 우는 아이 달래줬다. 수영장이 두려워 한 켠에 우두커니 있는 극락마을 친구들에게 수영장 물과 자연스럽게 친해지도록 도와주는 역할도 중요했다.

불교문화대 학생회 부회장 장지향(불교아동학과 4년) 양은 "이번 행사를 통해 아이들의 천진함과 순수함에 오히려 많이 배웠다"고 말했다.

경주=배지선 기자

"후원 줄어 힘들었지만 포기할 수 없었죠"

인터뷰 학생회장 황의모 씨



"연꽃마을과의 인연은 1993년부터 이어진 것으로, 보통 가정의 어린이보다 기회가 적은 동생들에게 형 누나로써 캠프 기회를 만들어주고 싶어 함께 나왔을 뿐 특별한 행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8월 16일부터 18일까 연꽃마을 어린이를 초청하여 '우리 경주 가자' 행사를 펼친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불교문화대 학생회장 황의모(불교학과 3년 · 사진) 군은 이렇게 취지를 밝혔다.

황 군은 이번 행사를 기획하면서 어느 때보다 재정적인 문제가 제일 어려웠다고 토로했다. 경제불황이다보니 평소에 후원을 해주던 단체들이 후원을 중단한 것이다. 학생들 사이에서 올해는 행사를 포기하자는 의견도 있었다. 그러나 황 군은 "1년을 아니 평생을 간직하고 갈 아이들의 추억과 희망을 생각하면 결코 포기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어려움을 핑계로 조금이나마 사회로 회향했던 자비실천이 가장 먼저 사라지는 사실이 안타깝다"는 황 군은 "아무리 어려워도 함께 나눴던 사랑까지 줄여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나눔의 손잡기 우리이웃

나눔의 저금통 및 스티커 신청

정광희 경기도 화성시 비봉면 양노리
저금통-15개
스티커-15장

이화불교용품 경북 포항시 북구 동빈2가
저금통-20개
스티커-50장

나눔의 성금

불광출판사 허성국 부장, 불교시대사 이규만 부장, 민족사 성재영 차장, 우리출판사 김동조 부장, 도서출판 도피안사 정필수 부장, 도서출판 여래 정창진 대표, 태웅출판사 김정호 부장, 도서출판 효림 박문혁 부장 등 총 11만 2,410원

총 누적금액 18,437,720원

나눔의 책 기증

서울 도봉구 쌍문 3동 김배윤 님이 나눔의 책 50권을 보내주었습니다.

알립니다

현재 '나눔의 저금통' 1차 수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찰이나 단체에서는 직접 개봉하여 은행 온라인을 통해 입금한 뒤, 곧바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02)722-4162 입금계좌 : 국민은행 006-21-0587-583 예금주 김원우

나눠드립니다

나눔의 저금통 분양합니다

원숭이해를 맞아 원숭이 저금통을 채워서 보내주십시오. 저금통은 회사, 가정, 가게, 단체사무실 등에 비치하시면 됩니다. 특히 불자가 운영하는 가게에 기금 모금용 저금통을 비치할 경우 '나눔의 가게'로 선정해 드립니다.



스티커 나눠 드립니다

사찰, 자동차, 건물, 가방에 붙일 수 있는 나눔의 손잡기 스티커를 나눠드립니다. 나눔의 손잡기 스티커는 조선일보가 전개중인 '우리이웃' 캠페인과 상호 협조에 의해 엠블럼을 공동 사용합니다.

도와주세요

급성백혈병 수술비가 없어요



백혈병으로 투병 중인 한 고등학생 불자가 수술비가 없어 애를 태우고 있다.

학교에서 상위권으로 공부도 잘했고, 리더십도 강해 부실장 등을 도맡았던 박준 군(17 · 사진). 올 4월 박 군에게 갑작스레 급성림프구성 백혈병이 발병했다.

골수이식만이 유일한 생존 수단이 박 군. 이마저도 조직이 일치하는 사람이 없어 주위를 더욱 안타깝게 하고 있다. 또 아버지 박병용(47) 씨가 5급 장애자인데다 교통사고로 최근 6주 진단을 받았고, 어머니 김정숙(44) 씨도 2년 전부터 자궁근종에 척추분리 질환을 앓고 있어 박 군은 제대로 치료 한번 받지 못하고 있다. (02)734-8050(생명나눔) 계좌:농협 053-01-243778(예금주 생명나눔) 김철우 기자

"우린 '장애' 없는 친구랍니다"

곰두리네 집·녹양초교 통합교육 실시

장애우과 비장애우 사이에 존재한 벽을 허물고 함께 어우러지는 프로그램이 열려 화제를 모았다.

진각복지재단 산하 의정부 장애인주간보호센터 곰두리네집(센터장 김순연)은 '소중한 내 친구와 함께 하는 상호이해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8월 17일 의정부 녹양초등학교 학생들과 함께 통합교육을 실시했다. 녹양초교 병설 유치원에서 열린 이 프로그램은 7월 27일부터 총 5회에 걸쳐 열린 장애우 · 비장애우 어울림 마당의 한 과정이다.

'같이 배우기'를 주제로 진행된 이날 통합교육에서는 기타소리에 맞춰 노래를 부르거나 함께 게임을 즐기는 프로그램으로 서로의 벽을 허물었다. 특히 장애우 · 비장애우를 가리지 않는 손을 맞잡고 마음을 나누는 아이들의 천진함이 묻어났다.

올해 처음으로 실시된 이번 통합교육은 장애우와 비장애우가 함께 어울려 생활함으로써 장애우들에게는 자신감 향상과 사회통합의 계기를, 비장애우들에게는 장애우들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고 공존의 이치를 깨우치기 위해 마련됐다.



의정부 장애인주간보호센터 곰두리네집의 장애우 어린이들과 녹양초등학교 비장애우 어린이들이 '같이 배우기'를 주제로 공동체 프로그램을 익히고 있다.

이번 행사를 담당한 이혜영 사회복지사는 "처음에는 서먹서먹해하고 가까이 가기를 꺼려하던 학생들도 차츰 서로 도우며 이해하는 법을 배운 것 같다"며 "프로그램의 효과나 반응이 의외로 좋아 앞으로도 이런 기회를 많이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봉영 기자

현대불교와 좋은벗풍경소리가 함께 하는 '나눔의 손잡기'



"어린이 · 청소년 법회에 찬불동요 테이프와 CD를 보냅시다"

현대불교신문사와 좋은벗풍경소리가 공동으로 '전국 어린이 청소년 법회에 창작 찬불동요테이프와 CD 보내기'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순수한 마음을 지니고 있는 어린이 청소년들에게 아름답고 순수한 부처님의 마음을 담은 어린이 청소년을 위한 창작 찬불동요를 선물해 주세요.

불자님들 한 분 한 분의 정성은 미래의 부처님 되실 어린 불자들에게 '불성'을 가꾸어 주는 참된 불사가 될 것입니다.

◀ 어떻게 참여하나
◇종단 · 사찰 · 기업 · 단체 · 개인 모두 동참 가능합니다.
◇본사·연고사찰 단체 등에 전달할 수 있습니다.
◇1구좌 1만원입니다.
◇보급기간: 2004년 3월부터 12월31일까지

◀ 어떻게 진행되나
◇매주 캠페인 내용이 소개됩니다.
◇매달 한번씩 동참자 명단을 게재합니다.
◇아름다운 사연을 지속적으로 소개합니다.

※ 온라인구좌 / 농협 053-12-132878 예금주: 좋은벗 풍경소리 이종만 ※ 문의 / 좋은벗 풍경소리 (02) 723-9836

이렇게 참여하세요

♥ 각 종단의 나눔운동과 연결
함께하면 큰 힘이 됩니다. 각 종단과 NGO 복지단체들이 벌이고 있는 사업과 연대합니다. 또 자비의 콘서트(불자가수) 법률 및 세무상담(불자 변호사 세무사) 봉사에 참여하거나 사업연대가 가능합니다.

♥ 나눔의 손잡기 공동체
내가 가진 돈, 힘, 시간, 지식 등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보시하도록 연결해 드립니다. 자원봉사를 원함에도 그 방법을 몰라 실천하지 못하는 불자들의 중개소 역할을 자부합니다. 모범이 되는 봉사자들을 추천해 주세요.

♥ 나눔의 손잡기 기금참여
남을 돕고 싶은 분들은 계좌나 한통의 전화로 자비를 실천하는 ARS(060-700-1080)를 통해 기금을 보내주세요. 결식아동, 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 장애우 등 우리 사회에서 함께 살고있는 이웃들에게 전달해 드립니다.

♥ 어려운 이웃 사연 제보
주위의 어려운 소년소녀가장, 결식학생, 독거노인, 장애우의 사연을 알려 주세요.

♥ 정기후원 참여
소년소녀가장들과 결식아동들의 후원자가 되어 매월 정기적으로 생활비나 급식비를 줄 수 있습니다. 소년소녀가장, 결식아동과 결연을 희망하시는 분은 연락주십시오.

♥ 불자기업의 사회공헌
기업의 사회공헌은 이제 필수 불가결한 것입니다. 불자기업들과 불교복지시설을 연계하여 후원하거나 시설을 건립해 드립니다.

♥ 외국인 노동자와 불교지도자 자매결연
불교권 국가의 외국인 노동자와 불교계 각 종단 스님과 단체 운동가간 자매결연을 추진합니다. 불안에 떨고 있는 노동자들과의 결연을 희망하는 스님과 불교지도자들을 모십니다.

♥ 각 사찰의 공양미 나누기
불자들이 보시한 각 사찰의 공양미를 소년소녀가장 및 독거노인들에게 지원해주세요. 어려운 곳이나 복지시설에 공양미를 보내고 싶은 사찰은 본사로 신청해주시고, 공양미가 필요한 시설은 연락바랍니다. 과일과 김장, 양념, 라면, 과자류 등 식품도 접수 받습니다.

♥ 자비의 헌혈증 및 장기기증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헌혈증을 보내주세요. 장기기증에도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 보고싶은 가족찾기
미아는 물론 실종가족과 이산가족, 입양아들을 찾아드립니다. 사연을 보내주십시오.

더 빠른! 더 좋은! 더 저렴한!

불자생활정보

▷ 광고문의 : TEL 02)732-1522, 737-8881
FAX 02)737-0697

▷ 광고가격 : 1Box(4.4×4.4) 4만원



1. 법회기도 – 지장기도, 관음기도, 정기법회, 기념법회 등
2. 구인/구직정보 – 공양주, 행자모집, 운전기사모집, 사찰중무원 모집, 일반사원모집 등
3. 알림정보 – 개업, 이전, 각종전시, 불교동우회 행사, 각종불교강좌, 수련회, 동창회, 부음 등
4. 불교용품정보 – 각종불교용품, 불교용품업체, 탱화 업체 등
5. 알뜰정보 – 팔고 / 사고 / 대행 / 대여 / 재활용 / 인테리어
6. 생활장터 – 가구, 도서, 음반, 컴퓨터, 통신기기, 비디오, 가전, 사무용품, 비품, 정수기 등 – 사보편집대행, 음반대행, 꽃집, 떡집, 승복집 등
7. 여행정보 – 성지순례, 사찰순례,

천도재, 49재, 점안식
바라, 나비춤, 태평소
각종 행사해 드립니다
010-4870-8359
051)261-5691

경면주사
(수비경면)
▷ 부적용, 서예용, 일반용
한의원 약국용 도, 소매
구입문의
011-9675-1089

구병시식 천도재 점안식
사찰의 행사에 직접
법진스님
염불 해 드립니다(바라, 작법)
방앗사 055-882-3455
016-428-6665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9月경 제2회 예정)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1-9002-8523
문의하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립니다

전통범패의식

천도재	수륙재	산신재	점안식	바라춤	나비춤

행사에 염불해 드립니다
무진 051)468-7374
합장 018-523-7374

암 디스크관절,당뇨,백혈병
합병증,근육병,정신질환등
현대의술에서 치료가 불가능한 난치병 환자(기도와 기공침술, 한방 치료법)을 통하여 3개월~5개월정도면 80%이상 완치가능
단. 마지막 불심으로 믿고 성불이루십시요
031)671-1878 만 복 사

역학개인지도
사주에 필요한 모든것
명리학,성명학,택일,풍수
밝은미래를 여는 혜공 합장
02)421-8494
017-606-6628

조계종 봉국사 납골당 특별분양
50분만모십니다!
- 강북 정릉에 위치
- 편리한 교통
- 년 4회천도재 봉행
- 영구안치, 관리비무
- 분양문의 :

011-768-7038

레이키(Reiki · 靈氣)를 배우면
- 누구나 바로 氣치료 · 원격치료 능력자가 됩니다
- 피로회복/스트레스해소/질병 치료 생명력활성화 등 웰빙의 도구
- 우스이레이키 60만원/카무나레이키 40만원
- 교육기간 : 2~3일
- 현대생활레이키연구회 www.Reiki.co.kr

전화: 02)720-5719
720-5682



명 당
탐지기 관통자 **월간역학**
02)2264-0258
동양상 역학강의도 함
www.kbs.cc

제 2기 역학 수강생 모집
▶ 과목 : 사주, 관상, 수상
▶ 일시 : 9月6日 18:00
▶ 장소 : 동대문운동장역 4번출구 장충체육관 방향 경동교회 뒤
인터넷 동영상 강의
www.kbs.cc
월간역학 교육원
(02-2264-0258)

의식스님이 필요하신 곳
전통의식이 신심이 돈독해지며 영산작법과 우리말이라야 환희심과 경건, 엄숙의 극대화가 있지 않겠는가!
49재및 천도재 등 각종의식에 바라춤과 나비춤을 곁들여 적은 부담으로 보시하오니 연락바랍니다
016)9414-1525
041)571-1112~3

기도스님 구함
(사미, 비구 조계종스님)
출가행자, 재가법사 월문 모집
(남, 녀)
· 행자자격 18~40세(남, 녀)
· 재가법사 자격 56미만(남, 녀)
· 수련일자 (9월6일 부터~10월6일까지)
· 4주 수련후 졸가 환속 자유
대한불교조계종 삼보사
02)352-6406

친환경 무공해 한지 영가옷
순수 한지로 제작
일반영가옷과 치수동일
그을음, 냄새 전혀 없음
한지는 질겨 잘 찢어지지 않음
실용신안26799호, 의장등록 22988호
모든 영가옷 도매
054)972-9933
017-503-3503

범패,염불,학인 모집중

각종불공의식	천도재 49재	정안식	용왕산신재	바라 나비 춤	상가 영혼	천도시식전문	명리 주역

각 행사 염불해 드림
동양불교대학 탄우 합장
02)939-3327
011-9923-3329

치 질
- **재발** 잘 되는 **치질**
- 한방 비법으로 완전치유
- 오래된 치질이나 **암치질** 특히 효염

※ **스님**들께서는 특별 보시함
▷팔공산 **천룡정사**
017-533-1356

조용한 암자에서
수행기도 하시면서
운전할 비구스님이나
처사님을 모십니다
(운전면허 소지)
041)864-9143
011-392-6885

토굴,작은 암자
시주해 주실분
좋은인연
기다립니다
011-628-1156

부전스님
모십니다
▷김포
011-688-6625
011-810-1476

사찰농사(밭 3천평)
관리자 구함
월 보시: 60만원(숙식제공)
위치: 전북 장수군 장계면
063)353-0396
세부사항 조정가능
대한불교조계종 성관사 주지 합장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충남 부여
041)833-2510

한철 기도해 주실
스님 모십니다
(3개월 정도)
안동시내 조계종 사찰
011-530-6934

부전스님 및
공양주보살님
구합니다
054)636-0229

기도하면서
공양주 하실분
▷40~50대
031)582-0635

충남 당진 영영사에서
염불지도 하면서 가족처럼
함께지낼 50세이하
비구스님과 60세이상
노보살님을 모십니다
041)357-3869
016-635-0618

사찰에서 일하며
불교공부 하고자 함
운전,행정,조경,농사일
기타 경험있음
신분확실, 53세, 12인승 차량보유
017-550-9009
054)782-5859

비구니 부전스님
모십니다
▷경기 고양시
010-7739-0916

토굴 작은 암자
시주해 주실분
좋은인연
기다립니다
011-628-1156

기도스님 및
행자님 모십니다
▷경북 영주
011-9342-9850

부전스님 1명(독실한 불자로서 수도생활과 불교학문에 뜻이 있고 고졸이상의 남,녀 약간명(20세~38세)
신심과 원력있는 공양주 보살님 1명
법당 화주보살 1명
054)383-8032
011-9176-4403

神典건축
- 사찰, 암자, 사당
- 명상, 요가센타
- 다도방, 황토방
- 한옥 리모델링
- 조경과 조형물
- 디자인 & 미술까지

두레우물
031)771-9321

천일기도 스님이
필요하신 사찰은
연락바랍니다
▷43세, 비구
017-515-7527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부천
032)328-7458
011-781-3513

부전스님 모십니다
조계종스님 이면서
(자세한 내용은 문의바람)
지장기도도량
▷경남 김해
011-693-7742

천년고찰터에서 함께
수행하며 기도하실
비구니스님 모십니다
전남 담양 대덕 ▷법운산 법주사
011-611-1516
061)381-8844, 0234

공양주(급)구함
▷지리산
50대이상
50대이하는 전화사절
011-483-5639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041)673-3222

천도재, 구병시식 영험도량 신불산 불승사
- 영가 장애로 고생하시는 분
- 병원에 가도 병명이 안나오면서 몸이 자주 아프신 분
- 하는 일들이 잘 안풀리시는 분
-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고자 하는 분
- 가정에 우환이 많은 분
- 굿이나 천도재를 해봐도 영험을 못보신 분
- 천도재 한번에 구병시식을 세번 해드립니다.(구병시식을 겸해서 하지 않으면 효험이 없음)
- 저렴한 비용으로 천도재를 봉행하오니 무루 동참하시어 무량대복을 지으시기를 바랍니다

신불산 불승사 정법사문 대일 합장 052)254-5125

대한불교 조계종 **불교어산작법학교 학생모집 요강**
▶ 모집학과 : 작법과(바라무, 나비무), 불전의식과 - 재가불자도 가능함
▶ 교육내용 : 일용의식(도량석, 종송, 예경, 각단예불)
상용의식(불공, 천도재, 시식), 제반의식(점안, 이운, 방생, 다비의식)
▶ 교육기간 : 3개월(매주토요일 오후3시~6시)
▶ 면접일자 : 8월28일 오후3시
서울시 성북구 안암동 5가 8번지 대원암
6호선 안암전철역
02)921-3425

고(古)건물 수리전문
드잡이 전문, 건물방향바꿈, 건물멀리옮김
건물 넘어간집 바로잡음, 석가래 기둥등 썩은곳 교체
신축 및 기와등 한옥전문 (문화재 등록인 다수 보유)
(주)고도건축 대표 강충
대구광역시 동구 각산동 389-2 성지아파트 3동202호
연락처: 053)964-0858 / 휴대폰: 011-804-1748

출가학교 및 행자모집
▶출가학교 2기:
남자 - 9월30일 ~ 10월20일(3주간)
16세 ~ 41세, 삭발, 교육비 : 전액무료
▶행자(예비승) : 언제든지 가능, 남 · 녀
문의 : 011-9852-0075 (총무스님)
상세내용은 홈페이지 **영남불교대학** 참조
대한불교 조계종 **영남불교대학 · 관음사** (053)474-8228
대구 도심사찰 최초! 납골당 운영

사주 개인 지도
- **특수비법으로 쉽고 정확하게 하루에 통변 승려에 한하며 보시금 250만원**
- **지도 : 대주 스님**

HP : 011-741-0867 ☎ 02)926-1259

궁중비법 사주명리 학인모집
(구, 성수철학원)

본 학회는 **궁중비법 사주명리** 연구로 전국 최대의 회원 양성기관이며 현재 각지 200여곳에서 회원님들이 성황리 활동중이며 특히 스님, 처사, 보살님 전문 교육기관으로써 처음 배우실 분, 해도해도 안되는 분을 위하여 1개월(주간)/3개월(야간,주2회)수강하시면 완벽한 비법으로 눈치볼 필요없이 100% 책임보장. 개업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본학회 교육 이수자에 한하여 자격시험시행 합격자에게는 자격증을 수여함

안 내

- **모집인원 :** 선착순 30명
- **교육기간 :** ◆1개월 완성반(주 월~금)
  시간 : Ⓐ 정오 12~오후 2시
  Ⓑ 오후 2~4시 Ⓒ 오후 4~6시
  ◆ 3개월 완성반(주 2회)
  Ⓐ 월 · 화반 Ⓑ 수 · 목반 (시간 : 오후 7~9시)

(수강접수마감 : 8월 25일 18시, 개강 : 8월 26일)

- **지도교수 · 강사 :** 백운 성수(본학회 회장)
  대각 스님(금강불심원) 백궁, 봉계, 도영
- **교육장소 :** 본 학회 2층 강의실(최고시설완비)

※ 금강불심원(본 학회 직할) 대각스님(053-425-7875)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동 2270-4(2층) 대명시장 맞은편
053)255-4784, 256-4784
휴대폰 : 018-531-2237

사단법인 대한불교 사주명리 연구학회

사람을 찾습니다



- **인적사항 :** 최복임 (여), 79세
  전남 순천시 주암면 구산리 구산마을
- **발생일시 :** 2004. 7. 12(월) 아침
  주암종합고등학교 부근 산책중 행방불명
- **인상착의**
  · **특징 :** 키 150cm 정도에 허리가 많이 굽고 금테안경 착용
  · **복장 :** 상의 검정색 바탕에 꽃무늬, 하의 검정색 바지, 신발은 미색구두 착용
- **연 락 처**
  순천경찰서 : 061)751-0112
  신고센터 : 061)753-0363, 0373, 755-5511
  휴대폰 : 011-609-3889, 018-645-5511

보호하고 계시거나 거처를 연락해 주신 분께
사례금 5,000만원을 드리겠습니다.

범음 범패

조계종 전통의식연구원 에서는 본원 원장이신 어장 동주원명스님의 직접 지도하에 전통적인 범음범패 의식을 강의 하오니 조계종 비구, 비구니, 사미, 사미니를 모집하오니 배우고져 하는 스님들은 신청 바랍니다.

- **신청기간**
  2004년 8월 25일 ~ 9월 5일까지(10일간)
- **수강신청대상**
  조계종 승려로서 비구, 비구니, 사미, 사미니에 한하며 종법상 결격사유 없는 스님
- **구비서류 :** · 조계종 승적등본 1통
  · 이력서 1통
  · 명함판 사진 1매
- **모집인원 :** 00명
- **전형일시 : 2004년 9월 5일 오후 3시**
- **모집장소 :** 서울 동작구 대방동 381-6 **홍원사**

※ 합격자는 9월 8일 개별 통보함

조계종 전통의식 연구원
Tel. 02)822-1990
Fax. 02)822-1996

힘들게 살지 않아도 된다

깨달음에는 정해진 시간이 없습니다.
마하가섭은 8일 만에 지혜의 눈이 열리 아라한의 경지에 도달하였으며, 오늘날 중국 백림사와 보봉사에서는 찰나에 깨치는 3일간의 충격적 수행법이 있습니다.

이제는 정각에 대한 열의와 소망만 있으면 누구나 성취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수년 동안 수행해도 얻기 힘든 무심과 깨침을 5일간 체험해 보십시오.
그 성취와 결과는 매우 명확합니다.
체험보다 더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

- 수련내용 : 無心, 無分別智, 無分別後得智, 스스로 업장소멸과 영적문제 해결 확인

이론없는 수행은 위험하고 수련없는 이론은 공허합니다.

빈마음수련원 (구, 대광사)
033)435-8166 / master@binmaum.org
www.binmaum.org / 한글인터넷주소 : 생각기술교육원

불자정보

강좌안내, 각종 소식, 구인 · 구직, 불교관련상품홍보 등 생활 속의 모든 정보가 살아 있습니다.
· 사찰안내 : 규격 5×5cm=50.000원

· 전화 : 02)732-1522 (直) 02) 737-8881 (代)
· FAX : 02) 737-0697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
- 법당 : 36평
- 영부전 : 33평
- 요사 : 110평
- 부지 : 3800평
- 가액 : 30억

- 위치 : 대구
- 인법당 : 35평
- 부지 : 513평
- 가액 : 1억8천

- 위치: 강원
- 인법당 : 30평
- 부지 : 1300평외 임대사용 : 2000평
- 가액 : 3500만
- 공부하는 스님 휴양 및 조용한곳 필요한분

※ 전국 사찰 ,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분 연락바랍니다.

청송기획 02)998-1994 / 011)713-5634

사찰(급)안내

- 위치 : 부산
- 대지 : 300평
- 임야 : 2천5백평
- 인등 : 3천개
- 가액 : 8억원(절충가능)

011-9338-2993
소개업자 일체사절

포교당안내

- 위치 : 부산 진구 양정 1동
- 4층건물중 3층 전세
- 법당 20평, 방3개, 큰주방 1개
- 특징: 내부시설 최고급 홍송으로 꾸밈
- 물품대: 모든집기 일체포함 답사후결정
- 가액: 보증금 2000만원, 월 50만원

016-266-1931

포교원안내

- 위치: 대구시 달서구 4층 중 2층
- 방3, 부엌1, 화장실1, 법당30평(총 70평)
- 가액: 보증금 1천만원 월 40만원
  시설비: 3000만원(절충가능)

011-822-6104

사찰안내

- 위치 : 대구 동화사 입구
- 평수 : 약 80평 팔공산 명지
- 현재 사찰운영중
- 다양한 포교활동을 하실 인연이 있는 분을 찾습니다 (김천시 구성면 흥평리 대지 510평 건물2동 모두 3900만원)

011-502-9533

사 찰 안 내

- 위치: 경기
- 부지: 1000평
- 법당: 30평 목조
- 요사: 30평
- 가액: 9억

- 위치: 서울
- 대지: 25평
- 인법당: 23평
- 가액: 8천
- 포교요충지 급매

◈ 전국 사찰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 분 전화 상담 환영합니다.

광진불사 02)723-4082

사 찰 안 내

- 사찰, 포교당, 사찰부지(서울, 경기, 강원지역 전문)양도, 운영하실분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으로 재산권보호
- 법적책임보장(손해배상 공제가입함)
- 양심과 正道로 성실히 봉사하겠습니다

正道 공인중개사 사무소

010-6734-8255, 02)765-0303

통일시대 최대 투자처 경기 연천 土地 다량보유 상담환영

사찰안내

- 위치 : 충남 공주시 유구읍
- 평수 : 대지 48평
- 건물 : 법당 1동, 산신각 1동
- 요사채 1동
- 가액: 삼존불 포함6천만원

041)841-3090
017-337-4168

포교당(급)안내

- 위치 : 울산 중구 반구동 (최고적지)
- 시설 완벽 최고급
- 내부 실평수 약 50평
- 가액: 보증금 시설비 포함 1900만원, 월 50만원
- 불사관계로 급히 양도

010-4871-8577

사찰안내

- 위치 : 경북지역 인구 20만도시
- 부지 3000평, 법당 100평, 요사120평
- 도로 잔디 조경 A급 고속도로IC 5분
- 중심가 2분 비품일체 양도 너무좋은조건
- 가액: 6억

011-828-3618

신축사찰안내

- 대구 파계사 옆 2차선 포장도
- 대205평 텃밭110평 건물70평
- 목조형 철근조 02년말 준공 남향 1층 방5 거실, 욕실, 주방, 보일러 2층 큰법당, 주지실, 거실, 조무실
- 요산 요수 자연 앞냇물 뒷山竹林
- 가액: 2억5천(답사후 절충)

016-875-9833

토 굴 안 내

- 위치: 충남 금산군 남이면 소재
- 대지 : 110평(전통한옥, 등기필)
- 건물 2동(안채, 사랑채)
- 심야전기 시설이 완비된 아주 깨끗한 전통 한옥
- 스님토굴이나 가족휴양처로 최적으로 장소
- 가액 : 9천만원

041)753-3766

사 찰 안 내

[포교당]
- 위치 : 서울시내 강남 (지하철역 200m)
- 법당 : 35평 ● 요사 : 방 2개
- 보증금: 일천만원/ 월 일백만원
  시설비: 답사후 결정
- 최고요지의 포교당임

[토굴]
- 위치 : 해인사 가야산 (국민관광호텔근처)
- 부지 : 180평 ● 건물 : 50평
- 양도가 : 1억5천(대출가능)
- 1200년된 법수사 사지 3층석탑 옆

한국최고의 사찰컨설팅 한국불사 011)530-1975 / 011)688-3521

전국소재 사찰, 암자 양도, 양수할 스님께서는 전화 상담 환영합니다.

사찰안내

- 위치 : 전북 남원
- 부지: 3천 2백평, 법당, 요사 완비
- 납골시설 100기 (분양완료시 2억이상 수익가능)
- 대규모 납골사업 가능한 부지 조성 완료
- 가액: 1억 5천만원(전세가능)
- 기도정진할 스님 특별조건
- 납골탑만 매매가능

011-9415-6831

도심의 사찰

- 위치: 원주시내 (40년된 사찰로 조그마한 야산에 있음)
- 대지 : 200평
- 대웅전, 지장전, 용왕, 산신각, 요사채2동, 스님방 별도
- 가액 : 2억 5천만원

011-327-5863

포교당안내

- 위치 : 울산 남구 신정동 시청 5거리
- 평수: 60평
- 법당, 방2, 거실1, 공양간
- 보증금 500만원, 월 40만원
  시설비: 2500만원
- 삼존불, 후불탱화, 지장불, 지장동불 50불

052)261-4664
011-9511-8656

포교원안내

- 마산시 산호4거리 시장입구 3층건물 중 2층
- 건평 : 30평, 법당 11평, 방2개, 주방, 화장실
- 보증금 1000평, 월 45평
  권리금 : 답사 후 결정

055)243-3758

지리산 사찰

- 해발 700m 웅장한 전망 동남향 최고 명당
- 이온 황토 벽돌식(통유리 유럽식 빼치카)
- 완비된 개인수행처(각실, 싱크대, 샤워실 완비)
- 심야전기 요사채2동, 기름보일러 1동, 16000여평 선원 최적지
- 가액: 4억 2천만원

010-3141-3123/011-9680-9630

사 찰 안 내

- 위치: 경남 김해시 소재(진례)
- 부지: 약 1700평(국유지 포함)
- 법당: 10평, 요사: 30평, 산신각: 3평
- 가액: 1억9천만원
- 특징: 산세와 계곡이 좋아 기도도량으로 좋습니다

- 위치: 대구광역시 동구 소재
- 부지: 250평, 법당 30평 (목조, 단청)
- 요사 2동 60평
- 가액: 3억5천만원
- 특징: 도심사찰로 포교지로 좋습니다

좋은인연됩시다 동진불사 전국소재 사찰, 포교당 양도 양수하실분 연락바랍니다

서울 018-536-4064 / 대구 018-689-0455

도심의 암자(선원)

- 위치: 부산 북구 구포 백양산 하
- 2층 법당, 사무실, 스님방 (도시가스 시설)
- 1층 보증금 2천9백만원, 월 48만원
- 주차가능, 버스 정류장 2분거리
- 스님노환으로 급
- 가액 : 1억 6천만원

011-9859-7425

절 터 안 내

- 위치: 경북 봉화군 춘양면 근교
- 평수: 전 2000평(터 정리됨)
- 토굴 14평, 방 3개, 기름보일러, 부엌1동
- 상태: 독립된 청정계곡 도로포장됨
- 가액: 5800만원

010-4752-2758

사찰안내

- 위치 : 포항시 죽장 하옥
- 법당, 요사, 대지 200평, 밭 500평, 반듯이 붙어있음
- 산세와 경치를 보고 기도도량 찾는 분, 아주 좋은 곳임
- 가액: 1억5천만원

011-9302-0343
054)262-6673

인도성지사찰운영하실분

- 부처님 성도지 부다가야 고려사
- 평수 : 2400평
- 법당, 요사 40평
- 사무실, 화장실 15평
- 경비실 10평

011-307-3473

사찰안내

- 위치: 부산 동래구 온천동
- 총평수 : 37평(지하1층)
- 법당 : 25평
- 삼존불, 각단탱화
- 보증금 200만원, 월12만원 시설비 2000만원

011-9238-9960

사찰안내

- 위치:충북 옥천군 옥천읍 옥각리 부근
- 대지 100평 및 사용평수 100평
  건물 법당 25평, 산신각 5평, 요사채 18평, 11평
- 모든시설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음
- 가액: 1억3천만원

043)733-8186 / 011-9405-8186

포교당안내

- 위치 : 경기 시흥
- 4층건물중 4층. 평수 약 100평
- 방 4개, 법당 30평, 공양간 30평 목욕탕, 화장실, 집기일체
- 가액: 2천만원에 월 50만원 시설비 5천만원

1588-1086
031)434-9020
010-6328-3499

한마음 납골묘 납골당

사찰 경내에 본사의 비용(무상)으로
납골묘(석재)를 설치해 드립니다
사찰에서는 일체의 부담이 없음

한마음 석재 납골묘 납골당 고원합장

011-348-0668 / 031)318-0616

사찰안내

- 위치 : 전남 장흥군
- 면적: 임야 대지 포함 11400평
- 법당: 목조 40평
- 요사: 벽돌 110평 1동 창고겸 요사 45평 1동
- 가액: 3억7천만원

011-9457-7060

토굴 겸 암자 터 안내

- 위치 : 경북 청도군 비슬산 자락
- 부지 : 1140평(건축가능지역)
- 특징 : 양 옆 맑은 개울과 솔숲
- 가액 : 1억 4천만원

016-367-2112

1. 칠갑산 호수가 용바위산 암자 토굴터 6천평(평3만5천)
2. 대구 팔공산 갓바위접<암자> 513평 (1억5천)
3. 전북 남원시 지리산 자락<사찰> 3200평 (1억5천)
4. 계룡산 천황봉 연산 부근 절터 기조공사완료 570평 (1억)
5. 공주시 신풍면 수리치 성지 부근(토굴) 380평 (2억5천 융자1억5천)
6. 충남 최대 15만평 납골당 투자하실분 투자액 5억(사업설명참조)
7. 경남 거재도 다대포 새금강<토굴> 62평 (7천5백)

017-409-9599

사찰부지 안내

- 위치 : 천안(천안역10km) 2차선 포장도로 근접
- 면적 : 2000평 ● 관리지역 : 밭
- 산으로 둘러쌓인 삼태기형
- 가액 : 5억원

041)621-4411
010-3121-3900

사찰(급)안내

- 위치: 대구 파계사 근교
- 대지: 306평, 건평: 60평
- 법당(20평), 산신각(5평),
- 큰방 5개, 화장실 3개
- 산세가 수려하고 경관이 뛰어나 기도처로 최적지임
- 가액: 1억8천만원(융자별도) 답사후 가격절충 可

011-9371-0856

포교원(급)안내

- 위치 : 부산 동래구 알락동
- 평수 : 30평 2층
- 보증금 : 2천3백만원 월 20만원, 시설비 : 1천만원
- 즉시법회가능
- 급한 사정상 최저 양도

011-581-2518

포교당안내

- 위치 : 부산 동래 온천시장내
- 총 45평(3층 건물중 2층)
- 호불 500불(지장보살) 인등 500, 연등 1000개 원목 닫집(단청필)
- 가액: 보증금 1000만, 월 50만, 시설비 4000만원 (법당최고시설)

016-444-5758

포교원안내

- 마산시 부림시장상가 60평
- 보증금 1천만원, 월 25만원
- 시설비 1천2백만원(절충가능)
- 도심포교 최적지
- 노송과 대나무가 있는 토굴
- 남원 광한루에서 5분거리
- 현대식 20평(방2, 거, 주, 화)
- 가액 : 4000만원

016-424-0500

사찰안내

- 위치 : 부산 시내 (도심속 암자)
- 현재 운영중
- 가액 : 2억 7천만원

011-9303-8550
051)301-8555

토굴암자안내

- 위치: 충남 금산 대전에서 30분거리
- 부지 : 400평
- 건물 : 목조 한옥 21평 임법당(황토방)
- 가액 : 2억(절충가능)

041)753-8137

포교원안내

- 위치 : 부산 부평동 최요지 (국제시장, 자갈치시장, 부평시장 세개시장 중간)
- 평수 65평, 4층건물중 4층
- 가액: 전세 4천만원 월 65만원

051)727-1903

포교원안내

- 위치 : 대전 비래동 4층 건물중 2층
- 법당 단청완료
- 즉시법회가능
- 보증금 500만원, 월 20만원 시설비 1000만원

042)621-6196

문화재전통사찰안내

- 위치 : 전북남원시내
- 면적: 약600평(종교부지등)
- 가액: 4억 (임대는 1억2천 월세가능)
- 개인등기된 문화재 전통사찰로서 산수경관이 수려하고 아담하고 깨끗함 6m넓이 진입로 포장 되있고, 약수터 있음

011-703-3030

사찰안내

- 위치 : 서울 서대문구
- 대지: 200평
- 법당, 요사채 방5개
- 가액: 전세 7500만원 (매매도 가능)

02)305-1348
031)502-7128

사찰(급)안내

- 위치 : 제주도 남제주군 성산읍 (성산일출봉에서 5분거리)
- 대지 : 1층 380평, 법당 23평, 목조단청, 입불석조약사여래불, 칠층석탑, 산신당, 용왕당, 종각, 요사채 2동
- 1층과 같은 반지하 : 150평, 방7개, 20평법당. 사용가능 욕실, 공양실
- 특징 : 성산일출봉과 바다건너 우도섬이 보이고 도로에서 절이 보이며 마을이300m정도 떨어져 있음
- 가액 : 4억 8천만원

011-858-8892 / 064)702-9982

포교당안내

- 위치 : 경기 하남시 덕풍동
- 보증금 : 3천만원 월 50만원
- 시설비 : 2천만원
- 법당 : 40평, 방4개
- 몸만오시면 즉시 법회가능

011-715-6333

사찰 터 안내

- 위치: 군위군 고로면
- 평수: 4700평 건물한동 있음
- 특징: 650고지, 천하절경
- 약초재배나 고냉지채소 가능함
- 대구에서 50분거리
- 가액: 9천만원

011-810-8402

사찰안내

- 위치 : 경남 밀양시 인근
- 임야 : 1700평중에 종교용지 425평
- 법당 : 가건물 20평
- 요사 : 40평 1층 스라브 심야전기보일러
- 가액: 1억 8천(절충가능)

055)222-7346
016-868-5517

포교당안내

- 위치: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경남호텔 뒷편 아파트 밀집지역
- 40평, 모든시설 일체 완비
- 가액: 2천만원, 월 180만원 시설비 답사후 결정

02)2212-0686
016)396-1624

사찰(급)안내

- 위치 : 충남 부여 (산세수려하고 경관 최고)
- 평수 : 대지 200평,건평30평 (방4,부엌,거실,욕실) 건물20평
- 임법당1, 정원, 창고, 텃밭, 지하수2, 신축건물, 벽돌, 기와
- 가액 : 1억5천만원

032)544-6127
041)834-0206

사찰 터 안내

- 위치: 경기 이천시 장호원읍 어성리(미륵불사지)
- 총 350평 (대지 83평, 전 267평)
- 가액: 4천만원

010-370-5092
011-9219-0105

사찰터(급)안내

- 강원도 정선군 신동읍 방제리 38국도변 단곡계곡 두위봉 등산로변
- 용도: 사찰, 납골당, 연수원, 종합휴양시설
- 총평수: 밭 3만평, 필지 14, 주변국유림
- 가액: 평당 3만원 답사후 조정가능
- 사정상 급하게 처분합니다(분할가능)

017-342-4261 / 043)533-9529

포교당안내

- 위치 : 서울 강남구 양재동 (전철역 1분거리) 최고 중심지
- 법당1, 거실1
- 전세 : 6천500백만원
- 시설비:절충가능
- 철학관 운영하실 분 환영

011-358-4252

포교당안내

- 경기도 고양시 시청근처 3층건물 중 3층 80평
- 법당, 요사채, 주방, 방5개
- 보증금 : 1500만원 월 60만원
- 시설비 : 2500만원

011-307-3473

포교원안내

- 위치 : 충남 예산군 덕산면 면소재지 산중앙
- 3층 40평 ● 삼존불 산신탱화 칠성탱화, 후불탱화. 모든시설 완비
- 가액: 1000만원, 월 30만원 시설비: 1500만원
- 모든 비품 일체 포함
- 즉시법회가능

010-4422-5575
041)337-8078

사 찰 안 내

- 위치: 경남 사천시 교통요지

마을인접 포교당으로 최적

- 대지: 약 100평 사용부지 200평이상
- 목조 임법당, 방2개, 입실 주방, 욕실, 창고
- 불사가능도량, 집기일체포함
- 가액 8500만원

011-879-4791

사찰(급)안내

- 위치 : 충북 보은군 산외면 산세좋은 명당
- 대지: 200평,건물 25평 2동 조립식 건물
- 토목공사: 전 4000평 임야 10000평
- 4차선 도로 진입로에서 5분거리
- 대형차량 진입가능으로 대가람 중창 가능한곳
- 가액: 1억 7천만원

평당 : 1만 2천원

043)255-2773
016-402-1159

포교당안내

- 위치: 경기 시화 신도시
- 시설완벽 최고급
- 내부실평수 53평, 베란다 약 20평
- 난방 전기 큰방2, 거실겸주방 1, 샤워실겸화장실2, 엘리베이터, 주차장완비
- 가액: 보증금2천 시설비3000만원, 월60만원

031)432-7406

좋은 因緣 바램

- 경남 고성군 천황산 자락 시내에서 10분여거리
- 봉황이 알을 품은 正南向 名堂 석간수 옹달샘
- 종교부지 300여평과 주위1000여평 법당 (관음전)30평 , 요사체 30평 기타
- 황토와 태백산 1000고지 赤松으로 건축 절 주위 300여만평. 숲속에 위치 등산로
- 禪院및 기도처 수양이나 요양처로 最適
- 가액 10→7억5000 이면 양도하겠음

055)674-2202/010-8019-48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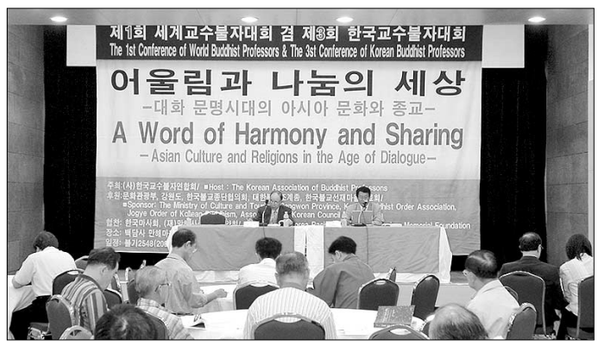
“문명 충돌 종교간 대화가 해법”

‘대화문명 시대의 아시아 문화와 종교’를 대주제로 한, 미, 영, 중, 일 등 9개국 200여 불자 교수가 참가한 가운데 8월 17일부터 사흘간 백담사 만해마을에서 ‘제1회 세계불자교수대회’ 국제학술회의가 열렸다. 이번 학술회의는 오늘날 고조되고 있는 종교 및 문명 충돌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종교간 대화가 필요하며, 이에 불교가 적극적으로 앞장서야 함을 확인하는 자리였다.

학술회의는 이준(건국대), 커렐 워너(영국 런던대), 츠요시 나카노(일본 소카대) 교수의 기조강연으로 시작돼 ‘종교 문명간의 대화’ 주제의 5편, ‘한국불교와 종교문화’ 주제의 6편의 논문이 발표됐다. 또 분과별 주제발표 및 토론을 통해 정치 · 경제 · 과학 · 예술 · 사회 · 교육 등 다양한 학문분야에서의 불교응용 가능성이 타진됐다.

이 가운데 불교적 가르침의 현실적 의의를 살펴본, 불교 및 힌두철학 권위자 커렐 워너 교수(영국 런던대)의 ‘불교와 평화’, 기독교의 우상숭배금지의 역사적 배경을 규명함으로써 기독교의 배타성을 극복하려 한 김은규 교수(성공회대)의 ‘불교와 기독교, 그 상생의 길’, 불교사상의 실천 방법으로서의 정치세력화 가능성을 일본 예를 통해 검토한 츠요시 나카노 교수(일본 소카대)의 ‘불교 교단의 정치참여의 의의와 과제’ 등이 주목받았다. 불교사상을 국제정치학에 접목하려 한 이종국 교수(동경대)의 ‘동아시아 평화와 불교’도 응용 불교학 논문으로 의미 있는 시도로 평가됐다.

‘제1회 세계교수불자대회’ 현장



8월 17~19일 백담사에서 9개국 200여 불자교수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1회 세계교수불자대회’ 국제학술회의 모습.

‘평화’ 가르침 확산돼야

‘불교와 평화’ -커렐 워너



“평화는 불교가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주요 메시지 가운데 하나다. 이와 대조적으로 기독교나 이슬람교 같은 일신교는 종교적 목적의 전쟁을 허용한다. 그 결과 이슬람교도의 ‘성전’은 여기저기서 벌어지고 있으며 기독교도들은 무자비한 정복전쟁을 일삼아왔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부처님의 평화 메시지는 과거에 그랬듯 현실적으로는 무력하기만 하다.”

17일 워너 교수는 ‘불교와 평화’라는 제목의 기조연설에서 평화가 불교의 주요 메시지이며, 그것은 주로 개인적 차원에서만 의미를 가질 뿐 사회적으로 확산되는 데는 한계가 있음을 주장했다. 워너 교수는 “부처님이 깨달은 직후에 자신의 깨달음을 다른 이에게 알리는 데 주저했던 까닭은 그들이 깨달음을 얻으리라고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사바세계에서 평화의 실현이란 불가능하며, 오직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열반적정과 주위에 감화를 주는 정도만 가능하다”고 말했다. 보살도 실천을 통해 모든 이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사회적인 평화에 이를 수 있다는 생각은 환상이라는 것이다.

“보살도 실천 통한 평화구현은 환상”

제1회 세계교수불자대회에 참가 차 한국을 방문한 커렐 워너 영국 런던대 교수는 한국불교의 멋에 대해 “한국 불교는 심오하면서도 흥미를 느끼게 하는, 살아 있는 불교라는 점이 가장 큰 매력”이라고 표현했다. 커렐 워너 교수는 1925년 체코 태생으로 영국의 더럼대, 런던대, 체코의 마사릭대학 등에서 인도 · 불교 · 힌두철학 등을 강의해온 세계적인 인도 · 불교철학 권위자. 그는 한국불교를 배우기 위해 1999년 처음 한국을 방문했으며, 그 뒤로는 매년 한국을 찾았고, 하나씩 둘러본 사찰이 이제는 120여 곳에 이른다. 커렐 워너 교수는 “한국불교는 중국으로부터 전래됐지만 한국적 사유를 적용해 독자적인 체계를 구축했다”며 “종파의 세분화 없이 통합적인 형태로 유지돼왔다는 것”을 강점으로 꼽았다.

대화 없는 ‘종교 쇄국주의’ 위험

‘불교와 기독교…’ -김은규



“종교 간의 대화를 거부하고, 자기 틀만 고집하는 것은 일종의 ‘종교 쇄국주의’입니다.”

‘불교와 기독교, 그 상생의 길’이라는 논문에서 기독교의 이원론적 한계를 극복하는 데 불교와 동양 사상이 큰 도움이 된다며 종교 간 대화의 필요성을 역설한 김은규 교수.

성공회 신부이기도 한 김 교수는 논문에서 불교를 이해하는 열린 자세와 기독교의 문제점에 대해 진솔하게 고백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신선한 충격을 줬다.

김 교수는 기독교가 다른 종교에 대해 배타적인 원인 중 하나로 ‘우상숭배 금지’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꼽으며 그 역사적 배경에 대한 검토를 시도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이스라엘의 종교는 가나안의 바알 종교와 같은 타 종교의 예배 및 제례 의식의 영향을 받으며 발전했다. 그런데 바알 종교가 퇴폐적인 양상을 띠게 됨으로써 바알 종교의 상징은 저급한 것이 돼버렸고, 이스라엘 종교는 그 퇴폐적인 영향을 차단해야 했던 것. 그래서 바알 종교의 우상을 금지한 것이었다.

상호간 장점 인정 자기반성도 필요

이로부터 김 교수는 우상숭배 금지의 본질은 타 종교의 부정적인 영향을 제거하기 위함이었지, 타종교를 무조건적으로 거부하는 데 있지 않다는 주장을 전개한다.

그는 “불교는 수행, 생명존중, 깨달음 등 많은 값진 사상을 포함하고 있다”며 “기독교는 이를 받아들이고 대화함으로써 서구의 이원론적 사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에 발표된 논문은 종교간 대화를 통해 종교를 발전시켜야 한다는 김 교수의 신념이 반영된 것이다. 김 교수는 이미 생태문제, 고통의 문제 등을 중심으로 불교와의 대화를 시도한 바 있다. 불교의 정토와 기독교의 하느님왕국(Kingdom of God)의 지향점은 “인권과 정의, 평화가 구현된 세상”이며 “불교와 기독교는 지구촌의 과제를 풀어야 할 공통의 과제를 안고 있다”는 것.

불교의 정치참여 ‘긍정’ 많아

‘일본에서의…’ -츠요시 나카노



“불교에 기반한 관용과 보살도의 실천이 요즘처럼 간절한 때가 없습니다. 오늘날의 정치 · 사회갈등은 일신교 전통의 국가로부터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저명한 종교사회학자인 츠요시 나카노(일본 소카대) 교수는 특히 9.11 테러 이후 미국내 두드러지고 있는 ‘근본주의적 종교민족주의’를 우려했다. 이런 성향이 정치권력과 야합해 군사적 폭력을 낳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나카노 교수는 “불교의 정치 참여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도 있지만 긍정적인 측면도 많다”며 불교의 가르침을 널리 알리고 실천하는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로 정치 참여를 제시했다. 이번에 발표된 그의 논문은 일본에서 불교가 종파에서 정당으로 발전해간 과정을 분석한 것으로 특히 창가학회가 공명당에 초점을 맞췄다.

가르침 널리 전하고 실천하는 계기돼야

그에 따르면 일본에서 불교의 정치 세력화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의 대승불교 전통에 근원을 두고 있는 창가학회(創價學會)와 입정교성회(立正校成會)를 중심으로 전개됐다.

특히 창가학회는 1960년대에 공명당을 결성해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등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 이래, 90년대 이후로는 자민당 등 보수정당과 연합정부를 형성할 정도로 성장했다. 2004년 현재 공명당 의석수는 중의원 34명(전체 480명), 참의원 24명(전체 247명)으로 자민당과 민주당에 이어 제 3당의 위치를 점하고 있다.

그는 “공명당이 중도적 자세로 정당 간의 갈등 완화, 평등주의와 자비사상에 입각한 보살도를 정책에 반영하려 노력했다”며 “그런 노력은 정쟁 자제, 정치의 공공성 회복에 대한 요구, 정치자금 규모 제한 및 모금과 집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입법 활동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나카노 교수는 “하지만 자민당과 연합정권을 형성하면서, 생명 · 인권존중과 같은 공명당의 불교적 가치가 희석되는 등의 부작용을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백담사 만해마을=박익순 기자

우희종 교수의

불교와 생명과학 <46>

신경계와 면역계

3년마다 열리는 세계면역학회가 지난 달 말 캐나다의 몬트리올에서 열렸다. 전 세계에서 1만 명도 넘는 학자가 모이는 학술대회로서 학문의 흐름을 예측할 수 있다. 이번 대회에서의 주관심사는 중추신경계인 뇌와 면역 기능간의 상호 작용이었다.

정신적인 자기인식의 바탕이 되는 뇌와 신체적인 나를 인식하는 면역기능은 오랫동안 별도의 체계로서 알려져 있지만 연구가 거듭됨에 따라 서로 영향을 주고 있음이 알려져 왔는데 특히 흥미로운 것은 신경계가 면역계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거꾸로 면역계도 신경계에 많은 영향을 준다는 사실이다.

불가에서는 현재는 과거의 모습이고 미래는 현재를 보면 안다고 말하고 있다. 또 현재의 나는 과거의 업(業)에 의한 모습임에 틀림없다. 이러한 이야기를 마치 숙명론인 것처럼 받아들이는 이가 많은 것도 현실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과거, 현재, 미래의 직선적 시간의 개념에 익숙해져서 한번 일어난 과거는 이미 어쩔 수 없는 고정된 것으로 받아들인다.

뇌와 면역기능 상호 영향 관계 밝혀져

생체는 고정되지 않고 항상 변화 추구

과거는 우리의 기억 속에 자리잡고 있으며 현재의 우리를 이루는 바탕이 되어 있다. 하지만 과거에 대한 기억이란 원래와는 전혀 다른 내용으로 기억되기도 하며 동시에 그 기억도 변화해 감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철저한 자각을 통해 지금까지와 전혀 다른, 즉 과거에 의해 정해진 모습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기도 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과거란 결코 고정된 것이 아니라 변화하는 것이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

부처님께서도 운명론이나 숙명론을 부정하였다는 것은 부처님께서는 직선적 시간에 대하여 부정적이었음을 말해주며, 또 과거란 고정되어 있다는 직선적인 관점을 지니고는 현재의 삶에 대한 긍정과 수용을 결코 얻을 수가 없다.

한편, 생물학적으로 우리에게 과거란 신경계 속에 기억이라는 이름으로 담겨져 있다. 이러한 신경계의 변화를 유도하는 것이 면역기능이라면 면역작용이야 말로 신경계 안에 담겨져 있는 과거를 변화시키는 데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이다. 현대 생명의학의 한 추세로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음을 이번 면역학회에서 느낄 수가 있었는데, 특히 흥미로운 것은 면역현상이란 우리 몸 속에서 나를 지키기 위해 작용하는 생체 기능이란 점이다.

나를 지키기 위한 기능이 끊임없이 자신의 과거를 변형시키고 또 다른 모습으로 바꿔간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듯 생체도 나를 고정된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관계 속에서 끊임없는 변화를 통해 항상 새로운 모습으로 자신을 만들어 나아간다는 점이다. 이러한 것을 볼 때 우리가 관념적으로 자신의 몸을 비롯하여 실체로서의 나라는 한 생각에 붙잡혀 있고, 그 한 생각으로 말미암아 고통 받으며 힘들게 살아가는 모습이야 말로 참으로 어리석은 것임을 현대 생명의학에서도 말해 주고 있는 듯하다.

■서울대 수의과대학 면역학교실



그림 : 문병성

봉 대한불교총화종 행

세계평화 기원 대법회 및 수륙영산재

평화의 염원이 어느 때 보다 간절 합니다.
세계 곳곳에서 생명을 해치는 행위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총화종 전 종도와 불자님들의 정성을 다한 염원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공사 간 다망하시더라도 『세계평화 기원 대법회 및 수륙영산재』에
무루 동참하시어 세계평화를 간절히 기원하고 모든 영가의
극락정토왕생과 누겁의 업장 소멸을 발원하시기 바랍니다.

■ 일 시 : 2004년 9월19일(일요일) 오후 2시
■ 장 소 : 충주시 가금면 탑평리 중앙탑
■ 문 의 : 총무원 - 경기도 남양주시 호평동 342-1
☎ 031)592-8891

※ 종단 소속 1300여 사찰에서 3만 여명 참석 예정

2004년도 정토불교 체육지도자과정 교육생 모집

선 카이로프락틱, 운동처방, 선 내공체술

1. 본 교육연수원의 설립취지
불교의 대중화와 대승불교 사상을 홍보하기 위한 출가수행자 및 법사들의 포교방편과 스님들의 자활력을 갖춤으로써, 병고에 시달리는 중생구제와 더불어 보시금이나 불전에 의존하지 않고, 주며 베푸는 떳떳한 스님을 양성키 위해 **정형외과 의사와의 대화에서도 부끄럽지 않은 유능한 '카이로프락터'**로서의 정통교육을 힘씀에 있다.

2. 교 과 목 : 카이로프락틱 교정 이론 및 실기(해부학, 스포츠맛사지, 근육학, 운동처방 포함)
디스크(목, 흉추, 요추, 선추), 오십견, 두통, 관절통, 편마비 등의 교정 방법을
미국 팔머대학의 교재로 확실히 교육시킴

3. 과 정 : 2급과정 교육기간 2개월(총 108시간) 지도자 자격증 발급
1급과정 2급과정 수료자로서 교육기간 1개월(총 54시간), 카이로프락틱 마니 플레이션

4. 모집방법 : 2급과정 30명(선착순 마감)
● 지원자격 : 출가수행 스님 및 법사, 불자
● 입학금 및 강의료 : 출가수행 스님으로서 승적증명서 제출자는 무료 (단, 식대 및 교재대 20만원)
● 원서접수 : 2004년 8월 7일 ~ 9월 1일 까지

5. 입학일시 : 2004년 9월 2일 13시

6. 원서교부처 : 정토불교 체육지도자 교육연수원 교학과 042)635-8186, 8187
대전광역시 대덕구 중리동 241-14 호산빌딩

정토불교 체육지도자 교육연수원

일주문



'국제 청소년 광장' 개최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장 현성 스님은 8월 18~25일 국제청소년센터에서 '지구환경발전과 청소년의 실천방안'을 주제로 15회 국제청소년 광장을 개최했다.



'선과 삼론학의 불성관' 월례발표
보조사상연구원장 법산 스님은 8월 28일 서울 법련사에서 '선과 삼론학의 불성관'을 주제로 월례 발표회를 연다. (02)733-5311



'구름 뒤 파란 하늘' 출판기념회
부산 여여선원장 정여 스님은 8월 26일 오후1시 부산 롯데호텔 크리스탈 볼룸에서 '구름 뒤 파란 하늘' 출판기념회를 개최한다. (051)851-5486



성남 사회복지관협회장에 취임
성남 분당 한솔종합복지관장 성화 스님은 8월 17일 성남시 4개 복지관협의회인 성남사회복지관협의회장에 취임했다.



창립 7주년 기념법회
대한불교전국산악인연합회 김진관 총재는 9월 4~5일 제주도 서귀포시 약천사에서 연합회 창립 7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한다. (02)735-1108



티베트 성지순례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 노옥섭 회장은 8월 15~22일 제3차 해외성지 순례를 포탈라궁, 라싸 등 티베트 일대로 다녀왔다.



3회 한일 불교문화교류 공연
서울 동산불교대학 김재일 이사장은 8월 19~21일 일본 양원사에서 열리는 '제3회 한·일 불교문화교류 공연' 참석차 18일 출국했다.

인사

진각종 △대구 시경심인당 주교 경당 △익산 관행심인당 주교 도진 △청도 본원심인당 주교 현경

불교방송 △경영기획실장 김정특 △총무국장 구기범 △방송제작국 편성제작부장 이응진 △〃 보도부장 직무대리 남선 △기술부장 백낙찬 △총무국 총무부장 최찬기 △방송제작국 해설위원 선상신 △편성제작부 편성팀장 김학주 △〃 포교제작팀장 김상준 △〃 교양제작팀장 장대송 △방송제작국 아나운서팀장 이선희 △보도부 정치경제팀장 김봉조 △〃 사회문화팀장 박관우 △기술부 기술관리팀장 강응규 △〃 제작송출팀장 정재의

이전

한마음선원 대전지원이 공주시 사곡면 신영 3리로 이전하고 명칭도 '공주 지원'으로 바꾸었다. (041)852-9100

"불교학의 세계적 네트워크 구축할 터"

아·태 교수불자연합회 초대 회장 연기영 교수



"이제 아시아·태평양 교수불자연합회가 창립됐습니다. 이를 모태로 세계의 지식인 불자가 하나되는 명실상부한 국제 교수불자 네트워크를 만들어가겠습니다."

8월 18일 백담사 만해마을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 교수불자연합회 창립대회'에서 초대 회장으로 추대된 연기영 동국대 교수(사진). 그토록 꿈꿔오던 국제교수불자 네트워크를 향해 첫발을 내디뎠다는 기쁨에 상기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이번 창립대회는 17일부터 같은 곳에서 열린 제1회 세계교수불자대회에 참가했던 아시아·태평양 지역 불자교수들과 한국교수불자연합회(회장 연기영) 회원들에 의해 이뤄졌다.

연 교수는 "지식인은 사회 변혁의 정신적 지주로서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불교사상을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아시아·태평양 교수불자연합회가 중심이 돼 인류평화의 이론·실천적 토대를 구축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또 연 교수는 "한국교수불자연합회 창립 이후 16년이 지나는 동안 우여곡절과 어려움이 많았다"며 "그래도 지식인 불자들의 실천적 역할의 필요성을 확신하는 종단과 회원들의 도움이 있었기에 교불련이 아태교수불자연합회 창립을 주도할 정도로 성장할 수 있었다"며 고마움을 표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아태교수불자연합회는 앞으로 아시아와 미국, 호주 등 해외 15개국에서 600여명의 회원을 확보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백담사 만해마을=박익순 기자

간화선과 심리상담 접목 '특효'

'선수행에 의한…' 논문 낸 김말환 법사



"군승제도가 생긴 지 35년이 지나도록 이렇다할 불교적 상담법을 개발하지 못해 왔습니다. 그래서 5년여에 걸쳐 선수행을 활용한 인성검사 프로그램을 장병 선도에 적용해 본 결과 좋은 효과가 있음을 알게 됐고, 이를 논문으로 정리하게 된 것입니다."

선 심리상담법을 연구해 온 김말환 국방부 군종실장(대령·사진)이 25년간 군승으로 근무하면서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선수행에 의한 심리상담법 연구'라는 논문을 펴냈다. 서구식 상담법을 활용하고 있는 군포교 현장에서 불교적 상담법 개발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기 때문이다.

1999년 동국대 일반대학원 선학과 박사과정을 수료한 김 실장은 "그동안 선 심리상담에 대한 관심은 높으면서도 학문적 체계로 발전시키지는 못했다"며 "간화선을 현대의 심리증적 치료에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발견한 논문으로 평가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상담자가 내담자의 마음의 문을 열고 신경증 치료 효과가 있는데서 착안했다. 특히 내담자의 마음을 안정시켜 신뢰 속에서 번민을 토로하도록 이끌어내고 스스로 주어진 현실을 직시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줄 수 있다는 확신을 얻었다. <잡아함경> <금강경> <능가경> <안반수의경> 등을 적극 활용한 결과다.

현재 국방부에서 대국민 종교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김말한 군종실장은 "구체적인 장병들과의 고충사례와 해결과정을 논문에 포함시켜 선심리 상담의 효과를 높이고자 했다"며 "앞으로 보다 많은 사례를 별도의 책으로 묶어 군포교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봉영 기자 bypark@buddhapia.com

상제 정사·나선환 씨 신계륜·박계동 의원 진각복지재단 신임 이사에 선임


상제 정사


나선환 씨


신계륜 의원


박계동 의원

사회복지법인 진각복지재단 신임이사에 상제 정사(진각종 경주교구청장), 나선환 탑주심인당 신교도(우리은행), 신계륜 의원, 박계동 의원이 선임됐다.

진각복지재단(대표이사 효암)은 8월 17일 임시이사회를 개최하고 임기가 만료된 혜정 정사(교육원장)와 손성섭·조성준·김용균 이사의 후임으로 이들을 선임했다. 혜인 정사와 혜명 정사는 재선임됐다.

이사회는 또 산하시설인 인천 덕화노인요양원 원장에 김영란 씨, 나리어린이집 원장에 남경희 씨, 삼양어린이집 원장에 장명희 씨, 신내어린이집 원장에 김선옥 씨를 각각 임명했다.

박봉영 기자

문광부 종무실장 이보경·종무관 신용언 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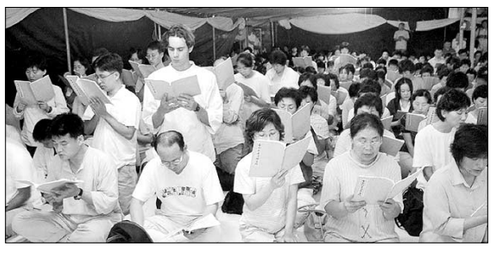
신임 문화관광부 종무실장에 이보경(사진 위) 전 문화산업국장이, 종무관에 신용언 전 관광정책과장이 8월 19일자로 임명됐다.

이 실장은 서울대에서 영어학을 전공했으며, 미국 뉴욕주립대 행정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행정고시 22회 출신으로 어문출판국 출판자료과장, 국립현대미술관 사무국장, 대통령비서실 비서관 등을 역임했다.

신 종무관은 서울대에서 정치학을 전공했으며, 청소년교류과장, 출판신문과장 등을 역임하기도 했다.

남동우 기자

금강경독송회 경주서 통합 철야법회



금강경독송회(지도법사 김재웅)는 8월 14~15일 500여명이 모인 가운데 경주 두대 도량에서 통합 철야법회를 봉행했다.

불우이웃과 결식아동을 위한 성금모금 행사도 가진 이날 김재웅 법사는 "일상속에서 수행을 늘 하는 불자가 되자"고 말했다.

봉원사 연꽃축제 16일 개막



서울 신촌 봉원사(주지 인공)는 8월 16일 경내에서 제2회 서울연꽃축제를 개막했다. 문화관광부, 한국관광공사, 서울시, 문화재청, 태고종 총무원 등이 후원하고 봉원사와 영산재보존회가 주최하는 이번 연꽃축제는 8월 30일까지 열린다.

한상린 씨 전국관광기념품 공모전 대통령상


한상린 씨


대통령상을 받은 '한국의 전통인형과 실용소품'

부처님오신날 봉축캐릭터를 개발한 한상린 씨(사진)가 제7회 전국관광기념품 공모전에서 대통령상인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문화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한 이번 공모전은 지역예선을 거쳐 출품된 942종 7661점에 대해 창작 아이디어 분야와 일반상품 분야로 나누어 심사를 벌인 결과, 한 씨의 출품작 '한국의 전통인형과 실용소품'이 대상으로 선정됐다.

'한국의 전통인형과 실용소품'은 왕, 군무(群舞) 등의 전통인형을 아름다운 색채로 섬세하기 표현해 상품성, 디자인, 전통미 등 여러 부문에 걸쳐 최고라는 평가를 받았다.

한상린 씨는 "가치가 높은 우리의 문화를 한국적인 이미지를 살린 작품으로 만들어 왔는데, 좋은 결과를 얻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박봉영 기자

봉서사 신도님들께 드리는 글

입추지절에 신도 불자님들의 가정에 항상 행복과 건강 충만하시길 부처님전에 합장 기원 드립니다. 소승의 부친 호산 서남수 큰스님께서 입적하신 이후 소인의 잘못으로 인해 천년 고찰 봉서사가 법난에 휘말리게 하고 신도 불자님들의 마음의 상처를 준 것을 백배사죄하며, 정진과 기도에 불편함을 드려서 정말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돌이켜 생각하건데 봉서사는 천년고찰을 이어온 전통사찰이며, 옛날 옛적부터 대처승 승려의 계열로 사찰이고, 사자상승(계승) 이어 온 "태고보우국사"의 증조를 받들어 온 "태고종 종찰"이라는 것을 이번에 사건의 계기로 소승은 확실히 알았으며, 아버님(호산스님)께서 신도 불자님 함께 손톱, 발톱의 온 몸으로 40년 동안 불철주야 봉서사 불사를 하는데 평생을 함께 하시고 사랑하는 봉서사 신도 불자님의 커다란 뜻을 소승의 마음의 혼란으로 잠시 자식이라는 좁은 소견과 탐·진·치 삼독으로 본성을 가려서 빚어진 욕심에 잘못함 인정하고 소승은 "다시 태어난다" 하는 심정으로 "한국불교태고종 봉서사" 현주지 김욱제(월해)스님에게 모든 점유·운영·소유 및 명도를 넘겨 드리고, 소승은 태고종 승려로써 백의 종군하고 참회(반성) 마음으로 돌아가 조용한 산사에서 공부를 하며, 기도에 열중할 것을 봉서사 신도 불자님께 말씀드리며, 저희 아버님이신 서남수(호산)큰스님을 평소에 존경하고 따르신 신도님께 바라옵건데, 태고종 봉서사 현주지 김욱제(월해)스님을 모시고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부처님 말씀을 생각하시고, 광복스님은 조계종의 승려지만 봉서사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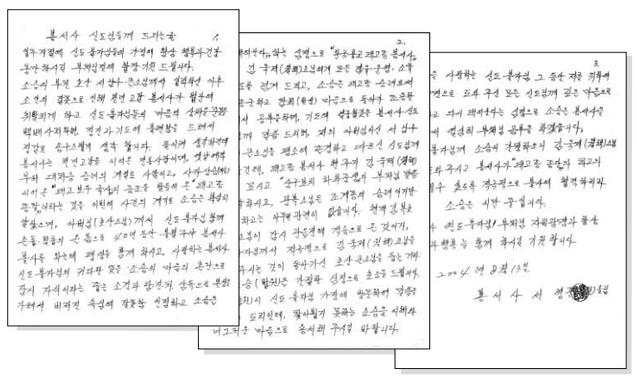
현재 김복호(광복)스님이 잠시 관음전에 객승으로 온 것이지, 신도 불자님께서 적극 적으로 김욱제(월해)스님을 도와 주시는 것이 돌아가신 호산 큰스님을 돕는 거라고 소승(법원)은 간절한 심정으로 호소를 드립니다.

소승(법원)이 신도 불자님 가정에 방문하여 말씀을 올려야 도리인데, 찾아뵙지 못하는 소승을 이해와 너그러운 마음으로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봉서사를 사랑하는 신도 불자님 그 동안 저를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모든 신도님께 깊은 마음으로 참회하고 다시 태어난다는 심정으로 소승은 봉서사를 떠나서 열심히 부처님 공부를 하겠습니다.

신도 불자님께 소승이 간청하오니 김욱제(월해)스님을 도와 주시고 봉서사가 "태고종 종단"의 최고의 사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불사에 협력하리라 믿고 소승은 이만 줄입니다.

봉서사 신도 불자님! 부처님 자비광명과 항상 가정과 행복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2004년 8월 13일
봉서사 서영준(법원) 올림



당신도
최고의 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국내 어느곳에서도 배울수 없는 과정과 비법을 3개월만 배우면
초보자도 달인이 될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때 미래를 준비하십시오!

단기과정!! 속성비결!!

사암침술 강좌
맥을 터득해야 사암침술을 자유자재로 시술 할 수 있습니다.
(초,고급과정)
▶ 내용 : 12경락과 경근, 사암도인침구요결, 장부의 허실증 판단, 황제내경맥진법, 맥조절방법, 처방요령, 침술즉효요법(一鍼法), 뼈교정법, 종합실습
▶ 개강 : 2004. 9. 1 (주·야간반 : 3개월 완성)
※ 침술사 자격증도 교부합니다.

매화역수 강좌
간단한 수리학(1~9)만으로 운명을 판단하는 비법을 공개합니다. 쉽고 간단하고 재미나며, 명리수준을 최고위 과정까지 높여 드리는 국내 유일의 강좌로 년운과 월운은 물론 일운까지 정확하게 적중시키는 최고의 학문입니다. ▶ 개강 : 수시

사암침술학회
장소 : 화암빌딩 402호(종로3가 지하철 12번 출구 옆)
문의 : 011-307-2975. 02)2267-9136



불자 세상보기

송 일 호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

'불황'과 '과거사'의 순서

지금 우리 사회는 경제적 불황과 사회갈등으로 심한 몸살을 앓고 있다. 그동안 대통령 탄핵 정국과 신행정수도 이전 문제 등으로 국론이 분열되어 갈등을 키워오더니 이제 과거사 청산 문제까지 겹쳐 온 나라가 시끄럽다. 그 와중에 여당의장의 부친에 대한 친일행적이 밝혀지면서 정국은 더욱 혼미해지고 있는 양상이다.

과거사 청산 문제는 우리 민족의 정기를 세우고 정체성과 정통성을 확립하며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도 외면해선 안될 중요한 이슈임에 틀림없다. 독립투사 보다 일제의 앞잡이가 대를 이어 활개를 치고, 독재정권의 타도를 외치며 고초를 겪었던 민주투사 보다 일신의 영달을 위해 양심을 버리고 세상이 바뀌어도 변신을 거듭하며 부귀영화를 누리는 사람들로 우리 사회가 채워진다면 우리의 미래는 정말로 참담할 것이다.

그러나 과거사의 청산작업이 객관적이고도 공정한 기준 아래 진행되어야지 자기 자신의 조상이 저지른 잘못은 그냥 넘어가고, 남의 조상의 잘못만 부각시키는 방식의 과거사 청산은 또 한번 국론을 분열시키고 사회의 갈등을 증폭시키게 될 것이다. 또한 과거사 청산문제가 보수와 진보의 대립적 시각에서 흑백논리에 의해 진행된다면 영원히 청산될 수 없는 과제로 남고 말 것이다. 우리나라의 미래를 진정으로 걱정한다면 정략적인 접근은 있어서는 안될 일이다.

여기에 불안한 정치권으로 말미암아 경제적 상황은 이미 우려의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 작금의 경제상황은 IMF 위기 때보다 체감경기가 나쁘다는 말이 벌써 몇 년 째 들릴 만큼 심각하다. 특히 소비가 위축되고 투자심리 역시 얼어붙어 좀처럼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 점은 국민들을 더욱 절망 속으로 밀어넣고 있다. 개인파산이 급증하고 있으며 중산층이 무너진다는 통계도 나오고 있다. 기업이 사람을 채용하지 않아 청년실업자들이 넘쳐나고 있다. 공장들이 이 땅을 떠나 해외로 이주를 하고 있고 외국기업들은 우리나라에 현지투자를 하길 꺼려하고 있다.

경기가 활성화되려면 유효수요가 먼저 진작되어야 하는데 미래에 대한 예측이 불확실하거나 비관적이면 모든 것이 얼어붙어 경기는 더욱 침체의 늪으로 빠져 들어가게 된다. 정치권은 이러한 경제적 상황마저도 서로 네 탓으로 돌리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 앞에 던져진 과거사 청산과 경제살리기는 사실 성격이 서로 다른 주제다. 과거사를 정리함으로써 그동안 우리 사회가 안고 있었던 모순구조를 타파하자는 것과 경제 불황을 극복하자는 문제는 우선순위를 따질 수 없는 지상과제임에 틀림없다.

핵심은 어떻게 이 두 문제를 푸는가 하는 방법의 차이에 있다. 과거사의 청산작업이 객관적이고도 공정한 기준 아래 진행된다면 여든 야든 반대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따라서 현재 가장 시급한 것은 여야간에 실종되었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다. 이러한 신뢰의 회복이야말로 우리 경제를 살리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지금 우리는 저신뢰사회에 살고 있다. 남과 북이, 여당과 야당이, 그리고 노동자와 사용자가 서로를 신뢰하지 않고 있다. 후꾸야마라는 학자는 한국이 외환위기가 초래된 이유를 저신뢰사회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신뢰의 회복은 생산성을 증진시키고 궁극적으로 국가와 기업의 경쟁력을 키우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정치권이 앞장서서 서로 간에 실종되었던 신뢰를 구축한다면 과거사 청산문제와 경제회복이라는 두 문제를 동시에 풀 수 있는 해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며, 이 문제들을 극복했을 때 비로소 우리나라는 한층 더 성숙해 질 수 있을 것이다.

본란(本欄)의 내용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불자의 눈 논설위원 기명사설

문화재 보존 포기수준?

한국문화재보존학회가 서울, 충남 · 북 지역의 석조문화재를 조사한 결과는 놀랍다. 풍화, 생물, 구조 등 3개 분야에서 5등급 위험판정을 받은 문화재는 서산 마애불을 비롯해 부여 정림사터 오층석탑, 법천사 지광국사현묘탑, 무량사 오층석탑 등 무려 23건이라 한다. 이들은국보 또는 보물 등으로 지정된 국가의 중요한 문화재여서 심각성을 더해준다.

그런데 더욱 안타까운 것은 주무기관인 문화재청이 올 봄 서산 마애삼존불과 정림사지오층석탑 등 4곳을 정밀진단 대상으로 정했지만 실행에 들어간 문화재는 없다는 사실이다.

최근 언론이 서산 마애삼존불의 현장조사 결과를 집중보도하며 "암석풍화, 절리, 염분, 산성비 등 외부환경에 따른 파괴가 심각한 만큼 신속한 정밀진단으로 구체적인 훼손원인을 빨리 찾아내어 보호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부는 "보고서 내용을 서산시에 통보해 정밀조사 진단에 필요한 예산을 신청하도록 했으며 국회 통과, 지자체 예산배정 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일러도 내년 봄 이전에는 조사가 어렵다"고 밝혔다가 비난여론이 쏟아지자 그때서야 연내 조사를 벌여 대책을 세우겠다고 입장을 바꿨다. 정밀진단 조사를 하는데도 이럴진대 정작 보존대책을 마련해 실행하기까지는 또 얼마만큼의 시간과 지적이 뒤따라야 할 것인가. 그 사이 해당 문화재는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

요즘 어느분야에서나 개혁과 혁신을 말하는 소리가 높다. 시급을 가리지 않고 절차만을 따지는 정부의 태도야 말로 개혁과 혁신의 대상이다.

문화재청의 예산집행은 특례를 세워 긴급한 경우 먼저 집행하고 추후 결산하는 등 법규를 정비해야 한다. 나아가 문화재 보존을 위한 긴급한 경우를 대비한 문화재보존기금을 조성하거나 특별법인을 설립할 것을 제안한다. 문화재청이 '외청'으로 승격한 만큼 문화재보존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청을 두는 문제도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훼손되어 가는 문화재를 보존하는 일이 형식적인 외청 승격으로 감춰질 사안은 절대 아니다. 정부가 보다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문화재 보전책을 제시해주길 기대한다.

■이기선(조계종 성보문화재위원)

이렇게 들었다 공인의 거짓말

"집회에서나 단체에서나 누구든 다른 사람에게 거짓말을 해서는 안된다. 다른 사람을 시켜 거짓말을 하게 해서도 안된다. 또 다른 사람이 거짓말하는 것을 용인해서도 안된다."
(숫타니파타)

아테네 올림픽으로 밤을 지새우는 요즘, 한편에서는 과거사 규명 문제로 나라가 시끄럽다. 바람 앞의 등불처럼 위태로운 경제, 안보, 고구려(발해)사 문제 등 큰 현안에는 거의 식물인간처럼 제 역할을 못하는 정치인들이 때아닌 과거사 문제로 잡음을 일으키고 있다. 게다가 과거사 청산을 주도하고 있는 집권여당의 대표가 부친이 일제시대 일본군 헌병이었다는 행적을 은폐하려 사실상 거짓말을 했다는 의혹마저 사고 있어 어안이 벙벙하다.

국민들은 신기남 의원의 부친이 일본군 헌병 출신이었다고 해서 그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지는 않는다. 연좌제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간 부친의 행적을 두루뭉실하게 은폐한 신 의원의 태도는 편리한 이중잣대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그가 친일행위 규명에 앞장서려면 부친의 전력을 먼저 공개했어야 옳았다는 말이다.

<천수경(千手經)>은 10대 죄악 가운데 말로 짓는 죄악이 4가지나 된다고 말한다. 망어(妄語, 거짓말), 기어(綺語, 발림말), 양설(兩舌, 이간질), 악구(惡口, 나쁜말)를 살생, 도적질, 음행과 같은 중죄로 여겼다. 지난 대선 때 북한산-천성산 문제를 원점에서 재고하겠다던 노무현 정부의 고위 인사들의 말은 여기에 얼마나 해당될까.

책임지지 못할 바엔 침묵하는 것이 낫고, 말을 내뱉었다면 끝까지 책임을 다하는 것이 공인의 공심(公心)이 아닐까. 지도자의 거짓말이 얼렁뚱땅 용납되는 구습이 반복되는 한 개혁과 발전은 요원한 희망사항일 뿐이다.

■김재경(취재부 차장)

독자의 소리-이렇게 생각한다

숭고한 뜻에 무관심이라니

애초부터 천성산을 살리기 위한 지율 스님의 투쟁은 마치 수레바퀴 자국에 빠진 사마귀가 달려오는 수레와 맞서 싸우는 이란지석(계란으로 바위치기)의 형상이었단 말인가?

지금껏 청와대와 천성산 고속철도 건설 관계자는 50일이 넘게 단식투쟁을 하고 있는 목숨을 건 스님의 투쟁에 눈 하나 깜짝이지 않고 배짱만 부리고 있다.

대선공약으로 천성산 고속철 관통을 철회하겠다던 참여정부의 얄팍한 정치논리도 신물이 나지만, 불교계의 무관심에 더욱 화가 치민다.

가족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것은 구성원 개개인의 방패막이요, 위험으로부터의 울타리가 되어주는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지율 스님은 불교라는 가족에 몸담고 있으니, 불교계가 지율 스님의 울타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조계종과 불교계 단체는 상황이 이렇게까지 악화되도록 남의 집 불구경하듯 수수방관만 하고 있는지 아쉽기만 하다. 몽고가 침입했을 당시 불심으로 똘똘 뭉쳐 팔만대장경을 만들어 몽고군의 간담을 서늘케 했던 불교인들의 저력은 어디로 사라졌단 말인가.

현 정부의 정책에 항거하자는 것이 아니다. 우리와 동시대를 살고 있는 천성산의 이름 없는 생명과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들과 함께 부처님의 인연법에 따라 공생하자는 지율 스님의 뜻에 동참하자는 것이다. 존재의 아름다움을 일깨우는 불교라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

이민정(경기도 군포시 당정동)

절뺏기 싸움 개탄스럽다

'완주 봉서사, 조계종 점거로 태고종과 분규'라는 제하의 <붓다뉴스> 기사를 읽고 참담한 마음을 금할 길 없다.

누구의 주장이 옳고 그른가를 따지기에 앞서 60~70년대에나 있을법한 절 뺏기가 2000년대에도 존재한다는 사실이 그저 한심스러울 뿐이다. 게다가 중생을 제도하고 불법을 이끌어 가야할 수행자들이 절을 강제로 점거하고 소송을 벌이는 행태가 개탄스럽기까지 하다.

봉서사는 조계종과 태고종, 양 종단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찰이 아니다. 그런데도 힘의 논리로 사찰을 차지하려고 한다는 것은 탐심과 진심, 치심에 물들어 있는 승가의 치부를 드러내는 일임에 틀림없다. 계율이 시대에 따라 변한다고 하지만 불교의 근본정신마저 뒤흔들 만큼 변하지는 않을 것이다.

조계종과 태고종이 진정 책임있는 정통종단이라면 사실관계를 철저히 조사하고 한국불교와 종단, 스님의 위의를 해친 관계자들을 일벌백계하여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승가의 근본정신으로 돌아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를 촉구한다.

유선기(전북 전주시 노고산동)

승가개혁이 필요하다

속세에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가 나뉘어져 권력이 분리되어있듯, 조계종의 체계도 총무원 호계원 중앙종회로 나뉘어 있다. 그런데 승가가 이렇게 일반 사회의 정치 논리에 따라 조직을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할까 라는 의문이 생긴다.

물론 조계종은 수많은 종도가 있는 집단이기 때문에 조직을 체계적으로 만드는 것이 절실한 과제일 것이다. 한 곳에 권력이 집중되어 심각한 문제를 야기했던 지난날도 잊지 않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불법을 수호하는 스님들조차 권력의 이동과 집중 현상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사실이 안타깝게 느껴지는 것은 어쩔 수가 없다. 지나치게 정치적인 성향을 띠는 모습은 이를 지켜보는 많은 이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이런 와중에 실천불교전국승가회가 조계종 중앙종회를 개혁하기 위해 나섰다는 <현대불교> 기사를 읽으면서 권력을 가진 집단에는 높은 도덕성과 자정 능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데 대해 공감한다. 사부대중 모두가 불교계 스스로의 변화 노력에 힘을 실어줬으면 한다.

임홍철(부산시 동래구 안락동)

'현대' 만평 심 민 섭



보우승가대학 학인모집안내

보우승가대학에서는 초종파적으로 불교인재 양성을 위한 불교의식과 경전을 강의를 하고자 합니다 강사진은 화계저명한 교수님들과, 유명 강사스님으로 보다 체계적이고 알찬 교육을 통하여 초보자도 여법히 법회및 의식을 봉행할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1 강의과목
▶ **경전 연구반(1년)** - 스님 및 교임, 교양대학이상을 수료한 불자
(매주 금요일 오후 4시~7시 통신 강의도 가능함)
▶ **의 식 반(1년)** - 스님 및 교임, 예비승려, 관심있는 불자
◎ 기본과정 : 6개월. 월, 화요일 오후 4시 ~ 7시
◎ 전문과정 : 6개월. 수, 목요일 오후 4시 ~ 7시

2 장 소 서울 종로구 창신동 원각사내 (☎ 02-742-0085)
지하철 6호선 창신역하차 7분거리 마을버스 연계됨 (기숙사 60명숙식 가능함.주차장 완비)

3 개강일자 **2004년 9월 1일 오후 4시(예정)** 추후 수시모집 가능

4 모집방법 서류전형및 면접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사진 2장. 각반 50명이내,선착순접수함)

5 원서교부 및 접수처 본교 사무처(☎ 02-763-5213)

※ 경전연구반은 원각경 금강경 화엄경 능엄경 육조단경 선가귀감등 대승경전중 핵심부분을 위주로 강의할 예정임
※ 의식반 기본과정에서는 법당예절, 사물다루는 법, 도량석, 종성,각단예불, 축원, 각단불공등 본과정을 이수하면 누구나 여법히 집전을 할수있도록 쉽게 강의를하며
※ 전문과정에서는 49재, 천도재, 방생의식등에 필요한 제반의식과 바라무, 나비무등의 작법등을 강의함

보우승가대학 학장 합장

불국사 승가대학 총동문회
(정기회의)

불국사 승가대학 총동문회를 다음과 같이 소집하오니 총동문회 스님께서는 무루동참하시길 바랍니다.

- 다 음 -

▣ **날 짜 :** (음력 8월 4일) 양력 9월 17일
▣ **장 소 :** 불국사 심검당

- 안 건 -

1. 총동문회 회장 선임의 건
2. 사무실 설립의 건
3. 기타안건

문 의: (02) 353-5016 (노적사)
(055) 944-2093 (거창포교당 심우사)
(011) 547-4001

총동문회장 박 종 후 합장

지장보살님 서원 배우고 가피입는 도량

서울 인사동에서 꿈에 본 지장상 모셔와

주목받는 지장기도도량 봉화 대원정사

지장보살 영험 유명해요

경북 봉화군 소천면 고선1리 235번지에 위치한 비룡산 대원정사. 민가를 법당으로 개조해 만든 토굴인 대원정사는 지장기도를 올린 불자들의 입소문에 요즘 유명세를 치르고 있다. 대원정사에 모셔진 지장보살님의 영험을 경험한 이들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얼른 보아 사찰로 여겨지지 않는 대원정사를 유명한 기도도량으로 탈바꿈 시킨 지장보살님이 대원정사로 오게 된 사연은 듣는 이로 하여금 무릎을 치게 만든다.

봉화 불타암에서 주야로 정진을 계속하던 대원정사 주지 만덕 스님의 꿈속에 한 스님이 나타나 "왜 빨리 날 데려가지 않느냐? 어서 와 날 데려가라. 난 서울에 있다."는 말을 되풀이했다. 꿈에서 깬 만덕 스님은 꿈 속에서 만났던 스님의 목소리가 생생하게 떠올라 무작정 서울로 향했다.

발길 따라 걷다가 도착한 곳은 인사동 어귀의 골동품 가게. 만덕 스님은 이 곳에서 빛을 발하는 조그마한 지장보살님과 마주쳤다. 꿈 속의 스님의 목소리와 지장보살님은 딱 일치했다. 그 때서야 '이 지장보살님 이였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불타암으로 모시고 내려갔다.

봉화로 돌아온 만덕 스님은 도반인 해명 스님과 함께 지장보살님을 모시고 산기도를 시작했다. 지장기도를 올린 지 삼일째 되던 날, 만덕 스님의 양쪽 귀에서 고름이 터져 나오는 통증이 시작됐다. 해명 스님도 오른쪽 어깨에서 왼쪽 엉덩이까지 고름이 터지는 증상이 나타났다. 놀란 두 스님은 기도를 중단하고 동네 보건소로 가 치료를 요청했으나 병명을 알 수 없다며 큰 병원으로 가라는 말만 듣게 됐다.

기이하게 생각한 두 스님은 병원으로 가지 않고 산기도를 올리던 장소로 돌아왔다. 그런데 지장보살님의 양쪽 귀에서 하얀 진물이 나와 어깨를 타고 엉덩이 부분까지 흘러내려 있었다. 만덕 스님은 바로 지장보살님을 모시고 불타암으로 내려와 정성껏 허연 진물을 지워내고 다시 법당에 모셨다. 그리고 하루가 지나자 스님과 해명 스님의 고름과 통증은 거짓말 같이 말끔히 치유되었다. 지장보살님의 위신력으로밖에 볼 수 없는 이 일을 겪고 난 후 만덕 스님은 지장보살님께 '다시는 밖에 모시지 않겠다'고 기도를 올렸다.

이후 지장보살님은 불자들의 소원을 성취토록 해 주는 영험을 보여주기 시작했다.

대구에서 개인사업을 하다가 부도나 토굴을 찾아 온 김지곤 씨(53 · 대구시 남구 대명동)는 스님의 권유로 20일 지장기도를 올린 뒤 얽혔던 문제가 풀려 사업을 다시 일으키게 됐다. 석남진(38 · 울진군 근남면) 씨는 불의의 사고로 불구가 된 남편을 위해 불타암에서 지장기도를 올린 후 남편이 씻은 듯이 나아 정상적인 생활을 하게 된 경우다.

이 같은 사례가 점점 늘어나자 대원정사의 지장보살님은 영험하기로 정평이 나 소원을 이루려는 인근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만덕 스님은 불타암에서 대원정사로 자리를 옮긴 후에도 함께 온 지장보살님의 영험은 계속되고 있다고 했다. 대원정사 지장보살님의 유명세는 이렇게 시작됐다.

자연에서 힘 얻는 정진도량

불타암에서 정진하던 스님은 비룡산 자락에 2004년 5월 지금의 대원정사를 개원했다. 인근 주민들의 도움으로 민가를 얻어 '대원정사' 표석을 세운 만덕 스님은 불타암의 지장보살님도 함께 모셔왔다. 6월에는 삼존불을 점안해 법당의 모습을 갖췄다.

그러나 개원 3개월이 지났지만 인법당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어, 만덕 스님은 대원정사를 사찰로서의 면모를 갖춘 도량으로 바꾸겠다는 원을 세웠다. 대찰로서의 대원정사가 아닌, 최소한의 시설로 불자들이 찾아와 스스로 기도정진하고 자연 속에서 활력을 얻을 수 있는 공간으로 바꿔 나가겠다는 것이다.

대원정사가 자리한 비룡산을 3km 정도 오르면 범접하기 어려운 미륵바위가 있다. 많은 무속인들이 찾아와 기도를 올렸지만, 그 때마다 장애를 이기지 못하고 도망치듯 내려갈 만큼 산기운이 강한 곳으로 알려져 있다. 만덕 스님은 이 곳에서 일주일 철야로 미륵기도를 무사히 마치기도 했다.

그 인연으로 법당 뒤에 산신을 모셨다. 기도대상이 어디든 정성을 다한 기도라야 성취할 수 있다는 스님의 평소 생각이 산신을 불교신앙으로 섭수한 것이다.

대원정사는 자연 속의 도량이다. 법당 앞에는 무우, 배추, 옥수수, 상추 등 공양에 필요한 채소가 자라고 있고, 절 옆으로는 맑은 물이 흐르고 있다. 뒷산인 비룡산에서는 각종 약초와 더덕, 송이를 구할 수 있다. 대원정사를 찾는 이들은 스님과 함께 나물 캐는 일과 채소 가꾸는 일, 도량을 가꾸는 일, 가장 중요한 지장기도 등을 해야 한다. 수행 아닌 생활이 없는 삶을 살아야 자연인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다는 것이 스님의 설명이다.

만덕 스님은 "대원정사를 불자들의 쉼터이면서 정진을 이어가는 자유로운 도량으로 일구어 갈 것"이라며 "자연 속에서 신심을 키우고 마음을 닦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불자들이 깨닫길 바란다"고 말했다. (054)672-9951


◇삼존불


◇산신


◇법당 옆 계곡


◇영험을 보여주시는 대원정사 지장보살 님

인 터 뷰

대원정사 주지 만덕스님

"정진과 휴식으로 활기얻는 열린공간 만들어요"



'1급수 도량'에서 마음의 병 고치고 행복을…

"내 마음의 부처를 깨워 법문을 들어보세요. 그러면 세상이 달라 보이고 삶이 바뀌게 됩니다."

대원정사 주지 만덕 스님은 달리 법문을 하지 않는다. 정성껏 기도를 하다보면 부처님이 길을 일러주기에 법문이 따로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같은 생각에서 만덕 스님은 세상에 지친 누구나 찾아와 기도하고 정진하는 스스로 마음을 일깨우는 도량으로서의 대원정사를 꿈꾼다. 이제 그 꿈은 현실로 바뀌어 나가고 있다. 법당과 삼존불, 지장보살님, 산신을 여법하게 모셨고, 텃밭을 일구어 채소를 가꾸어 자연 속의 도량으로 변해가고 있기 때문이다. 만덕 스님의 자신감은 대단하다.

"자연은 지친 육체를 치료하는 약입니다. 얽매임이 없고 걸림이 없는 자유도 자연 속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대원정사는 그런 여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 곳입니다."

1993년 일승종에서 득도한 만덕 스님은 올해로 출가 11년을 맞았다. 그러나 스님의 삶은 부처님과의 인연이 지중했다고 말한다. 집 근처의 절을 놀이터 삼아 지냈던 어렸을 적 생활과 아버지의 병환을 부처님에게 기도해 나은 경험을 갖고 있다. "너는 스님이 되겠구나"하는 청담 스님의 말을 흘려 보내고 20여년이 지난 뒤 출가수행자의 길을 걷게 됐다.

그런 만큼 더 소중한 삶을 얻었다는 만덕 스님. 자유가 있는 정진도량 대원정사를 일구는 일을 수행의 길로 삼겠다는 것이 늦깎이 스님의 마지막 서원이다.

"대원정사 옆으로 1급수 어종 버들치가 살고 있는 물이 흐릅니다. 이곳은 때묻지 않은 자연 속의 도량인 셈이지요. 여기에서 모든 사람들이 마음의 병을 치유하길 바랄 뿐입니다. 그게 제 수행이에요."

대원정사 가는 길



중앙고속도로 영주 IC → 봉화 → 소천면 삼거리에서 태백방면 3km
※ 소천면에서 전화주시면 됩니다.

대원정사

경북 봉화군 소천면 고선1리 235번지
전화 054-672-9951
만덕 스님 010-4534-9533



여성 세계최초로 히말라야 강가푸르나를 등정한 남난희 씨. 가장 억세고 높은 산의 정상을 밟아 본 그는 이제 모든 정복욕을 내려놓고 자연인으로서 겸손한 삶을 살고 있다.

산을 내려와야 또다른 산이 보이죠

■ 자연인으로 돌아온 남난희 씨



아들 기범이와 함께 한 남난희 씨.

1984년 76일 동안 백두대간 단독 종주, 86년 여성으로는 세계 최초로 히말라야 강가푸르나(7455m) 등정, 89년 설악산 토왕성 빙벽폭포 두 차례 등반…. 지리산 쌍계사 건너편 화개마을 끝자락에서 만난 남난희(48) 씨. 산악인으로서의 화려한 이력을 염두해 산 이야기부터 꺼내자 '산악인보다 자연인'이고 싶단다.

"서구의 알피니즘이 산을 도전의 대상으로 보고 더 빨리, 더 힘든 곳을 향하여 끊임없이 오르는 것이라면, 우리의 산은 입산입니다. 풍류가 있고 서민들이 나무를 하며 살아온 생활터 였습니다."

한 때는 산에 미치다시피 했다. 서울 직장생활을 하면서 만난 산은 도심생활의 도피처였다. 암벽등반을 배우면서 본격적인 전문 등반가가 되었고, 한국등산학교에서 정식 산악인으로 기반을 닦았다. 산에 오르면 오를수록 더 극한 상황을 찾게 되었고, 힘든 산일수록 매력이 있었다. 그때 그녀에게 산은 '첫사랑'이었다.

화려한 이력 뒤로 하고 자연인 되니
마음으로 산을 오르는 도리 알게 돼
불편하면 불편한대로 덜 가지는 삶
108배하며 '잘 살고 있음'에 감사

"산은 나에게 많은 것을 보여주고 가르침을 주었지만 단지 올라야만 한다는 생각에 외면했습니다. 그러다 다시 히말라야를 가기 위한 준비과정에서 사람들로부터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문득 '산은 항상 그 자리에 있으니 당당하게 가자'는 생각에 등산에 대한 모든 것을 놓았다. 용기있게 놓은 산이었지만 상실감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허탈감속을 결혼이 비집고 들어왔고 뒤늦게 아이도 낳았다. '백두대간' 종주를 인연으로 만난 남편은 어느 날 스님이 되었다. 그리고 10년전, 아들과 함께 지리산 청학동으로 터전을 옮겨 '백두대간'이라는 전통찻집을 냈다.

"산에서 내려와보니 오르려고 할 때는 보이지 않던 또다른 산이 보였습니다. 산은 그저 바라만 보아도 좋았고, 마음으로도 즐겁게 오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요즘도 가끔 아들 기범이와 산행을 한다. 정상에 오르는 것이 아니라 꽃도 보고 나무도 살피며 갈 수 있는 곳까지만 갔다가 되돌아온다.

이곳 화개에 자리잡기까지에는 또 한번의 시련이 있었다. 몇년 전 강원도 정선의 폐교에서 '정선자연학교' 교장을 맡아 운영했다. 나름대로 잘 살았다. 마을사람들과도 재미있게 어울렸고, 농사일도 제법 익혔다. 그러나 그것도 잠깐, 삼년만에 태풍 루사를 만났다. 루사는 바람과 물로 정선생활을 흔적도 없이 지워버렸다.

"제가 너무 많이 가졌었나 봐요. 자연이 덜 가지라고 그랬나본데, 아직도 욕심이 많이 남았나 봐요."

이제 화개에서 1년 반이 지났다. 자연에게 뭔가를 준다는 생각보다 자연을 덜 건드리기로 했다. 적게 가지는 것이 자연을 덜 괴롭히는 것이고 그러다보니 느리게 사는 여유도 부려본다.

"불편하면 불편한대로 살만해요. 그러니 가능하면 일을 만들지 않아요. 내가 할 수 있을 만큼만 합니다."

돈도 최소의 생활비만 있으면 된다. 두 사람 생활비로 일년에 된장 10가마를 생산해 알음알이로 소매한다. 양이 적어 홍보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지난해에도 10가마했고 금년, 내년에도 10가마만 할 것이다. 그리고 나머지 시간은 소일하며 산다. 봄이면 친구들과 우리차를 만든다. 집 울타리 옆에 있는 차나무에서는 집에서 마실 차를 만든다. 족히 30통이면 넉넉하다. 그래서 우전까지만 차잎을 따고 그 뒤로는 그냥둔다. 그러다가 찾아오는 손님이 있으면 모든 일을 제쳐둔다. 특히 지리산자락에 모여사는 예술문화인들이 올라치면 날밤을 새우곤한다. 스스로 '지리산 마실단'이라 칭하는 이창수(사진), 김용해(조각), 박남준, 이원규(시인) 씨와의 만남은 언제나 좋다.

"스님들이 이 집에 오시면 한결같이 '수행 토굴터'라고 해요. 그래선지 몰라도 모두들 편하다네요. 건너편 큰절에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번잡함이 있지만 여기는 한적해서 공부하기에 그만이죠."

매일 아침 아들 기범이와 계곡 넘어 쌍계사 대웅전을 찾아 108배를 한다. 그렇다고 잘 살게 해달라는 것은 아니다. '잘 살고 있음에 감사'한다. 때로는 기억나는 이들을 떠올려 축원하기도 한다.

집은 '몇 대를 적선해야 살 수 있다'는 남향으로, 풍수를 모르는 이도 한눈에 명당임을 느끼게 한다. 하루 중 대부분을 툇마루에 앉아 책을 보거나 차를 마신다. 그러다 쌍계사 큰절과 병풍처럼 첩첩히 둘러친 지리산 자락을 바라보며 대화한다.

"저에게 산은 종교이자 자연으로 모두 하나입니다. 산에 오르다보면 집착을 버리게 되고, 욕심이나 번뇌 망상이 없어지면 행복하잖아요." 모든 것을 '턱' 놓고 앉아 자연과 하나 될 때 비로소 산이 보인다.

살면서 항상 책을 가까이 했다. 어려서는 시인이 되는 게 꿈이었다. 한때는 서점도 운영했다. 시적인 감수성 때문인지 산에 오르면서 울기도 많이 울었다. 울 일이 많아 울었고, 산이 감격스러워 울었다. 그런 감성으로 백두대간을 종주하고 책을 한권 냈다. 독자들로부터 반응도 얻고 팬도 생겼다. 이번에도 또 한권의 책을 냈다. 자연을 벗삼아 사는 이야기를 묶어 <낮은 산이 낫다>(학고재 刊)를 세상에 선보였다. 그녀는 책에서 이렇게 말한다.

"언제부터인가 나의 삶은 아무것도 가지고 싶은 것이 없고, 아무것도 바라는 것이 없고, 아무것도 기다리지 않고, 아무것도 궁금하지 않다. 또 어느 곳에도 가고 싶지 않고, 만나고 싶은 사람도 없게 되었다. 물기가 다 빠진 풀처럼 가벼운 마음이다. 참 좋다."

글=이준엽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우 · 리 · 절 · 은 · 불 · 자 · 여 · 러 · 분 · 을 · 사 · 랑 · 합 · 니 · 다

◆ 교통편
1. 강변역 → 광주 → 곤지암 1113-1
2. 잠실 → 모란 → 광주 → 곤지암 500-1
3. 양재 → 모란 → 광주 → 곤지암 500-2

곤지암 우리절

천도재 기도도량 · 대비주 기도도량 우리절!

우리절 정기기도 · 법회

요 일	시 간	법 회 명	강의내용
매주일요일	10-14시	일요가족법회	자경문강의
매주수요일	10-15시	목련사랑법회	화엄경강의
〃	10-15시	수능자녀기도	〃
〃	10-15시	지장경독송회	〃
매주목요일	10-15시	대비주기도회	예참문강의
셋째화요일	14-17시	부산 · 동선회	주제별특강

◆ 특별기도

[1] 2005학년도 수능특별기도 :
2004년8월 8일-11월 17일(만101일간)
기도성취도량 우리절에서 마음에 뜻하신 바 반드시 이루십시오.
2004년7월 11일-8월 30일(만50일간)

[2] 천도의 명절 백중기도
2004년 7월 11일-8월 30일(만50일간)

[새벽쇳송-3]
금 깊은산사 고요한밤 우두커니 앉았으니
주 적적하고 고요하여 본래그런 모습이라
의 무슨일로 서녘바람 숲과들을 흔드는가
발 외마디의 찬기러기 밤하늘을 울고가네
원 일천척의 낚싯줄을 바로던져 드리우매
한점파동 일자마자 일만파동 따라인다
고요한밤 물은차고 고기마저 아니물매
빈배가득 달빛싣고 그냥그냥 돌아간다
우뚝하고 당당하게 일체가식 던져두고
하늘땅에 독보하니 누가나의 벗이되랴
행여만일 산중에서 종자기를 만났다면
어찌황엽 지닌채로 산을내려 왔겠는가

대한불교조계종 우리절 http://www.urijeol.com / 우리절.com /우리절.net 우)464-881 경기도 광주시 도척면 상림리 178 전화 031)763-4674-5 / 팩스 031)763-2150

정목 스님이 말하는

'원효의 염불선' <9>



칭명은 믿음 성취하는 방편

원효는 칭명이 금생에 깨달음을 성취하기 위한 수행이 아니라, 순리발심하기 어려운 사람 혹은 부처님의 지혜에 대한 믿음이 성취되지 않은 사람이 행하는 염불이므로 믿음을 성취하는 방편이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칭명 염불자는 일심의 바다에 나아가기 위해 우선 부처님이 말씀하신 성소작지(成所作智)를 믿고 명호를 불러야 합니다.

성소작지는 부처님이 중생을 교화하기 위해 변화를 성취한 지혜인데, 원효는 <무량수경종요>에서 이와 같이 설했습니다. "이 지혜는 능히 불가사의한 일을 짓습니다. 말하자면 여섯 자도 넘지 않는 몸이지만 정수리를 볼 수 없는 일이며, 털 구멍의 양만큼도 늘이지 않고 시방세계에 두루하신다는 일이며, 일념만 명호를 부르면 다겁으로 쌓인 무거운 죄가 영원히 소멸되고, 십념으로 생각한 공덕은 능히 삼계 밖의 수승한 과보의 국토에 태어나게 하는 일 등입니다. 이런 일은 낮은 지혜로 헤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원효는 성소작지에 대해 의심하는 일들을 이와 같이 자세히 설명합니다. "첫째는 행할 일을 성취한 지혜로써 짓는 일을 의심하는 것이다. 말하자면 <경>에서 '십념의 염불로 저 국토에 태어나게 된다' 하신 말씀을 듣고 이를 분명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의혹을 일으켜서 말하기를 '부처님이 경전에서 말씀하신 것 같으면 선업과 악업의 길에서 죄와 복은 없어지지 않으므로 무거운 것이 먼저 이끌려 간다고 하셨으니 이치로는 몇 번이고 어긋나지 않는다. 어찌하여 일생에 악업을 짓지 않을 수 없는데 단지 십념만으로 능히 모든 죄를 소멸하고 문득 저 국토에 태어나며, 정정취에 들어가 영원히 삼악도를 멀리하고 마침내 물러나지 않는다 하는가? 또한, 시작이 없는 때로부터 오면서 온갖 번뇌를 일으켜서 삼계에 묶여 갇혀 있고, 서로 얽혀 제약받고 있는데 어떻게 두 가지 번뇌를 끊지 않고 곧바로 십념만으로 삼계 밖을 벗어난다 하는가?' 하며 의심한다.

이와 같은 삿된 생각과 의혹을 다스려야 한다. 그러므로 부사의지(不思議智)를 말하는 것이며, 이것은 부처님의 지혜는 커다란 힘이 있음을 나타내 보이고자 하기 때문이다. 능히 가까운 것을 멀게 하고 먼 것을 가깝게도 하며, 무거운 것을 가볍게 하고 가벼운 것을 무겁게도 하신다. 비록 실제로 이러한 일이 있지만 범부의 생각으로 헤아릴 경계가 아니다. 바로 응당히 우러러 믿어야 한다(仰信). 왜냐하면 <경>의 말씀은 가히 자신의 얕은 식견으로 생각할 수 없기 때문이다.

믿음을 일으키게 하고자 응당 사물의 상황으로 비유하자면, 천년 동안 쌓은 풀이 그 높이가 백 리가 되지만 불로 태우기를 콩알만큼만 허락하여도 하루에 모두가 소진되어 버릴 것이다. 이때 '천년 동안 쌓은 풀이 어떻게 하루에 모두 소진되겠는가?' 라고 가히 말할 수 있을까?"라고 설명하며 부처님의 지혜에 대한 진실한 믿음을 일으키도록 권했습니다. 우리가 수행문을 선택하여 정진할 때는 "무엇을 믿고 행하는가?"라는 물음에 분명히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염불인이 어떤 불보살의 명호를 부르든지, 염불수행이란 모두 자비광명에 의지하는 수행이며, 칭명염불은 부처님이 변화를 성취한 성소작지를 믿고 행하여, 믿음을 성취하고 올바른 발심을 일으키고자 닦는 줄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양산 정토원 원장

'성소작지' -굳게 믿고 명호 불러야 믿음 성취·발심 하고자 염불수행



35년의 전통이 어린 전등선림에서 좌선중인 불자들.

체계적으로 참선 지도점검하는 전등선림

"스님의 자상한 가르침 장군죽비 되어 정진"

"보살님, 요즘 공부가 어떻습니까?"

"스님, 부끄럽지만 선방에 나오면 집안 일이 걱정이고, 집에 있으면 좌선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요."

"일할 때는 일과 하나되어 정성껏 일하고, 절에 와서 좌선할 때는 모든 망상을 쉬고 화두만 챙기셔야죠."

초하루 법회가 열린 8월 16일 오후, 서울 성북동 전등사 전등선림(선원장 동명 · 오른쪽사진)의 지대방에서는 동명 스님과 한 보살과의 참선 지도점검이 이뤄지고 있었다. 30여 신도들이 선방에서 방선하는 시간에 이뤄진 수행점검은 우리가 상상하듯 엄격한 선문답이 아니라 평소 신도의 수행태도를 관찰한 스님의 자상한 상담으로 진행됐다. 물론 수십년간 '이뭣고' '은산철벽(銀山鐵壁)' '무(無)' '마삼근(麻三斤)' 등의 화두를 챙겨 온 수행자들은 선문답을 하기도 한다. 하지만 쳐 보면 말없이 보고 듣듯이 문답이 끝나는 경우도 많다.

초심자, 상담→참회기도→입선

"공부가 익을수록 그 사람의 언행이나 태도에서 변화가 나타나죠."

신도들의 일거수 일투족에 관심을 쏟고 있는 동명 스님은 최근의 수행 풍토에 대해 "참선 공부에 꼭 필요한 것이 규칙적인 수행점검인데 이를 해 줄만한 눈 밝은 스승을 모시고 있는 재가선방이 드문 것이 현실"이라며 "제대로 수행 과정을 밟지 않고 수행 쇼핑만 하다 아상(我相)만 높아져 잘못된 공부를 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근기 맞게 기도·간경·염불 접목

상설 재가 참선도량인 전등사는 현대의 선지식인 해안(海眼, 1901~1974) 스님이 "재가불자들이 수행해야 한국불교의 희망이 있다"며 1967년 만든 '불교전등회'의 등불을 이어오고 있다. 1969년에 문을 열었으니 올해로 35년째 하루도 쉬지 않고 문을 열고 있는 드문 참선도량이다. "생활과 떨어지지 않는 곳에서 항상 수행해야 한다"며 전등사를 개원한 해안 스님은 "7일만 공부하면 누구나 성불할 수 있다"며 재가불자들에게 용기를 준 선지식으로 유명하다. 통도사 경봉 스님과 함께 '동(東) 경봉, 서(西) 해안'으로 불리며 선풍을 떨쳤던 해안 스님의 유지를 잇고 있는 전등사는 지금도 큰스님을 조실로 모시고 용맹정진의 가풍을 이어오고 있다.

전등선림의 수행 일정은 동안거, 하안거가 기본이며 안거를 제외한 기간에도 선방의 문을 열어 개인별로 자유수행이 이어진다. 생사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신도들의 발심은 출가 수행자에 전혀 뒤지지 않는다. 오전 8시부터 시작되는 하루 일과는 2번의 공양 시간을 제외하고, 저녁 9시까지 꼬박 좌선할 정도다. 특히 선림에서 상주하며 한철을 나는 이들의 일정은 더욱 빡빡해서 새벽 3시 30분에 일어나 저녁 9시까지 15시간 이상의 가행정진으로 이어진다. 20년째 화두 수행에 전념하고 있는 박임분(60, 지혜심) 보살은 "여러 도반들이 가정주부로서 고민이 적지 않지만 가정사 때문에 불참하는 경우는 없다"며 "스님의 자상한 지도가 든든한 장군죽비가 되어 흔들림 없이 공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등선림은 참선도량을 표방하지만 초심자들에게는 근기와 인연에 맞게 오히려 다양한 수행방편을 동시에 가르치고 있다. 동명 스님은 초심자들의 경우 항상 상담을 거친 후 참회기도를 하고 선방에 입실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다. 면담을 통해 신도들에게 맞는 기도, 간경, 염불 등을 권하며 발심의 기초를 다지게 한다. 특히 모든 경전을 한글로 제작, 염불을 통해 그 뜻을 바로 새기도록 해 수행의 목적과 뜻을 바르게 알아 정견(正見)을 갖추도록 한다. "재가불자들은 다양한 방편을 통해 점차 자신의 근원을 밝혀 나갈 수 있습니다. 생활 속에서 열심히 일하되, 근본적으로 마음을 밝히는 참선은 각자가 편안한 시간에 꾸준히 이어가도록 독려합니다."

매년 3개월과정 불교대학 운영

동명 스님은 참선에 앞서 불법에 대한 안목을 갖추도록 매년 한차례 3개월 과정의 불교교양대학을 개설, 신도 교육에도 관심을 쏟고 있다. 특히 당신이 14살 어린 나이에 동진 출가해 은사 해안 스님에게 받은 '은산철벽' 화두와 말없는 가르침을 회상하며 일상 자체가 수행이 되는, 언행이 일치하는 참 불자가 될 것을 당부하고 있다.

"이것저것 배우기를 많이 하는 것 보다 일행일구(一行一句)라도 똑똑히 알아서 소화를 잘 해야 한다"는 스승의 가르침대로 스님은 믿음과 수행, 실천을 겸비한 참 불자를 양성하려는 원력을 갖고 있다. 스님은 "참나를 찾아 일체 속박과 구속에서 벗어나 대자유인이 되는 것이 불자들의 구경 목적"이라며 생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잘 살기 위해서는 24시간이 일여(一如)하게 화두를 챙기라고 당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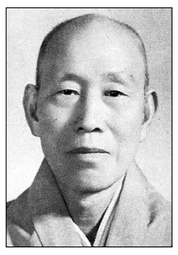
"거짓 나를 부수고 참나를 찾으면 속아서 살지 않고 끌려다니지 않아서 늘 부족한 것도 없고 아무런 속박이 없이 자유자재 하며 살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눈과 싸워서 눈을 항복받고, 귀와 싸워서 귀를 항복받고 내지 육근을 모두 항복받아야 해요. 그래서 필요한 수행이 화두 참구법입니다."

전등사=(02)762-0643

김재경 기자



■해안 선사가 "7일안에 깨쳐라" 한 까닭은



"7일 안에 깨우치라"며 단기출가와 용맹정진을 강조했던 해안 스님(사진)은 일찍부터 재가자들의 수행과 교육 여건 마련에 헌신했다. 그러나 "7일만에 깨칠 수 있다"는 말은 얼핏 들으면 믿기 어려운 말로 비쳐지기도 한다. 해안 스님이 굳이 7일을 강조한 뜻은 어디에 있을까.

"사람들은 정진을 오래 해야만 깨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견성은 단시일을 두고 결정내지 않으면 안됩니다. 부처님과 역대 조사들은 아무리 미련하고 못난 사람이라도 7일이면 도를 성취한다고 했습니다. 만일 7일안에 깨치지 못했다면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공부하는 사람의 정신자세가 철저하지 못했기 때문이지, 기간이 짧아서 깨치지 못하는 것은 절대로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해안집)

해안 스님은 자나 깨나 화두가 성성적적한 일여(一如)의 경지가 되면 1주일안에도 화두가 타파된다고 강조한 것이다. 스님은 "수행자는 오직 화두일념에 사로잡혀 옆에서 뇌성벽력이 쳐도 듣지 못해야 하고, 찬 바람이 뼈속에 스며들어도 추운 것을 간섭하지 말아야 한다"면서 "그러나 생명에 대한 애착심 때문에 그리하지 못한다"며 '크게 한번 죽는(大死一番)' 용맹심을 절대적으로 강조했다.

"이 일을 성취하려면 한번 죽어야 합니다. 눈도, 귀도, 입도 죽어야 합니다. 단 7일간이니 보지 않고 듣지 않고 말하지 않는다 해도 아주 죽지는 않습니다. 죽기로써 대들어야 영원한 살 길이 열리지 어설피 살려고 버둥대면 오히려 죽게 된다는 진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 결심으로 한다면 7일간이 결코 짧은 기간이 아니요, 생사 일대사를 결정지을 수 있는 귀중한 시간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간(肝)이 간염 지방간 간경화 …

건강해야 장수할 수 있습니다.

지리산자락 신비의

참다슬기 농축액



토종 웅담과 비길만한 자연산 참 다슬기로 삶의 활력을 찾으세요.
지리산 자락 청정 지역에서 서식하는 자연산 참다슬기만 가지고 전통재래식(가마솥) 방법으로 달인 참다슬기 농축액은 상쾌한 하루를 열어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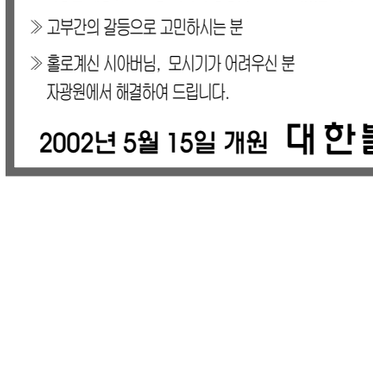
◘ 다슬기 농축액: 지리산 자락 계곡 맑은 물에서 채취한 참 다슬기와 구슬알 다슬기를 죽은 것과 빈 껍데기를 골라 내어 깨끗이 씻고 해금 시킨다. 다음 다슬기 10kg을 분쇄하여 가마솥에 넣고 전통비법으로 다슬기 속살이 녹을때까지 48시간을 다린다. 여기 마늘, 생강, 대추를 넣고 24시간을 더 달입니다. 농축액은 60포 단위로 포장합니다.

◘ 다슬기 기름: 다슬기 15Kg을 항아리에 넣고 왕겨 9가마니를 덮은 뒤 왕겨에 불을 붙여 그 열로 다슬기가 땅속에 묻어둔 빈 항아리에 녹아 흘러내리게 합니다. 다슬기 기름을 만드는데 왕겨가 다 타들어 가기까지 꼬박 8~9이 걸립니다. 한달분은 1.8리터입니다.

『농축액을 개발하여 KBS TV "6시 내고향"에 방영된 이래로 "생방송 좋은아침" MBC TV "고향은 지금" 조선일보, 중앙일보에 소개 됨』

자료신청 : 055) 963-9583 · 상담문의 : 055) 355-5626
산마을 토종 (민속농원)

기도처 자연속에 보금자리 자광원 행복하고 편안한 노후를 위한 최고의 선택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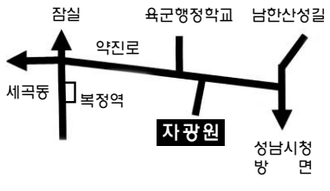


위치 및 시설개요

◆소 재 지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 116
◆대 상 : 만 65세 이상. 노환스님 또는 부부, 개인 등 거처하고자 하는 모든 불자
◆정 원 : 24명~30명 내외
◆시설개요 : 본 건 물 →방규모(약 7평) 24실(각실 인터폰 설치)
법당, 팔각정자
부대시설 →제2물리치료실, 목욕탕, 이·미용실, 식당, 오락실
◆입방비부담 : 평생회원과 일반회원으로 구분 자비부담
◆연 락 처 : 전화 031)759-5320 팩스 031)759-4209

보살 염불원의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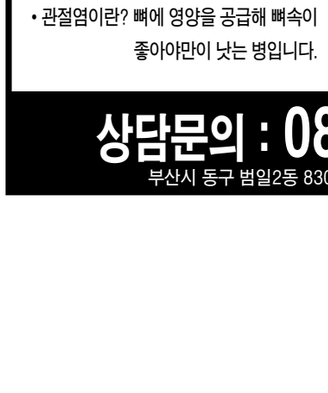
≫ 남한산성 자락에 위치하여 쾌적한 환경 속에 날마다 부처님을 모시고 염불과 기도정진으로 마음을 닦으며 남은 여생을 편안하게 즐기며 보내시도록 새로운 기도처를 마련하였습니다.
≫ 20년간의 무료 노인요양원인 사회복지법인 부처님 마을 자광원에서의 경험을 통하여 얻어진 전문지식에 의하여 설계된 노인을 위한 기도처 입니다.
≫ 외롭고 우울하게 혼자사는 노인 또는 부부노인중 한분의 거동불편으로 의·식·주 해결에 고민하시는 어르신들을 위한 낙원입니다
≫ 자손들에게는 효도의 기회를 노인들에게는 안락한 여생을 제공하며 임종 시까지 정성껏 모셔드리겠습니다.
≫ 고부간의 갈등으로 고민하시는 분
≫ 홀로계신 시아버님, 모시기가 어려우신 분 자광원에서 해결하여 드립니다.



2002년 5월 15일 개원 대한불교 조계종 자광원

관절염에 "글루코사민샥카트리지"

서울대 병원에서 효능A등급 제품으로 선정



주요성분 및 특징

• 제품의 내용량
글루코사민 샥카드리지 180정(2개월분)×3병

• 1정당 성분 및 함량
글루코사민 500mg, 상어연골분말(콘드로이친함유) 400mg, 구연산칼슘150mg, 비타민 C 75mg, 비타민B, 비타민D3, 토코페롤, 아연, 망간 등

• 섭취대상자
- 관절과 연골영양공급이 필요한 노약자 갱년기 여성
- 무릎이 쑤시고 계단을 오르내릴때 불편하신 분
- 관절이 심한 통증과 뻣뻣함을 느낄때

• 관절염이란? 뼈에 영양을 공급해 뼈속이 좋아야만이 낫는 병입니다.

글루코사민 삭카드리지란?

· 미국에서 효능을 인정받은 관절영양제
· 관절치료제인 기존의 글루코사민보다 효능을 높이기 위해 상어연골, 칼슘, 비타민, 아연, 망간 등 관절과 연골의 건강에 필요한 영양소를 첨가한 복합제
· 이 물질은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임상결과 그 우수한 효능발표 - 미국, 일본, 선진국에서도 인정
· 연골의 파괴 효소를 막고 연골을 생성 촉진하는 제제

= 복용시 =
· 2~3주후면 효과발현 시작
· 4~8주면 30~50% 호전 단계
· 6개월이면 90%이상이 만족

* 글루코사민은 1일 1500mg을 6주이상 지속적으로 섭취하 셔야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복용량은 몸무게에 맞게 먹어야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본 제품은 재정경제부고시(소비자보호법 제12조 제2항) 소비자 피해보상규정에 의거, 교환 또는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수입지(원산지) : 미국 수입 완제품
*신용카드 구매 가능

상담문의 : 080-631-4525
부산시 동구 범일2동 830-274번지 세종별관 3층 서부통상

브라마 쿠마리스 세계영성대학
니말라 카자리아 박사 국내 강연 현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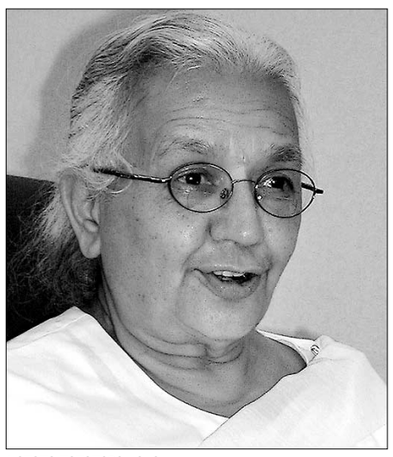
라자요가 키워드 긍정적인 생각과 '집중'

"나는 평화 속에 있다."

새하얀 옷에 흰 머리를 길게 땋아 늘어뜨린 여인이 내뱉은 첫 마디. 평정심을 유지하기도 힘든 속세에서 '평화' 속을 거닌다는 한 마디에 100여 청중들의 눈이 휘둥그레진다. 여인은 주름살 가득 행복을 머금고 다시금 입을 연다. "라자요가(Raja Yoga) 안에 답이 있어요."

라자요가를 50여 년 간 수행해 왔다는 '브라마 쿠마리스 세계영성대학' 아시아 · 태평양 책임자 니말라 카자리아 박사가 방한, '지금-여기'에서 명상을 수행하는 의미에 대한 담론을 펼쳤다. 8월 14일 한국사회복지회관에서 열린 강연회에서 니말라 박사는 "라자요가 명상을 통해 행복의 원천에 다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니말라 박사의 라자요가 수행법이 과연 어떤 것이기에 '행복', '기쁨' 등의 감정과 직결되는 것인지, 귀를 쫑긋 세운 채 메모하는 손길들이 바빠진다.

"깨끗하고 완전한 본성을 깨닫는 것이 우선이죠. 내 마음 가까이에 평화의 대양이 있음을 발견하는 것이 곧 라자요가의 과정이자 목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니말라 카자리아 박사

부정적인 감정 나타내는 것은 주변환경에 휘둘린다는 뜻 "내 본성 그대로 지키고 느껴요"

니말라 박사에 따르면 '나'는 분리도 파괴도 불가능한 최상의 형태이다. 미묘한 빛이자 무게가 없는 에너지이고 의식과 행동의 근원이 되는 하나의 점(點)이다. 이 같은 '나'의 본성은 의식적인 훈련 과정을 거치면 발현될 수 있다. 몸의 건강을 위해서 다이어트와 운동 등에 매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청정한 마음자리 회복에도 꾸준한 관찰과 훈련이 전제돼야 한다는 것이다.

"마음의 음식은 '생각'이에요. 긍정적인 생각을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그 때문이죠. 긍정적인 생각이라고 해서 특별할 것은 없습니다. 내 본성을 그대로 지키고 느끼면 됩니다."

그래서 '라자요가'의 명상에서는 긍정적인 생각에 '집중'하는 것을 중요시 여긴다. 생각을 끊고 감각에 집중하는 위빠사나 명상이나, 언어적인 논리를 벗어난 화두에 몰입하는 간화선과는 차이가 있다. 니말라 박사는 아침 · 저녁으로 10분간 긍정적인 생각에 집중하는 것만으로도 본래 청정한 마음을 회복할 수 있다고 말한다. 편히 앉아 한 곳을 응시하면서 평화와 평안 등의 감정에 몰입해 보자. 그 과정이 반복된다면 일상적인 희로애락으로부터 벗어난 상태, 희열이 살아있는 '무심(無心)의 평화'에 다다르게 된다는 것이 니말라 박사의 설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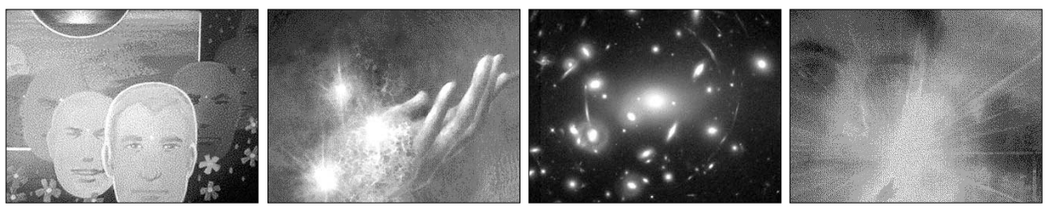
그러나 업이 많은 중생이 빛나는 본성을 그대로 지키고 가꾸는 것은 쉽지 않은 일. 하얀 백발의 노신사가 '감정 다스리기'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예리한 질문을 던졌다.

"청정한 본성을 들추면서 애써 좋은 생각만 하는 것 역시 스트레스입니다. 자연스러운 것이 좋은 것 아닙니까? 괴로움, 슬픔 등의 감정 역시 인간의 근원적인 감정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무한한 무대 위의 배우에 지나지 않습니다. 각자 맡은 배역을 연기하며 울고 웃을 뿐, 그들의 본래적인 모습과는 상관없지요. 부정적인 감정을 내비치는 것 자체가 나를 넘어서는 주변 환경에 휘둘리고 있다는 얘깁니다. 상대방이 어떠한 반응을 보이더라도 제 배역을 제대로 소화하고 있을 뿐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연기를 연기로서 인식하기 위해서는 '연기하는 나'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니말라 박사는 "일시적인 옷에 휘둘리지 않는 참본성을 깨닫고 그 본성이 발하는 빛을 그대로 자각하는 것, 그것이 브라마 쿠마리스 세계영성대학이 전세계 평화를 위해 내어 놓은 과제이자 목표"라고 말한다. 그토록 찾아 헤매던 진주 목걸이는 바로 자신의 목에 걸려 있다는 것이다.

강신재 기자



라자요가를 위한 인터넷 명상 주제들. 왼쪽부터 '한곳에 집중하기', '용서의 자유', '영혼의 목적지', '나는 누구인가'.

브라마 쿠마리스 세계영성대학은…

1937년 설립되어 지금은 인도 서북부 라자스탄 주의 아부산(Mt. Abu)과 영국의 런던에 그 본부를 두고 있다. 이 대학은 라자요가 명상법을 가르치는 국제적인 무료 교육기관으로, 전세계 80여 개국의 5000여 센터를 통해 명상을 보급하고 있다.

세계 평화를 위한 교육과 봉사활동에 헌신해 온 공로가 인정되어 UN으로부터 '세계 평화 메신저 상'을 6회 수상하였고, 현재는 UN의 경제사회이사국(ECOSOC)과 유니세프(UNICEF)의 자문 기관 및 공익 정보국에 비영리 기관으로 등록되어 수많은 국제행사를 주관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1991년부터 명상지도를 펼쳐왔다. 예약을 받아 진행되는 강좌에서는 영혼과 육체와의 관계, 카르마(업)의 법칙 등의 이론과 명상 실습 지도를 병행하고 있다. 센터운영은 회원들의 기부금으로 충당되며, 회원들은 채식과 금연의 생활화를 기본으로 삼는다.(02)515-5409, www.bkkorea.org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에 대한 답이 여기 있습니다.

Avatar 밝은길 아바타 센터

전화주시는 분께는 안내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경전의 이 말씀을, 당신께서 투자하는
단, 9일간의 내면 여행으로 터득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서울 종로구 평창동 110-4 101호
☎ 02)396-2736 · HP 010)6230-2113
http://www.avatarcenter.co.kr
E-mail:heegyunwiz@hanmail.net

禪과 21세기

선의 세계 ㊺

교외별전(敎外別傳)- 16

우리의 일상적인 어법에서 지식이 많다고 하면 대개는 곧 지혜가 있다는 말과 통하는 뜻이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굳이 지식과 지혜를 구별해서 거론하기도 한다. 불교, 특히 선불교에서는 엄격하게 구별한다. 선불교에서 지식과 지혜를 구별할 때 지식이란 외부에서 부딪쳐오는 자극에 대해서 감각과 지각을 일으켜서 그게 뭔지 알아차리는 것을 뜻한다. 그리고 거기에는 자기에게 유리한지 불리한지, 좋은지 싫은지를 가늠하는 가치판단이 포함된다.

대개 감각이라 하면, 바깥에서 어떤 자극이 가해지니까 너무나 자연스럽게 우리의 신경이 발동하여 그 자극을 느끼게 되고 그 자극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알아차리는 생체 작용을 가리킨다. 굳이 구별하자면, 알아차리는 것은 지각이다. 그러나 아무튼 지각은 그렇게 감각과 뗄 수 없이 한 덩어리로 연결되어 있다. 그러한 지각은 기본적으로 한 개체가 외부의 다른 개체나 현상에 대해 일으키는 반응이다.

세간의 지혜, 기본바탕은 主客 분별 구도
부처와 不二되는 진상 아는것이 참 지혜

한편, 우리의 일상 어법에서 지각이라는 개념은 이를테면 감각내용에 대한 자동적인 인식작용보다 좀 더 나아간 정신작용까지 그 뜻이 확대되어 쓰이기도 한다. '그 사람 참 지각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할 때 지각이란 단순히 그때그때 감각된 것이 무엇인지 그 정체를 알아차리는 작용만 뜻하는 게 아니다. 전체적인 상황도 알고, 그 상황에서 지금 자기가 감각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도 가늠하고, 그에 대한 자신의 반응이 그 상황에서 적절한지, 또는 어떤 기준에서 옳거나 그른지 제대로 판단하는 능력까지 포함한다. 그런 의미의 지각과 거의 같은 뜻으로 쓰는 말이 사려분별(思慮分別)이고, 이런 것을 두고 굳이 구분하자면 단순한 지식에 그치지 않는 지혜라고 일컫는다. 그래서 우리가 '지각이 있는 사람', '사려분별이 깊은 사람'이라고 하면 곧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다.

그런데 불교에서는 그러한 일반적인 지혜와는 또 다른 지혜를 이야기한다. 그런 일반적인 지혜도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하다는 것을 부인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궁극적인 지혜는 또 따로 있다고 본다. 이를테면 세간의 지혜를 넘어 출세간의 지혜를 추구해야 한다는 얘기이다. 또 달리 말하자면, 전에 언급한 적이 있듯이 속제(俗諦)만을 보아서는 안 되고 진제(眞諦)를 볼 줄 알아야 한다는 얘기이다. 여기에서 진제란 우리 이야기의 맥락에서 편의상 불이법(不二法)을 가리킨다고 해도 되겠다. 세간의 일반적인 지혜는 어디까지나 한 개체로서 자기중심적인 감각, 지각, 지식, 사려분별과 연장선상에 있다. 주객(主客) 분별의 구도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다. 거기에서는 어떻게 하면 내가 행복하고 즐거운지, 어떻게 하면 내게 이익이 되는지가 가장 기본적인 기준이다. 그런 것을 아무리 많이 안다고 해도 불이라는 세상의 진상을 깨친 지혜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이 선불교의 입장이다. 그래서 선불교에서는 세간적인 지혜도 기실은 지혜가 아니라 지식에 불과하다고 본다.

경전의 내용을 줄줄 외우고 그 문구의 뜻을 해박하게 안다고 해도, 그런 가르침을 자기 자신이 직접 쏟아내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지 못하는 한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이 선불교의 입장이다. 그만큼 지식을 추구하는 데에만 매달렸고 또한 그것을 가지고 보람과 행복으로 여기게 되니, 진정한 지혜를 추구하는 데에는 오히려 장애가 된다고 본다. 경전으로 기록된 그 가르침을 준이, 즉 부처와 불이가 되는 것이 진정한 지혜라고 보는 것이 선불교의 입장이다. 교외별전이라는 구호가 나온 취지를 거기에서도 찾을 수 있다. ■윤원철(서울대 종교학과 교수)

관상학 특강반 모집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12시)
▶ 지선법사 직강◀
(현재 방송국에서 강의 중)

사주로 볼 수 없는 찰색!
특강반에서는 기초와
이론을 속성강의

완벽한, 실제 감정 완전 정복
(취업보장)
"ARS 대동정보통신에서 후원"
사단법인 한국기문미래 연구학회

전철 5호선과 7호선 환승역 군자 3번 출구 조흥은행 88m
현재 미달 접수 3명만 제한.
접수 연락처 02)454-3368
지선법사의 운명 특별상담 접수 中
특별강의 : 사주학. 기문둔갑

제38회
3000배 철야정진

◆ 날 짜 : 8월 28일(토) 저녁 9시~ 일요일 오전 7시
(절하는 법 교육: 저녁 7시~9시, 3000배 시작하기전)
◆ 준비물 : 동참비 2만원
기도포(큰수건), 수건 2개(땀 닦을 용도), 두꺼운 면양말 2켤레, 면티 2매, 수련복(하의) 2매, 간단한 간식, 물병
▶8월 28일 당일 저녁 공양을 준비 하지 못합니다.
머리는 순간 맑아지고, 몸속의 노폐물은 폭포처럼 빠져나가며, 위장과 간은 청소되어 피로회복과 컨디션 조절에 탁월한 효과가 있고, 우주의 맑은 氣가 꽉 찬 기능성 차를 마시며 3000배 정진을 하면 그 효과를 즉석에서 체험 하게 됩니다. 특히, 운전, 등산, 수험생, 싸우나에서 효과를 본 많은 체험사례가 있습니다.
◆ 장 소 : 분당 이매역 태안사 대법당
◆ 찾아오시는 길
• 전철 : 분당선 이매역 1번 출구 앞, SK주유소 옆 도보로 5분거리(분당선 : 2호선 선릉역, 3호선 도곡역, 8호선 복정역 이용)
• 버스 : 1116(잠실역), 9413(구 1110번: 삼성역) 분당으로 직통연결 농업기술센타 앞에서 하차 후 SK 주유소 옆 도보로 5분거리
소리산참선캠프 법왕정사가 속해 있던 소리산이 매매되는 안타까운 일로 중단 되었던 3000배 정진을, 수행환경이 아주 좋은 분당의 태안사 대법당 에서 계속 하게 되었습니다.
동참하시어 업장소멸과 소원성취의 기쁨을 누리시고, 호흡에 맞춰 절하는 비법으로 몸속의 노폐물과 나쁜 기운을 가장 빠른 시간내에 배출하는 효과를 즉석에서 체험하는 21세기 인류 최고의 건강법인 3000배의 테크닉을 체득하시길 바랍니다.
법왕정사 서울 군자법당
☎ 전화문의 : 02)456-4994 456-0035
양평 소리산 법왕정사
☎ 전화문의 : 031)771-7745 771-6736

"새는 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최신 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슬라브, 사찰, 교회, 창고, 공장, 가정집 (전문시공)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전국무료전화 080-011-8504 (바로공사)
서 울 : 011-379-0667
강원도 : 010-3044-9708
경기도 : 019-690-4018
충청도 : 011-327-7697
경상도 : 016-9294-8580
전라도 : 011-368-0667
조은칼라지붕공사

오봉양초
불심과 기도력을 향상시켜 줄 신 개념의 양초 개발 시판!
의장등록 제 269382호 상표등록 제 306035 출원
이제까지 기도해 왔던 마음이 새로워집니다. 합장한 오봉초는 모든 불보살님께 한마음 더 가까이 다가가는 기도의 방법입니다. 오봉초는 소원을 간구하는 신도님의 합장한 손이라 생각하시고 오봉초에 불을 밝혀 타들어 가는 고통으로 기도해 보세요. 소원은 꼭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은 이 세상 제일의 순수하고 선한 착한 마음입니다. 오봉초에 불을 밝혀 소원성취 하십시오.
오봉초는 최고급 재질로 생산되어 건강에 해로움이 없고, 그을음이 없으며, 연소시간이 오래 갑니다.



• 大 19cm
• 少 17cm
(정성을 다하는 수작업이므로 다량 주문 시 제작기간이 소요되며, 가격 별도 조정 가능합니다)
오 봉 양 초 서울시 도봉구 도봉동 558-21
전화 02)955-3708 / 팩스 02)3493-7779 / 휴대폰 011-304-3309
전국 대리점 모집합니다.

한형조 교수의 금강경강의

붓다의 유머 그 날카롭고 따뜻한



강의(9) 이방의 포교사들-현각, 틱낫한, 그리고 달라이 라마

불교의 기획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불성, 번뇌, 반야의 삼각 구도를 갖고 있습니다. 불교의 역사는 그러나 이 삼각 항목을 두고 접근법과 강조점을 달리 해 왔습니다. 그래서 불교가 다양해 졌지요.

아시다시피 붓다 초기에는 두 번째 '문제'에서 출발해 세 번째 '방법'으로 나아갔습니다. 아비달마와 유식은 두 번째 항목인 '문제'의 분석에 치중했고, 중관은 세 번째 '방법'으로서 '지식'의 성격과 발휘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원효 스님이 <대승기신론>을 주목한 이유는 무엇보다, 이 짧고 간결한 저작이 위의 세 항목 전체를 유기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판단에서였습니다. 그래서 스님은 이 경전에 여러 차례, 여덟 번이라 했던가요, 주석하고 해석하셨습니다. 지금 남아 있는 것은 <소(疏)>와, <별기(別記)>뿐입니다만…. 그런데, 좀 아쉬웠던가 봅니다. 두 번째 '문제의 분석' 쪽에 더 깊고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인지, <이장의(二障義)>라는 책을 따로 쓰셨습니다. 여기에는 <대승기신론>이 '오염된 마음(不覺染心)'의 양상이라고 지적한 '번뇌와 지적 장애(煩惱碍+智碍)'에 대해 더욱 상세하고 깊은 설명이 독창적으로 담겨 있습니다.

이 책은 오랫동안 목록으로만 전해졌는데요, 일본의 오오쵸오 에니치(橫超慧日) 교수가 1939년 무렵에 오오타니(大谷)대학교 도서관에서 우연히 발견하여, 거기 서문을 붙여 1979년에 간행했습니다. 지금 그 연구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저는 아직 읽지 못했습니다. 꼼꼼하게 읽기가 만만치 않은 저작이라 나중을 벼르고 있습니다.

이병주 소설 <바람과 구름과 비>의 풍자

이런 정황을 보면서 드는 생각인데요, 지금 불교를 말하시는 선지식들이 대체로 대승, 그 중에서도 가운데 반야의 '칼날'과 그리고 선의 '단도직입'을 말하고 계십니다. 아니면, 꽃이 피고 새가 우는 법계의 여여(如如)한 실상을 노래하거나, 다음 생에 있을 정토와 니르바나의 축복을 약속해 주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길을 나서기도 전에 벌써 목적지에 다 온 듯한 착각을 주기 쉽습니다. 이병주의 소설 <바람과 구름과 비>에서는 이런 '도통한 체'를 두고, "익지는 않고 곯았다!"라고 익살스레 풍자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무릎을 치며 공감했는데요, 어디 남의 일이겠습니까. 저 또한 이 강의에서 그 유혹과 싸우느라 고생하고 있다는 고백을 해 둡니다.

그러니 이제 불교가 성급하게 '해답'부터 늘어놓을 것이 아니다 싶습니다. 그 전에 중생들이 처한 '상황'의 성격과, 겪는 '문제'의 실상부터 분명히 알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 근본이 회향(廻向)되면, 나머지는 별로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포교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데, 그 이유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살피지 않고, 무턱대고 주려고만 하기 때문은 아닐까요. 작은 문제나 큰 문제나 간에, 심지어 쥐장 안에 갇힌 실험용 쥐도, '문제'를 알면, 시키지 않아도 '길'을 찾으려고 안간힘을 쓸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단박에, "아니, 문제야 자기 자신들이 가장 잘 알겠지. 그런데 뭘 새삼 가르쳐 주고 말고 해?"라고 타박하는 선지식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 손가락에 난 생채기를 나보다 더 잘 아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마는, 그러나, 그 '문제'를 당사자는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불교가 제기하는 '문제'는 아주 미묘하고 은밀해서 당사자에게 알려지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남보기에는 다 갖춘 듯한데도 "이게 아닌데"라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지만, 정작 그 문제의 정체가 무엇인지 무슨 돌파구를 마련해야 하는지 알기란 쉽지 않다는 말이지요.

세계 혹은 매트릭스를 벗어나야

이 중생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라도, 스님네들과 선지식들이 이제까지 익숙했던 그 '울타리', 제가 요즘 자주 쓰는 말로 매트릭스를 좀 벗어나 주셨으면 합니다. 매트릭스를 불교 전문 용어로는 세계(世界)라고 하지요. 여기에는 한 개인이 익숙하게 보고 들은 정보, 그가 속한 그룹 안에서의 관행과 어법, 그가 의존하는 세계관과 가치관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익기 전에 곯아서야



익숙한 세계를 타파하기 위해서 그럼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 얘기를 하자면 길어지는데요. 기회가 많을 테니, 다른 것은 그만 두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려 합니다. 바로 '언어'입니다!

스님네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대중들이 불교에 접근하는데 가장 큰 장애가 바로 '언어'입니다. 저는 어느 편이냐 하면,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불교를 미래의 대안이라고 우길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한국 불교의 전통조차 지켜내기 어렵다는 파천황의 생각까지 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 불교에 큰 영향을 끼친 이방의 선지식들을 들자면, 현각 스님, 틱낫한 스님, 그리고 달라이 라마 정도가 아닐까 합니다. 저는 현각 스님의 설법을 두어 차례 불교방송에서 본 적이 있고, 틱낫한 스님은 그분이 폭발적인 붐을 이루기 전에, 장경각에서 처음 나온 <삶에서 깨어나기>를 보며 곧, (용서하십시오) '엄청 뜰 것'이라고 예견했습니다. 달라이 라마는 무엇보다 그 일상적인 대화체의 비권위적인 자세에 깊이 경복했습니다.

이 세 분 선지식들이 한국의 불교계를 강타한 현상을 벤치마킹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들이 뜨는가. 한국불교가 수천년의 유구한 전통과 전국 곳곳의 수많은 사찰들, 심산 토굴의 무문관과 일초직입의 화두를 끌어안고 용맹정진하고 있는데, 왜 대중적 포교의 주도권은 이들 이방의 포교사들에게 내 주고 있는지, 깊이 고민해 보아야 하지 않을까요. 이 문제에 대해 불교계의 반응은 양면적입니다. 이방인들의 포교가 불교 인구의 저변을 확대하고, 불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한편 고마워하지만, 그런데 또 한편, 그 역할을 정작 엉뚱하게 객이 와서 대신 해주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시앗(첩)에게 안방을 내준 마나님같은 뿌루퉁한 표정을 짓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들이 뜬 이유는, 그들의 '불교'보다 그들의 '배경' 탓"이라고 스스로 위안하고 계십니다.

저도 그들이 그토록 유명하게 된 것이 어느 정도는 그들의 '이력'이나 '배경'에 빚지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각 스님은 한국인들이 모두 부러워하는 하버드 대학을 나왔고, 틱낫한 스님은 베트남의 오랜 전쟁을 몸으로 겪고 평화와 화해의 메시지를 세계에 전파하고 다녔습니다. 달라이 라마는 중국에 의한 무력 침공으로 식민지가 되어버린 티베트의 고난과 독립을 상징하는 정치적 종교적 지도자입니다. 그러면서도 그가 택한 저항의 수단이 무력과 피가 아니라 불교적 관용과 타협, 그리고 끈기와 상식이라는 점에서 전 세계 사람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들이 이렇게 폭발적으로 '유행'하는 근본 이유는 이런 배경 탓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비밀은 바로 그들이 쓰는 '언어'에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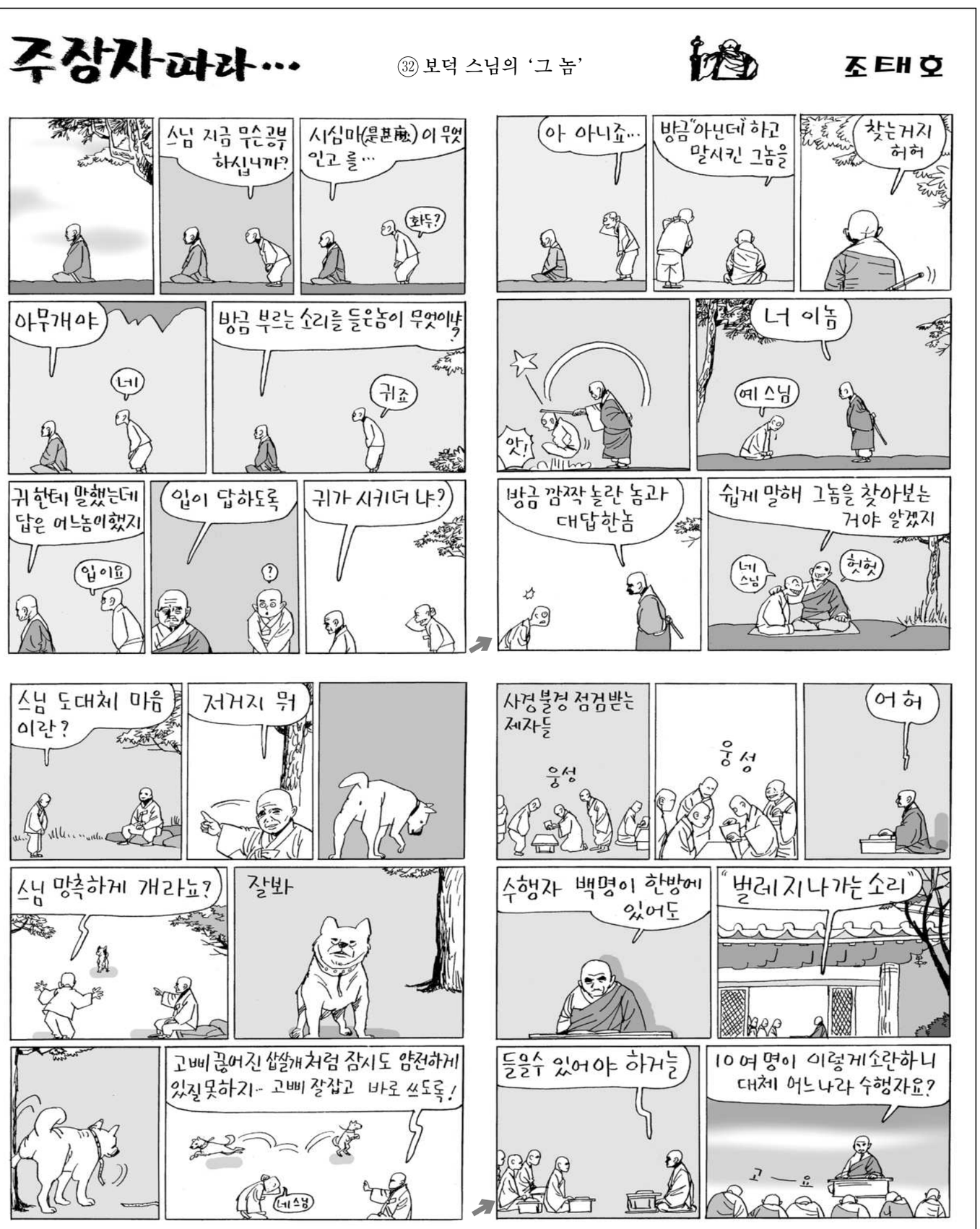
아무려면 우리 스님네들과 선지식들의 수행력이 그들보다 모자라겠습니까.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주장자따라…

32 보덕 스님의 '그 놈'

조태호



보덕 스님: 생몰연대 미상의 고구려 후기 스님. 열반종의 개조. 평양 영탑사 창건. 백제 완산주에 경복사를 지어 <열반경> 강론.

네티즌 교리문답

방하착(放下着)의 대상은?

문 큰스님들이 가끔 방하착(放下着)이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구체적인 뜻이 궁금합니다. '내려놓아라' 하는 의미는 알겠는데, 어떤 대상을 내려놓아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방하착')

답1: 방하착(放下着)하라는 말은 집착하는 마음을 내려놓아라, 또는 마음을 편하게 가지라는 뜻입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온갖 번뇌, 갈등, 스트레스, 원망, 집착 등이 얽혀있습니다. 그런 것을 모두 홀가분하게 벗어 던져버리라는 말이 방하착입니다. 엄양(嚴陽) 스님이 조주(趙州) 스님한테 가서 "한 물건도 가지고 있지 않을 때 어떻게 합니까?"하고 물었습니다. 참선에서는 '한 물건'도 가지지 말라 하는데, 그것은 우리 마음으로 시(是)야, 비(非)야, 좋다, 나쁘다, 이쁘다, 밉다하는 분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물으니까 조주 스님께서 "놔 버려라, 방하착(放下着) 하라" 하니까 그 스님이 하는 말이 "한 물건도 가지고 있지 않은데 무엇을 놓을 것입니까?"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주 스님께서 "그러면 지고 가거라" 하셨습니다. ('bubin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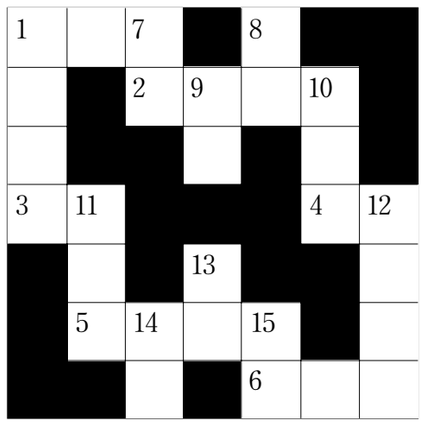
답2: 위의 일화는 아무 것도 없다는 것에 집착하는 마음마저 버리라는 조주 선사의 가르침을 역설적으로 잘 말해줍니다. 선문(禪門)에서는 수행의 첫 단계로 '모든 것을 놓아버리라(一切放下)'고 가르칩니다. 온갖 물질은 물론 생각까지 없애버리라는 뜻입니다. 선가의 대표적 화두인 방하착(放下着)은 보다 큰 성취, 즉 깨침을 향한 철저한 자기성찰의 과정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一切放下')

답3: 말과 생각으로는 다 내려 놓았다 합니다. 그러나, 스스로 죽지 않으면 방하착은 말뿐입니다. 내 자신이 여여한 객관의 한 대상이 되었거나, 내 자신이 나의 인식에서 홀연히 사라져야 합니다. 그때, 모든 경계가 분명하되 사량분별. 취사선택 하는 자는 없으며, 오직 일척안에 비친 요지경이 또렸합니다. 의식에서 나라는 것이 남아 있으면, 그것이 내려놓을 짐입니다. 방하만법(放下萬法)의 마지막 걸림은 나 자신 입니다. 단추만한 두 눈을 잃으면, 일체 원융한 '한 눈'을 얻습니다. ('들사자')

답4: 떠오르는 좋고 나쁜 생각은 모조리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무심이 될 때까지…. 이 말도 듣고 잊어버리세요. ('김성우')

붓다뉴스(www.buddhanews.com)에 '네티즌 교리 문답' 코너가 있습니다.

상식퍼즐



정답은 26면에

가로 1. 불국사 석가탑의 다른 이름, 동명의 현진건 소설도 있음 2. 몸과 땅이 둘이 아니라는 뜻 3. 모시어 받듦, <광덕 스님 ○○일기>라는 책이 있음 4. 중국 감서성의 작은 도시로 천 여개의 석굴과 사원으로 유명, 혜초 스님의 <왕오천축국전>이 이 지역에서 발견됨 5. 교학을 버리고 선 수행으로 나감을 뜻하는 말 6. 시가 소유하고 있는 땅.

세로 1. 재물을 갖지 않고 베푸는 일곱 가지 보시 7. 탑기단(塔基壇)과 상륜(相輪) 사이에 해당하는 부분, 탑의 몸. 8. 걸어 놓을 목적으로 그린 부처님 그림, 야외에서 법회를 열 때 많이 사용함 9. 땅끝마을의 다른 이름, 이곳이 땅끝임을 알리는 ○○탑이 세워져 있음 10. 신라의 불교 수용을 위해 목숨 바친 이 11. 경북 문경에 있는 절로 청담 · 성철 스님 등의 선종 종풍을 살리기 위한 결사로 유명한 곳 12. 황룡사터 13. 조직이나 단체에 들어감 14. 종파를 창시한 종조(宗祖) 15. 선적(禪的) 깨달음을 시로 표현한 것.



이순신의 영정.



내게는 아직도 배가 열두척이 있습니다
김종대 지음 | 북포스 | 9천5백원

판사의 펜 끝에서 살아난
맑고 투명한 영혼 '이순신'

현직 부산고법 부장판사
구체적 사실 · 증거 토대로
시대별 충무공 생애 정리
고매한 인격 · 참지도자像 감동

책속의 밑줄긋기

▲"공은 언제나 나라를 사랑하는 목표를 세웠고, 그 목표를 위해 가지 세평에 흔들리지 않은채 오직 바른 한길로 혼자 힘으로 묵묵히 나아갔으며, 일이 있기 전에는 최선을 다해 준비해 두었다가, 일을 당해서는 성패는 하늘에 맡겨둔 채 어떤 역경도 두려워하지 않고 지극한 정성과 창의적 지혜로 용기있게 나아감으로써, 마침내 그 목표를 이루어낸 올곧은 삶을 살았다."

▲"대장부 세상에 나서 쓰이면 죽을 힘을 다해 충성할 것이요 쓰이지 못하면 농사짓고 말아도 또한 족한 것이니 권세 있는 자에게 아첨하여 뜬 영화를 탐내는 것 같은 것은 나의 부끄러워하는 바라."

▲"아직도 신에게는 열두척의 전선이 있습니다. 죽을 힘을 다하여 막아 싸우면 아직도 할 수 있습니다. 전선이야 비록 적지만 신이 죽지 않았사오매, 적이 감히 우리를 업신여기지 못하리이다."



난중 일기와 편지.

이순신 장군은 우리나라에서 문학과 드라마, 영화는 물론 심지어는 도로 이름에 이르기까지 가장 많이 접하는 위인중의 한 분이다.

특히 신채호의 <리순신젼>(1908)을 비롯해 이광수의 <소설 이순신>(1931), 홍성원의 5부작 <달과 칼>(1993), 김훈의 <칼의 노래>(2001), 최근 출간된 김탁환의 8부작 <불멸의 이순신>에 이르기까지 이순신을 소재로 한 문학 작품은 무수히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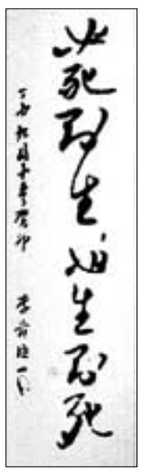
하지만 현대에 가까워 올수록 작가들은 역사적 사실과 분명한 거리를 두며 이순신을 재창조해 낸다. 이순신은 더 이상 광화문 사거리에 긴 칼을 옆에 차고 우뚝 서 있는 우상이나 신으로 군림하는 존재가 아닌 평범한 인간의 면모를 느낄 수 있는 소탈한 존재로 등장한다. 예를들어 "몸도 아프고 기운도 예전 같지 않아 갑옷과 투구가 무거울 지경(불멸의 이순신)"이라고 하소연 하는 이순신은 <리순신젼>이나 <소설 이순신>에서는 결코 찾아볼 수 없는 캐릭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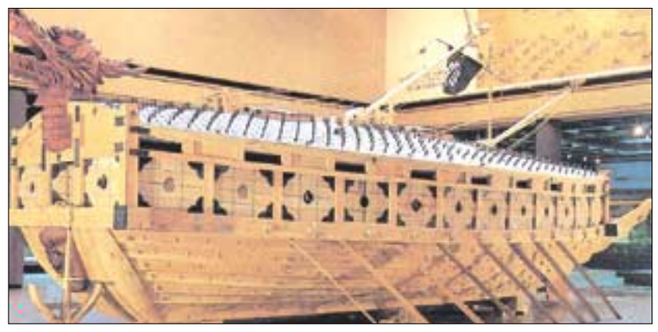
하지만 '지율 스님의 천성산 살리기' 사건을 맡기도 한 김종대 부산고등법원 부장 판사가 최근 출간한 <내게는 아직도… >는 저자의 공직생활 30여년동안 정신적 지주로 자리잡은 이순신의 영웅적 삶이 감동적으로 서술돼 있다. 김 판사가 충무공 이순신에 매료되기 시작한 것은 1975년 공군 법무관 시절 노산 이은상의 <충무공의 생애와 사상>을 읽으면서 부터다. 이후 20여년동안 충무공의 마니아(?)로 성장하며 틈틈이 사료와 관련 자료를 모으기 시작했다. 아마도 이순신이 살아있다면 단연코 김 판사는 팬사이트의 회장을 맡고도 남을 정도로 그에 대한 존경과 애정이 이 책 곳곳에 나타나 있다.

특히 이 책은 이순신의 탄생부터 노량해전에서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조명하고 그 갈피마다 담겨 있는 시대에 대한 평가를 정리했다. 또 그의 생애를 시대별로 정리하면서 혹 자료에 따라 상반되게 기술된 부분이 나타나면 법관이 증거자료를 취사 선택해 사실 인정을 하는 식으로 각종 구체적 사실들을 정리해 놓았다. 다만 그의 인품을 가감없이 그대로 전해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진위가 불분명한 역사적 사실은 그 기술을 피했고, 과장하거나 주관적 기술도 피했다.

저자는 이렇듯 정성스럽게 이순신이라는 한 인물을 정성스럽게 정리해 놓고 나니 다시한번 그의 인물에 머리 숙여진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김 판사는 당시 승지였던 최유해가 이순신의 인물됨을 가려 쓴 행장을 인용하며 이렇게 그를 찬탄한다.

"공은 엄하고 진중하여 위풍이 있는 한편 남을 사랑하고 선비에게 겸손하며, 은혜와 신의가 분명하고 식견과 도량이 깊으며 기쁨과 노여움을 잘 나타내지 않았다. 또 부하 장수들이 공이 다시 적





의 탄환에 상할까 염려하여 어째서 나라를 위해 몸을 아끼지 않습니까 하고 말리면 공은 하늘을 가리키며 어찌 너희들만 시켜 적을 대항케 할 것이냐고 일축했다."

저자의 이순신 예찬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이순신은 왕이 자신을 도와주기는커녕 죽이려고까지 했던 기막힌 상황 속에서도 한 번 세운 충(忠)을 굽히지 않았던 인물이라고 소개한다. 또 싸울 전선과 병사들을 다 없애놓고 그 열배, 백배가 넘는 적의 수군과 싸우라며 뻔뻔스런 재임명의 교서를 내려도 불평없이 받아들인 훌륭한 인격의 소유자이며, 고뇌하는 인간적인 장수, 가장 절박한 순간에도 물러서지 않고 백의종군한 진정한 지도자라 평한다.

지금 어떤 고난이 닥쳐 자신의 삶에 의기소침해 있는 이들에게 이 책은 반드시 절망속에서 희망을, 어려움 속에서 용기를 심어주기에 충분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주일 기자 jikim@buddhapia.com



이순신의 필적(사진 위). 거북선 모형(사진 중앙)과 임진왜란 당시의 부산포 전경 그림.

전문가 서평



삼국유사
일연 저 이민수 역 | 을유문화사 | 8천5백원

삼국시대의 역사를 알 수 있는 중요한 책에는 <삼국유사>와 <삼국사기>가 있다. 알려진 바대로 <삼국유사>는 일연 스님이 지으신 것이고, <삼국사기>는 김부식이 중국의 사서에 의지해서 지었다고 한다. 일연 스님이 <삼국유사>를 저술할 때 고려는 무신난 이후 원의 억압을 받던 상태였는데, 이때 문화적으로 위기의식을 갖고 민족적 자각을 위하여 쓴 책이다. <삼국유사>의 체재는 5권 9편 144항목으로 되어 있는데, 9편은 왕력 · 기이 · 흥법 · 탑상 · 의해 · 신주 · 감통 · 피은 · 효선 편 등으로 구성돼 있다. <삼국사기>와는 달리 단군 신화가 자세히 서술되어 있어 – 이것이 시비의 대상이 되기는 하나 – 우리민족의 뿌리가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를 아는데 도움이 되는 책이다. <삼국유사>에는 역사, 불교, 설화는 물론 많은 고문헌이 인용되어 있어 역사 연구에 크게 도움이 됨은 물론 향가 14수는 국문학적으로도 귀한 구실을 하게 한다. 하지만 책 말미에 나오는 효선편의 늙은 부모를 지게에 져다 버리는 내용의 기로(耆老)설화는 고려장을 연상케 하여 효를 생활의 근간으로 삼아 왔던 우리를 당황하게 한다.

한민족 신화와 역사를 찾아서

익숙해서 놓치기쉬운 삼국유사와 시간여행을

<삼국유사>와 관련해 가장 중요한 문제는 진단학회본 등 많은 종류의 번역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온전한 번역본이 없다는 것이다. 중간 중간 해석을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거의 모든 역자들이 미상(未詳)으로 취급했다. 그러다 보니 더욱 아쉬운 것은 과거 우리의 역사가 지녔던 세계성이 제대로 밝혀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든다면 경주김씨의 시조인 김알지가 아리안 계통의 스리랑카인이었다는 것 등 기존 사학자들이 간과했던 원거리 국가들과의 교류에 관한 자료들이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연구 성과가 미진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으나 근래에 국내의 학자의 노력에 의해 하나하나 밝혀지고 있으니 심히 괄목할만하다 할 수 있다.

동북공정이니 뭐니해서 중국의 고구려 역사 왜곡으로 시끄럽다. 학계는 학계대로 정치인들은 정치인들대로 행정 관료는 행정 관료대로, 언론은 언론대로 호들갑들이다. 모두 업보이다. 그리고 외교통상부의 고위 관료가 항의하기 위해 중국을 다녀왔다. 하지만 이렇게들 호들갑을 떠는 이들이 과연 고구려사의 일면을 서술하고 있는 <삼국유사>를 어느 정도 읽었는지 궁금하다. 책 이름이 너무 익숙하면 마치 그 내용을 다 알고 있는듯하여 잘 안 읽게 된다고 한다. <삼국유사>는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책이다. 그래서 전체를 다 읽기 보다는 부분 재미있는 이야기를 모아 놓은 책들만 읽어 왔나 보다. 하지만 그래도 읽어야 할 책은 읽어야 한다. 역사 정리 문제 등 인문적인 문제에 바탕을 둔 민족자존의 문제가 산적한 지금 꼭 읽어야 할 책이다. 역사는 지키려는 노력이 있는 민족에게만 지킴을 당해 준다. 그리스가 자신들이 지니고 있는 신화와 철학, 역사에 바탕으로 올림픽 개막식을 개최해 역대 올림픽중 가장 우수하고 내용이 알찬 개막식을 개최했다고 한다. 그것의 뿌리가 신화와 철학, 역사임을 알면서도 우리의 신화와 철학, 역사에 바탕을 둔 책을 도외시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는가? ■송위지 (서울보건대 교수)

직장인을 위한 불교강좌

2004년도 동산불교대학 신입생 모집

장례문화학과는 불교의 생사관에 대한 철학적 인식을 바탕으로 장묘문화, 상장의례(喪葬儀禮), 장묘제도, 장의와 관련된 직무 등에 관한 지식과 정보를 체계적으로 교육, 연구하게 됩니다.
장례는 단순한 사후 처리가 아니라 종교적인 의식행위 중 하나입니다. 미래를 내다보는 안목으로, 불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불교장례학과
2년과정 : 2004년 9월 7일(화) 오후7시개강

교과목	· 장례학개론 · 상장례민속학 · 종교의례 · 불교의례실습 · 보건법규 · 장묘제도론 · 사회복지개론 · 장례경영론 · 임종론 · 불교상,장례문화이해 · 실습 · 견학 등

모집인원	지원자격	제출서류	원서교부 및 접수
· 불교장례학과(30명) · 불교다도학과(30명) · 불교한문학과(50명) · 불교미술학과(30명)	불교를 적극 선행하고자 하는 자	· 입학원서 1통 · 주민등록등본 1통 · 반명함판사진 3매	· 2004년 9월 7일 입학금 200,000원

전형방법	강의일시 및 장소
서류전형 (합격자 개별통보)	· 매주 화요일 오후 7시(장례학과) · 매주 화요일 오후 2시(다도학과) · 매주 목요일 오후 7시(한문학과) · 매주 수요일 오후 2시(불교미술학과)

불교 한문학과
3년과정:정규반,통신반 2004년 9월 9일(목) 오후7시개강

과목	· 장자(1),(2) · 한문법(1),(2) · 명심보감, 역경 · 금강경, 법화경, 화엄경, 육조단경
지도교수	· 황안웅교수(원광대) · 김형중 (동대부고 교법사) · 심재동교수(동국대) · 김병조 교수

다도학과
3년과정 : 2004년 9월 7일(화) 오후2시개강

과목	· 차문화사(중국,일본,유럽) · 제다학(1)(2)(3) · 한국의헌다례 · 다와정신 · 다구학 · 차와선 · 차도문헌 · 차식물학 · 차성분학 · 차품평학 · 차시장학 · 사찰다도법
지도교수	· 이귀례 교장선생님 / 선혜스님 / 박희준교수 박전열교수 / 오양가교수

불교미술학과
3년과정 : 2004년 9월 8일(수) 오후2시개강

이론 실기	· 단청이론, 실기 · 기초 선긋기 · 불화이론, 실기 · 사왕초, 보살초, 여래초그리기 · 사불이론, 실기
지도교수	· 윤열수교수(문화재전문위원) · 김익홍교수(전 동국대)

● 본 대학 사무국 : TEL 02)732-1206~8 FAX 02)732-1207
(우)110-140 서울 종로구 수송동 46-20 http://www.dongsanbud.net

DONGSAN 불교교육 전문도량 동산불교대학

포교현장의 법사양성(3년과정)
동산불교경전대학원 신입생 모집

1. 교과목 및 교수

과 목	요 일	개설경전	교 수
불교학과 (정규, 통신 각30명)	매주 월요일 오후 7시	법화경(4)	박 종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해심밀경(1)	묘주스님
능엄경학과 (주간, 통신 각20명)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능엄경 보경소(5)	송찬우
근본불교학과 (주간, 통신 각20명)	매주 목요일 오후 4시	근본불교(10) (수행론 구차제정)	최봉수

2. 모집방법 및 전형

모집인원	제출서류	강의일시 및 장소
● 불교대학(정규) 이수자 ● 불교교양대학(2년) 이수자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장 ·불교교양대학졸업증 1통	·매주 월 · 화요일 오후 7시(불교학과) ·매주 화요일 오후 2시(능엄경) ·매주 목요일 오후 4시(근본불교)

3. 개강일시 : 불 교 학 과 2004년 9월6일(월) 오후 7시
능 엄 경 학 과 2004년 9월7일(화) 오후 2시
근본불교학과 2004년 9월9일(목) 오후 4시
4. 입 학 금 : 이십만원
5. 특 전 : 졸업자는 법사자격 수여
6. 원서 문의 교부 : 본 연구원 사무국 : 서울 종로구 수송동 46-20
TEL 02)732-1206~8 / FAX 02)732-1207
인터넷 홈페이지 www. dongsanbud.net

DONGSAN 법사교육 전문도량 동산불교경전대학원

2004년도 도시생활 포교를 위한
한글의식교육원 신입생 모집

1. 교과목 및 교수
● 정규과정(2년)

실습편 : 무진스님	이론편 : 심만춘스님
의식작법 실습	의식작법 이론

● 야간과정(1년), 주간과정(1년)

지도법사 : 양성도(야간), 문종순(주간)
예경의식 • 헌공의식 • 시다림(매장/화장) • 천도의식

● 바라 • 천도과정(2년)

지도법사 : 인각스님
요잡바라 • 천수바라 • 나비춤 • 전통천도작법 교육

2. 모집방법 및 전형

모집인원	지원자격	제출서류	강의일시 및 장소
• 정규반 50명(2년) • 바라반 30명(2년) • 주간반 20명(1년) • 야간반 20명(1년)	• 한글불교의 식 희망자 • 포교당 운영자	• 입학원서 1통 • 주민등록등본 1통 • 반명함판 사진 3장	• 매주 토요일(정규반) 오후 1:00 ~ 4:00 • 매주 목요일(주간반) 오후 12:30 • 매주 수요일(야간반) 오후 7:00 • 매주 금요일(바라반) 오후 3:.00

3. 개강일시 : 9월 11일(토) 오후 1시 (정규반)
9월 8일(수) 오후 7시 (야간반)
9월 9일(목) 오후 12시30분(주간반)
9월 10일(금) 오후 3시 (바라반)
4. 입 학 금 : 일십만원
5. 원서 교부 및 접수 : 본 교육원 사무국 : 서울 종로구 수송동 46-20
TEL 02)732-1206 / FAX 02)732-1207
인터넷 홈페이지 www.dongsanbud.net
6. 특 전 : 교육원 과정 수료자는 동산불교의식법사 수여

DONGSAN 불교교육 전문도량 동산불교의식교육원

책 읽을 시간 없다면 … 이젠 듣자

■오디오북 전문 출판사 '내림과 올림' 대표 신상석 · 정수민 부부

1. 주차장을 방불케 하는 출퇴근 도로. 짜증과 답답함을 느끼려는 찰나, 차 안에 <금강경> 한 구절이 울려 퍼진다. 순간 마음이 편안해지고 차 안에서 보내는 시간이 절로 공부하는 시간이 된다.

2. 돋보기 안경을 쓰고도 책을 읽기 힘든 노 보살님. 며칠 전 며느리가 선물한 테이프를 틀자 부처님과 수보리의 대화가 술술 풀려나온다. 뜻도 모른 채 독송하던 <금강경>의 뜻풀이를 듣자 한층 더 신심이 솟아난다.



오디오북 전문출판사 '내림과 올림'의 발행인 신상석(왼쪽) 씨와 부인 정수민 편집장.

오디오북 전문 출판사 '내림과 올림'이 <비움의 지혜 금강경> 오디오북을 펴냈다. 흔히 '읽어 주는 책' '듣는 책'이라 불리는 오디오북은 기존의 책 내용을 낭독해 녹음한 것으로, 앞의 두 예에서처럼 책 읽기에 부담을 느끼는 노년층이나 바쁜 현대인들이 부담 없이 책의 내용을 들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노년층 · 바쁜 현대인들
부담없이 접할 수 있어 장점
3년내 경전 등 100권 제작 계획

'내림과 올림' 발행인 신상석(45) · 편집장 정수민(44) 씨 부부는 "부처님의 큰 가르침인 <금강경>을 오디오북으로 제작하게 돼 뿌듯하다"며 "<금강경> 오디오북이 불교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들 부부가 오디오북을 펴내기 시작한 것은 지난해 말. 20여년 가까이 IT분야에서 일했던 신 대표는 주위 사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현자(賢者)들의 지혜를 소리로 전달해 맑고 밝은 세상을 만들어보자"는 뜻으로 출판사를 열었다. "2006년까지 동서고금의 고전 100권을 오디오북으로 제작하겠다"는 야심찬 의욕으로 시작해 지금까지 <대학 · 중용> <예언자> 등을 펴냈고, 판매수익금의 1%를 '아름다운 재단'에 기부하고 있다.

"흔히 책 읽을 시간이 없다고 말하잖아요. 하지만 오디오북은 고전의 지혜를 언제 어디서든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출퇴근 시간이나 설거지 등의 집안일을 하는 시간에 듣다 보면 공부가 저절로 될 것입니다."

<비움의 지혜 금강경>은 CD 2장(혹은 테이프 2장)과 소책자로 이뤄져 있다. CD 1에는 전문 성우들이 낭독한 <금강경> 번역본을, CD 2에는 용어해설을 담았다. 대화체로 이루어진 <금강경>의 맛을 그대로 살렸고, '여시아문', '기원정사' 등의 용어도 관련 일화와 함께 소개한다. 소책자에서는 <금강경> 원문을 볼 수 있다.

<금강경> 번역은 영산대 신원봉 교수가 맡았고 KBS 성우 전인배 채의진 씨가 낭독했다. 배경음악으로는 목탁소리 대신 '오카리나'라고 불리는 흙피리 연주곡을 사용해 지루하지 않게 내용을 들을 수 있다.

신 대표는 "앞으로 <숫타니파타> <법구경> <어린이 불교동화> 등 다양한 오디오북을 펴낼 계획"이라며 "많은 불자들이 함께 수지독송할 수 있는 경전 오디오북 출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비움의 지혜 금강경 신원봉 옮김
전인배 채의진 낭독 | 내림과올림
CD 1만5천원 | 테이프 1만2천원

새로나온 책


■ **<갓바위 부처님 우리 곁에 오시다>**(장적 스님 지음, 선본사, 1만원)=前 선본사 주지 장적 스님(안흥사 주지)이 쓴 선본사 종합 안내서. 책에는 갓바위 부처님에 얽힌 약사신앙과 신도들의 '소원성취 체험록', 고문헌과 사진으로 보는 갓바위 도량 등이 담겨 있다. 또한 장적 스님이 채집한 설화를 바탕으로 소설가 이우상 씨가 쓴 '갓바위 약사여래불 조성 일대기'도 읽을 수 있다. 스님은 "갓바위 약사여래부처님께 기도와 불공을 올리는데 바른 길잡이 역할을 하기 위해 책을 펴냈다"고 출간 의의를 밝혔다.


■ **<반야심경과 마음공부>**(법상 스님 지음, 무한, 1만원)=인터넷에서 '아난 스님'으로 널리 알려진 법상 스님의 <실천하는 수행자를 위한 반야심경 대강좌>가 재출간됐다. 직접 찍은 사진을 덧붙이고 각 장의 내용도 다듬었다. 스님은 현재 인터넷 '목탁소리(www.moktaksori.com)'를 운영하고 있으며 저서로는 <날마다 새롭게 일어나라> 등이 있다.


■ **<나는 매일 아침 지렁이에게 안부를 묻는다>**(허병섭 외 지음, 옹기장이, 9천원)=누구나 한 번씩 꿈꿔보는 농촌생활. 그러나 막상 '현실'로서의 귀농을 위해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을까? 책에는 동화작가 권정생, 산청 간디학교 교장 양희규, 전국귀농운동본부장 이병철 씨 등 이미 시골살이를 실천하고 있는 사람들이 쓴 글이 담겨 있다. 상상이 아닌 '생활'로서의 시골살이는 어떠하고, 그 참 의미는 무엇인지를 들어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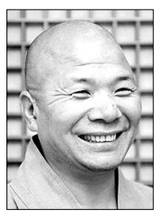
금주의 베스트불서 10

책방 여시아문 집계

순위	도서명	저 · 편자	출판사
1	홀로 사는 즐거움	법정 스님	샘터
2	인연법과 마음공부	혜국 스님	효림
3	텐진빠모의 마음공부	텐진 빠모	열림원
4	스님이야기	지묵 스님 외	여시아문
5	마음 부처가 사는 나라	청화 스님	이른아침
6	가장 행복한 공부	청화 스님	시공사
7	Opening the Eye	성철 스님	김영사
8	예세조겔	예세조겔	김영사
9	불교가 정말 좋아지는 불교우화	이용범	수희재
10	하룻밤에 읽는 불교	소운 스님	랜덤하우스중앙

도서 안내 : (02)737-0695

"스님, 돈 좀 꿔 주세요"


지묵 스님 일화 담긴 기고글 120여편 묶어

저녁 무렵, 동네 공원을 찾은 지묵 스님. 술 취한 청년이 다가와 "술을 더 마시고 싶으니 돈을 꾸어 달라"고 청하자 스님은 선뜻 만 원을 건네준다. 그리고 며칠이 흐른 뒤 다시 공원을 찾은 스님에게 그 청년이 다가와 말했다. "어두워도 알아보겠습니다. 스님, 만 원을 받으시지요."

글쓰기와 방송을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고 있는 지묵 스님이 현대불교 연재물 '스님 이야기' 등 그동안 교계 신문과 잡지에 기고한 글 120여 편을 묶어 <노스님의 젊음>이란 책으로 펴냈다. 옛 선사들의 일화와 지금 이 순간 어느 산중에선가 구도의 길을 걷고 있을 눈 푸른 납자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다.

봉암사에 가던 길에 들른 절의 주지실에서 단잠을 자고 나서야 주지 스님은 객실에서 잔 사실을 알기도 하고, 얼결에 결혼식 사회를 맡아 곤욕을 치르기도 하는 등 스님의 수행 일화를 통해 잔잔한 감동과 입가에 퍼지는 미소를 느낄 수 있다. 스님이 지난해부터 열고 있는 '단오 부채전'에 소개됐던 부채 사진을 볼 수 있는 것은 이 책의 즐거운 '덤'이다.

현재 불교방송프로그램에서 신행상담 진행자로 활동하고 있는 스님은 그동안 <나마스테> <봉주르 길상입니다> <죽비 깎는 아침> 등의 책을 펴냈으며, 인터넷동아리 '청년불교 우리사랑'의 지도법사로도 활동하고 있다.


노스님의 젊음 지묵 스님 지음 | 우리출판사 | 1만원

초보불자 불교용어 길라잡이


절이 좋아 산에 가네
김경호 지음
북라인
1만1천원

조계종 포교연구과장을 지낸 김경호 씨가 불교 용어 해설집을 펴냈다. <절이 좋아 산에 가네>는 '절이 좋아' 사찰에 가지만, 막상 인연이니 서원, 울력, 도량석, 다비 등 낯선 용어를 접하다 보면 어색함을 느끼게 되는 초보불자들을 위한 책이다.

하지만 책은 백과사전식의 단순한 용어 해설에 그치지 않는다. 각 용어를 설명하는 72개의 장은 한 편의 에세이처럼 읽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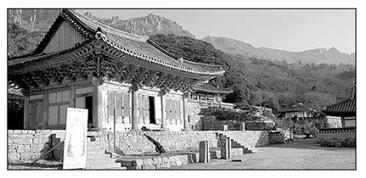
1장 '구도의 길'에서는 안거 · 만행 · 사경 · 울력 · 장좌불와 등에 담긴 스님들의 치열한 수행 정신을 설명한다. 2장 '공간에 담긴 정신'은 일주문과 당간지주, 대웅전 등 산사의 조형물들이 지닌 의미를, 3장 '생활 속의 하심'은 발우와 가사, 삭발, 다도, 탁발 등 승가의 일상 생활 풍경을 보여준다. 4장 '불화로 본 부처님의 일생'에서는 십우도와 팔상도를 통해 부처님의 생애를 짚어보고, 5장 '불교의 세계관'에서는 불교의 삶과 죽음관 등 불교의 세계관을 두루 설명하고 있다.

여행전문가 4인이 뽑은 이곳!


내 마음 속 꼭꼭 숨겨둔 여행지
이시목 외 지음
랜덤하우스중앙
9천5백원

주5일근무제가 실시되면서 서점가에는 '여행안내서'가 봇물을 이룬다. 하지만 수많은 책 중에서 '나에게 맞는 책'을 찾기도 쉬운 일은 아니다. <내 마음 속 꼭꼭 숨겨둔 여행지>는 여행전문가 네 명이 뽑은 최고의 여행지를 소개하는 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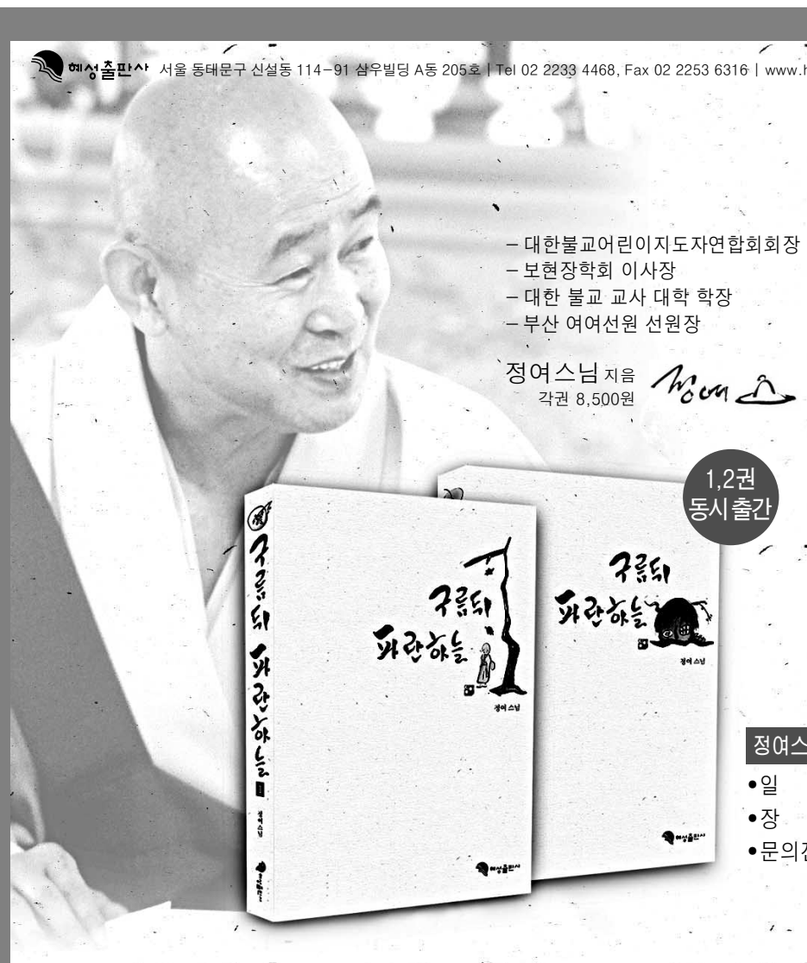
이 중 레저 주간지 <Weekly FRIDAY> 기자인 유철상 씨의 '절담 너머 풍경'에서는 남양주 수종사와 하동 쌍계사, 청도 운문사, 해남 미황사(사진) 등 산사의 아름다움을 만날 수 있다. 수종사 밑 두물머리에서는 언제


물안개를 볼 수 있는지, 선암사에 가면 어디서 차를 마실 수 있는지 등 놓치기 쉬운 여행 노하우를 챙겨볼 수 있다.

유 씨는 "절집 여행은 손을 모으고 합장을 하듯 마음을 다스리는 매력이 있다"고 말한다.

禪으로 깨우치는 반야심경
억겁의 체증을 통쾌하게 씻어주는 이 시대의 야부 선사!
대원 문재현 선사(전강 선사님 인가제자)의 감로법문
바로보인 반야심경으로 책도 출간되었습니다.
일시 : 매월 첫째주 일요일 오전 11시-12시
www.zenparadise.com
☎ 02-522-0122, 011-785-0122

혜성출판사 서울 동대문구 신설동 114-91 삼우빌딩 A동 205호 | Tel 02 2233 4468, Fax 02 2253 6316 | www.hyesungbook.com



– 대한불교어린이지도자연합회회장
– 보현장학회 이사장
– 대한 불교 교사 대학 학장
– 부산 여여선원 선원장

정여스님 지음
각권 8,500원

1,2권 동시 출간

마음의 여유가 느껴집니다
현실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라. 구름 뒤 저편에는 항상 맑고 깨끗한 파란 하늘이 있다.

구름뒤 파란하늘

정여스님 「구름뒤 파란하늘1,2」 출판기념회
•일 시: 2004년 8월 26일 오후 1시30분
•장 소:부산 롯데호텔 크리스탈 볼룸
•문의전화:(051)853-5486

삶 자체도 내 자신의 일 죽음 자체도 내 자신의 일
나 자신을 구할 사람은 오직 나 자신뿐

안양규 교수의
경전이야기 <34>



생각이 감정을 좌우한다

인간은 즐거운 감정을 추구하고 괴로운 감정을 회피한다. 행복이라는 감정을 느끼기 위해 살아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인간은 감정적 존재이다. 그런데 인간의 정서 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생각이다. 즉, 어떤 사건을 겪으면서 감정적으로 우울해지거나 의기양양해지는 것은 사건 그 자체 때문이 아니라, 그 사건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하느냐 하는 생각 때문이라는 것이다. 어떤 사건이나 사람 자체가 기분에 영향(좋아지거나, 나빠지거나, 상하거나…)을 미친다기 보다는, 처한 상황에서 나 자신이 그 사건이나 상대방을 어떻게 평가하고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기분이 좌우되는 것이다.

다음과 같은 상황을 설정해 보자. 철수가 잠을 자고 있는데 전화 벨 소리가 울렸다. 철수는 뒤척이다가 겨우 일어나 전화를 받기 위해 달려갔다. 그런데 수화기를 드는 순간 상대방이 전화를 끊었다. 너무 늦게 철수가 받은 것이었다. 철수는 이렇게 늦은 밤에 누가 전화를 걸었을까를 생각하기 시작했다. 이런 시간에 전화를 한 것은 시급한 일을 알리기 위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부모님이나 형제 중에서 갑작스런 사고를 당한 것이 아닐까 생각하니 전신이 걱정과 불안으로 휩싸인다. 다시 생각을 바꾸어 외국에 있는 친구가 시차를 잘못 계산한 채 안부전화를 한 것이 아닐까 생각하니 그 친구와 즐겁게 지내던 일이 떠올라 그가 보고 싶어진다. 철수가 전화 벨 소리를 듣고 어떻게 생각했느냐에 따라 서로 상반되는 두 가지 종류의 감정을 경험하는 것이다. 즉 부정적인 생각은 부정적인 감정을, 긍정적인 생각은 긍정적인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다음 소개하는 경전은 전도된 생각에서 벗어나야 욕망이라는 감정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증일아함경>에 나오는 이야기다. 부처님께서는 가란다 죽원에 있을 때의 일이다. 아난(阿難)과 다기사(多耆奢)는 때가 되어 가사를 입고 발우를 가지고 성에 들어가 걸식했다. 이 때 다기사는 어떤 거리에서 한 여인을 보았는데 그녀는 세상에서 보기 드물 만큼 너무나 아름다웠다. 그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난 뒤 마음이 어지러워져 평상시와 같지 않았다. 다기사는 곧 아난에게 게송으로 말하였다. "애욕의 불꽃이 훨훨 타올라/ 제 마음이 뜨겁게 달아오릅니다/ 이 불꽃을 끌 방법 말해 주시면/ 저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자 아난도 게송으로 대답했다. "애욕이란 전도(顚倒)된 생각으로/ 마음이 맹렬히 타오른다는 걸 알아라. 모습을 떠올리는 생각 없애버리면/ 애욕은 곧 저절로 쉬게 되리라."

다기사는 아난의 게송을 듣고 전도된 생각을 바로 잡으려고 했다. 그 때 그 여인은 멀리서 다기사를 보고 방긋 웃었다. 다기사는 그 여인의 웃음을 보고 생각했다. "지금 그대의 몸뚱이는 뼈를 세워놓고 가죽으로 둘러싼 것이며 마치 더러운 것이 가득 담긴 화병(畵甁)과 같다. 세상 사람을 미혹하게 하고 어지러운 생각을 일으키는구나." 존자 다기사는 그 여인을 자세히 관찰하였다. "저 몸뚱이에 탐할 만한 것이 무엇이 있는가? 서른여섯 가지 부위가 모두 더러운 것뿐이다. 지금 이 온갖 것들은 다 어디서 생겨났을까?" 이 때 존자는 곧 "이 탐욕은 생각(思想)에서 생겨났을 뿐이로구나 하고 깨달았다. 그는 곧 다음 게송을 읊었다. "탐욕아, 너의 근본을 아나니/ 너는 생각만으로 생겨나는 것/ 내가 너를 생각하지 않는다면/ 너는 존재하지 못할 것이다."

다기사는 동일한 여인에 대해 두 가지 다른 감정을 차례로 경험했다. 여인을 보고 애욕을 느낀 것은 그 여인이 아름답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여인을 만지거나 가까이 하고 싶어하는 애욕이 발생한 것이다. 반대로 동일한 여인에 대해 아름답거나 깨끗하지 않다는 생각을 하니 애욕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사건 해석하는 자기 생각에 따라 감정 변화
타인 바꾸려 말고 긍정적인 사고로 전환을

우리는 흔히 주변 사람들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해주었으면 하고 바란다. 또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상황이 바뀌기를 기대하기도 한다. 그러나, 원하는 대로 항상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상황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 바꿀 수도 없고, 상대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항상 행동하지도 않는다. 상황의 변화는 우리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흘러간다. 우리가 노력해서 바꿀 수 있는 것은 우리 자신뿐이다. 결국 우리를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는 현실적인 길은 자신의 생각을 바꾸는 것이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수많은 사건들 때문에 우리의 감정이 영향을 받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그 사건을 해석하는 자신의 생각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타인이나 상황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 바꾸려 하지 말고 자신의 부정적이고 비합리적인 생각을 찾아 바꾸어야 한다는 것이다. 긍정적인 사고 방식에로의 전환이 즐거운 감정을 보장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 동국대(경주) 불교학과



지난 98년부터 3년간 '무문관 수행'을 마친 원산 스님은 수시로 죽림굴에서 정진한다.

지상 백고좌

원산 스님

(통도사 백련정사 감원)



"그저 앞으로만 나아갈 뿐"이라는 원산 스님.

쾅! 쾅! 쾅!(주장자를 세번 내리치시고)

"진리는 무언(無言)이라, 참된 이치는 말이 없는 자리다. 말로 할 것 같으면 그만 어긋나 버리고 말을 하지 않으면 그만 잃어버린다. 진리는 말이 없는데 그것을 말로 하려고 하면 안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는 부처님께서도 어쩔 수 없이 방편으로 팔만사천의 법문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법사도 할 말이 없지만 여러분들이 법회에 참여했기 때문에 말로써 설법을 하는 것입니다."

경남 양산 통도사의 산내 암자인 백련정사 감원 원산 스님은 8월 16일, 음력 7월 초하루 법회를 맞아 찾아든 200여 불자들을 위해 법상에 앉았다.

"우리 몸뚱이는 지수화풍(地水火風) 즉 땅기운, 물기운, 불기운, 바람기운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수화풍으로 된 육체가 법문을 들을 줄도 모르고 할 줄도 모른다 이 말입니다.

'무엇이 법문하고 듣는가?' 하고 물으면, '입이 법문하고, 귀가 듣습니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송장은 입이 있고 귀가 있어도 말을 못합니다. 육체가 법을 말하고 듣는 것이 아니며, 허공이 법을 말하고 듣는 것이 아닙니다. 역력히 밝은 가운데 형단(形段, 모양)이 없는 한 물건이 있는데 그 자리가 법문을 하고 듣는 것입니다. 형단없는 그 자리가 모든 부처님이 깨달은 진리의 그 자리고, 역대조사의 안목이 거기 있는 것입니다. 또 영가의 본래면목 자리가 그 자리입니다."

"불교는 '나고 죽는 것이 큰일이다(生死大事)'라고 했습니다. 오늘 축원할 때 많은 영가 이름을 불렀는데 과거 많은 영가가 태어나고 살다가 죽었습니다. 우리 인생이 이 세상에 왔다가 죽으면 어디로 가는가 아는 이가 잘 없어요. 부처님께서 정반왕궁의 태자로 태어나서 지존의 자리에 있었지만 아무리 왕이 된다 해도 나고 죽는 일을 해결 못할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싯다르타 태자가 생로병사를 해결하기 위해 출가하여 설산 6년 고행을 하고 보리수 나무 아래서 대도를 깨친 것입니다."

이날 스님은 49재를 맞은 영가를 위해 "육체가 나고 죽는것은 허공 가운데 구름이 일어나고 없어지는 것과 같이 체가 없으며, 생사를 따르지 않는 한 물건이 있어 태어나고 또 태어나는 것"이라며 "생사 윤회에서 벗어나 해탈의 자리에 태어나는 것이 불교의 최고 목표"라고 설했다.

초하루 법회와 49재 천도재가 끝나고 <금강경> 일독이 끝난 후에야 스님을 친견할 수 있었다.

스님에게 출가동기부터 대뜸 여쭈었다.

"입산동기라…. 세상에 할 것이 있어야지. 장사를 하다보면 자신도 모르게 자신을 속이고 남을 속이고 거짓말을 하게 될 것 같거든.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이 참으로 불합리하지. 비진리의 세계잖아. 그 속에서 할 것이 없었어.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지. 지금 생각하면 절에 너무 잘 왔다 싶어. 정말 천만 다행인게지."

스님은 1998년 2월 15일부터 2001년 3월 9일까지 3년 동안, 하루 한끼 공양을 하며 3년 무문관 수행을 했다. 당시, 조계종 교육원장까지 역임한 중진 스님이 모든 것을 던지고 들어간 무문관 수행의 모습에 세간이 떠들썩했던 것은 물론이다.

"스님, 무문관 결사를 마치고 달라진 것이 있습니까?"

수행자의 당연한 길을 걸었을 뿐이라고 담담히 말씀하신다. "사람이 어릴 때와 성장했을 때가 다른 것처럼, 법당에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른 것처럼, 좀 다르다"며 "물을 마셔보면 달고 짠 것을 알 수 있듯이 물을 마셔봐야 아는 것이지, 뭐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라고 했다.

불자들에게 '생명의 근원을 알아야 한다'고 늘 강조하는 원산 스님을 뵙고 있으니, 얼마전 팔공산 갓바위를 올라갔다가 만난 사람들이 생각났다. 경기침체다, 청년실업자 문제다 해서 좌절과 고민에 빠진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면 될지를 여쭈었다. 또 부처님께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비는 것이 기복신앙인데 이를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 질문했다.

香 (천연아로마향)
자연의 향기가 새로운 세계로 안내하며 풍요로운 생활을 열어 드립니다.

aqua(과일향) bollm(플로럴부케향) grass(허브향) earth(초코렛향)
■ 뉴모닝스타 : 9,000원(개당) · 길이 : 15.5cm · 40개입 · 연소시간 : 25분

1910년 처음 발매되어 시대를 걸쳐 개발에 개발을 거듭, 지금의 MORING STAR(新 每日香)으로 태어났습니다.
Sandalwood(백단) / Pine(참솔) / Musk(사향)
Patchouli(파출리-인도산박하) / Jasmin(재스민)
Rose(장미) / Cedarwood(삼나무) / Aloeswood(침향)
Amber(호박(琥珀)) / Vannila(바닐라) / Green tea(녹차)
■ 모닝스타 : 6,500원(개당) · 길이 : 13cm · 50개입 · 연소시간 : 25분

참숯무연 아로마향
· 재질 : 천연 참숯, 라벤더 등
· 길이 : 13.5cm
· 중량 : 100g
■ 견성향(지관단) : 15,000

茶
유기농 재배한 통불사 연양차 연잎 100%, 40g

■ 연향차 : ~~38,000원~~ → 30,000원

지리산 전통 수제녹차
■ 불성차(100g)
중작 : ~~35,000원~~ → 30,000
세작 : ~~50,000원~~ → 40,000
우전 : ~~100,000원~~ → 90,000

연꽃의 꽃과 뿌리로 만든
■ 백련정차
50g : 18,000원
100g : 35,000원

생활용품
고급식물성 오일과 연꽃추출 천연재료를 첨가한100% 천연비누

■ 천연연꽃비누
개당 : ~~18,500원~~ → 15,000원
세트 : ~~222,000원~~ → (12개) 150,000원

전기없이 따뜻한 느낌을 주는 매트
■ 숯매트(1인용)
150,000원

■ 대나무 수액시트
100매 : ~~90,000원~~ → 70,000원
50매 : ~~50,000원~~ → 38,000원

추천상품

■ 관음도족자 : 35,000원
· 크기 : 42×90cm
· 작가 : 조중일

■ 청자칠보투각향로
~~49,000원~~ → 39,800원
· 국보재현품
· 높이15.3 · 대좌지름11.2cm

■ 반야바라밀다심경판 : 88,000원
· 크기 : 770×230×25
· 재질 : 뉴송

기능성 음반
생활기능음반 특별 이벤트
이벤트 하나, 생활기능음반 구매고객에게 「치료시리즈 – 목욕미인CD1매」 증정 – 선착순
이벤트 둘, 생활기능음반 2장이상 구매고객에게 「아로마 모기향초」 증정


■ 고요한산사에서의 명상CD 15,000원


■ 空[공]-소리로떠나는그곳, 山寺 15,000원
생활기능음반 시리즈


숲(forest) 집중력향상 숙면(꿀면) 물(water)
자연의 소리에는 고유의 리듬이 있으며, 사람의 신체 역시 자연의 리듬을 지니고 있습니다. 생활기능음반 시리즈는 여러분을 자연 그대로의 상태로 되돌림으로써 흐트러진 생체리듬을 바로잡아 건강과 생활의 활력을 전해 드립니다.
■ ~~15,000원~~ → 13,500원
• 자연시리즈 – 피부미인 목욕미인 건강미인 Make up time(메이크업) 아름다운 다이어트
• 치료시리즈 – 숙면(꿀면) 변비가말끔히 금연 어깨결림말끔히 고혈압
• 활력시리즈 – 집중력향상 파워업(Power up) 실력발휘 플러스사고 상업번성 즐거운컴퓨터

웰빙상품 지상기획전

불교문화상품 전문쇼핑몰 마하몰 주문전화
Mahamall.co.kr 02-732-1520
인터넷 마하몰(www.mahamall.co.kr)에 오시면 3,000여종의 불교문화상품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006-01-0785-361 / 우체국 010041-01-012219 현대불교신문사 / 농협 053-12-113210 하동규

"중생 세계는 참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배고프고, 슬프고, 괴로운 세상이지. 이고득락(離苦得樂)이라는 말이 있어요. 결국 불교의 목적은 고통을 떠나 즐거움(죽음이 없는 낙)을 얻고자 하는데 있는 것이지. 그렇기에 갓바위 오르는 이들을 절대 기복으로 봐서는 안돼요. 부처님 찾는 동기는 저마다 다르더라도 마침내 괴로움 없는 열반락을 얻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니까. 나고 죽는 괴로움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부처님 사상이야. 일념으로 기도를 잘 하다보면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일체유심조라는 말도 있지요. 괴로운 마음이 풀어지면 소소한 어려움도 다 저절로 해결되는 법이지요. 궁극에는 생사해탈에 까지 이릅니다."

그렇다면 일반 재가불자들에게 맞는 수행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

스님은 "상근기일 경우 참선이 좋고 하근기인 경우 기도, 주력이 적당하지만 어느 것을 좋다 나쁘다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서울 가는 방법에도 고속철이나 무궁화 열차를 타기도 하고, 걸어서 가는 등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어요. 어쩌면 걸어가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다"며 자기에게 맞는 것으로 일념과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이셨다.

"근기에는 상하가 있지만 법에는 상하의 구별이 없고 시공도 초월했다"고 말했다. "세상엔 빠르고 느린 것이 있지만 그 자리에는 빠르고 느린 것이 어디

3년간 一日일식하며 무문관 수행
상근기 참선, 하근기 기도·주력 당부

있습니까? 우주공간이 하나로 통해 있는 것을. 가고 옴이 없고 공간과 시간도 없어 모든 것이 평등하며 무차별이지요."

원산 스님은 근세 우리나라 최고의 선지식으로 추앙받았던 경봉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고 또 대강백인 관응 스님으로부터 전강을 받았다. 두 은사스님으로부터 받은 가장 기억나는 가르침을 넌지시 여쭸다.

"경봉 스님은 '사람이 객으로 남의 집에 하룻밤을 유숙하더라도 주인을 찾아봐야 무례한 사람이 되지 않거늘, 육체를 평생 끌고 다니는 자기 주인을 찾아볼 생각을 하지 않아서야 말이 되는가' 라고 늘 말씀하셨어요."

경봉 스님의 한 말씀이 마음 한 구석을 서늘히 울리고 지나간다.

또 관응 스님은 '세상 모든 것은 하나'임을 늘 말씀하셨다고 한다. 스님은 "진리를 알지 못해 갈등과 시비, 분열이 일어나는 것이고, 나와 너를 각각 보기 때문에 우리 삶이 시끄러운 것입니다." 즉 무명(알지못함)으로 모든 것이 일어나니, 마음공부를 열심히 하라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스님의 계획을 물어 보았다. 스님은 공부를 더 하고싶다는 '욕심아닌 욕심'을 숨기지 않으셨다. 조계종이 화합종단으로 가야한다는 뜻도 내비추셨다. 그럼에도 결론처럼 "계획은 없다"고 단호히 말씀하셨다.

"무계획이 나의 계획입니다. 나고 죽는 것이 계획없는데 무슨 계획을 세울 게 있습니까. 그저 앞으로만 갈 뿐이지." 그 말씀에 "물같이 바람 같이 살다가 가라 하네"라는 나옹 선사의 게송이 문득 떠올랐다.

정리=배지선 기자 · 사진=고영배 기자



경봉 스님과 관응 스님으로부터 선 · 교를 닦은 원산 스님은 원만한 덕행과 용맹정진으로 후학의 사표가 되고 있다.

기자가 본 원산 스님

수시로 죽림굴서 수행…신도들에게 항상 문 개방

지금도 수시로 죽림굴에 들어가 수행정진하는 스님은 무문관 3년 수행정진의 시간이 가장 좋았다고 회고한다. '무계획이 계획'이라는 스님은 평생을 톱니바퀴 돌아가듯 앞만 보고 살아왔다고 했다.

아이들을 좋아해 항상 어린이 단주를 준비해 놓고 천진불들을 기다리는 스님은, 세상의 어려움으로 수시로 찾는 신도와 제자들을 위해서 언제나 문을 열어두고 있다.

게다가 평소 서실에서 가훈을 적어두었다가 신도들에게 건네줄 만큼 자상하신 성품이다.

"말로 해야 하는가, 마음에 다 있으면 되지"라고 이심전심을 강조하시는 스님은 실천을 중요시하신다. 매사 철두철미 하고 오직 수행정진에만 관심이 있어, 모든 절 살림은 신도들에게 맡겨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다고 주위 사람들이 귀띔했다.

원산 스님은 1944년 경남 양산에서 태어나 64년 통도사 극락암에서 경봉 스님을 은사로 득도했다. 64년 경봉 스님에게서 사미계를 69년 월하 스님에게서 비구계를 수지한 스님은 동화사, 통도사, 범어사 강원에서 경전을 연찬하고, 통도사 극락선원과 송광사, 봉암사 등에서 참선정진을 하는 등 선교(禪敎)를 두루 섭렵했다.

직지사 황악학림을 마친 원산 스님은 관응 스님의 강맥을 전수받아 '장해(藏海)'라는 강호도 받았다.

스님은 직지사와 통도사 강주를 지내며 후학을 양성했고, 조계종 중앙종회 의원과 조계종 초대 교육원장을 역임했다.

진각 스님의
스님이야기
삼봉 스님

해인사는 지금 여름 안거중이다. 안거기간동안에는 산중의 모든 대중이 일주일동안 함께 참여하는 철야 용맹정진을 한다. 음력 7월 1일 새벽 3시부터 시작해서 8일 새벽 3시에 마친다. 외호하는 대중들만 빼고는 모두 참석해야 한다.

행자실은 야식거리로 잘 다듬어진 잣을 정성스레 씻은 뒤에 쌀과 함께 죽을 끓여서 밤 시간에 잣죽을 올린다. 선원에는 간경에 몰두하는 강원 학인들까지 모두 올라와서 세상의 이치와 마음의 관계를 풀어서 뭇 중생들에게 회향하고자 마음 교정 작업에 여념이 없다.

강원에서 제일 아랫반인 치문반은 해인사에서의 일주일 철야 용맹정진이 처음이므로 삼천배를 한 뒤 방장스님으로부터 화두를 받아야 한다.



그림 · 문병성

그래야만 선원에서 용맹정진이 허락되기 때문이다. 말이 삼천배지 삼복더위에 삼천배를 한다는 것은 그렇게 호락호락 쉬운 일은 아니다. 삼천배를 하는 까닭은 화두를 간절하게 챙기고, 일주일 동안의 용맹정진을 신심으로 가득 채워서, 철야 용맹정진이 원만하게 회향되어야 하는 목적도 당연히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4학년인 경반때까지 매번 삼천배를 아랫반과 함께 하면서 손수 죽비를 치는 스님이 있었는데 그 스님이 삼봉 스님이다. 삼봉 스님의 본래 법명은 '대성'이다. 성격이 원만하고 스스로 하심(下心)을 하고 상대를 배려하므로 도반뿐만 아니라 위 · 아랫반에서 모두 좋아했다. 그래서 별명이 많았는데, 여러 가지 별명 가운데서 삼봉이라는 명칭으로 자연스럽게 정착되어서 지금은 삼봉 스님으로 불리고 있다. 삼봉 스님 자신도 구태여 이름에 마음이 끄달릴 필요가 없다는 듯한 태도이니 달리 부르는 이름이 많기도 했다.

스님이 곁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삼봉이라는 이름만 생각해도 저절로 입가에 미소가 돌만큼 스님은 주변사람들을 편하고 하고 재미있게 한다. 강원에서는 추석이나 설날 같은 명절에는 삼경 전에 간경을 끝낸 뒤 큰방 청소를 간단하게 마친 다음 자리를 편다. 자리를 펴고 나서는 삼경까지 십분 동안 좌선을 한다. 이때 분위기가 좋으면 하늘같은 입승스님의 재량으로 반에서 한명씩 노래를 하는데, 우리 반 대표는 아랫반 시절부터 항상 삼봉 스님이 맡아서 해왔다. 노래 곡명도 항상 같은 '호동왕자' 다. 대중들은 삼봉 스님이 나와서 애절한 목소리로 호동왕자와 낙랑공주의 사연을 노래로 듣는데, 목소리도 간절하지만 표정 또한 노래 사연만큼이나 다양했다. 그런 삼봉 스님을 대중들이 좋아했다.

삼봉 스님은 출가하기전 연기지망생이었다. 그래서인지 얼굴표정도 풍부하고, 세상살이를 배우가 연기하듯, 무위심으로 마음을 내 듯 탐욕 없이 살아가고 있다. 세상을 욕심 없이 산다는 게 승속을 불문하고 쉬운 일인가.

나는 삼봉 스님이 주지로 있는 고성 약수암에 가끔 들러서 절 이름과 걸맞은 좋은 약수 맛을 보곤 한다. 약수암은 고성에 들어서는 입구에 있는데, 그 좋은 약수(藥水) 때문에 이름이 약수암이다. 물이 좋기로 이름이 알려져서 고성뿐만 아

풍부한 표정 · 애절한 목소리
별명 많고 인기도 높아

니라 인근의 지역에서도 사람들이 찾아와서 기도하고 정진하는 사람들이 많다. 좋은 도량은 터도 좋지만 이렇게 물맛도 좋은 법이다.

이 좋은 도량을 삼봉 스님의 모친이 창건해서 삼봉 스님이 주지로 있으면서 농촌포교에 탄력을 받고 있을 즈음에 우리들은 아직 제방에서 경학을 참구하거나 선원에서 정진하는 이가 대부분이었다. 삼봉 스님은 농촌포교에 일찍 뛰어든 경우다. 강원을 졸업한 뒤에 주지 하는 사람이 없으니 동창회를 해인사에서 하다가 삼봉 스님이 주지로 있는 약수암에서 했는데, 삼십명 가까운 대중을 수용할 만큼 도량이 넓고 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다. 모임 다음날에는 신도들 실어 나르는 버스로 거제 해금강까지 태우고 가서는 유람선으로 한려수도를 마음과 눈으로 만끽하게 했다.

이 좋은 도량 약수암이, 삼봉 스님은 어려운 처지의 사람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여린 마음때문에 재정보증을 잘못 서 다른 사람에게 넘어갈 처지에 있다. 처음에는 그 고통스러움을 참지못해 이빨이 솟구치기도 하는 아픔이 있었으나 지금은 예전의 위트와 평온함을 되찾고 정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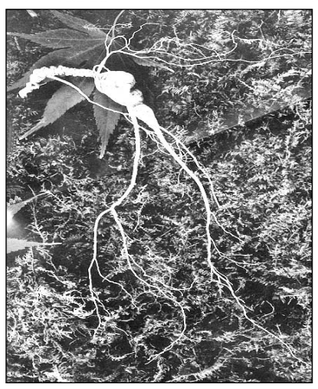
스님은 오라는 곳은 많이 없어도 간절한 목소리 하나 가지고 어디든 거리낌 없이 살아가고 있다. 그런 모습이 나로서는 편안한 도반을 옆에 두고 있다고 생각이 들게 한다. 힘들 때는 서로 의지도 한다. 그래서 나는 삼봉 스님을 만나거나 생각만 해도 마음이 편해지고 즐겁다. 삼봉 스님의 칼칼한 목소리와 보기만 해도 웃음이 절로 나오는 얼굴이 갑자기 보고 싶다. ■ 해인사 원당암

元 · 氣 · 回 · 復 존경하는 분에게 가장 고급스럽고 길이 남을 선물이 될 것입니다.

"최고의 신비스러운 영약" 山蔘 長腦

존경하옵는 스님, 스승님, 부모님과 시험준비에 지친 수험생에게
평생 최고의 값진 선물 최저가격으로 불자님과 인연을 맺고자 합니다.

심마니로부터 산지에서 직접 공급받아 한정된
수량을 전국 어디라도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산삼의 효능

◆ 산삼은 기사회생의 영초로서 옛부터 거의 만병통치의 효험이 있는 영초로 전해 내려왔다.
◆ 당뇨병, 심장병(동맥경화증, 협심증), 위장병, 혈압조절(고혈압, 저혈압), 아편중독, 나병, 암 등 불치병에 큰 효과가 있다.
◆ 신경쇠약, 폐병, 간염, 간경화, 악성빈혈, 신장병, 류마티스, 디스크, 신경통, 노화억제, 원기부족, 성인병, 예방과 치료에 큰 효과가 있다.
◆ 방사선병, 조혈작용, 산후건강회복, 출혈성, 질병, 신진대사 촉진, 비위허약 뇌기능 강화에 큰 효과가 있다.
◆ 정력강화(조루증, 정자결핍, 성욕감퇴, 성기능장애), 냉증, 부인병에도 큰 효과가 있다.
◆ 눈이 밝아지며 어린이는 산삼장뇌를 조금만 먹어도 추위를 타지않고 머리가 좋아지며 저항력이 높은 강력한 체질로 개선된다.
◆ 산삼은 특정 병에 대한 치료도 될 수 있지만 인체의 전반적인 저항력을 높여 건강을 유지시키는 만병통치적 효험이 있다.

尊敬하옵는 스님
오늘도 衆生 求道와 佛功으로 苦行하시는 스님
지치신 몸과 氣力을 山蔘 長腦로 다스려 새롭게 精進하시옵기를 祈願드리오며 山蔘이 높은 가격 부담으로 미처 접할 기회를 못 가지셨던 스님께 報恩에 마음으로 제공해 드리고자 하오니 부담없이 別途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물은 本草에는 上藥 120가지 中藥 120가지 下藥125가지로 모두 365가지의 약용식물이 구분 기록되어 있는데 山蔘은 上藥중의 첫째가는 君藥으로 이 세상의 어떤 약용실물도 모두 아래에 불과하다고 기록되어 있다.

산삼장뇌란?

산삼은 천종, 지종, 인종, 장뇌 4가지로 분류됩니다. 그 중 장뇌란 산삼의 씨를 채취한 후 깊은 산에 뿌려 자연상태로 재배한 것이며 자연산삼에 버금가는 효과를 지니고 있습니다.
격조있는 선물이 될 것입니다.

주문처 서울(02)713-7798, 701-4716

■ 별도상담(자연산삼 보유)
■ 자연산삼 문의상담(심마니 채취가격으로 공급)
■ 산삼이 꼭 필요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

국립농산물품질관리검정필(분석 51160-150)
심 마 당 長腦山蔘

시설물 유지관리 전문건설업 등록업체

古新堂 활성生황토

활성생황토란? 황토와 천연목재 추출 섬유질 및 물만을 사용하여 제조된 활성생황토 반죽은 시공 후 자연건조과정을 거치면서 황토의 복층 구조내에 존재하던 수분이 증발하면서 황토 원래의 기능성을 완전히 회복한다. 활성생황토 반죽은 적정 접착력의 황토 반죽으로서 시공성이 매우 용이하며 미려한 표면과 적정한 구조강도를 갖춘 실내적용 특수내장재이다.

활성생황토의 기능
원적외선 방출, 세포조직을 활성화하여 노화방지, 습도 조절 능력이 탁월하다. (동절기 습도 능력 탁월)
신진대사 촉진, 만성피로 등 성인병 예방에 효과, 천연소재를 이용한 활성생황토는 탈취능력이 탁월

황토가 좋은 점으로써 또한 탈취성능을 들 수가 있는데, 시멘트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강력한 탈취력으로 실내공간의 악취 등을 없애주어 쾌적한 실내 활경을 창출할 수 있다. 본 제품의 암모니아에 대한 탈취능력은 초기농도 179ppm에서 120분 경과후 10ppm까지 농도가 감소하였다.



▲활성생황토로 시공한 내부 모습

이런 분들에게 황성생황토 제품을 ...
• 어린이 아토피성 피부염 • 수험생의 수면부족 및 체력유지 • 두통환자 • 노약자, 산모, 알레르기 환자 • 숙취감 해소



▲활성생황토로 시공된 벽

활성 생황토의 효능
• 건강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제공 • 항곰팡이 효과 • 항균 · 방충 및 냄새 제거 효과
• 원적외선에 의한 혈액순환 촉진(바닥재) • 습도조절 및 단열보온 기능 • 유해전자기파 차단

제품 성상 및 시공방법
• 황토, 나무 및 물을 주성분으로 제조된 친환경 주거환경 개선 내장재
• 우수한 탈취 능력, 습도조절능력, 보온, 단열, 방음능력 및 원적외선 방출 능력이 있는 제품
• 적정 점도의 반죽 상태로 시공이 편리하고 특히 건조 후 표면 갈라짐이 없는 제품
• 용기의 비닐을 제거한 후 교반기를 사용하여 교반, 이때 약간의 물을 첨가하여 점도 조절 가능
• 2~3mm 두께로 초벌 미장 시공 • 2~3일 자연 통풍 건조 • 충분히 건조 후 장판 및 도배

활성생황토시공
• 엄선된 생(生)황토에 나무에서 얻어진 자연성분과 순수한 물만을 사용하여 만들어진 천연 건축용 내장 마감재
• 갈라져 쉽게 떨어져 시공이 불가능하였던 황토, 이제는 도배보다 쉽고 빠르게 특별한 기술 없이도 사용가능
• 콘크리트, 석고보드, 합판 등 구조재 종류와 관계없이 바닥 벽체 천정에 미장 혹은 도장(칠)가능

칠칠工營 合資會社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 냄새제거 시스템시공
세계최초 "通風 되며 防水"시공 · 시설물 유지관리 전문건설업 등록업체
대전시 중구 대흥동 455-2 한비B/D 4층 대표전화 042)2427-007 / 011-9413-6000 / 팩 스 042)2427-009
http://www.ks7700.co.kr E-mail:ceo@ks7700.co.kr


관심만 있다면 무료로 최신영화를 볼 수 있는 곳이 많다. 사진은 평창 월정사에서 영화를 보고 있는 사람들. <현대불교 자료사진>

공짜 영화상영 수두룩 찾아서 즐겨요

주중에는 시간이 없고, 주머니 사정도 시원치 않다. 밀린 잠 뿌리를 뽑을 요량으로 이불 속을 고집하지만, 아이들의 성화가 만만치 않다. 그럼, 돈도 안 들고 주말을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물론 있다. 가족, 친구, 연인들과 함께 '공짜'로 영화를 볼 수 있는 곳이 수두룩하다. 특히 토요일은 '어린이 가족 영화' 중심으로 편성돼 있어 가족주말나들이 코스로 제격이다. 상영작도 볼 만한 것들이 많다. 주로 최근에 개봉했던 인기작을 중심으로 마련돼 관람 기회를 놓쳤던 영화를 보기에 딱 좋다. 또 가족은 물론 알뜰 데이트를 하고 싶은 연인들에게 안성맞춤이다. '공짜' 영화 골라보는 재미. 그 세계로 여러분들을 초대한다. **김철우 기자** in-gan@buddhapia.com

무료 영화 상영하는 곳

일자	상영 시간	영화명	곳	연락처
8월 25일	오후6시 30분	천사의 아이들	서울역사박물관	(02)724-0250
	오후7시	음양사	서울 중랑청소년수련관	(02)490-0214
	오후 8시30분	더캣	대전시 엑스포자동차극장	(042)863-0104
	오후7시	아홉 살 인생	경남 김해 칠곡도서관	(055)330-4581
8월 26일	오후3시	노틀담의 곱추	수원 중앙도서관	(031)228-2725
	오후3시	나의 그리스식 웨딩	대전시 유성도서관	(042)863-0140
	오후 10시	범죄의 재구성	대전시 엑스포자동차극장	(042)863-0104
	오후 8시30분	피터팬	대전시 엑스포자동차극장	(042)863-0104
	오후10시30분	맹부삼천지교	대전시 엑스포자동차극장	(042)863-0104
	오후7시	A.I	대구시 대봉도서관	(053)430-7753
8월 27일	오전12시	오세암	부산시립 서동도서관	(051)522-0456
	오후4시	붉은 대지	서울 가락복지회관 다하소극장	(02)449-2342
	오전10시	케리비안의 해적	LG화학 인테리어 전시장	(02)3442-4825
	오후1시	효자동 이발사	LG화학 인테리어 전시장	〃
	오후3시	페스트 엔 퓨리어스2	LG화학 인테리어 전시장	〃
	오후2~4시	아라한 장풍대작전	서울 강동종합사회복지관	(02)475-4585
	오후3시30분	콜드마운틴	4·19도서관	(02)737-9556
	오후3시30분	해안선	서울 송파도서관	(02)404-7917
	오후3시30분	페이첵	서울 강동도서관	(02)483-0178
	오후1시	옹박	서울 중랑청소년수련관	(02)490-0214
	오후2시	디아더스	일산노인종합복지관	(031)919-8677
	오후7시30분	실미도	분당 한솔종합복지관	(031)716-4215
	오후2시	범죄의 재구성	부천 심곡도서관	(031)320-3470
	오후6시30분	효자동 이발사	부산 양정청소년수련관	(051)868-0750
8월 28일	오후2시	사랑할때 버려야 할 아까운 것들	서울 광진정보도서관	(02)3437-5092
	오후3시	블랙호크다운	국립현대미술관	(02)2188-6068
	오후2시	은하철도999	서울 성북정보도서관	(02)962-1081
	오후3시	센과치히로의 행방불명	서울 어린이도서관	(02)736-8911
	오후2시	동승	서울 양천도서관	(02)2643-3806~7
	오후2시	매트릭스 3	이천시립도서관	(031)644-2066
	오후3시	스튜어트리틀	가평군립도서관	(031)580-2753
	오후3시	더캣	하남시립 도서관	(031)790-6598
	오후2시	브라더베어	안성시립 도서관	(031)676-7942
	오후3시	응용나라로 떠나요	부천 꿈빛도서관	(042)863-0140
	오후2시30분	효자동 이발사	인천시청소년수련관	(032)465-6827~8
	오후 3시	엘도라도	대전시 안산도서관	(042)633-2797
	오후2시30분	바이센테니얼 맨	충남 천안시 중앙도서관	(041)550-2563
	오후2시	실미도	충북 청주시 도서관	(043)299-2103
	오후2시	말죽거리 잔혹사	부산시 사상도서관	(051)310-7971
	오후2시	식스센스	경남 김해도서관	(055)324-9977
	오후1시	쿠모모 나무의 비밀	경남 삼천포 도서관	(055)835-4435
	오후2시	오세암	경남 사천도서관	(055)852-4552
	오후2시	지미뉴트론	경남 진주 진양도서관	(055)761-2722
	오후2시	오즈의 마법사	경남 진주 연암도서관	(055)749-2490
	오후2시	원령공주	대구시 달성도서관	(053)611-4966
	오후2	실미도	울산남부도서관	(052)275-7726
	오후1시30분	엘도라도	울산 울주도서관	(052)264-0772
	오후2시	니모를 찾아서	울산 중부도서관	(052)211-3172
	오후1시30분	모나리자 스마일	전남 목포공공도서관	(061)278-9063
	오후2시	스쿠바 두	북제주군 조천읍도서관	(064)784-6003
	오후2시	믈란	북제주군 한경읍도서관	(064)722-3722
8월 29일	오전 11시, 오후2시	우주소년 아톰1	서울 광진정보도서관	(02)3437-5092
	오후2시	환생	서울 동대문도서관	(02)2254-1844
	오후2시	매트릭스3	서울 은평도서관	(02)385-1671
	오후2시	동물의 신체변화	서울 동작도서관	(02)823-6419
	오후2시	우주소년 아톰1	서울 광진정보도서관	(02)3437-5092~5
	오후2시	아홉 살 인생	인천시청소년회관	(032)887-5770~1
	오후2시30분	페이스	인천시청소년수련관	(032)465-6827~8
	오후2시	날아라 슈퍼보드	인천시 주안도서관	(032)437-5387
	오후2시	포스 오브 네이쳐	인천시 중앙도서관	(032)421-1152
	오후2시	4인용 식탁	인천시 부평도서관	(032)526-9301
	오후2시	인형극 백설공주와 숲속 친구들	부천 중앙도서관	(031)320-2594
	오후2시	헤이 아놀드	부천 꿈빛도서관	(031)320-3411
	오후2시	슈렉	부산시 동구도서관	(051)637-4436
	오후2시	빙우	경남 창원도서관	(055)262-9661
	오후2시	늑대개	경남 창원도서관	(055)281-6921
	오후2시	해리포터와 비밀의 방	경남 양산도서관	(055)385-7003
	오후2시	닥터두리틀	전남 여수시립 쌍봉도서관	(061)690-7241
	오후2시	홍반장	전남 나주시립도서관	(061)330-8360
	오후2시	반지의 제왕 3	강원 춘천시 소양정보도서관	(033)258-6160
	오후 3시	죽은 시인의 사회	대전시 안산도서관	(042)633-2797
8월 31일	오후3시30분	반지의 제왕	서울 강남청소년회관	(02)544-9725
	오후2시30분	코디와 생쥐구조대	안양시립석수도서관	(031)389-3840
	오후2시	벅스라이프	충북 충주시 도서관	(043)847-3826
9월 3일	오후6시30분	도전자 허리케인	부산 양정청소년수련관	(051)868-0750
9월 25일	오후2시	붉은 대지	부산 공창종합복지관	(051)363-2063

공연

비정규직 차별철폐 문화콘서트

실천불교전국승가회(의장 효림, 이하 실천승가회)가 비정규직여성노동자 차별철폐를 위해 문화콘서트를 개최한다.

실천승가회는 전국여성노동조합 서울지부(지부장 박남희)와 공동으로 비정규직여성노동자 차별철폐를 위한 문화콘서트 '희망2004'를 9월 11일 오후 5시 이화여대 대강당에서 개최한다.

실천불교승가회 9월 11일 이화여대서

희망2004는 여성노동자 중 73%를 차지하고 있는 비정규직여성노동자들의 이야기를 담을 예정이다.

행사는 '안치환과 자유' '꽃다지' 등의 노래와 함께 아이들을 위한 놀이방, 여성노동자 100년 사진전, 생활한복 장터 등으로 꾸며진다. 의장 효림 스님은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의 문제는 시급해 해결해야하는 사회적 과제이며 우리사회가 함께 해결할 문제"라며 "여성노동자들이 가정과 직장, 사회의 한 주체로 생활하고 제 역할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02)725-4277 **남동우 기자**

클릭! 불교문화상품 불교전문쇼핑몰 mahamall.co.kr

산호합장주



진주와 함께 바다의 보물로 치는 산호로 만든 합장주. 산호는 고대중국과 인도에서는 콜레라의 예방약으로, 로마에서는 아이들의 이를 튼튼히 하고 천재지변을 막는 부족으로 널리 사용됐다. 현재 산호는 뇌에 쌓여있는 피로물질을 세척하고 시신경을 원활하게 하는 효과가 탁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재질:산호, 크기:6mm, 가격:1만 6천원. (02)732-1520

방송 프로그램

BBS 불교방송 — 서울 FM 101.9 MHZ, 부산 FM 89.9 MHZ, 광주 FM 89.7 MHZ, 대구 FM 94.5 MHZ, 청주 FM 96.7 MHZ, 춘천 FM 100.1 MHZ

05:45 고승열전
09:05 차 한잔의 선율
02:05 네트워크 연결, 전국은 오늘
17:10 무명을 밝히고
18:00 저녁예불
21:30 BBS 초대석
00:00 살며 생각하며

Btn 불교TV — sky-life:161 케이블: 지역방송사 문의

25일 13:10 신영희의 소리한마당
26일 09:20 지운 스님의 기신론 강의
27일 14:30 차문화 산책
28일 08:20 조선불교탄압사
29일 17:30 불교TV 스페셜
30일 11:30 향토음식기행 전통의 손맛
31일 13:10 불교문화 특강

하이라이트

■**불교방송**: 명상음악(8월 28일 토요일 오후 11:25~12:00) 명상음악을 통해 잠재되어 있는 내면의 세계를 관조함으로써 마음의 정화를 이끄는 시간. 매주 토요일 시간에는 뉴에이지, 재즈, 라운지 음악 등 다양한 장르의 명상음악을 감상하는 특별한 시간으로 꾸며진다.

■**불교텔레비전**: 특집 정율 스님의 찬불가 교실(8월 28일 12:00~22:10) 어린이 불자들과 함께 찬불가를 배우는 시간. 울산 정토사, 의정부 회룡사. 대한불교어린이합창단 어린이들과 함께 '고운님 잘가소서'를 배워본다.

게시판

공부합시다

'선으로 푼 금강경' 강좌 서울 공생선원은 9월 7일부터 3개월간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30분, 오후 7시 30분에 '선으로 푼 <금강경> 강좌'를 연다. '우리의 삶이 그대로 <금강경>임을 깨우치게 하는 가르침'이란 부제를 단 이번 강좌는 <금강경>을 통해 모든 불자들이 고정관념을 놓고 밝고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교재는 <금강경오가해>(불광출판사). (02)900-2448

불교기본교육 강좌 서울 조계사는 9월 4일부터 제45기 조계사 불교기본교육생을 모집한다. 매주 화·수요일 오전 10:30, 오후 2시, 7시 등에 진행되는 이번 강좌의 수강료는 5만원. (02)720-1390

기초교리 강좌 서울 금강선원은 9월 6일부터 제19기 불교교리강좌 신입생을 모집한다. 강의는 선원장 혜거 스님의 불교역사, 교리, 의식 집전 등 일반 신행생활에 관련 모든 것을 다뤄진다.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2시 4개월 과정으로 진행된다. (02)445-8484

법화경 강의 영산법화종은 매주 월요일 오후 2시~4시 40분 강원실에서 법화경 강좌를 연다. 강좌는 동국대학교 前 불교학과 이영자 교수가 <법화삼부경>을, 동국대 지창규 교수가 <천태사교의>를 각각 강의한다. (02)762-4922

전통 사찰음식 강좌 한국전통사찰음식문화연구소는 가을철을 맞아 9월 1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웰빙 사찰음식 강좌' 수강생을 모집한다. 3개월 간 열리는 이번 강좌는 음식을 통한 성인병 예방과 치료법, 선식과 보양식 등을 배우는 순서로 진행된다. 모집인원은 30명이며 선착순 접수한다. 강좌를 마친 수강생에게는 수료증도 발급한다. 참가비 40만원. (02)355-596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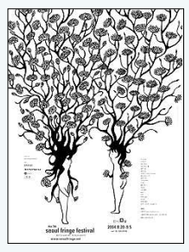
한옥건축 전문인 과정 한옥문화원에서는 8월말까지 '한옥건축 전문인 과정' 5기 수강생을 모집한다. 전문 인력 양성을 목표로 실시되는 이번 강좌에서는 2년간 4학기로 이루어지며 도편수 이광수, 소목장 신용식 등 각 분야 최고의 장인들이 강의한다. 접수는 전화와 홈페이지로 받으며, 강의는 9월 1일부터 시작한다. (02)741-7441

함께 해요

전통놀이 전문지도자 연수 문화마을 들소리(www.dulsori.com)가 전통놀이 전문지도자 연수를 9월 15일부터 19일까지 양산시 청소년 수련관에서 진행한다. 이번 연수과정 수료자들에게는 청소년 지도사 자격검정 응시 시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 2개월을 인정해준다. (02)744-6800

IT전문과정 인천 여성의 광장이 9월 23일부터 12월 23일까지 가을학기 강좌를 진행한다. 과목은 IT전문과정, 어학전문과정, 전문인력양성 과정 등이며 과목에 따라 주2~5회 실시된다. 선착순 마감. (032)815-7101

'서울프린지 페스티벌 2004' 젊은 예술인들의 축제 '서울프린지 페스티벌 2004'(사진)가 9월 5일까지 서울 홍익대 인근 소극장, 라이브클럽, 갤러리 등 20여 공연-전시장 및 야외행사장에서 동시에 열린다. '인디萬발'이란 슬로건으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한국을 비롯해 일본, 홍콩, 싱가포르, 대만 등 7개국 311개 팀이 참여해 연극, 무용, 마임, 음악, 미술, 독립영화 등 총 361회의 공연과 전시를 선보인다. (02)325-8150



노래 함께 해요 서울 회룡사는 합창단 소녀소년 룸비니와 성인부 회원을 모집한다. 지원은 노래를 좋아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가능. 단연심 단장 011-9085-3151

가족사진 찍어요! 경북 경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은 9월 3일까지 가족의 따뜻한 사랑과 화목을 뽐내는 사진전을 연다. 규격은 4×6cm 이상. 수상자 발표는 9월 8일. (054)776-7522

독립영화제 수상작 무료 온라인 상영 '한국영화의 풀뿌리, 독립영화에 관심을.' 한국영화발전의 기초인 독립영화를 무료로 볼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다. 한국영상자료원과 서울독립영화제는 서울독립영화제 2003 수상작 중 7편을 10월 24일까지 한국영상자료원(koreafilm.or.kr)과 서울독립영화제(siff.or.kr) 홈페이지를 통해서 무료로 상영한다.

즐겁게 떠나요

무주 반딧불이 축제 전북 무주 남대천 수변공원과 한풍루 어울터 등에서 '무주 반딧불이 축제'(사진)가 8월 28일까지 열린다. '자연이 좋다, 반딧불이와 함께'를 슬로건으로 내건 이번 축제에서는 친환경 농산물 품평회, 전통 공예, 음식대전, 반디컵 어린이 축구, 환경 마라톤 대회 등의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된다. (063)320-2661~2



20면 상식퍼즐 정답

무	영	탑		괘		
재		신	토	불	이	
칠			말		차	
시	봉				돈	황
	암		가			룡
	사	교	입	선		사
		조		시	유	지

불교귀농학교 15기 교육생 모집


14기 불교귀농학교 참가자들과 수료생들이 모내기 심기 현장교육을 받고 있다.

'불교와 귀농'. 그 구체적인 모습이궁금하다면, 인드라망생명공동체가 마련한 불교귀농학교의 문을 두드려보자.

인드라망생명공동체는 9월10일~11월26일 매주 화·금요일 오후 7시 조계사 교육원에서 '제15기 불교귀농학교' 교육생을 모집한다. 교육은 '왜, 아직도 귀농인가', '귀농과 여성의 삶', '귀농해서 아이 키우기', '농업이 무너져도 살 수 있을까' 등 귀농에 관련된 이론과 체험으로 진행된다. 또 실상사지역공동체 및 강원도 횡성 현장학습 등도 이뤄진다. 참가비는 10만원. (02)737-6181

이혼 예방주사 놓아 드려요

(사)한국여성불자회 중앙본부는 이혼 예방을 위한 전문상담가 교육생을 모집, 불교적 이혼 예방책을 교육한다. 일정은 9월 16일~11월 3일까지 인사동 연꽃 교육장에서 총 90시간 진행된다. 교육내용은 △한국 가족의 특성과 가족문제(9월 16일, 17일) △아내 학대 발생과 원인 분석(9월 23일, 24일, 10월 8일, 9일) △현대사회의 변화와 가정위기(10월 5일, 15일, 16일, 22일) △건강한 가족제도 및 치교(정신치료) 상담(10월 13일, 25일, 22일, 30일) △가족문제 상담 및 역할학습(10월 27일, 11월 1~3일) 등으로 이뤄진다. 접수마감은 8월 26일부터 9월 16일까지. (02)738-5586

신행수기

작은 정성이 큰 사랑으로 〈상〉

유경남 (71 · 용인시 기흥읍)

1981년 2월 그해 학년 말에 나는 27년간의 긴 교직생활을 마감하고 전업주부로 돌아가기 위해 다니던 학교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그동안 5남매의 자녀들이 성큼성큼 자라서 해마다 반복되는 상급학교 진학문제와 어느 새 훌쩍 커서 이제는 혼인 적령기가 가까워진 큰 아이들의 혼사문제 등을 차분하게 들어앉아서 하나하나 정리해 나가기 위해서였다.

돌이켜보면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기만 했던 지난 세월이었다. 이젠 시간적인 여유가 좀 있어서 오랜만에 읽고 싶었던 책도 읽고 명상도 해보고 가끔 등산도 하면서 새록새록 떠오르는 지난날의 추억 속을 헤매이기도 했다.

아주 오래전 경주로 수학여행 갔을 때 불국사와 석굴암을 견학하면서 경내의 목탁소리에 맞춰 은은히 흘러나오는 스님의 독경소리에 이상하리만치 가슴 벅찬 환희를 일으켰던 기억이 되살아나기도 하였다.

나는 등산할 때마다 산사에 들러 스님의 법문도 듣고 법당에 들어가 참배도 드렸다. 나는 신도카드를 만들고 불자가 되어 절에 다니기 시작하였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기 위해 곧바로 불교교양대학에 입학해 불교 공부를 시작했다. 그때 무진장 스님이 종종 오셔서 법문을 하셨는데 '초발심시변정각(初發心時便正覺)'이란 <법성게>에 나오는 한 구절을 가지고 법문하실 때 처음 발심할 때가 바로 부처를 이룬 때라고 하셨다.

나는 절에 다니면서 열심히 기도도 하고 불경도 외웠다. 가끔 큰스님의 법문도 듣고 새로 사귄 도반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니 내 눈앞에는 지금까지와는 달리 더 크고 넓고 광활한 세상이 전개되면서 활동 영역이 무진장 넓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게 되었다.

아직은 사성제가 무엇인지, 육바라밀이 무엇인지도 잘 모를 때였지만 스님의 법문 중에서 이타행(利他行)이란 낱말이 내 머릿속에 들어와서 나에게 채찍질을 하며 떠나지를 않았다.

"남을 이롭게 한다?" 골똘히 생각하다가 문득 자원봉사가 생각났다.

어떤 방법으로 할까? 궁리를 하면서 앞뒤를 살피다가 교육자 가족들로 구성된 봉사단체(상록회)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당시 남편은 모 고등학교 교장선생님으로 재직 중이어서 나는 자연스럽게 그 단체에 가입해 봉사활동을 같이 할 수 있게 되었다. 남편은 천성이 외골수인 분이라 내가 봉사 활동을 하려면 남편의 이해가 꼭 필요했다. 그래서 우선 남편도 불교를 알아야 한다고 생각해 독서를 좋아하는 그에게 이광수 소설 <원효 대사>란 책을 사다 머리맡에 두었다. 의외로 재미있게 읽는 남편의 모습을 보고 그때부터 계속해 불경을 비롯한 큰스님 법어집 등을 많이 구입해 주었다.



그림 · 김흥인

어느 정도 불교를 이해하고부터는 쉬는 날이면 나와 같이 절에도 나가고, 시간이 있으면 가부좌를 틀고 앉아서 참선을 했다.

나는 곧바로 그 단체(상록회)에 동참하여 여러 선배들과 함께 자원 봉사를 했다.

상록회의 활동 분야는 매월 정기적으로 날짜를 정해 놓고 회비를 모아 고아원과 양로원을 찾아가고 내복도 사다주고 위로와 격려를 해주고 오는 일이다.

다음은 국군 통합병원, 보훈병원에 가서 수술실에서 쓰는 거즈를 접는 일, 우리 손이 필요한 일을 도우며 가끔 과일도 사다 나눠주며 위로를 해 드린다.

나는 누구를 돕는다는 일이 이렇게 보람있고 즐거운 줄을 미처 몰랐다. 봉사하는 횟수가 늘어날 수록 점점 매료되어 달력을 보며 그 날짜를 기다리는 정도가 되었으니 말이다.

그 밖에 상록회에서는 서울시 교원 유자녀 학생의 장학금과 체육선수 육성 지원을 위한 기금마련 바자회를 여러 해 실시하여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재활용품을 이용하여 회원들이 손수 만든 공예품도 팔고 집에서 쓰지 않는 물건들을 가지고 와서 알뜰시장도 열어 기금을 마련, 교육자유자녀 장학회를 설립했다. 유자녀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면 그 가족으로부터 눈물로 얼룩진 감사의 편지도 받았다.

1984년 4월 13일 서울시 교육감으로부터 교육가족으로서 귀감이 되는 활동에 헌신, 수도교육발전에 기여했다는 내용의 감사장을 받았다.

1983년부터는 서울대학교 병원에서도 봉사를 시작했다. 우리가 맡은 일은 국군통합병원과 같이 중환자 수술실에서 필요한 거즈를 접는 일이었다. 중환자실에 입원한 환자들은 대부분 목숨이 경각에 달린 분도 많았다. 우리 회원들은 진심으로 그 분들의 쾌유를 기원하며 일에 임했다. 이렇게 변함없이 10여 년간 고락을 같이 하며 봉사활동을 하는 상록회 회원들이 이제는 연세도 많이 들고 남편들의 정년퇴직과 함께 뿔뿔이 헤어지고 현재는 단 4명만 남게 되었다.

우리는 건강이 허락하는 한 일을 계속하자고 다짐을 하면서 다시 일할 사람을 찾아보았다. 그 당시 나는 다니고 있는 절에서 신도회장직을 맡고 있었는데 예불이 끝나고 주지스님께서 회장으로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하라고 시간을 내주셨다.

나는 거기에서 신도들에게 자원 봉사의 필요성과 의의에 대해서 힘을 주어 이야기했다. 그랬더니 다들 의외로 반가워하면서 봉사를 하고 싶어도 기회가 닿지 않아 못했다는 사람들이 많아 이래저래 37명의 회원이 모이게 되었다. 또 그 회원들과 친히 지내던 도반들까지 동참하여 몇 달 안에 70여명의 회원이 모이게 되었다. 그때부터는 칠봉회(七奉會)라는 이름 아래 회장으로 선출이 되어 많은 회원들을 인솔하게 되었다.

칠봉회의 뜻을 간단히 설명하자면 매월 7일, 27일을 정해놓고 봉사하는 날이란 뜻이다.

이제는 명실공히 서울대학병원 봉사팀 중에서가장 많은 인원으로 구성된 자원봉사 팀이다. 우리는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열심히 봉사를 하였다.

1992년 연말 평가회에서 오랫동안 자원봉사자로 환자 진료에 공로가 크다며 서울대병원장으로부터 감사장을 받았다.

우리가 하는 일에 큰 보람을 느끼며 나는 불교를 좀 더 체계적으로 배우기 위해 한국불교법사대학에 입학했다.(계속)

"남을 돕는게 이렇게 즐거운 줄 몰랐네"

신행수기 일년내내 받습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가슴속에만 꼭꼭 담아두었던 감동깊은 신행체험들을 진솔하게 적어 보내주십시오. 연중 접수한 신행수기 가운데 우수작은 소정의 고료를 드리고 신문에 연재하며, 연말에 최종 심사를 거쳐 시상합니다.

- 주제: 신행 및 수행 체험, 불심으로 고난을 이겨낸 이야기
- 분량: 200자 원고지 30매 안팎(A4용지 4장)
- 접수처: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편집국 신행수기 담당자
- 문의 전화: (02)722-4162
- 인터넷 접수: thatiswhy@buddhapia.com

릴레이 수행일기 〈상〉



정상현
춘천시청 지적과장

어머님께서는 절을 다니셨지만 내 자신이 스스로 사찰을 찾은 것은 관람을 제외하고는 없었는데, 1993년 지역신문에 난 불교대학 수강생 모집 광고를 보고 춘천 석왕사를 찾은 것이 계기가 되어 본격적인 신행이 시작됐다.

불교란 무엇인가 하는 호기심으로 출발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12년이란 세월이 흐른 지금까지 강의를 매주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해 왔다.

되돌아 보니, 큰스님들과 교수님들의 말씀을 듣고 '알음알이'는 많아진 것 같은데 막상 불자로서 생활을 살펴보면 어느 것 하나 내 보일 게 없는 것이 사실이다.

물론 보이기 위해 불자의 길을 가는 것은 아니지만, 그간 강원불교대학 4기 학생회장, 동 대학 3대 총동창회장 소임을 시작으로 나름대로 신행에 매진해 왔다. 하지만 현재 맡고 있는 춘천시청 불자모임인 '도반회' 회장과 지역사회 친구를 주축으로 2003년말 결성한 춘천 '불이회'까지, 과시하기 위한 일만 앞장서고 있는 내 모습과 마음을 보며 어쩔 수 없는 속물일 수 밖에 없다는 사실에 부끄러운 마음 뿐이다.

갈등·스트레스 많은 민원업무 36년
'천수다라니' 독송으로 평상심 추구

<금강경>에 '상(相)을 없애면 여래를 보리라' 는 말씀과 금강경 사구게만이라도 수지독송하고 타인을 위해 알리면 보시 공덕이 무량하다는 말씀에 위안을 삼으며, 불자의 길을 가려고 정진하고 있다.

필자의 담당 업무 특성상 민원인(토지 소유자)과 직접 마주하는 일을 36년 동안 해 오면서 일터가 바로 수행도량임을 실감하고 있다. 재산권이 관계되는 일로 문제가 발생하면 한 치의 양보가 없어 힘들 때가 한 두번이 아니다. 이런 갈등이 세월이 감에 따라 증가하고 있는 추세여서 공직수행상 심적인 부담이 적지 않았다.

2년전 관내 사찰 주지스님의 말씀에 따라 <천수천안 백천 대다라니 경>을 독송하고 일과를 시작하고 부터는 어려운 문제가 발생해도 큰 탈없이 원만하게 해결 됨을 느낄 수 있다. 또 급한 성격 때문에 사리에 맞지 않는다 판단되면 화를 그대로 표출하는 버릇도(나이를 먹은 것도 한 원인이 되겠지만) 어느 때부터인지는 몰라도 많이 수그러진 내 모습을 볼수 있다.

법문보다는 강의로 불법에 입문한 관계로 스님들께서 강조하시는 신(信) 해(解) 행(行) 증(證) 전체 보다는 '해'에 중점을 두고 공부 한 것이 사실이었다. 누가 종교를 물을 때 불교라고 떳떳하게 대답하게 되기까지도 3년여 기간이 소요됐을 정도로 잘 알지도 못하는 얄팍한 지식으로 믿음(신)에 대해 거부감이 있었던 것 또한 숨길 수 없다. 불법에 귀의하고 달라진 점, 아니 의식적으로 변화 하려고 한 점은 성 안내는 얼굴과 언행으로 지역주민, 직장 동료, 친구들을 막론하고 누구든 차별하지 않으려 한 점이다. 기회 있을 때마다 직원들과 도반회원들에게 공무원이라는 직분이 돈은 벌지 못하더라도 생계를 해결하면서도 생활 자체가 보시행을 할 수 있는 좋은 직업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선 자리에서 주인되어 진리를 실현하라'는 '수처작주 입처개진(隨處作主 立處皆眞) '을 실천해 줄 것을 요청하며 실천에 옮기고 있다. 개인적으로는 짬짬이 <반야심경><법성게><천수경> 등을 사경하는 것이 마음의 평정을 갖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이제 출범 4년에 접어든 지금, 8명으로 출발해 70명이 넘는 인원으로 증가한 춘천시청 도반회와 직장 밖 친구들과 결성한 '춘천 불이회'를 활성화 해 지역사회 발전과 불법 홍포에 이바지 하고자 한다. (계속)

불기 2549년을 맞이하여 원일카렌다에서는 참신한 기획과 디자인으로 2005년 카렌다를 불자님께 널리 보급하고자 제작 하였습니다.

카 렌 다

2005년 불교카렌다 출시



15년 전통 최고의시설 최상의제품

후회없는 선택! 원일카렌다!

* 1,000부이상 주문시 표지그림으로 귀 사찰을 넣어서 인쇄를 원하시면, 무료로 해드립니다. (사진 또는 필름사용 가능)
* 각 사찰카렌다 독판을 저렴하게 제작하여 드립니다.
* 문의사항 전화주시면 카다록을 보내드립니다.

원일문화사
FINARTTREE
서울시 중구 인현동 1가 38-8
TEL:02)2277-0304
FAX:02)2268-6732
Homepage:www.wonil-c.co.kr

대구 대승불교대학 정토사 부설 불교의식 대학

제2기 불교의식 (범음 · 범패)

수강생 모집

9월 7일(화) 개강

본 대학은 대승불교의 수행 이념을 전파코자 설립한 교육기관으로서 갑신(甲申)년에 경전 강의와 함께 불교의식반 신입(수강)생을 모집합니다.

과 정

가 초급반 (3개월) : (매주 : 화요일 오후 2시 ~ 4시)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기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향수해례, 행선축원.
신중청, 관음기도법, 산왕기도 ...

나 중급반 (3개월) : (매주 : 화요일 오후 2시 ~ 4시)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시다림법, 점안의식, 방생의식, 구병시식

다 작법반 (6개월) : (매주 : 화요일 오후 4시 ~ 6시)
천수바라, 다게작법, 오공양작법, 요잡바라, 삼귀의작법
(일명 바라 나비춤)

라 고급반 (6개월) : (매주 : 수요일 오후 2시 ~ 6시)
영산재, 예수재, 수륙재 등... (희망자 소수)

대구대승불교대학 부설 범음 · 범패 의식교육원 · 정토사

신청 문의 대구광역시 달서구 송현동 1914-5 (월촌역4거리)
전화 : 053)622-0333 / 011-699-9120

※ 가야산 청정도량에서 철야기도는 매주 토요일 저녁 9시부터 정진하오니, 불자님들의 업장을 소멸하고 소원성취 이루시길 바랍니다

승복 법복 안내

확실한 품질 · 만족할 가격

1. 고급 모직(물세탁)
적삼, 바지 150,000 동방, 바지 190,000
두루막 140,000

2. 면,광목(먹물, 손염색)
적삼, 바지 100,000 동방, 바지 130,000
두루막 100,000

3. 면레프사(먹물염색)
적삼, 바지 150,000 동방, 바지 170,000
두루막 140,000

4. 무명(먹물, 손염색)
적삼, 바지 180,000 동방, 바지 220,000
두루막 180,000

5. 마 : 한국산 100% (먹물, 손염색)
적삼, 바지 140,000 동방, 바지 160,000
두루막 140,000

6. 장삼 고급모직 200,000
경남제일모직 250,000

7. 가사 대가사 150,000 / 반가사 70,000

◆ 유사제품과 비교해 보십시요 ◆

전화주시면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치 : 대구 중구청 뒤편 [동삼아파트 지하 공장] (지역판매점 모집)

30년 전통의 승복 전문 업체 원방각

아름승복

전시장 : 053-256-0108
공 장 : 053-425-4449
휴대폰 : 016-597-4449
011-809-2398

주소 : 대구광역시 중구 동인 3가 88번지 (동삼아파트 지하 공장)

눈만 보면 압니다
"관상과 氣 명상으로 앞날을 밝힌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마음대로 세상을 살아가지 못한다. 그것은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그것을 미리 알고서 세상을 살아간다면 열린세상이 될 것이다.

스님은 지나온 세상과 또한 미래에 전개되는 앞날의 일을 밝힌다.

사람의 운명 속에는 행운과 액운이 있음을 알아야 하며 또한 불행한 운명이 계속해서 끊이지 않는 중생은 그 불행한 운명이 자신의 몸속에서 떠나야만 그 고통이 사라지는 것이다.

관음사는 아프고 고통받는 중생들이면 누구나 찾아와서 스님과 상담하고 기도하는 법당이며 스님은 삶의 굴곡을 겪고있는 모든 중생들에게 그 답답함과 고민을 스님의 도력으로 그 불행한 운을 퇴마시켜 시원하게 풀어주고 그 해결책을 제시해 줍니다.

- 굿을해도 소용없고 이곳저곳 어느곳에 가서 점을 봐도 답답하고 시원치 않는 분
- 집안에 우환이 끈이지 않고 부부나 부모자식간에 원진이 끼어 서로 같이 살면서도 고통속에 살며 자식이 결혼운이 없어 고생하시는 분
- 집터나 가게터가 장사가 안되고 매매가 안되 궁금하신 분
- 인생의 성공과 실패 시험결과, 사업의 시작과 끝 즉 자신의 사주에 들어오고 나가는 운이 궁금하신 분
- 신들림으로 몸이 아프거나 실성하고 헛소리나 행동을 하는 사람

석가모니부처님도 인연없는 중생은 제도를 못했다합니다.
아직 인연이 닿지않는 분들 혼자서 고민말고 바로 전화 주십시요.
조상천도 낙태아천도 병고를 가져오는 객귀풀이를 돈이 많이 들어 망설이시는 분 연락주시면 보시하는 마음으로 성심으로 봉행 하겠습니다.
천도란 첫번째는 3악도에 떨어져 있는 가장 어려운 중생을 구제하고 두번째는 인간몸을 받았지만 뭐든지 되는 노릇이 없고 내뜻에 맞지 않는 곳에 사는 것입니다.
천도란 자기소원을 이루고 가지가지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스님을 친견하면 큰 힘을 얻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서울 광진구 광진사거리 용암사 주지 고봉 합장
전화 011-715-6333
불사에 어려운 스님 사주통변비법과 기공과 명상으로 영가천도를 하는


칠석등 제작하는 모습.

차 올리며 풍요·화합 기원

견우와 직녀가 일년에 한 번 만난다는 칠월 칠석(양력 8월 22일)을 맞아 전국의 차회에서 다양한 칠석다례를 열었다. 칠석에 차를 올리는 의미는 무엇이고, 우리 차계에서는 어떤 행사가 열리고 있는지 살펴본다.


다례에 앞서 손을 씻는 차인들.


문경다례원의 행다 시연.


문경 칠석 차문화 축제에서의 춤 공연.

▶ 불교와 칠석

토속신앙이 불교화된 사례
불가 칠석 정진법회등 열어

칠석은 세시풍속이 불교화 된 것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다. 칠석은 일월성신 신앙, 특히 칠성(七星)을 신앙하던 토속신앙이 불교와 습합된 전통신앙으로, 불가에서는 이날 '치성광 부처님'께 정성어린 공양을 올리는 날로 전해진다.

따라서 칠석에 성대한 재를 열어 업장소멸을 기원하고 이는 7일 뒤인 우란분절까지 이어진다. 조선 말기까지만 해도 칠석날 전국 사찰에서는 재를 올렸다고 한다. 칠석재에서는 부처님의 자비를 구하고 중생들이 성불할 수 있도록 이끌어 달라는 내용의 기도 내용이 덧붙여진다.

이날 각 가정에서는 밀전병과 햇과일 등을 차려놓고 칠석을 맞았다. 또한 부녀자들은 장독대 위에 정화수를 떠놓고 가족의 건강과 집안의 평안을 빌기도 했다. 이러한 풍습이 불가의 수행법과 어우러져 칠석 정진법회 등으로 자리 잡게 됐다.

칠석을 맞아 칠석 다례재를 여는 차회도 점차 늘고 있다. 문경다례원(원장 고선희)이 지난 97년부터 개최하고 있는 '문경 칠석 차문화 축제'는 가장 널리 알려진 칠석다례 행사다.

21일 문경새재 야외공연장에서 열린 '제8회 문경 칠석 차문화제'에는 800여 명의 차인과 지역민들이 참가해 칠석의 의미를 되새겼다. 이날 행사에서는 칠석등 달기와 찻사발 품평회, 칠석다례, 두리차회 등이 펼쳐졌다. 또한 지난해에 이어 차인 소장 작품 100여 점이 선보여 참가자들의 눈길을 끌었다.

고선희(48) 원장은 "만남과 기원의 의미가 깃들어 있는 칠석다례는 민간에서 뿐만 아니라, 불교의 칠석다례와 궁중의 칠석다례에서도 그 기록을 찾아 볼 수 있다"며 "까마귀와 까치에 의해 소중한 만남이 이루어진다는 칠석날 차를 매개로 과거와 현재, 지역과 지역, 사람과 사람이 만나 훈훈한 정을 나누고 자비의 마음을 갖게 되기를 바라는 뜻에서 칠석다례를 개최하고 있다"고 말했다. 97년 '문경 차문화 축제'로 개최되기 시작한 이 행사는 4회 때부터 '문경 칠석 차문화제'로 이름이 바뀌어 이어져 오고 있다.

명원문화재단(이사장 김의정)도 매년 칠석다례를 열고 있다. 명원문화재단은 8월 25일, 올해부터 위탁운영을 맡고 있는 운현궁에서 칠석다례를 열 예정이다. 김의정 이사장은 "농사와 길쌈 등 우리의 전통문화를 나타내는 칠석에 차를 올림으로써 풍요와 화합을 기원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칠석다례의 의의를 밝혔다.

이 밖에 보천다회(회장 지민)와 부산의 동다송문화회(회장 박수자), 관정다도원 등도 칠석을 전후해 칠석다례를 열어 만남과 화합의 장을 마련했다. 여수령 기자

▶ 칠석 다례

문경다례원·명원문화재단 등
전국 규모의 차 축제로 발전


다기 품평회. 사진제공=월간<다도>.



'Tea Museum' 개관

롯데백화점이 8월 18일 서울 소공동 본점 식품매장에 세계 각국의 차 문화를 한 곳에서 경험할 수 있는 '티 뮤지움(Tea Museum)'을 개관했다(사진). '티 뮤지움'은 서울 압구정동에 본점을 두고 있는 차 전문 판매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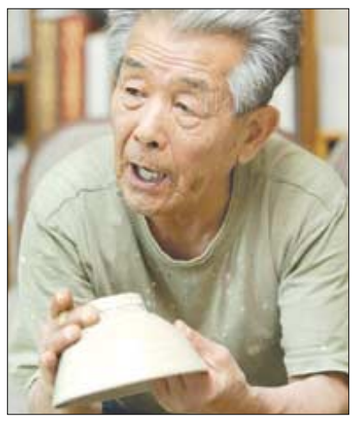
롯데백화점 지점에서는 중국과 대만, 홍콩, 영국 등에서 수입한 보이차와 우롱차 홍차, 카모마일 등 50여 종류의 차를 구비하고 매일 2~3가지 종류의 시음회를 연다.

식품매입팀 조창주 계장은 "최근 웰빙 열풍을 타고 일반인들이 차에 대한 관심이 높아 차 전문 매장을 마련하게 됐다"며 "건전한 차문화 확산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02)515-2350

천한봉 명장 첫 개인전

도예 명장(95-19호) 문경요 천한봉(72·사진) 대표가 9월 9일부터 8일간 대구시 대덕문화전당에서 첫 개인전을 연다. 우리 찻그릇의 계보를 이어오고 있는 천 대표가 개인전을 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천 대표의 대표적인 찻사발 작품과 일본 황실의 주문을 받아 제작한 화병 등이 선보일 예정이다. (053)622-0703 여수령 기자



석왕사 찻집 '다인', 장애인 다도 교육 현장

몸은 힘들어도 표정만은 진지


시흥 장애인종합복지관 '여름학교'에 참가한 어린이들이 석왕사 찻집 '다인'에서 자원봉사자의 도움을 받아 차를 우려내고 있다.

"여기가 어디야?" "얘들아 신발은 벗고 들어가야지!"

8월 16일 오전 11시. 평소 조용하기만 하던 부천 석왕사의 찻집 '다인'이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시끌벅적하다. 사회복지법인 석왕사 룸비니(이사장 영담)가 운영하는 시흥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여름학교'의 일환으로 다도교육을 받기 위해 찾아온 것이다. 아이들 9명과 자원봉사자 8명이 들어서자 찻집은 순식간에 꽉 찬다.

사회재활팀 이구호 팀장은 "요즘 차에 대한 관심이 높지만 아이들이 실제 차를 접할 기회가 거의 없다"며 "직접 차를 우려 봄으로써 정서순화에 도움이 될 것 같아 다도교육을 기획했다"고 말한다.

이구호 팀장 "정서순환 도움 위해 기획"
나누는 행위 통해 성취감·공감대 형성

하지만 수업은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엉망'이 되어가고 있었다. 한 아이가 배가 아프다며 훌쩍훌쩍 울자 덩달아 또 한 명이 큰 소리로 울기 시작한다. 또 한편에서는 다구 손잡이가 부서지는 불상사(?)가 일어나기도 했다. 잠시 난감한 표정을 짓는 '다인'의 오숙 사범과 사회복지사들. 과연 다도 교육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까?

어수선한 분위기를 정리하고 나서야 다도 수업이 시작된다. 선생님의 설명에 따라 다포를 걷자 아기자기한 모양의 다구들이 나타난다. 처음엔 심드렁한 표정이던 아이들이 이것저것 만져보며 "이건 뭐하는 거예요?"라고 물어본다. 일단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데는 성공한 듯 보였다. 다구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 이어지고 본격적인 다도수업이 시작됐다. 숙우(물식힘사발)에 물을 따르고 그 물을 다시 잔에 따른다. 보통 사람들이라면 쉽게 할 수 있는 동작도 이들에게는 온 힘을 다해야 가능한 일이다. 바닥에 물이 흐르고 다구가 흐트러져도 아이들은 시종 진지한 표정이다.

정신지체장애 3급인 곽상익(12)군은 맹보라(24) 학생의 설명에 집중하며 곧잘 따라해 선생님의 칭찬을 독차지했다. 다구도 척척 제자리에 놓고 차도 적당하게 덜어 탕관에 넣는 모습이 제법 의젓하다. 자신이 우린 차를 마시며 연신 "맛있다"를 연발하던 상익이가 차 한 잔을 들고 벌떡 일어나 선생님에게 다가간다. "선생님도 차 마셔요." 1시간 동안의 수업 시간 내내 긴장했던 오 사범의 얼굴에 미소가 번진다.

오 사범은 "차를 우려내 주위 사람과 함께 나누는 행위를 통해 자아 성취감을 가질 수 있다"며 "한 달에 한 번 정도 차를 대하는 시간을 가진다면 아이들의 정서순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한다.

교육을 마친 후 자신이 우린 차를 물통에 담아 들고 찻집 문을 나서는 아이들. '좋아요' '싫어요'라는 단순한 말로 밖에 표현하지 못하지만, 이 아이들에게 차는 다른 이들과 소통하는 또 하나의 통로가 될 것이라는 예감이다.

한편 이날 사용된 차는 인사동 동방예술사(대표 여지악)에서 무료로 보시해 다도교육의 의미를 더했다. 여수령 기자

※ 기사 넘쳐 이번 주 '우리 사찰 차모임'은 쉽니다.

2003년도 불교역사를 한눈으로 『현대불교신문 합본 9집』 발간

현대불교신문 2003년 합본집은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상,하 두 권으로 나누어 제작되었으며, 2003년부터 호당 32면으로 증면되어 더욱 풍부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현대불교신문 합본집은 큰스님 법문, 이해하기 쉬운 불교교리, 생활의 지혜, 불교문화자료 등이 수록되어 있어, 불자님들에게 더 없는 불교의 길잡이가 될 것이며, 스님들에게는 수행의 반려자가 될 것입니다.



■ 구입 안내
- 구성 : 상권 2003년 1월(402호) ~ 6월(427호)에 발행된 현대불교신문
  하권 2003년 7월(428호) ~ 12월(453호)에 발행된 현대불교신문
- 판형 : 신문원형 그대로 (40cm×55cm)
- 절차 : 신청 → 입금확인 → 발송
- 가격 : 상하권 총 80,000원
- 입금계좌(예금주 현대불교신문사)
  국민 245-25-0001-461 | 농협 053-01-236053 | 우체국 010041-01-010042

■ 주문 및 문의
- 전화 (02)737-0090(直) (02)737-8881(代) | 팩스 (02)737-0697
- e-mail : sclee@buddhapia.com
  현대불교신문사 경영관리국 관리부

■ 지난 호 구입가격은 60,000원(발송비무료)입니다.
지난호는 1998년도, 2000년도, 2001년도, 2002년도 합본이 신청가능합니다.
재고가 많지 않으므로 빨리 신청하세요





대행스님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쭈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 인터넷: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 선원 ● FAX: (031)470-3116

내면의 용광로에다 모든 것을 맡겨 놔라

한마음의 눈빛이 서로 왕래할 수 있는 자리가 돼서 참 감사합니다. 엊그저께 오며 가며 텔레비전을 보니까 요즘뿐만은 아니겠지만 장애자들이 많이 태어난다고 합니다. 장애자들이 나오는 것에 대해 우리가 꼭 알아둬야 할 일이 있다고 봅니다.

항상 말씀드리기를 내면의 용광로에다가 모든 것을 맡겨 놔라 이랬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입력이 돼 있기 때문에 현실에 그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온 것이니까 제자리에다 돌려놓으면 바로 과거에 입력된 게 없어집니다. 그런데 과거에 입력된 그 자체가 그대로 팔자 운명으로 나온다면 십중팔구 그런 문제들이 대두될 겁니다. 그 일뿐만은 아니겠지만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마음 장난이다. 살아온 관습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생활 자체가 모두 마음에 달려 있다. 그러므로 마음의 용광로에다 되돌려 놓는다면 자연적으로 자동적으로 다시 생산이 돼서 나가는 거는 정한 이치다 이겁니다. 인과의 유전성이라든가 업보성이라든가 세균성, 영계성 이 문제도 모두가 다 거기에서 발생되는 것이니까 어떠한 일이 있어도 모든 것은 거기에다 되돌려 놔야만이 그 문제들이 다 해결되고, 앞서의 입력된 게 다 해결되기 때문에 현실에 생각하는 대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의학적으로 볼 때에도 그렇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모두가 '어디서 잘못됐느냐, 어디서 잘못됐느냐?' 하고들 야단들이지만 그것은 바로 한 군데서, 즉 말하자면 가던 길에서 엎어졌기 때문에 허공을 아무리 허우적거려도 그것은 일어설 수가 없는 겁니다. 단 엎어진 그 자리에서 그 땅을 짚고 일어날 수 있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뜻에서 젊은 사람들이나 또 자라나는 새싹들에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도 절대적으로 이것은 해결이 돼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장애자들이 외국으로도 가게 되고 또는 한국에서도 대처할 수가 없어서 애를 쓰고 그러는 거를 볼 때, 이것이 어디에서부터 어떻게 돼서 그렇게 됐는지 그거를 알아야 그렇게 안 되도록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창창하게 살아나갈 분들도 계시겠지만 연세가 들어서 노인네다 할지라도 지금 모습이 노인네지 마음이 노인네가 아닙니다. 어린애고 어른이고, 젊었고 늙었고 간에 마음은 그대로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옷을 벗고 또 다시 나올 때에 그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여하간 모든 것은 우리가 세상에 나왔으면 이름 그대로 만물의 영장이라는 소리를 실천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런 실천이 없이 이론으로만 알고, 학설로만 알고, 지식으로만 알고 무슨 공자, 맹자 소리나 해서 그게 되는 게 아닙니다. 팔만대장경을 외로 꿰고 바로 뀐다 하더라도 한 번의 실천만은 못한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실천궁행하는 것을 가르치셨지 말을 배우라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절대적으로 이 도리를 알아야 하겠기에 그냥 갈 수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냥 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왠 줄 아십니까? 자기가 뿌려놓은 자식들도 그렇고, 또 뼈와 살을 빌려서 낳아준 부모들도 그렇고, 역시 그 은혜를 백분지 일이라도 천분지일이라도 갚으려면 이 도리를 알아야만 합니다. 한생각 잘못해서 장애자가 나온다 한다면, 그것은 장애자뿐만 아니라 그 가정의 식구들도 전부 장애자가 되는 것입니다. 육신장애자보다도 정신장애자가 모두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도 장애자가 태어났으면 부모가 기르다가 부모가 죽으면 누가 맡습니까? 그리고 또 장애자를 낳으면 모두 갖다 버린다고 합니다. 버리면 그 모습만 갖다 버렸을 뿐이지 그 인과의 유전은 절대로 버려지지가 않습니다. 그 대에 그렇게 됐으면 또 그 다음 대가 있고, 2대가 아니면 6대, 7대 이렇게 해서 빨리 나오는 게 있고, 더디 나오는 게 있고 이럴 뿐이지 그것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도 그런 아이들이 더러더러 웁니다마는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어딨느냐 하면 과거에 인과로서의 유전이 된 그 자체가 바로 녹아지기 때문입니다. 이 모두를 생각할 때 하나하나, 장애자를 낳는 것뿐만 아닙니다. 그래서 왜 태교가 중요하다고 하는지 아십니까? 모두들 잘 아시겠죠. 이론으로는 저보다도 더 잘 아실 겁니다.

하지만 생활 자체가 모두 바로 내 마음먹기에 달렸다. 애고도 내 마음먹기에 달렸다. 병고도 내 마음먹기에 달렸다. 마음먹기에 달린 일이 어디 한두 건 입니까? 그러니 한두 건이 아닌, 좔나좔나 용도가 바뀌면서 나투어서 다가오는 그 모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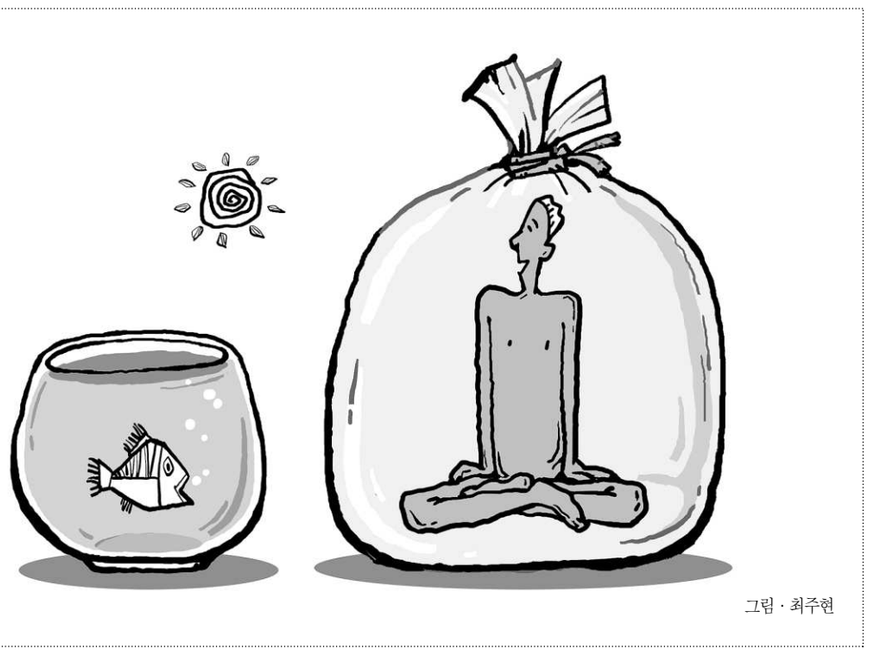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지금 현실에 나오는 것은
좋든지 나쁘든지
다 입력돼서 나오는 것이니까

니 죽겠네 살겠네 하고 야단법석이 나는 거죠. 물이 적으면 적은 대로, 또 물이 아주 없어지면 없는 대로 죽는 거고 그러니 사람과 물고기가 뭐가 다르겠습니까? 살아나가는 방도에 있어서는 말입니다.

우리 마음들이 자기를 이끌어가면서 자재하면서 모든 거를 감사하게 생각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일단 생명이 유지되니 감사해야 하고, 먹지 못하면 죽으니깐 감사해야 하고, 먹으려면 불이 있어야 하니깐 감사하고, 또 땅을 걸어다니고 땅에다 심어 먹어야 하니까 감사하고 또는 독불장군이 없이 서로 공생하고 공용하니까, 공식하니까 감사해야 하고, 그리고 부모가 길러줬으니까 감사해야 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게 뭐냐 하면, 한데 합친 자체가 바로 이름해서 부처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 따로 있고 생활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종교가 그대로 생활입니다. 도(道)도 생활이요, 바로 부처도 생활이요, 그러니 우리가 살아나가는 데 어떤 것을 나누어서 이것이 부처님 법이고 이것은 부처님 법이 아니다라고 하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다 놓으셔야 됩니다.

아침마다 자식이나 남편을 다 제쳐놓고 그냥 염불을 해야만이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염불을 할 때는 이 지구가 돌아가고 염불을 안 할 때는 안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염주가 왜 생긴 줄 아십니까? 여러분은 염주를 목에 걸고 손에 들고만 다녔지 그 염주가 쉴 사이 없이 시공을 초월해서 돌아간다는 거를 모르고 있습니다. 염주를 돌렸다 놨다, 돌렸다 놨다 한다면 그거는 시공이 끊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염주를 내면 속에 넣고 항상 우리가 생활할 때 나투면서 한 발 딛고 한 발 들고, 한 발 딛고 한 발 들고 하는 것이 그대로 염주를 돌리는 겁니다. 생활 그 자체가 그대로 진리인 까닭에 그것이 도며, 그것이 참선이며 모든 것에 어긋나지 않는 여여함입니다. 그런데 생활을 제쳐놓고 부처님 앞에, 불당에 가야만 부처님이 계시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사대 성인들이 모두 이런 말을 했죠, 너부터 알라고요. 네가 태초요, 네가 바로 부처요, 네가 있으니깐 이 자체가 모두 생긴 것이다. 세상이 벌어진 것도 너로 인해서 벌어졌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각자 여러분이 안 계시다면 모두가 없는 것입니다. 그 뜻을 잘 들으셔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아, 내가 죽어도 세상은 다 있고 사람들은 다 있는데,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마는 그게 아닙니다. 영원한 자체를 알려면 나부터 알아야 영원한 길을 상세히 알게 됩니다. 이 길이라 함은 시발점과 종점이 돌이 아닌

입력돼서 나오는 그 자리에다
다시 돌려놓는 작업을 하는 것만이
인생의 자유를 맛볼 수 있는 길입니다!

까닭에 그대로 여여함이 돼서 여래라고 한 것입니다.

이 말을 여러분이 잘 알아들으셔서 벽을 치면 붓장이 올리듯이 나는 업이 많다고 생각하지도 말고, 고(苦)가 많다고 생각하지도 말고, 나는 죄가 있어서 이렇다는 생각도 말고 모든 것을 용광로에다가 넣듯이 다 놓으십시오. 그러면 그 용광로에 놔두면은 어떻게 되느냐? 금은 금대로 생산이 돼서 나갈 것이요, 은은 은대로 생산이 돼서 나갈 것이요, 차원대로 자기가 짓는 대로 그것이 생산이 돼서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모든 것을 다 한꺼번에 나온 자리에다가 되돌려 놓는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금인 것입니다. 그러면 질문을 받겠습니다. 오늘은 질문을 많이 받기 위해서 잠깐만 말을 했습니다.

▲질문자1: 좋은 법문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두웠던 과거를 청산하고 밝은 생활을 하게 돼서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 신도분들을 대표해서 질문을 드리게 된 것을 다시 한 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마음공부를 해나가면서 걸리는 대목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대구 성서초등학교의 다섯 어린이 실종 사건이 발생한 지 벌써 일 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는 누가 죽어도 꿈에 나타난다든지 마음과 마음으로 전달이 되어 알 수 있다고 하지요. 그들의 전생은 어떠한 인연이 있었는지 몰라도 인생은 부모와 자식의 인연으로 만난 질기디 질긴 인연줄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부모의 안타까운 심정을 우리들이 만분의 일이라도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그리하여 사회적으로 이 여론이 보도되어 모든 국민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돌아오길 바라고 있으나 많은 세월이 흘러가버린 채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한마음을 내었지요. 그중에는 저와 같이 마음공부를 하는 사람도 있겠고 불법과 인연이 닿지 않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래도 천만 이상의 사람들이 마음을 내었다고 보는데 공부를 한 자나 인연 없는 중생들 역시 모두가 한마음이라고 했는데 어째서 이들의 소식은 없는지요.

이 문제를 여러 법사님들께 여쭈어보아도 뚜렷하고 시원한 대답을 들을 수가 없더군요. 큰스님 같이 위없는 법력을 가지신 분들이 마음만 내신다면 금방 찾을 수 있지 않는지요. 마음공부가 미흑한 저로서는 주인공 자리에 놓고 맡겨서 스스로 깨치게 되길 기다려야 하는데 되지를 않는군요. 제 마음이 확 뚫어지도록 시원한 답변을 바랍니다.

▲스님: 이런 게 있죠. 과거에 판사가 판결을 냈습니다. 판결을 냈는데 지금 그 판결은 과거로 돌아가고 현실에 판사가 생겼습니다. 과거에 판사가 해놓은 것은 그만한 엄연한 죄가 있기 때문에 해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현실로 도로 온 판사가 그것을 무죄로다가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와 더불어 이런 얘기를 예전에도 했죠.

예전에 못 먹고 주릴 당시에 깨밭에 깻벌레를 깡통에다 주워서 모두 오줌통에다 넣어서 죽이고, 개구리를 잡아서 구워도 먹고 삶아도 먹고, 껍데기를 산 채로 벗겨서 이렇게 모두 먹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먹고 보니까 깻벌레나 개구리나 아주 은연중에 가슴에 응어리가 맺혀서 인간으로서 그 집 자식으로서 환생을 했답니다. 그래서 아들 형제를 두었는데 어느 스님이 지나가시다 보시고 "여보시오, 이러이러하니까 내 말을 들으시오. 그 아들 둘이 서당에 갔다 오기 전에 전부 혈사로 된 망으로 둥그렇게 치고 거적을 쌓아놓고 거기다 겻불을 해놓고 그러고서 뚝 안에 들어가서 뚜껑을 덮고 지켜보시오. 그러면 악마구리로 소리를 지르면서 엄마, 엄마, 아버지, 아버지 하고 찾을 테니 그 소리가 다 끝났어도 한 두 시간 지난 후에 나와서 그 둥우리를 보시오. 둥우리를 둘을 해놓으라고 했으니 그 둥우리를 보면 알 바가 있소." 하더랍니다.

그래서 마음이 아프지만 실지로 그렇게 진행을 했답니다. 그런데 뚝 속에 들어가서 있으려니까 "아버지, 엄마! 배고파!" 하면서 들어오더니만 아, 그냥 이리저리 찾아다니고 야단법석이 났더랍니다. 야단법석이 나더니 나중에는 시간이 지나니까 "이 연놈들이 어디로 갔어? 우리를 이렇게 해서 아주 사그리 먹어치우고 어디로 갔어? 원수를 갚아야 할 텐데. 이놈들 어디로 갔어?" 하곤 그냥 펄펄 뛰면서, 시간이 넘으면 이제는 인생으로서 잠깐 환생했던 것이, 원수를 갚으려고 했던 것이

☞30면으로 계속

모든 것은 거기에다 되돌려놔야

☞29면에서 계속

없어질 텐데, 이 시간이 넘으면 안 될 텐데, 이놈들 어디로 갔느냐고 그냥 펄펄 뛰더랍니다. 그리고는 엉엉 울면서 펄펄 뛰는데 그 소리가 점점점 작아지면서 "할 수 없다. 할 수 없어. 세상에 원수 갚기도 이렇게 어렵구나!" 하면서 소리가 잦아지더랍니다.

그래 떨리고 무서워서 독 속에서 서너 시간 있다 나와 보니까 하나는 깻벌레고 하나는 개구리고 그냥 얼기설기한 그 쇠에 붙어서 죽어가면서 꿈틀거리는데 자기가 죽인 만큼 수효가 그렇게 많더랍니다. 그 쇠에 꽉 찼더랍니다. 한 바가지씩 잡아다가 그렇게 했으니 얼마나 많겠습니까? 물론 그때 그 세월이 그래서 그랬지 사람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았죠. 그렇게 해서 나와 보니까 너무나 떨리고 어처구니가 없었죠. 그래서 세상에는 하나도 내 생명 아닌 게 없고 어떤 생명이든지 이제는 죽이지 말아야겠다고 다짐하고 부부는 절간으로 올라가서 자식들이 그렇게 원수로 태어난 것을 빌어주면서 그 개구리나 깻벌레가 인도환생을 해서 잘 살게 천도를 해달라고 공양주 노릇을 하고 부목 노릇을 하면서 일생을 보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 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수만 마리를 잡아먹었다 하더라도 그 자리에다 되놓을 수 있다면 그것은 잡아먹은 사이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 거기다가 놓으니까 바로 내가 되는 것입니다. 만 마리가 바로 원자에서 입자가 났다가 입자가 원자로 들면은 하나가 되고, 이런 거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수없이 많은 빗방울이 떨어졌어도 골짜기로 해서 바다로 들어가고 바다에 떨어지는 물이 그렇게 수효가 많아도 바다는 바다입니다. 그와 같이 모든 것은 진정코 제자리에다 되놔야만이 인도환생을 하면서 천도가 되면서, 자기 업보가 없어지면서 그 모두가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질문자1: 스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두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부산 KBS홀에서 뵙고 오늘 두번째로 친견할 수 있는 영광을 얻어 감사, 또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여러 대중 앞에 시간을 허비할 수 없어 이렇게 질문을 올립니다.

저는 초등학교 현직 교사입니다. 자주는 못 듣지만 기회 나는 대로 큰스님들의 법문을 통해 나의 전생을 알려면 현세의 나를 볼 것이며, 내세의 나를 보려면 현세의 나를 보라는 말씀을 듣곤 합니다. 그런데 저는 항상 허리와 다리가 아파서 고통을 겪고 있으면서 전생에 제가 어떤 업으로 이러한 고통을 겪으며 왜 해결이 안 되는지 여쭈며, 내세에 또 다시 이런 고통을 겪지 않으려면 어떻게 마음을 비워야 하는지…. 죄송합니다. 좋은 법문 주시기 바랍니다.

▲스님: 여지껏 말씀드린 게 바로 그 얘기입니다.

▲질문자1: 예.

▲스님: 그래서 '공(空)이다 색(色)이다 하는 게 둘이 아닌 까닭이니라. 병 붙을 자리도 없고 업보가 붙을 자리도 없을 뿐만 아니라 애고가 붙을 자리도 없느니라. 모두가 찰나찰나 화해서 돌아가는 까닭이니라.' 이렇게 반야심경에도 있습니다. 그렇듯이 모든 것은 여러분의 관습에 의해서, 습에 의해서 '나는 이런 병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까닭입니다. 또 인간이라면 업보가 있다, 없다에서 판단이 내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병이 있다 없다를 떠나서 모두 '네 몸뚱이 네가 건강하게 해서 심부름하게끔 끌고가려무나.' 하면 됩니다. 건강하게 하는 것도 몸과 정신과 마음내는 거와 법이 둘이 아닌 까닭입니다. 그것이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부처와 법신과 화신이 둘이 아닙니다. 다 그렇기 때문에 '네 몸뚱이, 네 시자를 네가 건강하게 해서 끌고 다녀야지 누가 건강하게 해서 끌고 다녀?' 하고 거기다가 바로 놓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군데서 나오는 거 한군데다 놔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까닭이 있습니다.

유마힐거사는 문수보살이 병문안을 갔을 때 "나는 중생들이 다 나아야 내 병이 낫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내 몸인 이 소 우주 소 혹성한테서 발견을 해보십시오. 내 몸뚱이 속에 수십억의 중생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중생들이 누구이겠습니까? 즉 자기입니다. 중생과 부처가 둘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자기 마음과 자기 몸뚱이 속에 들은 거와 자기 몸뚱이를 죄 다르게 보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입니다. 한 몸뚱이입니다. 장 공장에서 파워를 일으키면 전체 공장이 쓰러집니다. 전체 공장이 쓰러지면 사람이 쓰러지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질문자1: 예.

▲스님: 그렇기 때문에 '한마음 주인공' 하면 색(色)과 공(空)이 둘이 아닌 그 모두를 한꺼번에 바로 놓는 거나 마찬가집니다. 이 모든 것은 되돌려 놓는 거기에서만이 나를 이끌어줄 수 있고 거기서만이, 네 몸뚱이 네가 고쳐서 건강하게 끌고 갈 수 있는 거는 거기다 하는 그 믿음이 없으면 그렇게 놓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놓을 수가 없고 물러섭니다. '이거 왜 이래? 이런 게 뭐 어디 있어?' 하고 물러서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다면 절대로 물러서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진짜로 믿고 거기에 다 놓을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병도 거기서 나온 거니까 네 몸뚱이 네가 안 아프게 해서 끌고 다녀라.' 하고 놓는다면 아마 체험을 하실 겁니다. 그렇게 놓고 지켜보고 체험하는 것이 참선입니다. 내가 그전에도 말했지만 와선이니, 좌선이니, 행선이니, 입선이니 하는 것이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라 생활 자체가 그냥 참선입니다. 그렇게 돌려서 한군데서 나오는 거 한군데다 돌려놓고 지켜보고 체험하는 것이 참선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질문자1: 감사합니다. 스님.

▲스님: 그러면 몸도 건강해질 거고 얼마나 좋습니까? 모든 게 다 좋죠.

네가 태초요 네가 바로 부처요

네가 있으니까

이 지체가 모두 생긴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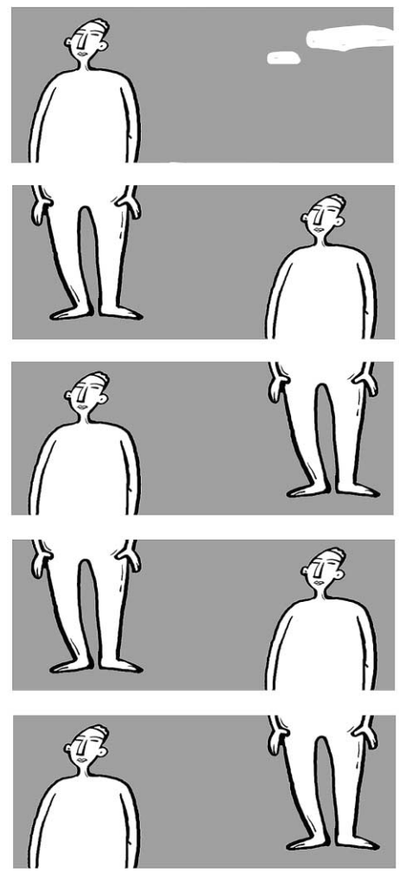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질문자1: 세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질문은 제가 관(觀)하는 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제 나름대로 느낀 것을 질문드리는 겁니다. 주인공을 믿고 계속 관을 하다 보니까 물론 몸에 병이라든지 어려운 일이 해결되는 예는 저로서는 수차 경험을 했습니다. 그것이 지나고 나서 제 마음 상태가 항상 욕심을 내는지, 화를 내는지, 미워하는 마음을 내는지, 내가 어리석은 생각을 내고 있는지를 거의 알게 되더군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경계이기 때문에 이 미혹한 경계에 빠지지 않도록 항상 마음을 밝은 쪽으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기가 마음 상태를 밝은 상황으로 끌고 가면서 나쁜 삿된 길로 가지 않게 올바로 끌고 가는 것이 주인공을 관해서 견성하여 올바로 가는 수행법인지 한번 알고 싶습니다.

▲스님: '내가 끊어지지 않게 잘 놔야지.' 하는 것까지도 거기 놔야 합니다.

▲질문자1: 감사합니다.

▲스님: 한마디로 말해서 진짜로 믿는다면, 이걸 놓는다 안 놓는다, 뭐 안되는 것도 끊어진다 안 끊어진다도 붙지 않습니다. 24시간 생각이 안 났었어도 끊어진 게 아닙니다. 진짜로 믿는다면 말입니다. 한 달 후에 생각이 났다 하더라도 끊어지지 않은 겁니다. 그거는 마음과 마음이 삼천 년 전 마음이나 지금 마음이나 둘이 아닌 까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탄지탄 끊어뜨리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이거를 붙들고 극매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게 극매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대로 믿고 그대로 제자리에다 돌려놓는 공부, 또는 제자리에다 놓되 앉으나 서나 생각나면 거기다 돌려놓고 감사하게 생각하는 거, 안되면 '안되는 것도 거기서 나오는 거니깐 되게 하는 것도 거기지.' 하고 거기다 돌려놓는 법, 또는 견성을 했다 하더라도 나를 발견하고 나서가 더 어렵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때부터 공부이기 때문입니다.

둘 아닌 도리를 공부하려면 이것저것이 전부 나타납니다. 말이 들리기도 하고 보이기도 하고, 온통 안에서 일어나고 바깥에서 들어오고 하는 그 경계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둘이 아닌 도리를 알게끔 가르치기 위해서 나를 테스트해보려고 하는 건데, 어떻게 생각을 하고 어떻게 행동을 하나 그걸 보느라고 그렇게 나오고 보이고 '나는 아무개다.' 하고 보이기도 하고 들리기도 하는 거를 속아서 안 됩니다. 그것마저도 제자리에다가 다시 돌려놓는 그런 작업이 필요합니다.

▲질문자1: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호에 이어집니다)

※위 법문은 대행스님 법어집 『한마음』의 내용 중에서 62호를 발췌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나 한마음선원)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한가지 소원을 꼭 이루는
삼사순례 및 방생도량
귀의 삼보하옵고,
해수관음도량인 **해동용궁사**는 앞은 푸른 바다요, 뒤는 산으로 **삼사순례**나 **방생법회** 하는데 가장 좋은 곳으로 유명합니다.
전국의 佛子님께서는 甲申년 새해를 맞이하여 해동용궁사에 오셔서 많은 공덕을 성취 하시기 바랍니다.

◀ 대형 주차장 완비
◀ 입장료 무료
◀ 점심공양 가능
◀ 방생물 배달해 드림
www.yongkungsa.or.kr
한가지 소원을 꼭 이루는
해동용궁사
전화: 051) 722-7744,7755

당하당뇨
당뇨 한방과 미네랄로 혈당 잡는다.
한방과 천연이온 알칼리 미네랄복합체로 제조된 "하당" 신제품의 자신만만한 행사 !!
"하당" 1개월분을 구입하신 고객님께
당뇨 혈당 측정기(1Set)를 무료로 드립니다.
"당뇨 아는만큼 치료할 수 있다"(책자)도 무료로 드립니다.
(선착순 전국 1,000명)
☞ 인슐린 분비촉진, 만성피로
☞ 복용 1달부터 혈당 떨어져 당뇨에 효과
※ 복용후 효과 없을시 100% 환불
- 이온성 알카리 미네랄 복합체의 기타 질환에 대한 효과 -
대사성질환자(고혈압, 갱년기종합증세, 류마티스, 신장병, 간염, 간경화, 기관지염, 신경쇠약, 백내장, 관상동맥경화증, 협심증, 심근경색, 심장쇠약, 동맥경화, 뇌혈관질환, 어드름, 건선, 백반증, 백혈병, 비염, 구강궤양, 치조농루, 심근병 변비 등) 한방의 처방전과 같이 복용하면 효과가 극대화
계좌번호 : 국민은행 084-21-0800-172(예금주 : 안희숙)
천연원료로 안전성을 입증한 한방 생인당 특판부
주문 및 상담전화 : 080-521-6666

관절염
자생환(自生丸)
관절염 류마티스 초기 퇴행성관절염 혈액순환장애 디스크 → 약간의 활동이나 계단을 오르내릴 때 무릎이 쑤시고 저리는 경우 자생환(自生丸)을 복용후 1개월부터는 확실한 효과가 나타남
선천성 냉체 신후바람 낭습진 → 자생환(自生丸)을 2-3주만 복용해도 효과가 나타남
자생환(自生丸)의 뛰어난 효과 때문에 입에서 입으로 소개되어 많은 고객으로부터 주문 및 문의가 쇄도
▶주의사항 - 심장질환자, 폐질환자, 임산부 음주전후에 복용금지
관절염은 참 견디기 힘든 병입니다.
뼈마디의 통증은 통증대로, 약을 먹으면 위장장애 때문에 이중으로 고생을 합니다.
자생환으로 근본적인 치료를 해보세요
상태가 심한 분은 3개월 이상 복용해야 합니다.
1개월분 ₩180,000
2개월분 ₩320,000
발명자 : 민속의학자 권재우 옹(경남 산청)
주문 및 상담전화 (055)972-4054
한방을 선도하는 기업
骨仁製藥(株)


복령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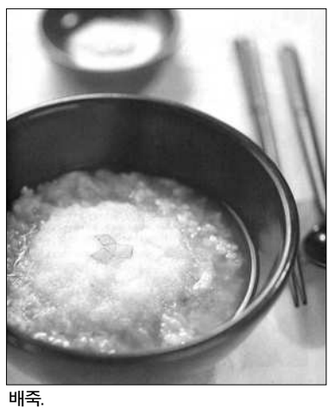

맥문동죽.

'죽'의 공덕아느냐!

웰빙 바람을 타고 '죽'이 인기를 끌고 있다. 아픈 속의 허기를 메우기 위한 '대용식'의 이미지를 털어내고 당당한 '한끼 식사'로 식객들의 발을 잡아끄는 것이다. 이유는? 당연히 건강 때문이다. 옛말에서도 '오래 된 병은 죽으로 고친다', '나쁜 운을 타고 태어났으면 죽으로 그 운을 고쳐라'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효험있는 치유음식으로 꼽히는 것이 바로 죽이다.

불가에서도 마찬가지다. 죽은 단식수행, 면벽참선 등의 용맹정진 뒤에 늘상 따라붙는 불가의 대표적인 음식이다. <사분율>에는 죽을 먹는 5가지 공덕이 언급돼 있으며, 불교사에 획을 그은 고승들의 건강 뒤에도 어김없이 '죽'의 공덕이 숨어있다.

선사들의 건강을 지킨 종류별 죽 이야기를 통해 불교적 웰빙 키워드를 읽어보자.


배죽.

스님들 건강 지키는 불가 대표 음식
웰빙 코드에 맞춘 대용식으로 각광

▽연밥죽=고혈압 · 불면증에 효과

한번 정진삼매에 들면 돌부처라도 된 듯 자리를 뜰 줄 몰랐던 효봉 스님. 스님의 식사는 한 끼 죽이 전부였다. 1년 6개월간 토굴에서 방석만으로 견딘 스님이었지만 연밥을 넣고 지성으로 끓인 '연밥죽' 한 끼 외에는 별다른 공양이 필요치 않았다고 한다.

연밥은 연꽃의 열매로 맛은 쓰지만 고혈압, 불면 등에 치료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껍질을 벗긴 연밥을 현미찹쌀과 함께 솥에 넣고 끓이다가 약한 불로 천천히 달인 후, 갈아낸 연밥을 섞고 다시 끓인다.

▽녹두죽=땀띠 · 갈증 해소에 탁월

통도사가 배출한 유명한 고승 경봉 스님. 일제 치하 왜경들에게 모함을 받고 옥살이를 거듭하던 스님이 심신의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 즐겨드셨던 음식은 바로 '녹두죽'이다. <본초비유>에서는 "열을 없애고 독을 풀어주며 설사에 이로운 것이 녹두"라고 밝히고 있다. 땀띠와 여드름 치료와 갈증해소에도 좋은 음식으로 꼽힌다. 녹두 삶은 윗물만 따라내어 현미 찹쌀과 함께 끓인 후, 쌀알이 푹 퍼지면 녹두앙금을 넣어 다시 끓이면 된다.

▽잣죽=각종 종기 · 빈혈 증세 완화

불교경전의 최고봉인 <화엄경>을 통달한 당대 최고의 대강백 탄허 스님. 선식에 대한 조예가 깊었던 스님은 잣죽을 즐겼다고 한다. 덕분에 오대산의 많은 수좌 스님들에게 잣은 더할 나위없는 건강식품이었다.

실제로 잣은 고혈압, 빈혈, 각종 종기의 치유에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모든 풍병을 다스리고 위장을 튼튼하게 한다. 충분히 불린 현미찹쌀을 센 불에 팔팔 끓이다가 불을 줄여가며 서서히 달인다. 죽이 거의 다 되면 잣가루를 넣고 조금 더 끓이고, 먹을 때는 소금을 약간 섞는다.

▽ 복령죽=직장인 · 수험생에 도움

8년의 세월 동안 장좌불와를 실천한 '철수좌' 성철 스님. 스님은 12시 전에는 반드시 죽식을 했고 콩죽 · 송이버섯죽 · 밤죽 · 땅콩죽 · 오미자죽 등 다양한 죽을 깨끗이 비우셨다고 한다.

복령은 소나무를 벌채한 후 3~8년 사이에 뿌리를 중심으로 기생하는 곰팡이로, 오장육부의 건강에 두루 기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머리를 맑게 하고 다리의 힘을 튼튼하게 해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직장인 · 수험생 건강에 특히 좋다. 복령의 검은 피를 벗겨 가루를 내고 이를 현미찹쌀죽에 넣어 다시 한번 끓인다.

▽팥죽=변비 · 신장병에 이로와

금정산 범어사 조실 동산 스님은 새벽 4시 예불이 끝나면 청풍당 선방에서 대중들과 함께 죽을 드셨다고 한다. 본래 절에서는 <법화경> 강독을 마치고 나면 전통적으로 팥죽을 먹기도 하는데, 동산 스님은 특히 팥죽을 즐겼다고 전해진다.

팥은 빈혈과 변비, 각기병과 신장병 등에 이로운 음식이다. 팥을 깨끗이 씻어 삶고 팥물을 걸러둔다. 팥물의 앙금이 가라앉으면 웃물만 따라내어 끓이다가 불린 쌀을 넣고 죽을 쑨다.

강신재 기자 thatiswhy@buddhapia.com

참고자료:정세채<산사에 가면 특별한 식단이 있다>(오색), 법선 · 문미화<풍경소리로 여는 산사의 아침>(오늘의 책)

KBS, MBC, SBS, EBS 각종 언론에 방영된
인생역전 김재덕 역학교육원
실력있는 역학인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모집과정 : 수시모집
강 의 : 주 2회(화,수요일)
사주통변이 부족하신 분, 책을 보고 독학하신 분
사주통변이 자신 없는 분
사주통변 및 작명법, 인연법 : 김재덕선생
관상학 (특강 월2회 화요일) : 신기원선생
신청문의 02)567-4833
011-9702-2237

"입은 가피, 갚아 나갈뿐"

우리 가족 이렇게 신행해요 <15>

황인보 보살네

1만 5000원짜리 사글세에 살면서도 희망을 잃지 않았다. 주인집에서 문을 닫아버리면 화장실도 뜻대로 갈 수 없어 끙끙 앓곤 했었지만, 황인보(55) 보살은 '인욕 바라밀'로 맞섰다. 그리고 주위를 돌아봤다. 더 어려운 이웃, 도움이 절실한 누군가가 그를 부르는 것 같았다. 파주지역에 둥지를 튼 황 보살의 '군포교' 행진은 그렇게 시작됐다.

"아들내미 같은 장병들이 타지에서 고생하는 모습을 보곤 어떻게든 도와야겠고, 또 도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포교사 고시에 붙으면서 '군포교팀'을 지원하게 된 것도 같은 이유죠."

"남편이 아니었더라면 몇 번 못가서 포기하고 말았을 거예요. 군법당까지 포교사들을 태워 나르는 것은 물론이고 포교의 방식 등을 모니터링해주며 방향을 이끌어주는 도반이 바로 남편이랍니다."

남편 이윤종(58) 거사와 함께 딸 경해(29) 양과 아들 도해(27) 군도 황 보살의 든든한 후원자다. 틈나는 대로 군법당 법회 도우미를 자처하고 크고 작은 자원봉사 활동에 소리없이 참여해 어머니의 보살행을 잇고 있다. 이 거사의 경우 회사 직원들에게 전법(傳法)은 물론 보살행이란 '행복 바이러스'까지 전파하


군포교에 있어 둘이 아닌 하나라는 이윤종 · 황인보 부부.

포교사 고시 합격하며 지역 군포교에 앞장
남편의 모니터링, 아들 딸 도우미 자처 큰 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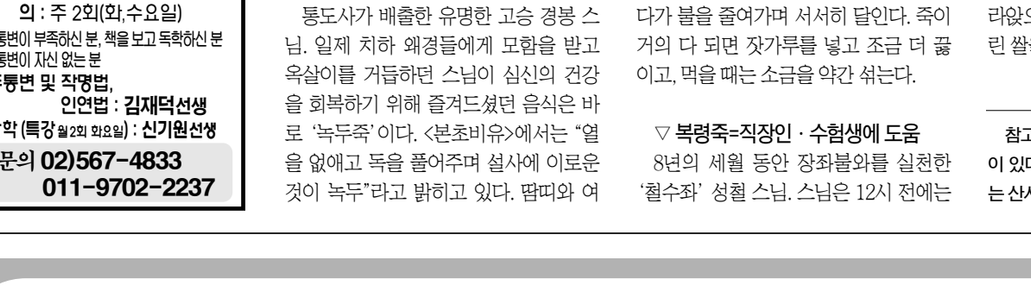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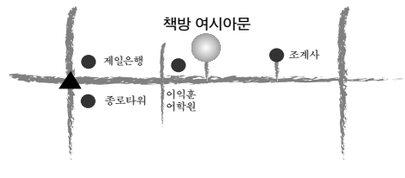
군포교팀 10팀장을 맡고 있는 황 보살의 왕성한 포교활동은 포교사들 사이에서도 정평이 나있다. 거의 모든 활동을 개인 비용으로 막아내는 군법당 포교에 꾸준히 매진하기란 쉽지 않은 노릇. 황 보살은 초기에 세운 원력을 그대로 품고서 이미 4년째 군법당 포교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장병들을 위해 <관세음보살 보문품>108사경을 거뜬히 해치우는 한편, 군법회가 있는 날마다 양질의 불서를 한 권씩 사들고 와서 부처님 법을 살뜰히 챙긴 법우들을 격려한다. 계급장 밑에 노란 딱지가 붙어있는 '100일도 채 안 된 신참'을 보면 아직도 눈물을 펑펑 쏟곤 한다는 보살은 '부처의 딸'이라는 별호를 얻었을 정도란다.

며 불국토 건설에 적극 나서고 있단다.

교리공부와 수행정진 역시 황 보살 가족의 빠트릴 수 없는 화두다. 황 보살은 이 거사와 함께 파주 보광사에서 매주 토요일 '금강경' 삼매에 빠진 이래 조계사 불교대학과 법련사 불교 전문강당 교리공부에 참석하며 불심을 키워왔다. 백양사 조실 서옹 스님께 '이뭣꼬' 화두를 받았다는 황 보살은 수선회 선방에서 네번째 안거를 맞이할 정도로 수행정진에 대한 열의 또한 각별하다. 그래도 진정한 포교사가 되려면 아직도 가야할 길이 멀다는 황 보살.

"수많은 스님들을 비롯해 파주 보광사 식구들, 조계사 불교대학 43학번 동문들께 입은 은혜를 장병들에게 하나하나 갚아나갈 뿐이에요." 강신재 기자

불교서적의 요람으로 불자들과 함께한 10년! 여시아문은 여러분의 개인 법당입니다.
Hot!
국내 모든 불서를
전국 어디서나 인터넷 주문으로
빠르게 받아본다!

불교서적 전문서점인 '여시아문'은 1994년 8월 24일 전문매장을 오픈하였으며 첨단시대에 발맞추어 2000년 10월 1일부터 온라인 여시아문을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약 30,000여 종의 불교서적 타이틀 약 80,000여 권을 구비하여 불자님들이 필요로 하는 불교정보를 제공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주)현대불교신문사의 출판부와 불교서적센터를 운영하여 도서출판 및 도서관리 그리고 도서유통까지 통합업무 운영을 통해 올바른 부처님 말씀을 전달하는데 일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불교의 기초부터, 선지식 이야기까지!
대한민국 대표 불교서점 '여시아문'과 만나십시오
"여시아문 책방은 불교책으로 장엄된 장경각과 같은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넓은 공간으로 책 구하기가 편리하고 모든 정보가 전산처리 되어 편리하지요. 특히 장서의 진열도 출간연대별로 구분돼 있어 나온 지 오래된 희귀본도 만날 수 있더라구요."
불교TV 큰스님과의 대담 프로그램 '뜰앞의 잣나무' 진행자였던 중진 판화가 황남채씨는 여시아문을 사랑하는 단골 고객의 한 사람이다.
교계 신문에 나온 '불서 베스트 셀러' 집계를 참고로 여시아문 매장에서 직접 책을 보면서 고르고 있다는 황씨는 불서 뿐만 아니라 관심있는 미술, 여행, 건강 분야의 책들도 즐겨 구입하고 있다고 밝혔다.
- 황남채씨 (판화가)
▶ 책방 여시아문 약도


대한민국 대표 불교서점 책방 여시아문
여시아문은 여러분의 개인 법당입니다.
인터넷 도서주문 yosiamun.com
Tel : 02)737-0695 Fax : 02)737-0696 <법공양 상담합니다>

사찰생태연구소·현대불교신문이 함께하는
108사찰 생태기행
(26) 청양 장곡사

산과 절의 호흡코드 '재활용'

판벽돌 깔린 상대웅전 내부 고려 사찰의 전형

자연·전각과 조화 이룬 찻집 생태 건축의 모범

온대 중·남부 식생 보이나 인공림 넓어 매력 떨어져

청양 칠갑산은 안성 칠장산에서 갈라져 내려온 금북정맥 한가운데 자리한다. 계룡산·가야산과 함께 충남의 3산인 칠갑산이 그 한가운데 해발 560미터로 솟아있다. 칠갑산은 명산치고는 낮은 축에 들지만, 생태적으로는 큰 산에 든다.

칠갑산을 몸으로 느끼려면 서해안고속도로보다 경부고속도로를 이용해 공주 쪽에서 들어가는 것이 낫다. 그것도 한치터널을 버리고 한치고개를 굽이굽이 돌아야 제 맛이다.

칠장산 장곡사에서 내려오는 계류는 실낱같다. 계류 주변에는 왕버들, 자귀나무, 느티나무, 산딸나무, 사시나무, 칡 등이 어우러져 있고, 비탈에는 군데군데 소나무가 보인다.

장곡사가 앉은 자리는 칠갑산의 서사면이다. 395봉과 316봉 사이의 송골에 자리잡고있다. 골짜기가 좁아서 전각들이 모두 비탈의 석단 위에 앉아있다.

장곡사 가람배치는 하대웅전 영역, 상대웅전 영역, 삼성각 영역 등 세 구역으로 나누어진다. 경내에 들어서면 먼저 하대웅전을 만난다.


장곡사 전경.

장곡사를 '대웅전을 둘 가진 절'이라고 하지만, 그건 별로 의미가 없다. 전각에 내걸린 현판만 같을 뿐, 두 대웅전에 모셔진 부처님은 각기 다르다. 하대웅전은 약사보살을 모신 '약사전'이요, 상대웅전은 비로자나불을 보신 '대적광전'이다.

장곡사는 요즘 운학루를 해체 복원하는 공사로 조금은 분다하다. 운학루에서 조금 비켜선 범종루에는 그 옛날 대중들의 공양밥을 퍼 담던 큰 구유가 놓여있다. 일부 자료에는 비자나무로 만들었다지만, 나무결을 보면 영락없는 느티나무다.

범종각에는 코끼리 가죽으로 만들었다는 큰 법고가 있다. 모과처럼 울퉁불퉁해서 자연미가 돋보이는 법고다. 앞뒤로 여기저기 찢어져서 세월을 느끼게 하는 고물(古物)이다. 그것을 버리지 않고 여태껏 모셔온 대중들의 뜻이 고맙다.

장곡사 전각들은 찻집을 빼고는 맞배지붕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그 중에서 설선당은 익량을 달아서 파격(破格)이 주는 눈 맛이 예사롭지 않다.

하대웅전에서 상대웅전으로 가는 계단 왼편으로 텃밭이 있다. 운학루 불사 과정에서 나온 톱밥 등을 밭에 뿌려 놓았다. 썩으면 좋은 거름이 될 터이다. 작은 일이지만, 자연환경을 위한 배려와 관심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다. 예전 같았으면 해우소 매질(媒質)로도 요긴하게 쓰였을 톱밥이다.

계단 주변의 화단은 차라리 풀밭에 가깝다. 엉겅퀴, 컴프리, 옥잠화, 맨드라미, 개망초, 머위, 금잔화, 고들빼기, 메꽃 등등이 풀밭 속에서 저대로 피고 진다.

풀밭 위로 노랑띠잠자리들이 쉴 틈 없이 날아다닌다. 장곡사 경내에는 네발나비, 여덟팔나비, 호랑나비, 긴꼬리제비나비 등등 몇 종류의 나비들이 눈에 띈다. 이 나비들은 반드시 경내에 피어있는 꽃들을 탐해서만 찾아오는 것은 아니다. 냉혈동물인 나비들은 수시로 햇볕으로 나와서 자신의 몸을 데워야 하기 때문이다.

최근 칠갑산에서 특산종인 유리창나비와 희귀종인 쌍꼬리부전나비를 비롯하여 일본에서만 보고된 쥐색매미나방, 제주태극나방 등이 최근 새롭게 채집되었다.

칠갑산은 변변한 암봉 하나 없는 전형적인 육산이다. 그러나 상대웅전 뒤로 돌아가면 가슴에 품고 있던 내밀한 암반을 어미의 젖가슴처럼 열어 보인다. 상대웅전은 그 가슴팍을 가리운 전각이다.

상대웅전 내부는 네모난 판벽돌이 깔려있다. 따로 신앙적인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불교 도래 이후 고려 때까지 사찰의 전각 내부 바닥은 판벽돌이 주류를 이루었다. 그러다가 대웅전이 설법 중심의 건물인 법당으로 용도가 바뀌면서 사람들이 들어가 앉을 수 있도록 마루를 깔게 된 것이다.

상대웅전에서 삼성각으로 내려가는 계단 좌우에 자주달개비를 심어놓았다. 자주달개비는 오래 전에 미국에서 들어온 원예식물이지만, 내한성과 지질 적응력이 강하여 사찰에서도 많이 심는 원예종이다.

계단 옆에 늘씬하게 생긴 느티나무 한 그루가 시원한 그늘을 부처님께 공양하고 있다. 수령이 8백년을 넘은 노거수다. 사찰에는 아직도 노거수들이 많이 남아있다. 그러나 수백년 된 나무들을 함부로 베어내서 언론의 질타를 받는 등 최근 들어 절에서 노거수를 함부로 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총무원에서 관리대장이라도 만들어서 기록으로 남겨두면 좋을 것이다.

삼성각 주변에는 늙은 소나무들이 굴참나무와 함께 그윽하게 어울려 있다. 나이가 들기 전까지는 아웅다웅 싸우다가도 나이가 들면 저렇게들 점잖게 제자리를 지키고 있다. 특히 노송은 그 어느 나무보다 산신각에 잘 어울리는 나무이다.

장곡사 찻집은 근래 사찰 경내에 우후죽순으로 들어서고 있는, 국적미상의 찻집들과 비교했을 때 매우 전통적인 아치(雅致)를 보여주고 있다. 우선, 찻집 건물이 주위의 전각이나 자연과 조화를 잘 이루고, 흔한 통유리 대신 전통 사찰문창호를 두고, 서구식 테이블이 아닌 앉은뱅이 다탁을 놓고, 절에서 나온 폐기와나 폐자재 등을 재활용해 도구나 소품을 만들고, 인테리어의 주제를 '불교'에서 찾아낸 점 등이 무엇보다 고맙고 이쁘게 보인다.

칠갑산 야생화는 환경부 지정 보호야생 식물인 천마(제15호)와 미나리 아재비과인 산작약(제26호)을 비롯해 털잔대, 흰여로, 참줄바꽃, 은방울꽃, 매발톱꽃, 금낭화, 금새우란, 심초롱, 개미취, 앵초 등 다양한 종류가 서식하고 있다.

칠갑산은 온대 중부와 남부가 만나는 지역인 관계로 두 지역의 식생을 두루 보여주고 있다. 칠갑산의 숲을 3등분했을 때 아래쪽에는 떡갈나무, 굴피나무, 백동백나무, 장구밥나무 등이 많이 보이고, 장곡사 위쪽으로는 굴참나무, 상수리, 까치박달, 갈참나무, 층층나무, 느티나무, 고로쇠나무, 팽나무 등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해발 5백 미터 이상에서는 굴참나무, 굴피나무, 산철쭉 등이 주종이다.

1973년 도립공원으로 지정된 이후 인근 지역의 산림보다 많이 건강해졌다는 평을 받는다. 그러나 인공림이 차지하는 면적이 상대적으로 넓어서 식생적 매력은 적은 편이다.

http://cafe.daum.net/templeeco

글·사진=김재일(사찰생태연구소장)







상사화·거위벌레·자주달개비(위로 부터).

